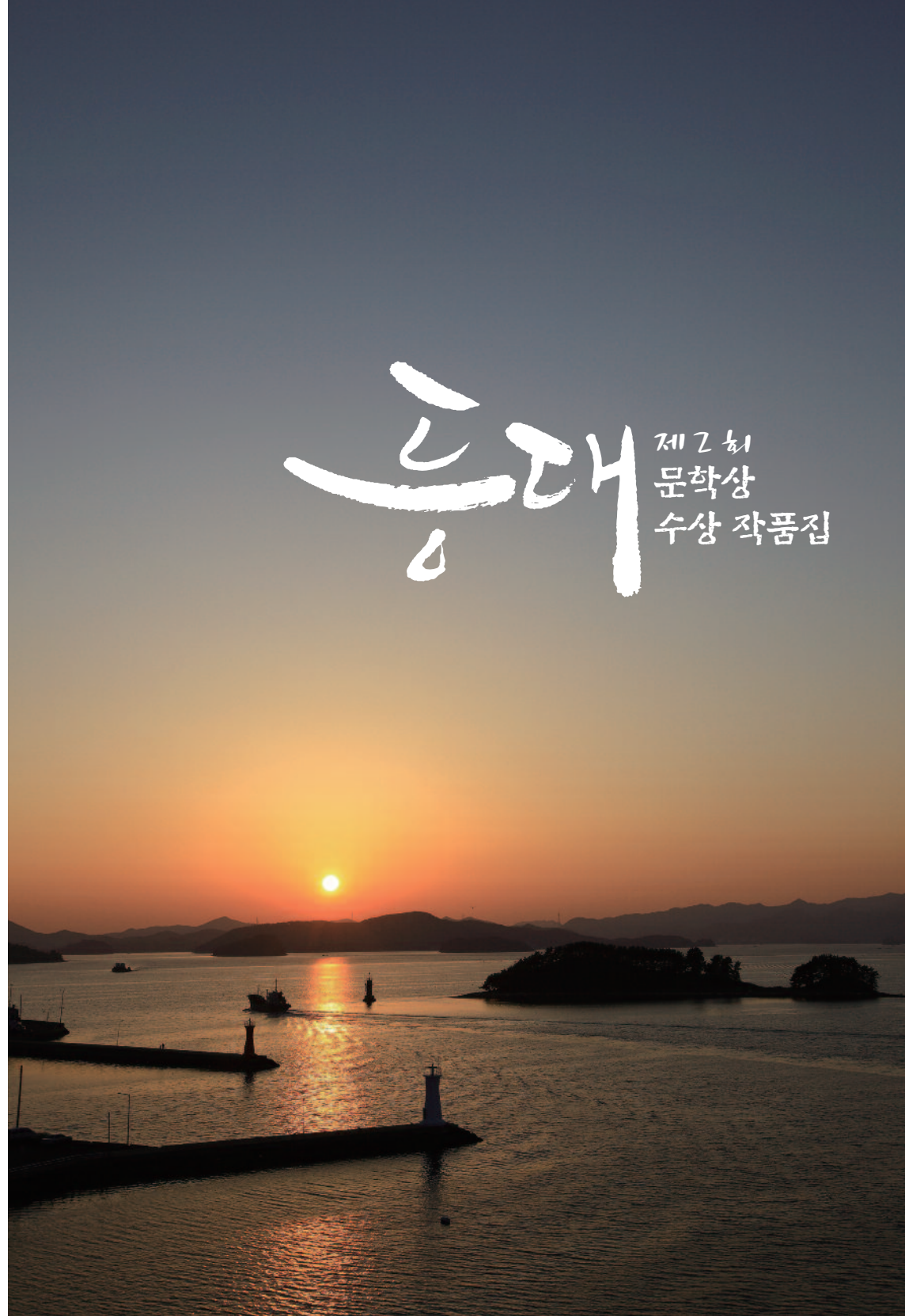




# 등대

제2회  
문학상  
수상 작품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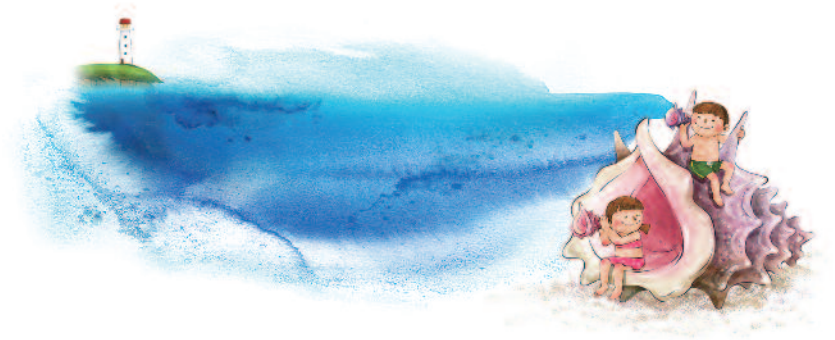




## Contents

<b>인사말</b>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	6
<b>심사평</b>	(시/시조)김년균, (소설)이광복, (수필)정목일 .....	8
<b>대 상</b>	소설 양진영 얼음 등대 .....	14
<b>최우수상</b>	시 한승엽 등대의 재발견 .....	32
	수필 이동열 희망의 등대 .....	34
<b>우수상</b>	시 김미숙 책 읽는 등대 .....	40
	소설 김성준 등대의 노래 .....	42
	수필 김형옥 어머니와 등대 .....	58
<b>가 작</b>	시 김완수 등탑에 오르면 .....	64
	김창석 등대의 염원 .....	65
	서상규 청사포의 쌍둥이 등대 .....	66
	심금섭 내 오랜 습관, 야행 .....	67
	우동식 등대의 사랑 법 .....	68
	이동우 아버지의 등대 .....	69
	이타린 구멍 도대불 .....	71
	장인수 등대의 시원 .....	72
	정연희 하얀 등대섬 .....	73
	최선옥 바다 우체국 .....	74
	소설 김경순 밤배의 고향 .....	78
	김은혜 비늘 .....	101
	김학규 하얀 등대의 꿈 .....	114

문호성	물마루 위에서 .....	130
박슬기	등대(남자의 이야기) .....	148
서혜린	그 애 .....	159
신상현	나였던 그 아이는 어디에 있는가? ....	179
안병기	머구리 .....	199
최석규	등대섬 .....	215
수필 김유석	등대쪽으로 .....	236
김현주	엄마의 밤바다, 그리고 등대 .....	240
박원종	속초 등대의 추억 .....	244
서상호	해맞이 언덕 .....	247
서은정	등대, 너 거기 있었니? .....	251
유진선	꿈을 비추는 등대 .....	255
이정혜	그대, 등대로 오라 .....	258
이 서	나의 등대 .....	261
하요아	벧길의 집 .....	265
황숙이	무산소리 .....	268





##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담아...

“얼어붙은 달그림자 물결 위에 차고...  
한겨울의 거센 파도 모으는 작은 섬...  
생각하라 저 등대를 지키는 사람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항상 들어도 애잔함과 감동을 가져오는 시인 고은님의 ‘등대지기’...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사랑의 불빛을 내뿜어, 거센 파도를 맞아 힘겹게  
항해하는 선박들의 희망이 되어주는 등대...

금번 제2회 등대문학상 공모전의 주제는 ‘등대’였습니다. 등대 한가지만을  
소재로 공모전을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정말 힘든 나날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과욕으로  
인해 갑자기 닥쳐오는 재난과 사고, 소통부재와 자아상실에 따른 각종 사건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나 자신이 제정신으로 살아  
가고 있는 것조차 신기할 정도로 세상의 소용돌이는 우리를 휘감아 몰아치고  
있습니다.

힘난한 세상의 바다에서 살아남아 올바르게 인생을 향해해나가기 위해서는  
등대와 같은 매개체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에 등대의 희망과 사랑  
메시지가 가득 담긴 동 공모전의 문학작품들은 공감과 재미, 그리고 감동을  
넘어서 지쳐버린 우리의 마음을 치유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새로운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인생의 길잡이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번 공모전의 성공적 개최와 수상 작품집 발간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한국문인협회, 울산문인협회, 향로표지기술협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관계기관의 참여와 관심 속에  
동 공모전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수상자 여러분들께는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아깝게 당선되지 못하신  
분들께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훌륭한 작품을 공정하게 선별하여  
주신 심사위원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본 작품집이 독자들에게 다시 한 번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메신저가  
되기를 바라며,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작품에 담아 이번 공모전에  
응모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2월 1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정수철





## 시 - 등대의 의미를 새롭게 천착하다

등대문학상은 주제를 '등대'로 정해놓은 상이다.

'등대'는 희망과 구원의 상징이기도 하다. 등대는 캄캄한 밤에, 망망대해를 향해 저 홀로 불을 켜고 누군가를 기다린다. 현실적으로 보면 '등대'는 바다에서 길 잃고 떠도는 배를 안내하는 신호등일 수 있지만, 이상적 관점에서 본다면 고달픈 삶의 길을 안내하는 이정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복합적 의미를 지닌 까닭에 그동안 문학작품의 소재로서도 친숙해져 왔다.

등대문학상이 이처럼 주제를 정해놓은 것도 '등대'의 의미를 통해 우리들의 삶에 어떤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였을 터다. 주제가 정해 있으니, 심사 기준도 명확하다.

주제가 선명한 작품 속에서 참신하고 창의적인 작품을 찾아내는 일이다.

시부문 응모작품이 무려 648편에 이르고 있다. 엄격한 예심을 거쳐 본심에 올라온 작품은 80편이다. 작품 수준은 높았지만, 주제를 벗어난 작품들도 눈에 띈다. 그런 작품은 아무리 좋아도 밀릴 수밖에 없다.

최우수작에 선정된 〈등대의 재발견〉은 등대의 의미를 새롭게 천착하여 주목된다. 예리한 관찰력과 창의성이 돋보이는 수작이다. 특히 “뱃길을 닳는 노동으로 어깨가 빠근할 때까지/ 등대의 눈은 붉어진 채 말을 잊지 못하고/온전히 잠들 수 없는 몸으로 뒤척이고 있다”라든지 “칠혹의 밤바다를 가로질러 꽃 같은 영혼에게로 향한다”라는 구절 등은 시의 격을 높이는 절묘한 표현이다.

작가의 튼튼한 역량을 엿보게 할 뿐 아니라, 등대의 의미를 한층 고양시키고 있다.

우수작으로 선정된 〈책 읽는 등대〉는 기발한 발상과 재치가 번뜩이는 이색작품이다. '등대'는 '독서광'으로 의인화 되고, '책'은 '바다'로 은유된다. 그리하여 “밤이나 낮이나 등대는 바다를 읽는다”. “멍게, 해삼, 전복, 소리를 채취하는/해녀들의 숨비 소리와/저녁노을 속 나뭇잎 같이 작은 통통배 위/노부부가 힘겹게 그물 올리고 있는 모습”을 읽고, “양떼구름을 물고 가는 늑대바람”과 “하늘로 올라가 별자리가 된 신화”를 읽기도 한다.

그러다가 “바다에 반해, 시인이 되어” 버린다. 심상이 맑고 따뜻하다.

'등대'를 위한 '현사'라면 이만한 것이 없을 듯하다.

그밖에 가작으로 선정된 작품들도 저마다 특징을 지닌 우수한 작품이었다.

입상자 모두에게 축하드리며, 더욱 분발하여 대성하기를 기대한다.

심사위원 **김년준** (시인 · 한국문인협회 명예회장)

## 소설

예심을 거쳐 본심에 올라온 작품은 「물마루 위에서」 「하얀 등대의 꿈」 「얼음 등대」 「그 애」 「등대(남자의 이야기)」 「영원호」 「등대의 노래」 「비늘」 「나였던 그 아이는 어디에 있는가?」 「머구리」 「등대섬」 「밤배의 고향」 「우리가 머물렀던 그 곳」 「등대를 보지 못한 이들에게」 등 15편이었다.

이들 작품은 전반적으로 수준이 높아 우열을 가리기가 쉽지 않았다. 더욱이 이 작품들에는 그 나름의 일장일단이 있었다. 하지만 두 차례씩 정성들여 읽는 동안 서서히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얼음 등대」 「등대의 노래」 「하얀 등대의 꿈」 「비늘」이 최종심까지 남게 되었다.

「얼음 등대」는 남극을 무대로 설정한 작품이다. 남극의 연구 기지에 지원한 진화생물학자 고 대원의 역할을 잘 부각하였다. 그가 아내와 이혼하고 한국의 도시를 떠난 반면, 남극에서 희생된 남편을 찾아 이곳에 온 여성을 등장시킨 것은 신선한 착상이라 하겠다.

주제가 선명하고 구성이 탄탄할 뿐만 아니라 문장도 깔끔하다.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이 작품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등대의 노래」는 바다에 얹힌 삼대의 이야기를 담아낸 작품이다. 할아버지는 등대지기였고, 아버지는 선장(船匠) 출신의 뱃사람이었으며, 화자(話者)인 '나'는 해양경찰이다.

목포 앞바다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 사투를 벌이는 서사구조가 박진감을 더해준다.

「하얀 등대의 꿈」은 비교적 안정된 작품이지만 주제가 모호하고 구성이 다소 허술했다.

「비늘」은 등대지기의 삶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주제는 건강했으나 문장이 토막토막 끊어짐으로써 연결성이 미흡했다.

결국 「등대의 노래」를 우수작으로, 「하얀 등대의 꿈」 「비늘」 「물마루 위에서」 「그 애」 「등대(남자의 이야기)」 「나였던 그 아이는 어디에 있는가?」 「머구리」 「등대섬」 「밤배의 고향」을 각각 가작으로 결정하였다.

심사위원 **이광복** (소설가 ·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

## 수 필

울산지방해양항만청이 제정한 등대문학상(제2회) 수필 부문에 응모한 작품을 총 105편이었다.

‘등대’를 주제로 한 글짓기 공모전은 삼면을 바다로 접하고 있는 우리 국민에게 바다에 대한 꿈과 개척정신을 심어주고 무역국가로써의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 공감대를 열어주고 있다는 데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등대’는 바다를 내왕하는 선박들의 길잡이의 역할을 하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과 희망을 안겨주는 상징적인 증표물이 되고 있다.

응모작의 대부분이 체험을 통한 ‘등대’의 상징성을 부각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면서 인생적 발견과 깨달음을 피워내려고 노력한 점이 보였다.

‘등대’가 희망, 꿈, 용기, 개척 등 삶의 긍정성으로 형상화되고 있음은 바람직한 방향이었다.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희망의 등대〉는 사업실패로 좌절속에 빠졌던 작자가 ‘등대’에서 용기를 얻어 고난을 이겨낸 얘기를 쓴 작품이었다.

수필은 자신의 체험한 일을 그대로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생적 의미와 깨달음을 꽃피워내는 데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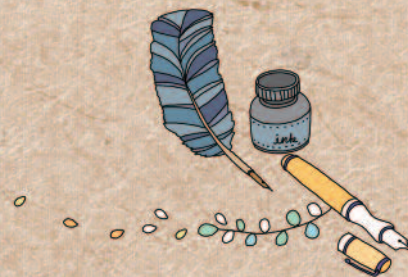
이런 관점으로 응모작들을 분석, 비교한 끝에 최우수작을 비롯한 우수,佳作들을 선정하게 되었다. 입상자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심사위원 정복일

(한국수필가협회 이사장·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

## 수상작품

대 상	소설	양진영	얼음 등대
최우수상	시	한승엽	등대의 재발견
	수필	이동열	희망의 등대
우수상	시	김미숙	책 읽는 등대
	소설	김성준	등대의 노래
	수필	김형옥	어머니와 등대
가 작	시	김완수	등탑에 오르면
		김창석	등대의 염원
		서상규	청사포의 쌍둥이 등대
		심금섭	내 오랜 습관, 야행
		우동식	등대의 사랑 법
		이동우	아버지의 등대
		이타린	구엄 도대불
		장인수	등대의 시원
		정연희	하얀 등대섬
		최선옥	바다 우체국
	소설	김경순	밤배의 고향
		김은혜	비늘
		김학규	하얀 등대의 꿈
		문호성	물마루 위에서
		박술기	등대(남자의 이야기)
		서혜린	그 애
	수필	신상현	나였던 그 아이는 어디에 있는가?
		안병기	머구리
		최석규	등대섬
		김유석	등대쪽으로
		김현주	엄마의 밤바다, 그리고 등대
		박원중	속초 등대의 추억
		서상호	해맞이 언덕
		서은정	등대, 너 기기 있었니?
		유진선	꿈을 비추는 등대
		이정혜	그대, 등대로 오라
		이 서	나의 등대
		하요아	벚길의 집
		황숙이	무산소리





# A Literary Work







제2회 등대문학상

## 대 상



양 진 영

서울특별시

### 프로필

1958년 광주에서 태어나  
서울 외국어대학을 졸업했다.  
미국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뉴욕 중앙일보 기자로 일했다.  
2012년 김만중문학상으로 등단.  
2013년 목포문학상(소설),  
양산소설공모전, 암사문학공모전,  
2014년 무등일보신춘문예,  
천강문학상, 목포문학상(시),  
등대문학상을 수상했다.

### 당선소감

누군가 문학상 당선은 문칠운삼文七運三이라고 했다.  
본심에 오른, 고만고만한 작품 중에서 최종 낙점은  
심사위원의 몫이다.  
설익은 글을 뽑아 주신 심사자들에게 먼저 인사드린다. 꾸벅.  
다음으로는 이 상을 주관한 울산지방해양항만청의  
공정성에 감사드린다. 문학상 운영은 지난한 일이라  
문인협회 등에 위탁하는 시, 군이 많다.  
공명정대함을 위해 어려운 길을 마다하지 않은  
항만청의 수고가 돋보인다. 어느 지역이나 인근의  
문인을 우대하는 것이 인자상정일 것이다.  
그런 유혹을 뿌리친 공무원들의, 올곧은 심지 덕분에  
내가 당선된 듯싶다.  
나는 수상자들의 타 지역 비율을 보곤 하는데  
등대문학상은 70%가 넘었다.  
이 하나만으로도 이 상이 십분 투명했다고 말할 수 있겠다.  
뒷날에도 방방곡곡에서 문인을 불러들여 굴지의  
지방 문학상으로 발돋움하면 상을 탄 내게 큰 자랑거리겠다.  
이따금 고래 떼가 해변가로 밀려오는  
스트랜드링 증후군이 화제다. 유전학에 흥미가 많은 나는  
포유류였던 그들은 왜 땅을 버리고 바다로 갔을까,  
또 왜 육지로 회귀하려 할까? 늘 궁금했다.  
울산으로의 여행 내내 이 호기심을 곱씹어 볼 것이다.  
먼 훗날 쓰게 될 고래 이야기를 위하여.

## 얼음 등대

\* 제2회 등대문학상 대상 / 소설  
양 진 영



두 번째로 모래시계돌고래의 사체가 발견됐다. 주로 남극 인근에서 서식하는  
그 포유류는 특이하게 인류처럼 가족끼리 뭉쳐 산다. 그 때문인지 동족을 먹이로  
삼지 않는다. 고 대원은 거둬 확인하려고 죽은 물고기의 외피를 매만졌다. 체온은  
식었지만 여전히 오싹하도록 미끈해 손가락이 스르르 무너져 내렸다. 온몸이 송곳  
에 찌힌 것같이 상처투성이였다. 박음질한 듯 규칙적이고 자잘한 구멍은 얼른 보  
아도 돌고래의 이빨 자국 같았다. 그것은 치근이 약해 음식을 통째 삼킨다. 동료들  
 물어뜯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고 대원은 오스스 소름이 돌아 슬쩍 물러섰다.

박 기사는 또 고글 속에서 눈을 깜박였다. 어서 돌아가자는 재촉이었다. 손으  
로는 해안 건너편의 빙하에 우뚝 선 체코 기지의 등대를 가리켰다. 야간용 온방을  
가동하는지 가느다란 연기가 꼬리를 물고 오르고 있었다. 발전 담당인 자기도 불  
을 땔 시간이라는 뜻 같았다. 남극은 추위보다 바람이 무섭다. 아직은 한창 여름이  
지만 해가 지면 금세 체감온도가 영하 20도로 내려간다. 초속 20미터의 강풍에 눈  
보라까지 휘몰아치면 한 치 앞이 어둡다. 한국에 처자식을 두고 온 박 기사는 고작  
물고기 따위 때문에 죽기는 싫을 것이다. 그러잖아도 해양 생물 연구원이랍시고  
나어린 대원이 이것저것 지시하는 통에 기분이 상했는데.

“저 여성인가요? 남편을 찾아 동토까지 왔다는…….”

고 대원은 저만치 보이는 빙판에서 돌고래 떼에게 먹이를 주는 여자를 보며 턱  
짓했다. 대학에서 음향학을 가르친다는 그녀는 5년 전 이곳에서 남편을 잃었다고

들었다. 귀국하려고 칠레 기지의 비행장으로 가던 중 저 앞의 만에서 구명정이 뒤집혔다던데, 여자는 지난해 월동 연구원으로 자원해 와 기지에서 십 리쯤 떨어진 옛 등대 터에서 홀로 지낸다고 했던가. 오래된 난파선이 제멋대로 나뒹구는 그곳은 사람의 왕래가 없어서 모래시계돌고래가 모여드는 섬이다. 백 년 전 범선을 타고 온 탐험가들이 아무렇게나 돌을 쌓아 만든 등대. 두꺼운 얼음에 뒤덮여 반짝이는 모습은 남극의 신이 찢어 놓은 거대한 은빛 검 같았다.

“겨울에 폭설이 내리면 이삼 주나 연락을 끊고 지내는 독종이지.”

박 기사는 진정으로 감탄해 혀를 내둘렀다. 그리고 나서 저 여자 박사는 휘파람으로 의사소통하는 돌고래의 언어를 해독 중인데 언젠가 확성기로 무슨 소음을 내보내자 사오십 마리도 넘게 몰려들었다고 귀띔했다.

고 대원은 사체의 상처에서 떼어 낸 이빨 자국과 사진기를 주섬주섬 챙겼다. 그때 여자 쪽에서 오케스트라가 합주하는 교향곡 같은, 장엄한 음향이 울려 퍼졌다. 그 가락에 맞추어 수십 마리의 돌고래가 군무하고 있었다. 그것들이 화음의 절정에 호응해 유빙 사이로 치솟을 때마다 에메랄드빛 바다가 퍽퍽 파열했다. 그는 핏발이 서도록 눈을 비벼대며 산산이 흩어지는 얼음 꽃다발을 응시했다. 수억 년이나 얼어붙어 있는 빙해, 고통이나 슬픔 같은 감정이 생겨나지 않았던 태초의 험지.

저 바다 밑에는 모든 기억과 번뇌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있지 않을까.

고 대원은 삶과 죽음의 경계가 모호한, 비현실적인 세계에 들어선 듯한 어지럼증을 느꼈다. 그것은 아마 두꺼운 구름장을 뚫고 내리치는 빗줄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 빗발 속에서 살얼음처럼 바삭거렸던 도시의 나날과 한순간에 별거를 말하고 떠나간 아내가 어른거렸다. 그는 빗의 물결로 달려드는, 바다의 거대한 아가리를 무방비로 바라보고 서 있었다. 박 기사가 거푸 옆구리를 찌르는 것도 모른 채.

\*

차갑고 어두운 바닷속이다. 무거운 얼음판이 몸을 짓눌러 밤새 꿈꿨다. 동사한 주검같이 팔다리가 뻗뻗하다. 보이는 것이라고는 퍼렇게 빛나는 얼음 덩어리

뿐. 괴물 형상을 한 해저 빙벽이 사위에서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헤엄치려고 발버둥칠때 보아도 몸은 바다 밑에 착 달라붙은 듯 움쩍 안 한다. 나는 결빙된 것인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려 입술을 깨물어 본다. 와스스 얼음이 부서지고 입이 뻥 뚫린 느낌이다. 끼끼, 끼리리. 어디선가 휘파람 소리가 들려온다. 암순웅이 시작된 듯 바다 위쪽에서 가물가물한 물체가 다가온다. 돌고래다! 그들이 주위를 맴돌며 눈빛으로 뭔가 신호를 보낸다. 허겁지겁 물고기 등에 올라타는데 일어나! 박 기사가 왁살스럽게 어깨를 뒤흔들었다. 기지의 아침이 밝아 오고 있었다. 자그만 쪽창 너머로 햇살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1월의 남극은 한여름이다. 한밤중인 자정까지 해가 저물지 않아 환한데 커튼도 없어 밤늦도록 뒤척였다. 고 대원은 부스스한 머리를 긁적이며 빠근한 몸을 일으켰다.

남빙해의 여명은 번덕스러운 구름이 만드는 마블링 탓에 매일 다른 풍경이었다. 내일 아침에는 어떤 형상일까. 상어, 물개, 쇄빙선 아니면 돛단배? 온도가 영하 이삼십 도를 넘나들어 꼼짝없이 실내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겨울철에는 그것으로 하는 내기가 소일거리라고 들었다. 인생에도 저런 마블링이 있다고 하던데. 자기도 모르는 우연성으로 인해 느닷없이 삶이 으깨지는, 1년 전쯤 아내가 이혼 서류를 내던질 때 그런 기분이었다. 어쩌면 애당초 안 맞는 짝이었다. 대도시의 부잣집에서 자란 아내와 고등학교까지 뱃일을 도우며 어촌에서 공부한 고 대원은 노는 물이 달랐다. 아내에게는 또 하나의 스쳐 가는 남자였을 법한데 명문대 출신의 박사 사위가 욕심난 장모 등쌀에 떠밀려 돌은 서둘러 결혼했다. 그러나 제 버릇이 어디 같까. 신혼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내는 바람기가 동했다. 친구들과의 해외 여행은 예사였고 술 냄새를 풍기며 새벽 두세 시에 집에 들어오기도 했다. 어느 날 핫김에 한 손찌검이 이혼의 빌미였다. 만남과 이별이 이토록 쉬운 건가? 이런 식이면 평생 네댓 번이나 아내가 바뀌겠네……. 고 대원은 회의감에 젖어 석 달 전에 도망치듯 도시를 떠났다. 진화생물학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가 보고 싶어 하는 남극의 연구 기지에 자원해서.

고 대원은 얼른 피서를 켜고 이메일을 확인했다. 이틀 전에 찍은 사진을 한국의 극지연구소에 보내 분석을 요청했었다. 박사과정을 함께했던 친구에게서 답변

이 도착해 있었다. 예상대로 돌고래의 이빨 자국이 분명했다. 그것도 한둘이 아니고 대여섯 마리가 달려들어 물어뜯었다는데? 친구가 되레 호기심이 돌아 진짜 사진이냐고 되묻고 있었다. 모래시계돌고래가 동료들 물거나 해친 사례를 들어 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그 물고기는 희한하게도 가족 단위로 모여 산다. 적으면 예닐곱, 많으면 사오십 마리의 대가족이 무리 지어 이동한다.

남반구에서만 서식하는 탓에 알려진 정보가 드문데 최근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어.

친구는 메일에 것처럼 적고 자료를 첨부해 보냈다. 어느 대학 연구팀이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그 물고기는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해면동물의 천연 스펀지를 문쳐 주둥이를 감싸는 방식이다. 다른 생물의 공격으로부터 입 주변을 지키려는 지혜이다. 유인원이었던 인류가 옷을 고안해 몸을 보호한 것과 같은 원리이다. 도구를 쓸 줄 아는 생명체는 역사상 몇 종 안 된다. 모래시계돌고래는 석기 같은 기물을 통해 획기적으로 진화한 초기 단계의 인간과 비슷한 습성을 보이고 있었다.

돌고래의 지능은 사람 다음으로 높다. 아이큐로 따지면 70에서 80정도로 5세 유아와 비슷한 수준이다. 덕분에 수족관에서 조련사의 의도를 알아채고 능수능란하게 쇼를 벌인다. 꾸준히 발달하면 인간의 평균 지능지수인 100에 육박할지 모른다. 인류도 아이큐가 60 정도인 유인원에서 점차 진화해 왔다. 그 연구팀은 보고서 말미에 이렇게 썼다.

도구를 이용하는 돌고래는 다른 고래와 생체 구조가 완전히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여러 기구를 다루는 동안에 현생인류에 이어 지혜를 가진 두 번째 포유류로 탈바꿈할지 모른다.

고 대원은 친구가 보낸 자료를 읽으면서 계속 한 가지 의문을 떠올렸다.

왜 하필이면 서로 질투하고 물어뜯는 종으로 변해 갈까? 카인과 아벨같이…….

\*

희푸르스름한 바다가 백금을 뿌려 놓은 듯 반짝거렸다. 떠다니는 얼음 조각이

뿔어내는 섬광이라. 널빤지 같은 맞바람이 오지 마라고 애원하는지 겹겹이 가로막고 나섰다. 암벽이라도 미는 양 두 발에 힘을 줄 때마다 여름에만 드러나는 지의류와 흙 부스러기가 뿌드득뿌드득 이를 갈았다. 보이는 것이라고는 흰 땅과 희푸른 바다뿐. 죽은 크릴새우 떼가 풍기는 비린내가 머리칼처럼 훑날리고 꽃다발 같은 눈꽃바람이 나선을 그리며 비상했다.

고 대원은 새벽 일찍 짐을 챙겨 여자가 사는 얼음 섬으로 향했다. 북극은 바다 위의 얼음덩이지만 남극은 수 킬로미터 높이의 만년설이 쌓인 대륙이다. 말이 섬이지 실제로는 바닷물이 얼어붙어 육지와 연결된 만년빙으로, 걸어서 갈 수 있었다. 돌고래의 생태를 연구한다는 핑계로 기지 대장으로부터 그 섬에 있는 주거용 캡슐에서 며칠 지내기로 허락을 받았다. 동료를 해친 모래시계돌고래에게 관심도 있었지만 내심 여자에 대한 호기심이 발동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남편을 삼킨 빙해에서 홀로 지낼까?

그런 생각이 스쳐 갈 때마다 까닭 없이 여자를 한번 보고 싶다는 간절함이 일었다. 해안선에서 바라다보이는, 퍼런 바다는 유리 조각처럼 섬뜩한 유빙들로 조각나 있었다. 수백 미터의 깎아지른 빙벽이 일순간에 무너지면 커다란 빙산이 도미노처럼 장관을 이루며 허물어진다고 들었다. 거기서 떨어져 나온 술한 얼음덩어리가 잇따라 만 안쪽으로 밀려들었다. 수면 위로 드러난 크기가 이삼 미터 남짓도 있지만 큰 것은 이층집과 맞먹었다. 어떤 것은 신화에나 나올 법한 거인의 얼굴 같았고 어떤 것은 난파한 옛 전함이나 쓰러진 건물의 형상이었다. 가만히 보고 있으면 지독한 타락 끝에 신의 노여움을 사 멸절됐다는 폼페이와 잔해를 연상시켰다. 어느 전능한 존재가 위태로운 문명과 인간성의 종언을 경고하는 느낌마저 들었다. 더불어 저 유빙처럼 허약했던 자신의 결혼 생활을 비웃는 듯도 했고.

돌이켜 보면 아내와 자신은 각자의 소용돌이를 그리며 다른 속도로 떠내려가는 성엿장 같은 사이였다. 아내는 늘 시계 방향으로, 그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누워 잠들었다. 아내는 등지는 것이 미안했는지 이불 너머로 수다를 떨곤 했다. 이야기 속의 그녀는 장애아의 발을 닦아 주는 착한 소녀였고, 언니의 옷을 몰래 입는 소탈한 아이였고, 결혼 전에 키스도 안 해 본 순결한 신부였다. 그중 가장 마음



에 들었던 애깃거리는 인신매매를 당하는 처녀들을 구하러 멀리 아프리카까지 건너간 일이었다. 그러나 웬걸, 나중에 그 대부분이 거짓임을 알아챘다. 아내는 청바지만 스물 다섯 벌을 살 정도로 사치스러웠고 자원봉사 실적을 높이려 대리인을 보육원에 보냈다. 심지어 아프리카 방문도 다이아몬드 등 보석을 구입하려고 여행사에서 마련한 단체 관광 상품이었다. 아내에게는 거짓말이야말로 가장 단순하면서 활기찬 의사소통 방식 같았다. 굳이 진실을 드러내 상대방과 골치 아픈 대화를 하고 싶지 않은 듯싶었다. 어차피 거개의 사람들, 그들과 맺은 관계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가벼운 거짓말을 하고 있었고 버릇으로 굳어졌다. 그러다 보니 헛된 말에 생기가 넘쳤고 나중에 그것이 사실로 밝혀져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면 그만이었다. 떠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툭 내댄진, 우리 이혼해, 하는 말도 진심인지 거짓인지 아리송하기만 했다. 설혹 아내와 헤어진다 해도 다른 여성을 만나는 일이 두렵다. 모두가 사소한 빈말을 애교로 받아들이면서 자란다면, 그런 연인끼리 나누는 밀어도 사랑일까? 고 대원은 해변을 따라 걷는 내내 그 상념에 빠졌다.

두어 시간쯤 걸었을까. 아! 자기도 모르게 탄성이 새나왔다. 널따란 눈벌판이 온통 주황색 꽃으로 얼룩져 있었다. 수천, 수만 마리의 턱끈펭귄들이 먹고 버린 크릴새우의 껍질이라. 암컷은 먹이를 구하러 바다로 나가고 수컷은 알을 품은 채 둥글게 원을 그리고 있었다. 안쪽과 바깥쪽의 펭귄은 이따금 위치를 바꾸는 방식으로 영하 40도의 혹한을 이겨내고 새끼를 부화한다.

저 사랑의 힘 덕분에 언 땅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동물이 되지 않았을까?

남극도 수천만 년 전까지는 동식물이 무성했고 온난한 육지였다. 환경 변화로 급격히 얼어붙어 모두 동사하거나 다른 대륙으로 이주했지만 펭귄은 끝까지 버텼다. 그 탓에 날개가 퇴화돼 날지 못하지만 천적도 없이 안온한 삶을 즐기고 있다. 일부일처제를 고수하는 펭귄은 새끼를 까려고 몇 달을 설한풍 속에서 떠는 사랑의 새다. 고 대원은 생물을 연구하면서 단 한 사람의 배우자에 만족하는 펭귄 같은 짐승에 애착을 느꼈다.

그는 문득 학창 시절에 읽었던 ‘펭귄의 섬’을 떠올렸다. 아나톨 프랑스가 쓴 그

책에서 섬은 인간이 그리는 유토피아의 현시다. 화폐도 없고, 부자도 없고, 중노동도 없고, 범죄도 없고, 교리도 없는 절대 행복의 땅. 신마저 선하게 사는 펭귄에게 감탄해 그들을 인간으로 환생시킨다. 그 밖에 토마스 모어의 아브락사, 탈무드의 행복의 섬, 이암 블로스의 태양의 섬, 양반전과 허생전의 무인도 등등 옛사람들은 천국은 육지에서 떨어진 곳에 있다고 보았다. 섬이야말로 땅의 욕망과 타락에서 동떨어져 영혼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으리라.

저만치 앞에서 여자가 사는 섬이 어룡거렸다. 믿어지지 않을 만큼 기습적으로 눈보라가 달려들었고 도톰히 쌓인 눈덩이가 하얗게 바리케이드를 치고 앞쪽을 가로막는 느낌이었다. 남극의 빙해를 지킨다는 요정이 들어오지 마라고, 그만 돌아가라고 눈싸움을 거는 것 같았다. 섬은 시간이 소멸된 땅, 죽음과 삶의 경계마저 사라진 유토피아처럼 괴괴히 떠 있었다. 고 대원은 무겁게 느껴지는 배낭을 추슬렀다. 과거의 기억을 씻어 없애는 레테의 강이라도 건너는 양 입을 앙다물고 나아갔다.

※

“연락을 받고 점심을 준비했어요.”

여자는 미소 지으며 김이 오르는 밥을 내밀었다. 반찬은 뻥뻥 통조림이었지만 허기진 고 대원은 우걱우걱 씹어 삼키며 상대방을 쳐다보았다. 직사로 내리쬐는 햇볕에 그을려 피부는 가무스름했고 양 볼은 주근깨로 덮였다. 박 기사 말로는 서른 세 살이라고 했던가. 썩 미녀는 아니었으나 산머루처럼 새카만 눈동자는 오래 기억될 인상이었다. 기지에서 방문 목적을 알려 놓은 듯 여자가 먼저 물었다.

“돌고래의 사인을 밝히러 오셨다던데. 특이한 점이라도…….”

“아직까지는. 그것들이 서로 물어뜯는 것을 본 적 있나요?”

“전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반신반의했어요. 여기 모래시계돌고래들은 동료나 가족을 끔찍이 아끼거든요.”

“이런 사례가 처음인가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데 순간적으로 얼굴빛이 좀 긴장돼 보였다. 무슨 짚이는 데라도 있나……. 고 대원은 오기 전부터 몇 가지 질문이 있었지만 첫 대면 인지라 탄말을 꺼냈다.

“오지에서 홀로 지내면 무섭지 않나요?”

“처음 두세 달은 그랬는데…… 어떤 영혼이 지켜 준다고 생각하면 편안해져요.”

“남편이요?”

여자는 돌발적인 질문에 흠칫 놀란 표정이었다. 그러나 곧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답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오랜만에 남자와 단둘이 앉아 있는 것이 어색했는지 여자가 창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다. 창이라고 해 봐야 컨테이너에 구멍을 뚫고 두꺼운 유리를 끼운 것이다. 한국에서 제작된 캡슐을 배로 싣고 와 이삼 미터 높이의 받침대 위에 고정하는 방식이다. 바람이 조금만 세게 불어도 탁자가 흔들흔들했다. 여자는 돌아선 채 말했다.

“기지에서 제 사정을 들었을 듯한데…… 저희는 원에서 만났어요. 원을 아세요?”

그녀와 남편은 보육원에서 같이 자란 사이였다. 그는 어려서부터 친오빠인 양 여자를 감싸고돌았다. 여자를 귀찮게 구는 애와 다투다 번번이 코피를 흘려도 병긋 미소 지었다. 그럴 때면 여자는 손에 묻은 피를 겁내지 않고 그의 얼굴을 닦아주곤 했다. 유난히 영민했던 그는 초등학교 때부터 내리 1등이었고 특례 혜택을 받아 명문 대학에 진학했다. 규정에 따라 18세에 보육원을 떠나야 했을 때도 둘은 함께했다. 먼저 대학에 입학한 그의 원룸에서 여자는 재수생 시절을 보냈다. 남자가 국가장학생으로 미국에 유학해 박사 학위를 따오던 5년 내내 여자는 그 원룸을 떠나지 않았다. 거기를 벗어나는 것은 이 세상을 벗어나는 것과 마찬가지였으니까. 귀국한 남편은 군 복무를 마치자마자 급여가 세다는 이유로 딱 1년만이라는 전제 하에 남극 기지에 자원했다. 둘이 새살림을 차리려면 목돈이 필요했다. 남자는 돌아와서 멋진 예식을 올리자고 약속했고 떠나기 전에 혼인신고까지 마쳤다. 서로의

사랑을 의심치 않았기에. 여자는 커피포트에 물을 부어 넣으며 말했다.

“원에서는 하나씩만 주어져요. 신발, 가방, 모자…… 모든 게 하나만. 심지어 밥도 한 공기만 허용됐어요. 그곳에서 자라면 생리적으로 하나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죠. 그이를 기다리며 마시던 어느 자판기의 커피, 그와 산책하던 어느 숲길, 함께 공부하던 어느 도서관의 탁자, 그가 다니던 어느 골목의 모퉁이, 그가 타고 다니던 어느 마을버스의 뒷좌석. 그 모두를 나는 지금도 기억해요. 같이 맛았던 소낙비, 둘이 뭉쳤던 눈사람, 그가 던졌던 해변의 잔돌마저 내게는 잊지 못할 회상으로 남아 있어요.”

모가 특유의 커피 향이 캡슐 안을 맴돌았다. 낯선 사람의 훈기 때문인지 유리창에 하얀 성에꽃이 피기 시작했다. 여자는 살얼음에 손가락으로 무슨 그림을 그리며 말했다.

“처음 그이가 저 앞의 바다에 빠졌다고 전해 들었을 때 달려와서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한데 남극은 아무나 드나들 수 없잖아요. 별도리 없이 일이 년은 그냥 버텼어요. 박사과정에 등록했고, 연구소 일도 열심히 했고, 편의점에서 부업도 하면서 끊임없이 내 몸과 시간을 확대해 그를 잊으려 했어요. 하지만…….”

여자는 머그잔에 커피를 하나 가득 부었다. 수십만 년간 얼어 있던 유빙을 녹인 물이라고 했다. 지구에 생명체가 없던 시대의, 원시의 물이 환생해 눈앞에서 어룡대는 느낌이었다. 고 대원은 얼음에 갇혀 있던 태초의 물방울을 찬찬히 음미했다. 여자는 다시 뒤돌아서며 말했다.

“밤마다 꿈을 꾸었어요. 폴터가이스트라고 들어보셨나요? 시끄럽게 떠드는 영靈 말예요. 잠들려고 하면 그들이 몰려와 소란을 피웠어요. 침대 밑에서, 책상 서랍에서, 부엌의 개수대에서 웃고 장난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느닷없이 사위하는 물소리가 나고 식탁의 접시가 뚱뚱 떠다니고…… 인형들이 어울려 춤추고 누군가 방문을 두드리고, 나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울며 날을 새곤 했어요. 가위눌려 잠드는 밤이 겹나서 항상 스탠드의 불을 켜 놓아야 했고.”

여자는 창밖을 가리키며 무심히 말했다. 눈이 또 내리네요. 눈송이가 사뿐사뿐 날아다니고 있었다. 넓디넓은 바다가 온통 연무로 덮였는지 뿌연게 흐렸다. 난무

하는 눈에게 알은척하는 양 여자는 한 손을 하느작거렸다.

“저 눈송이만큼 많은 영혼이 꿈에 보이는데 정작 그 사람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저는 오래 고민했죠. 그러다 아하, 누군가의 말을 떠올렸어요. 혼은 바다를 건널 수 없다는 거. 맞아요. 저 얼음장 아래에 잠든 남편의 영혼은 인도양을 넘어 내 곁으로 올 수 없었던 거예요. 것처럼 생각되자 헐레벌떡 월동 연구대에 자원해 여기에 왔어요.”

여자는 무언가를 찾듯 창밖을 두리번거렸다. 밤 아홉 시가 넘었는데도 남극의 여름밤은 여명처럼 환했다.

“저는 저 등대를 카시오페이아의 별빛이라고 불러요. 가끔 저기서 무슨 빛이 반짝이거든요, 환시일 수도 꿈결일 수도 있겠지만. 저 불빛이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다고 믿어요. 그 별자리가 수많은 항해자를 목적지로 인도했듯이 저 등댓불이 인도양, 태평양을 넘어 제게 비추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얼음 섬까지 흘러들었을 것이고.”

여자가 유리에 낀 성에꽃을 손톱으로 삭삭 긁으며 말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했던 듯한데. 태아가 배 속에서 계속 어떤 빛을 보면서 자란 데요. 정말 그렇다면 사람은 각자 자신의 등대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을까요. 눈에 띄지는 않지만 어디선가 그 불빛이 비치고 있기 때문에 죽을 만큼 힘들어도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지 않을까…….”

여자는 돌아서서 손님을 잠잠히 쳐다보았다. 새까만 눈동자가 무언가를 더 말하고 싶은 듯 반짝였다. 남편이 살아생전 그대로의 모습으로 저 바다 아래에 놓여 있다는 말? 그의 영혼이 등댓불처럼 자신을 비추고 있다는……. 고 대원은 제멋대로 상상했지만 차마 입밖에 꺼내지는 못했다. 그것은 그녀에게 너무 큰 비애일 것 같아서.

남극의 바다 밑은 영하 이삼 도에 이르기 때문에 시신이 부패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그녀의 남편이 빠진 만에는 연중 유빙이 밀려들어와 바닷물이 더 차갑다. 인체를 먹이로 삼는, 자살한 물고기도 못 사는 바다이므로 남편은 고대로 냉동된 채 해저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고 대원은 옆 캡슐로 옮겨 가려고 백팩을 걸머졌다. 슬픔을 가까스로 참는 여자의 얼굴이 천 길 단애처럼 위태로웠다. 혹여 울음이라도 쏟으면……. 밤새 감당할 수 없는 고뇌로 뒤척이지 않을까 두려웠다. 문을 나서자 얼음 등대가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다. 나선형으로 휘감고 오르던 바닷물이 미처 흘러내리지 못하고 굳은 것 같은 얼음 줄기가 무슨 예언을 전하듯 하얗게 깜박거렸다.

내게도 운명적으로 주어진, 나만의 등대가 있고 그 불빛이 나를 이곳으로 이끌었을까.

고 대원은 뜬금없는 상상에 휩싸인 채 허청허청 걸어 나갔다. 신이 각자의 가슴에 숨겨 둔 생의 항해도를 들여다본 느낌이라고나 할까. 여자는 철문을 나서는 손님을 말없이 배웅했다. 눈바람에 휩쓸린 섬은 바깥으로 통하는 외다리마저 끊어진 채 수백 년간 방치된 옛 성터 같았다.

\*

다음 날 아침 고 대원은 시끄러운 음악 소리에 시달려 자리에서 일어났다. 설핏 들어 보면 잔잔하다가 점점 절정에 이르는, 베토벤의 운명교향곡과 비슷했다. 여자가 오디오를 크게 틀었나? 문을 뚫고 열고 내다보는데 사오십 미터쯤 떨어진 얼음 등대 아래서 우글대는 물고기 떼가 보였다. 그 돌고래들이네! 그는 서둘러 방한복을 꺼입고 문밖으로 나섰다.

고 대원은 기지를 떠나기 전에 공개된 여자의 자료를 몇 가지 열람했었다. 음향학 전문가인 그녀는 해군과 방위산업체의 후원으로 돌고래의 언어 해독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 물고기는 수압과 지느러미를 이용해 휘파람, 비명 등 서른 가지 이상의 다른 소리를 낼 수 있다. 끼끼, 하고 우는 것 같은 초음파로 수백 미터 밖의 동료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린다. 것처럼 탁월한 음파탐지 능력 때문에 여러 나라가 군사적으로 이용해 왔다. 미 해군은 범고래를 훈련시켜 유실된 기뢰를 찾기도 하고 러시아는 몸통에 카메라를 장착해 해저 무기를 탐지하는 돌고래 부대를 운용하고 있다. 그럴 때 물고기와 인간의 초보적인 의사 전달이 가능해야 하는



데 여자는 그 분야를 연구하는 듯싶었다.

빙판 아래서 우글대는 삼사십 마리의 모래시계돌고래가 간단없이 물 위로 솟구치고 있었다. 여자는 큼지막한 스피커가 달린 오디오를 틀어 놓고 가끔 바다로 뒀가를 내던졌다. 아마 먹이를 주는 모양이었다. 가까이 다가간 고 대원은 물었다.

“무얼 하는 건가요?”

“애들에게 언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어떻게?”

“이거로…….”

여자는 서너 가지의 기계를 가리켰다. 음파를 감지하는 청음기, 휘파람을 녹음하고 분석하는 소형컴퓨터 등등이었다. 여자는 각각의 돌고래에게 음악에서 따온, 인위적인 휘파람을 인식시킨 후 그 소리에 반응하도록 훈련시키는 중이었다. 그러면 한 사람씩 호명하듯 특징의 돌고래를 불러낼 수 있다. 개체별로 다른 음향을 습득하도록 하면 개별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해진다. 고 대원은 실험 결과가 궁금해 물었다.

“저것들이 자기 이름을 알아듣나요?”

“일곱 마리 정도는 아는 것 같아요.”

“계제도 보여줄 수 있어요? 신기해서.”

“그게…… 그중 두 마리는 죽었어요.”

“그동안 발견된 사체가 바로 그 둘?”

여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고 대원은 뒀가를 생각하는 눈빛으로 뒤엎켜 노는 물고기 떼를 응시했다. 그것들은 사람보다 세 배나 넓은 음파의 진폭을 인식한다. 고 대원에게는 비슷하게 들리는데 그 차이를 알아채는지 이따금 한 마리씩 솟아올랐다. 그때마다 여자는 통조림통에서 고등어를 한 조각 꺼내 던져 주었다. 남극의 돌고래는 찬 바다에서 사는 오징어, 새우, 게 등으로 배를 채운다. 고등어 같은 맛있는 먹이를 맛볼 수 없다. 그래서 자기 음향을 알아들은 몇 마리는 사력을 다해 튀어 올랐다. 고 대원은 소형 카메라가 장착된 벨트를 가리키며 물었다.

“돌고래가 저것을 끼고 수중촬영도 하나요?”

“예……. 연구상 필요해서.”

“영상을 좀 볼 수 있어요? 신기할 듯한데.”

“아니요! 테스트 단계예요. 사진을 저장하지는 않아요.”

여자는 거세게 고개를 저었다. 물어본 상대방이 무안할 정도로. 남의 자료를 보는 일이 실례일 수 있었다. 그렇다고 적대감이 느껴지는 얼굴로 쏘아붙일 것까지야……. 어색해진 고 대원은 엉거주춤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캡슐로 돌아와 아침으로 라면을 끓이면서도 골똘히 무슨 상념에 잠겼다. 가끔 창밖으로 얼음 등대를 등지고 서 있는 여자를 힐끔대면서. 그녀는 여전히 돌고래에게 먹이를 던져주고 있었다. 저것들이 바다 밑에서 어떤 영상을 찍어 올 때마다 더 많은 고등어를 주지 않았을까?

고 대원은 지금껏 타자와 감정을 공유하는 동물을 연구해 왔다. 지구상에서는 인간, 돌고래, 침팬지, 코끼리뿐이다. 그들은 다른 개체의 행동을 이해하는, 거울 뉴런이라는 공감 세포를 지니고 태어난다. 즉, 원초적인 감정을 가진 셈이다. 고 대원은 좀 전에 몇몇 돌고래의 눈에서 어떤 느낌을 받았다, 짜증 같기도 하고 갈망 같기도 한. 아마도 고등어 탕에 빚어진 욕망일 것이다. 한테 그 맛난 먹이가 몇몇 동료에게만 주어진다면 그것들의 심정이 어떨까…….

돌고래는 알려진 것보다 훨씬 영리하다. 수족관에서 쇼를 진행하는 어느 조련사가 증언했었다. 그는 장식용으로 무대 바닥에 뿌려 놓은 조약돌이 풀장에 빠져 매번 건져 올려야 했다. 피를 내 돌고래가 돌을 주워 오면 전갱이를 주었는데 이상하게 돌이 늘어났고 먹이도 더 주어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꼬리지느러미로 물결을 일으켜 가장자리의 돌을 물속에 밀어 넣는 돌고래를 목격했다. 덕분에 그 영악한 물고기는 원하는 식량을 실컷 얻고 있었다.

저 모래시계돌고래도 통조림이 탐나면 어떤 행동을 할까.

고 대원은 오래도록 어떤 상상에 빠져 잠 못 이루었다.

혀가 떠다니는 꿈이 시작된 것은 대여섯 달 전부터였다. 수많은 혀가 컷가에서 웅웅 땀돌아 잠을 설칠 지경이었다. 맨 처음 꿈은 어느 약혼식 카페였다. 보고 싶었어, 사랑해, 결혼해요. 혀가 뚱뚱 떠돌며 연신 뭔가를 웅얼거렸다. 옆자리에서 엄마 품에 안겨 잠자는 아이는 보기 싫어, 미워, 하고 잠꼬대했다. 얼마나 참말을 하고 싶었으면 자면서까지 말할까. 혀가 하는 말은 모두 거짓 같았다. 혀는 인간의 외면일 뿐이다. 내면의 소리인 잠꼬대가 고백보다 믿을 만하다. 신랑 신부는 서로의 잠꼬대를 듣지 않고 프리포즈할 수 있을까. 기실 아내에게만 키스했다는 자신의 말도 거짓이었다. 누구에게나 어제의 혀와 내일의 혀는 다를 수 있다. 약혼식에서 하는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서로에게 말을 건네는 행위만 진실이다. 창가의 고양이는 영정 사진처럼 웃고 있었다. 카페에 떠도는 혀를 무수히 집어삼킨 그것이 말할 줄 안다면 무슨 말을 할지 알 듯했다. 그런 날이 반복되면서 새벽에 잠깐잠깐 깨어났는데 어느 날 곁에서 잠꼬대하던 아내가 수영아, 하고 누군가를 불렀다. 그날 이후 여성 같기도 하고 남성 같기도 한 그 이름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아내의 교성마저 거짓으로 들렸다. 지금 저, 간드러진 소리를 내게 하는 남자는 나일까 수영일까? 섹스 중에 그런 잡념에 빠지면 성욕이 수그러들고 이내 돌아눕곤 했다. 그러다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한 아내에게 화끈에 손찌검했고 그것이 이혼의 빌미가 됐다.

고 대원은 오늘도 꿈속에서 혀에 쫓겨 허우적대다가 쿵쾅 울리는 음향에 눈을 떴다. 여자는 매일 아침에 얼음 등대 아래로 돌고래를 불러 훈련시키는 모양이었다. 오물오물 입 안을 행구며 창밖을 엿보는데 여자가 물고기에게 너무 바짝 다가 있었다. 수족관에서 사육되는 돌고래는 조련사와 친해지면 한 몸처럼 어울린다. 어느 여성은 오래 호흡을 맞춘 수컷이 자신의 손, 발, 목을 핥으며 스킨십을 나눈다고 고백했다. 그같이 한두 마리가 팔다리에 주둥이를 들이대자 여자는 어리광을 받아 주려 허리를 구부린 모양새였다. 저러다 혹여 앞으로 홀러딩 넘어지면 그야말로 위험해진다. 남극의 바다는 염분 덕분에 얼지 않지만 얼음냉수나 마찬가지로

다. 맨몸으로 빠지면 저체온증으로 몇 분만에 사망할 수 있다. 그때였다.

여자에게 바짝 붙어 있는 돌고래가 제법 먼 거리에서도 보일 만큼 가슴지느러미를 거세게 파닥거렸다. 그것들은 그 기관으로 거친 물속을 제집인 양 헤집고 다니고 물회오리를 일으켜 휩쓸린 오징어를 삼킨다. 상어 같은 천적에 맞서는 무기이기도 하다. 것처럼 강력한 지느러미에 여자가 맞으면?…….

“물러서요, 물러서!”

사위스러운 느낌에 고 대원은 문을 박차고 뛰어나갔다. 사오십 미터를 달음박질해 여자를 일으켜 세웠다. 시나브로 물에 잠긴 팔이 시푸르탱탱했다.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란 그녀는 휘둥그스름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떨찍이 떨어져 지켜봅시다. 저것들이 먹이를 탐내 사람을 해칠 수 있어요.”

고 대원은 통조림통을 물가로 밀어 놓은 뒤 여자를 이끌고 캡슐로 돌아가는 척했다. 예닐곱 마리 돌고래가 거칠게 솟구치기 시작했다. 멀리뛰기를 하듯 튀어 올라 빙판에 올라선 다음 지느러미를 퍼덕여 통조림을 쳐내려 했다. 열 번 남짓 시도했을까. 마침내 강통이 넘어지면서 고등어 조각이 와르르 물속으로 쏟아지고 돌고래들이 삼시간에 자취를 감추었다. 고 대원은 오스스 떠는 여자에게 말했다.

“저것들이 먹이를 차지하려 정 대원을 물에 빠뜨렸을지 몰라요.”

“설마…….”

“눈빛이 내가 보았던, 다른 돌고래와 달랐어요. 중요심이 느껴졌어요. 내가 발견한 사체도 저것들이 물어뜯었을 것ियो.”

“그럴 리가 없어요!”

“자기 음향을 알아듣는 몇 마리에게만 고등어를 주었다고 했지요. 소외된 것들이 시샘해 동료들을 해친 것ियो.”

“저는 못 믿겠어요…….”

“최초의 인간인 카인도 질투를 못 이겨 동생을 죽였어요. 그 때문에 육지는 폭력과 죄악으로 넘치잖아요. 물고기에게 증오를 가르치면 해양마저 싸움터로 변할 것ियो. 선량한 종種을 악하게 진화시키는 실험은 그만두어야 해요.”

여자는 돌고래가 떠나간 얼음 등대를 망연히 바라보았다. 고 대원은 그녀를 이

끌고 여태 쿵쿵대는 화성기로 다가갔다.

“저 아래에 잠든 남편도 그대로 머물고 싶을지 몰라요. 가열한 욕지보다 무욕의 해양을 사랑하는 사람도 많아요, 나같이.”

오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에 호응해 파도가 남실거렸다. 욕심과 증오 같은 감정이 없는 가없는 바다. 어떤 올림이 유빙으로 가득한 해안과 얼음 섬에 굽이치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은 운명의 등댓불을 보기라도 한 듯 손을 꼭 잡고 서 있었다.







제2회 등대문학상

최우수상



한 승 엽

제주시

프로필

제주 출생

동국대학교 국문학과 졸업

2006년 「문학예술」 등단

시집 「물입의 서쪽」

천강문학상 수상

김만중문학상 수상

## 당선소감

아주 어렸을 적 등대에 살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사는 곳이 부럽고 궁금했으나 한 번도 초대를 받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가끔씩 그 부근을 지나갈 때마다 몰래 살짝 들여다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훗날 그 등대가 개방되어 들어가 보았을 때, 이미 그 친구의 가족들은 떠난 뒤였고 등대만이 높고 고독한 인간처럼 서 있었습니다. 옛 등대가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기억을 되살리고 극복하는 방법은, 해안가를 거닐다 우연히 마주치는 등대와 물결의 철썽거림이 아니었는지 다시 더듬거려 보았습니다.

어쩌면 아름답고 숭고한 정신이 사라져가는 시대에 살며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그 유년의 동경(憧憬) 속에 오늘도 내일도 등대가 서 있을 거라는 믿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웬지 모든 촉을 세우고 기다리는 성찰의 시간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바다를 읽고 있는 등대의 불빛이야말로 우리가 쉽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룩한 언어가 아닌지 새삼 깨우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여 등대가 읽어내는 그 순간의 고독을 저는 작은 글로 쓰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처절하게 혼자 남아, 아예 숨을 곳조차 없이 숨죽이고 있는 그 등대의 모습을 떠올리고 또 떠올려 보았습니다. 차츰 불빛처럼 물결을 다스리는 감각이 살아났고, 안타깝고 눈물겨운 감각은 물결의 여백을 채워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끄럽고 너무도 작은 글.

먼 해안을 돌고 돌아오는 길에 수상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신발 밑창은 아직도 젖어 있지만, 슬픔의 물기는 조금씩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저의 슬픔을 등에 지고 가는 자(者)가 시(詩)라는 친구가 아닐까 감히 생각해봅니다. 그의 등을 빌린 오늘처럼 저도 배신하거나 도망치지 않을 작정입니다.

덧붙여 이 수상의 기쁨을 아내 김주연님과 지성, 지윤 두 아들에게 선물로 건네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뜻 깊은 수상의 기회를 마련해주신 울산지방해양항만청 관계자님들과 심사위원님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등대의 재발견

\* 제2회 등대문학상 최우수상 / 시  
한 승 엽



물결의 얼굴이 수십 개로 보이지만  
겉돌지 않는 불빛처럼 하나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미 등대가 바다의 손금을 읽었다는 증거이리라

물결 속에 온 마음을 맡겨  
미끄러지는 생(生)을 단숨에 휘어잡는  
저 예리하고 든직한 눈썰미가 못시선들을 강타했다면  
지금쯤 물결의 혼란스러움은 좀 누그러졌을까

뱃길을 닦는 노동으로 어깨가 빠근할 때까지  
등대의 눈은 붉어진 채 말을 잊지 못하고  
온전히 잠들 수 없는 몸짓으로 뒤척이고 있다

새삼 멀리서 바라보노라면  
의식이 가라앉았다가 한 순간 떠오르는 것처럼  
불끈 솟은 몸집이 전부가 아니다  
더 빠르게 밀려오는 것들을 마법처럼 다루느라  
자신도 모르게 구도자의 자세로 굳어지고 있는 것이다

설령 어느 날 빛을 잃어버려 목 놓아 울고 싶은  
물결 위에서도 꿈쩍없이 서 있을 뜨거운 눈빛,  
오늘도 타고난 집중력으로  
칠혹의 밤바다를 가로질러 꽃 같은 영혼에게로 향한다

이슬이슬한 자리를 끊임없이 확인하는  
고래심줄 같은 등대가 바로 당신의 등 뒤에 있다.





제2회 등대문학상  
최우수상



이 동 열

충북 청주시

프로필

아모레퍼시픽  
청주 세인특약점 대표

충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수필창작 수강

푸른솔 문학회 회원

제2회 효동문학상  
최우수상 수상

당선소감

제2회 등대문학상 당선 소식을 받았습니다.

감사하고 자랑스럽지만 분수에 넘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이런 기회를 만들어준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과 관계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희망의 등대'는 제2회 등대문학상 공모 안내를 접했을 때, 몇 년 전 회사를 퇴사하고 새로운 일을 준비할 때를 떠올렸고 이를 토대로 쓴 것입니다.

온 정성을 다하여 근무하던 직장에서 떠나거나 후반생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용기와 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20여년 다니던 직장을 떠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업전선에서 은퇴 후 노년기를 하루하루 소일하는 나의 모습에서 미래의 손자, 며느리, 아들은 어떤 생각할까? 인생의 제2막은 어떤 모습 이어야 할까?'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후반생은 주변을 돌아보고 자신에게 충실한 조화의 삶이기를 꿈꾸었습니다. 100세 시대 재정적인 준비를 넘어서 또 다른 준비가 필요하다는 절실함으로 문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지천명을 넘어서는 동안 하고 싶었던 일이기도 하지만 팍팍하게 살아오면서 뒷전으로 미루어 두었던 일이기도 했습니다. 지금부터 10년을 배워서 평생 동안 누리겠다는 그 새로운 시작의 즈음에서 제2회 등대문학상 수필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어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상'을 받는다는 것은 그에 합당한 자격이 되어야 하고 수상 후에는 그에 대한 책임도 따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귀한 상을 받게 되어 어쭙잡다는 느낌을 배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자격을 갖추고 책임을 지는 일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해 보아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쓰는 일이란 생각을 합니다.

등대문학상으로 인하여 해양문학의 큰 발전을 이루고 바다와 더 친해질 수 있는 사회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희망의 등대

\* 제2회 등대문학상 최우수상 / 수필

이 동 열



방파제를 따라 천천히 걸었다. 잔잔한 물결위에서 반짝거리는 은빛 섬광이 눈부시다. 등대아래 아빠 목말탄 아이의 모습을 담고 있는 카메라 앵글 속에서도 행복이 반짝거렸다. 세상이 그러하듯 눈부시게 반짝이는 은광도 비껴가는 곳이 있다. 커다란 방파제 시멘트구조물 덩어리 사이로 어둔 그림자가 깊게 내려앉아 있다. 그 깊은 바닥에서 일렁거리는 검푸른 물결에 아득한 현기증이 일어났다, 검은 물그림자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두려움으로 잊혀져가던 몇 해 전의 상흔이 파도처럼 밀려온다.

사면초가라 했던가. 그날, 사방으로 손을 내밀어도 모두가 외면하는 세상에서 무작정 도망쳐 왔었다. 검붉은 노을 따라 다가올 어둠속에 홀로 남겨질 두려움에 떨며 방파제를 걸었다. 그토록 동경하던 푸른바다는 먼 곳으로부터 불타오르고 있었다. 출렁거리는 물결 따라 번쩍이는 붉은 빛은 화살이 되어 공허한 폐부를 찔러 왔다. 발아래 검은 물결이 한없이 부드러운 손짓으로 부르고 있었다. 이제는 그만 짐을 내려놓고 평안히 쉬어도 좋겠다고......

이십여 년 동안, 주변 한번 돌아보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했던 직장을 내려놓아야 했다. 여섯 번의 이사로 두세 군데의 초등학교를 다니며 상처 입은 두 아들에게는 지금도 미안한 마음이다. 전국각지의 공장과 영업소를 돌고 해외지사와 본사 주요요직을 거치면서 온 세상을 손아귀에 쥐었다고 자신한 과거를 생각하면 어색

한 웃음이 나온다. 경영진이 바뀌고 동기들이 회사를 떠나도 나에게 다가오는 어두운 그림자는 애써 외면했었다. 신세대들이 정면에 등장하면서 그동안 모든 것을 바친 직장에서 나는 군더더기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었다. 더 이상 나에 대하여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이전부터 없었던 존재처럼 회사는 잘 돌아간다. 주변을 둘러보아도 끼어 들어갈 틈바구니 하나 없는 소외감으로 도망치듯이 왔었다.

그날, 등대 앞에 앉아 있었다. 가슴속에서 일어난 비애로 얼굴에서는 일그러진 웃음이 배어 나왔다. 시작을 알 수 없이 끝없이 몰려오는 파도조차도 나를 밀어 내는 것 같았다.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는 참담함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다. 근근이 저축하고도 모자라 은행 빚을 얻어 마련한 작은 아파트는 근저당에 잡혀있다. 두 아이와 아내의 얼굴이 눈앞에서 아른거렸다. 우리 집이 생겼다고 폴짝폴짝 뛰며 좋아하는 아이들과 연신 웃음을 흘리며 두부를 (콩)고기라며 내어놓던 아내를 바라볼 수 없었다. 어린 시절 밤하늘의 별이 아름다운 시골에서 자라나 외지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한 것은 어머니의 자랑거리였다. 지난 세월이 억울해서 마구 소리라도 치고 싶었다. 그동안 가졌다고 자위하던 모든 것들이 사라졌다. 직장생활 이십여 년에 남아 있는 것은 아득한 절망과 반지르르하던 얼굴에 나타난 중년의 징표뿐이었다. 어머니의 얼굴이 지나가고 아내와 아이들의 웃는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다. 들고 있던 조약돌을 분풀이하듯 체념하듯 검은 바다로 던져 버렸다. 떨어진 조약돌은 밀려오는 파도에 작은 파장하나 만들지 못하고 사라져 버렸다. 저녁노을이 붉게 물들이는 풍경마저도 서러웠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멍한 시선은 어둠에 물드는 바다와 섬들을 지나쳐 갔다. 어디선가에서 날아든 갈매기의 느릿한 날갯짓을 쫓아가던 시선이 방파제 끝에 서있는 하얀 등대에 머물렀다. 지나가는 바람은 파도를 부추기며 갯바위를 향하여 행하게 불어가고, 갈매기는 파스한 보급자리를 향하여 날개를 살짝 비틀었다. 모두가 제각각의 거처로 돌아간 곳에서 갈 곳 없는 나는 등대와 함께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어둠속에서 우뚝 선 등대는 검은 바다를 향하여 하얀 빛기둥을 쏘아낸다. 조

금이라도 더 밝게 더 멀리 불빛을 쏘아 보아도 보이는 것은 암흑 속에 일렁이는 파도뿐이었다. 그러나 등대는 낙엽 같은 작은 배 하나에라도 희망을 걸고 끊임없이 불빛을 쏘아낼 것이다. 간절함을 담아 보내는 희망의 불빛을 검은 파도가 감고 허망하게 깊은 바다 속으로 들어가 버려도 좌절을 모른다. 넘실거리는 파도나 덮어오는 어둠을 원망하지 않고 반겨주는 이 없는 검은 수평선너머로 환하게 마중 나간다.

어둠속에서 작은 불빛 하나가 흔들렸다. 파도는 흔들리는 불빛을 잡아채고 어둠의 세계로 몰아가려고만 했다. 검은 하늘마저 별빛하나 내려주지 않을 땐 희망의 끈을 놓고 싶을 것이다. 수평선에서 흔들리는 작은 불빛이 멀리 사라질까 두려워하며 등대는 정성을 다하여 불빛을 비추고 있었다. 수없이 반복하여 쏘아내는 희망에 작은 배는 천천히 부두로 향했다.

어둠속에서 홀로 파도와 싸우는 작은 배와 끊임없이 희망을 쏘아내는 등대를 보면서 자신을 반추하게 되었다. 그래,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은 곳에서 버틴다는 것은 인생의 낭비이고 세상에는 아직도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다고 자위했다. 등대는 속삭이고 있었다. '희망은 앞에 있는 것이지, 뒤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백세시대가 온다고 한다. 악화된 것은 없다. 있다면 변화다. 인생의 후반생이 열리고 있고 그곳에 희망이 있다. '지금 아름다운 후반생을 위하여 새로운 도전을 할 시기이고, 그 기회가 왔다.'라고 등대는 말하는 것 같았다.

“끼룩 끼룩” 갈매기 몇 마리가 등대주변으로 날아들었다. 잠에서 깨어나듯 정신이 들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한줄기 시원한 바람이 불을 스치고 아직도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먼 바다 끝에서 여명이 움트고 있었다. 한결같이 그 자리에서 희망을 쏘아내던 하얀 등대가 푸른 파도와 어울려 그림 같았다. 태양이 다시 찬란하게 떠오를 때 하얀 등대가 전해주는 희망을 가슴에 품었다. '그래, 단별의 꿈을 걸치고 100년을 우려먹는 인생이라면 재미없지 않겠는가?' 입가에 미소가 흘렀다. 다시금 새로운 후반생을 역어나갈 꿈을 안고 밝아오는 아침햇살을 받으며 일어섰다. 등대를 올려다보니 그도 웃고 있었다.



꿈꾸면 이루어진다고 했다. 얼마 후 창업의 기회가 왔고, 몇 명의 직원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하였다. 인생의 제2막을 준비해 준 등대의 속삭임 '꿈은 앞에 있다'를 경영철학으로 세웠다. 오년이 지난 지금 오십여 명의 직원들과 함께 내일로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지나온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오늘의 고난에 절망하지 말자.' '등대는 외롭고 두려운 밤이라도 앞을 향하여 끝없는 희망을 쏘아낸다.' 언제나 가슴에 간직하고 힘든 날이면 수없이 되뇌는 말이다. 지난 반백년의 인생이 우직하게 앞만 향하여 달려온 역동적인 인생이라면 후반생은 전체를 관조하면서 욕심보다는 어울림의 삶을 사는 조화의 인생이기를 꿈꾼다.

이젠 발아래 어두운 물그림자가 두렵지 않다. 가슴속에 품은 등대가 희망을 쏘아내고 있다.







제2회 등대문학상

우수상

김 미 숙

울산광역시

## 당선소감

바다는 저에게 떼려야 뗄 수 없는 피붙이 같습니다.  
어릴 적엔 낙조가 아름다운 경기도 서해바닷가에서  
자랐고 지금의 저는 일출이 아름다운 동해바다가  
지척인 울산에 살고 있습니다.

바다의 추억과 현재의 바다가 있어 꿈 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늘 코끝에서는 바닷바람이 불고,  
몸속에는 바다가 흐르고 있습니다.

어느 바다를 가든 지척에 서 있던 등대.  
늘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무심히 바다를 바라보고  
서 있는 등대는 어떤 이에게는 삶의 빛이요 희망인,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이듯  
등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등대문학상을 제정해 주신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과  
심사위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책 읽는 등대

\* 제2회 등대문학상 우수상 / 시

김 미 숙



— 화암추등대 —

등대는 독서광이다  
낮이나 밤이나 바다를 읽는다  
은사시 나뭇잎처럼 반짝이는 아침 햇살아래  
멍게, 해삼, 전복, 소리를 채취하는  
해녀들의 숨비 소리와  
저녁노을 속 나뭇잎 같이 작은 통통배 위  
노부부가 힘겹게 그물 올리고 있는 모습과  
물살을 가르며 날썰게 지나가는  
돌고래 떼의 웃음소리를 읽는 등대  
양떼구름을 몰고 가는 늑대바람을 읽다가  
월광소나타의 피아노 소리 같은 달빛과  
하늘로 올라가 별자리가 된 신화를 읽기도 해  
거센 파도와 비바람 헤치며 돌아오는  
어선들을 읽을 때 남모르게 숙연해지기도 하지  
바람이 거칠게 책장을 넘길 때마다  
서진<sup>1)</sup>書鎭처럼 눌러 놓은 섬들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바다를 읽다가, 바다에 반해, 시인이 되어버린,  
그가 바다시집을 출판했다  
시인의 이름은 화암추등대  
오늘도 길이 남을 시 한편을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책을 읽고 있다

1) 책장이나 종이쪽 따위가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누르는 물건.





제2회 등대문학상

우수상

김 성 준

서울특별시

## 당선소감

어린 시절을 어촌에서 보낸 저는 밤마다 저 멀리서  
반짝이는 등대를 구경했습니다.

찾아오는 선박도 드문 한적한 마을이었지만 등대는  
밤새도록 빛을 비추었습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를 손님을 기다리는 듯  
등대는 외로워 보였습니다.

저 등대에는 누가 살까, 등대지기는 무엇을 먹을까,  
집에는 언제 갈까, 심심하지 않을까.....  
등대는 항상 저의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아이들이 흠어져 몽땅 집으로 가버린 밤에는  
등대가 저의 친구가 되어주었던 것입니다.

그 등대를 소재로 큰 상을 받으니 기쁨에 마음이 들뜩니다.

변변치 못한 작품에 눈길을 주신 울산지방해양항만청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등대의 노래

\* 제2회 등대문학상 우수상 / 소설

김 성 준



냉기에 패퇴한 감각이 말단에서부터 후퇴한다. 차가운 해수가 점차 뺏속까지  
진군하는 느낌이다. 물 차오른 세포막이 팽팽해져 드디어 찢물에 찢길 때 나는 바  
다가 될 것인가. 흠에서 왔지만 흠으로 돌아갈 수 없는 뱃사람.

바다의 귀기는 언제나 자비로워 인간의 감각을 앗아간 후 그를 받아들인다. 사  
이렌은 선원의 감각을 무디게 함으로써 그들이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었다. 사  
이렌의 노래에 취한 듯 나는 움직일 수 없다. 물결 위를 부유하는 달이 막대기 같  
은 내 몸에 걸쳐질 때 나는 전복되듯 거꾸로 뒤집혔다. 나는 코와 입이 막힌 채 마  
지막 감각마저 사라지기를 기다렸다. 아래로 끝없는, 하지만 그 무엇도 없는 심연.  
그것은 '0'이었다. 아무것도 더한 것도, 뺀 것도 없는 평정한 상태. 그러나 그 너머  
로는 무한대의 유리수가 0을 기점으로 음양의 방향으로 한없이 뻗어나가는 것. 나  
는 양의 정수 해발과 음의 정수 수심의 팽팽한 긴장 사이에서 뒤집히기를 반복했  
다. 하늘로부터 가장 낮은 면(面)을 향해 추락한 것인가, 해저로부터 가장 높은 점  
에 떠 있는 것인가. 생과 사가 결국 하나의 지점에서 만나듯 나는 양극이 접한 지  
점에서 점차 얼어붙는다.

마녀 키르케는 오디세우스에게 몸을 배에 묶고, 밀랍으로 선원들의 귀를 막으  
라 일러주었다. 배에 묶은 자는 살았으나 나는 바다에 묶였다. 밀랍으로 귀를 막은  
자는 사이렌의 노래를 듣지 않았으나 나는 막을 청력조차 점점 상실돼 간다. 달빛  
은 등대의 불빛처럼 나의 구조를 포기하지 않아 계속 비춰주고 있다. 그러나 그런

달빛은 밤바다의 어디에나 있다. 오로지 시켜면 바다만이 사냥하는 흑표처럼 조용히 웅크린 채 나를 노려본다. 사랑사랑 잔물결은 내게 소금을 친다. 음식에 간을 맞추듯.

어디선가 환청처럼 등대의 노래가 들려온다. 빛의 창이 환상처럼 어둠의 복부를 찌르고 있다. 어서 뱔으라고. 네가 삼키려던 것을 당장 토해내라고. 몇 개의 묵직한 창은 날카롭게 밤바다를 베고 찌르고 쏜다. 이 경사님, 이 경사님……. 나를 부르고 있다. 나는 목소리의 주인들을 구분하지 못한다. 쉬어버려 몽땅 같은 목소리였다. 어떻게든 대꾸를 해보려고 했지만 말조차 얼어붙어 나오지 않는다. 스스로 감기는 눈꺼풀 사이로 등대가 던진 창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창처럼 쪽 뺨은 저 빛을 사다리 삼아 밟고 올라선다면 나는 살 것인가. 그러나 물의 장력은 호락호락하지가 않다. 언젠가, 방파제에 패인 작은 웅덩이에 잠자리가 빠져 죽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잠자리는 파닥거리는 날갯짓으로도 물 표면의 장력을 어찌지 못했다. 그때는 내가 이 경사 대신 이명재로 불릴 때였다.

“맹재야, 나는 절대로 애비처럼 뱃놈 되지 마래이.”

쭈그리고 앉아 잠자리의 죽음을 보고 있을 때 아버지가 썹썹 소리를 내며 말했다. 아버지의 손은, 늘 그렇듯 자신의 인생처럼 꼬여버린 그물을 펴고 있었다.

“와요?”

잠자리를 꺼내주며 내가 물었다.

“와긴 와고. 내가 우썸등동 니 하나는 대학 공부까지 시킬 테िका 니는 제발 애비처럼 살지 말그라.”

아버지는 등대지기의 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할아버지에 대해 도통 말을 하지 않았다. 얼굴도 모르는 할아버지에게 등대를 물려받을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나는 아버지로부터 피와 살을 물려받듯 어선과 그물도 함께 상속받아야 했다. 기실 폐병으로 죽어가던 아버지는 남길 것이 그것밖에 없었다. 바다는 아버지의 어깨처럼 넓었지만 팔뚝처럼 거칠고 억했다. 나는 출어에 나서는 아버지가 바다와 팔씨름을 하러 가는 것이라 생각하곤 했다.

“싫다. 나는 이다음에 크면 아버지랑 뱃일 나갈 까다.”

일곱 살이었던 나는 그 ‘이다음’이 너무나 아득히 느껴졌지만 아버지는 당장 큰 일이라도 날 것처럼 나를 나무랐다. 나는 죽은 잠자리를 손가락에 쥔 채 한참을 야단맞은 후 아버지에게 물었다. 뱃사람이 되겠다는 장래희망은 나름은 다리가 불편한 아버지를 위해서 한 말이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도리어 내게 생채기를 냈고, 그에 대한 반발로 기어코 그 질문을 하고야 말았던 것이다.

“아버지는 다리를 와 맨날 절뚝거리는데? 상어한테 물렸나?”

본 적도 없는 상어였다. 그러나 그 날카로운 이빨과 힘이 아니고서야 아버지를 절뚝거리게 만들 존재를 따로 상상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대답이 없었다. 어쩌면 뭐라고 대답했는데 갈매기의 울음소리나 파도소리에 묻혔는지도 모를 일이다. 나는 다시 물어볼 용기를 내지 못하였다.

어릴 적 아버지의 꿈은 해경 정장이었다. 목선밖에 없던 시절, 쇠로 만든 해경 경비정은 그렇게 웅장하고 단단해 보일 수 없었다. 조타실에서 망원경을 끼고 멀리 내다보다가 사이렌을 울려대던 정장이 세상에서 가장 위엄 있고 멋있어 보였다. 하지만 할아버지를 따라 나무로 만든 통통배를 처음 타고부터 배 목수가 그렇게 되고 싶어 했다. 한때, 어른 처자들에게선 선장(船匠)이 군수에 버금가는 혼처였다. 목선 조선소 하나 가지고 있으면 유지가 따로 없었다. 그만큼 대우가 좋았고, 벌이도 만만치 않았다. 베트남전에서 입은 총상으로 비록 다리를 절뚝거렸지만 망치로 맞아가며 누구보다 일을 열심히 배웠다.

“총보다 망치가 덜 아프네.”

망치로 얻어맞을 때마다 아버지는 너스레를 떨었다. 피부처럼 붙이고 다니던 공구통에는 손때 묻어 반들거리던 쥘쇠, 자, 통, 도끼, 자귀, 배못, 배밥, 대패, 먹통과 먹갈, 물반, 꺾쇠, 못뿔기 등이 꽂혀 들어 있었다. 그러나 시절에도 바다처럼 먹장구름이 끼는지, 활어 수조가 갖춰진 FRP선이 나오고부터 목선 조선소에도 풍량이 몰아쳤다. 아버지는 배 만드는 일을 접고 배를 타야 했다.

“맹재야, 목선은 철선이라 달라서 녹도 안 슬고, 물에 잠길수록 단단해진대이.”

고집스레 나무로 만든 통통배만 타던 아버지는 종종 내게 이렇게 말했다. 아직

도 선장(船匠)에 대한 집착이 남은 건지, 변해가는 바다의 풍경이 어색하여 싫어했는지 나는 알 수 없었다.

“그게도 요새 목선 타는 사람이 어딴는교? 철구네도 글코, 현수네도 글코, 아무도 나무배 안 타나디.”

아버지는 대답 대신 어구를 이리저리 치웠던 걸로 기억한다. 아버지가 왜 목선을 고집했는지는 아직도 모르겠다. 물에 잠겨도 녹이 안 슬고, 잠길수록 단단해진다는 그 목선. 사람이 사물과 오래 하면 그것을 닮는다고 했던가. 산(山)사람의 기질이 농군과 같을 수 없고, 농군의 성정도 뱃사람과는 다르다. 아버지는 강인하고 야무지고 변함이 없었다. 파도를 뚫을수록 더욱 농밀해지는 목선의 조직처럼.

나를 반드시 대학 공부까지 시키겠다던 아버지는 베트남전 고엽제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폐병으로 돌아가셨다. 내가 고등학교 원서를 쓰던, 요즘 같은 초겨울이었다. 하얗게 가버워진 아버지를 하늘로 날려주었지만 아버지는 허공에서 몇 바퀴 흰 꽃을 그리다 고집스레 바다에 안겼다. 나는 만류하는 선생 앞에서 인문계 고등학교 원서를 찢어발기고 수산고등학교 입학원서를 집어 들었다. 아버지 사진이 박힌 서류를 들고 관청을 드나들던 어머니는 내 가방에서 수고 원서를 발견하고는 부엌으로 들어가 수돗물을 거칠게 틀어놓았었다. 나는 팔팔 쏟아지는 수돗물 소리가 들기 싫어 방파제로 뛰어갔었다. 수평선에서부터 어둠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다. 나는 아직 뒷산의 해넘이가 다하기 전에 동화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랐다. 붉은 해넘이가 단 한 번이라도 아버지의 시뻘쭙던 얼굴을 물결 위에 그려주길, 허망한 줄 알면서도 기다리곤 하였다. 그러나 바다에서 죽거나 죽어서 바다로 간 사람들은 너무나 많았던지, 바다는 나를 편애하지 않았다.

서서히 침수되어 둔중하고 조용해지는 침몰선처럼 내 감각은 점차 나로부터 멀어져간다. 이 경사님……. 이 경사님……. 부르는 음성과 헐레벌떡 숨넘어가는 엔진 소리는 대양 너머에서 건너온 듯 까마득하다. 지친 경비정들이 빛의 창을 다른 데로 돌리자 나는 다시 적막 위에 떠올랐다. 한 줄기 유명만이 입에서 흘러나온다. 그것은 아버지처럼 하얀 꽃이 되어 두어 번 돌다가 흩어진다.

박 경장은 이미 죽었을까, 아니면 진작 구조되었을까. 어쩌면 나처럼 아직 빙하 같은 바다 위를 미끄러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늦가을의 밤바다는 차라리 유빙이다. 먼저 떨어진 것은 박 경장이었다. 중국 선원은 짝 쥐고 있던 갈고리로 박 경장의 허벅지를 힘껏 찼었다. 하체는 방검복을 착용할 호사를 누리지 못한다. 바다로 추락한 박 경장의 허벅지에서 한 마리 붉은 실뱀이 흐느적거리며 빠져나왔다. 내가 고개를 돌리며 ‘박 경장!’ 하고 소리쳤을 때 누군가가 휘두른 쇠파이프는 내 헬멧을 가격했다. 나는 낙하하는 낙엽처럼 빙글빙글 돌며 어선 우현에서 떨어졌다. 고속단정에 남은 해경은 네 명. 사이렌 소리를 들은 중국 어선들은 도망치기는 커녕 오히려 동료들을 돕기 위해 몰려들었다. 어둠 속에서 수백 척이 하나의 선단을 이루었으니 벌통을 쑤신 격이었다. 나머지 대원들은 무사히 퇴각을 했을까. 마지막 막으로 본 건 발령받은 지 보름밖에 안 된 순경이 삼으로 얻어맞는 장면이었다. 나는 아직 그의 이름조차 헛갈린다. 3020함은 급히 물대포를 쏘며 다가왔지만 그 소란이 일으킨 파도에 나는 멀리 밀려났다. 그 옛날, 수고 원서를 들고서 자발적으로 꿈에서 밀려나야 했듯이. 혹은 운명이란 것의 자장에 끌려가야 했듯이.

수산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원양어선을 탔다. 대학에도 가고, 벡타이 맨 회사원도 되고 싶다는 꿈은 인문계 고등학교 원서를 찢어버릴 때 함께 버렸다. 돈을 벌어야 했다. 내가 팔 수 있는 건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완력이 전부였다. 떠나던 날, 동생들은 내가 건넨 초코파이 한 박스를 두고 싸웠고, 어머니는 또다시 부엌문을 걸어 잠갔다. 대문까지 쫓아오는 흐느낌 소리가 어머니의 마지막 음성이었다. 어머니는 내가 원양에서 돌아오기도 전에 미역을 따다 파도에 휩쓸렸다. 웬만한 힘으로 빠져나올 파도였지만 그만한 파도조차 이기기 힘들 만큼 어머니는 작았다. 발령을 반드시 연고지로 받지 않아도 될 이유였다.

울산으로, 동해로, 서귀포로, 태안으로……. 목포로 오기까지 두 번 발령받을 때마다 한 계급씩 진급했다. 순경 때 결혼했고, 경장 때 아들을 얻었다. 경사를 달고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지금은 그 아이가 벌써 중학생이다. 사춘기인지 엄마 말을 도통 안 들어먹는 눈치지만 7박 8일 만에 돌아오는 애비로서는 집안의



영을 세울 면조차 없었다. 오늘이 출동 칠일 째, 아내는 내일이 장인 생신이므로 같이 친정에나 가자고 했다.

어느 때부터가 목포는 발령 기피 지역이 됐다. 목포해경이 담당하는 해역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가장 많은 곳이다. 불법 조업을 하다가 나포되는 중국어선 중 절반은 목포해경에게 잡힌다. 울산에 있을 때 선박서 만난 아내는 고향이 목포라고 했다.

잠밥이라는 게 찰수록 일은 쉬워질 줄 알았다. 그러나 자기네 해역의 어족 씨를 말려버린 중국 어선은 해가 갈수록 흥포해졌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듯 삼면이 바다인 나라도 그 바다가 조용할 날은 없다. 동해에서 근무하는 동기는 나보다 먼저 경위를 달았지만 독도 경비에 명이 짧아지겠다고 푸념을 늘어놓았다. 서해보다 높은 동해의 파도다. 과한 엄살은 아닐 것이다. 나는 중국 선원들한테 맞아죽을지도 모르겠다고, 전화기 너머의 동기에서 하소연을 했다. 그리고 서로 킬킬 웃었다.

“이 경사, 배에는 왜 다리가 없는 줄 알아?”

동기는 대화중에 엉뚱한 말을 했다. 나는 무슨 똥판지같은 말인가 싶어서 그 뜻을 언뜻 알아차리지 못했다.

“배에 왜 다리가 없냐고? 그럼 배가 걸어다니나? 항해를 하니까 당연히 다리가 없지.”

“다리를 갖춘 것들은 걸을수록 다리가 아파 오거든. 그래서 쉬어야 해. 하지만 배는 다리가 없으니까 아플 일도 없지. 그래서 오래 항해를 할 수 있는 거야. 항해는 설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

다리 없는 배는 오랫동안 항해 한다……. 다리를 절뚝거리던 내 아버지는 쉬는 일이 없었다. “맹재야, 목선은 잠길수록 단단해진데이.” 해경 생활도 어느덧 15년. 15년의 세월에 잠기고도 나는 아버지처럼 단단해질 수 없었다. 바다는 가도 가도 끝이 없고, 인생은 살아도 살아도 항상 제자리였다. 나는 철선이었다. 잠길수록 녹스는 철선이었다. 그래서 거둬 페인트를 덧칠해야 하는 철선이었다. 바다는 갈수록 딱딱하게만 굴었고, 그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거친 바닷물을 마셔 더 황

폐해졌다.

중국 해상치안기관인 황발해구어정국(黃渤海區漁政局)은 우리 해경과 불법조업을 일삼는 중국어선에 공동 대응하기로 업무협약까지 체결했다. 그게 벌써 2007년에 있었던 일이다. 그 후로도 양측은 정례회의를 해가며 대책을 논의했지만 중국 어선은 비웃듯 EEZ를 넘나들었다. 선단은 한 방울의 잉크처럼 항구에서 떨어지지만 넓은 서해의 조류를 타며 광활하게 퍼져나갔다. 적은 해경 인원으로는 도무지 감당이 되지 않는다. 힘들어 죽든 맞아 죽든 물에 빠져 죽든 죽는 수밖에 없다고, 누군가 투덜거렸었다. 누군가 죽겠다고 투덜거리는 동안 정말로 누군가는 죽어나갔고, 누군가가 죽어나갈수록 투덜거림은 분노로 바뀌었다.

멀리 육중한 소음이 몽게구름처럼 저 너머에서 솟구친다. 해경 초계기가 분명하다. 저 비행기가 그리는 그래프는 내가 부유하는 점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을까. 야밤의 바다다. 초계기가 뜬다한들 모래알보다 작은 나를 찾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날도 초계기가 우리 머리 위를 황급히 날아갔다. 부우우우우웅. 초계기는 내가 탄 함정보고 빨리 따라오라는 듯 성미 급한 굉음을 내고 사라졌다. 어업감독공무원 여섯 명이 탄 어업관리선이 중국 어선에 포위당했다는 급보가 날아든 것은 30분 전. 24노트로 급히 가도 속은 타들어갔다. 우리 영해에서, 우리 공무원이, 우리 관리선을 탄 채 위협을 당하고 있었다. 그들은 변변한 가스충조차 지급받지 못하여 삼단봉으로 모든 걸 해결해야 한다. 바다는 넓지만 예산은 부족하다. 고갈된 예산은 몸뚱이로 채워야 한다. 일타로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하며, 삼단봉의 타격만으로 어족자원과 자기 목숨의 보존을 바라며. 그러나 삼단봉으로만 해결되기엔 중국 선원들의 저항은 백상아리처럼 사나웠다. 물고 뜯고 때리고 찌르고 짓이기고 차고 밀고 빠트렸다. 그들도 물에서는 누군가의 아들이며 남편이며 아버지일 것이다. 그러나 사이렌만 들으면 들끓는 야성이 그들을 사실상 해적으로 만들어 놓았다. 단속에 적발되는 불법조업어선은 최고 2억 원의 벌금에 어구, 어획물을 모조리 압수당한다. 선주는 막대한 벌금을 다시 선원들에게 분담시킨다. 그걸 나눠 갖기 위해 몇 년씩 선상노예로 노역할 것인가. 자국 정부로부터 가해지는 이중처벌

까지 감수할 것인가. 그들은 차라리 해상의 야차가 되기를 택했다. 살아야 할 것이다. 그들도 살아야 할 것이므로 남을 살상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최고속도 24노트이지만 잿빛 하늘은 움직일 생각이 없었다. 사람이 급하다고 바다가 길을 터주는 건 아니다. 3미터의 파도. 함정은 파도로 둘러쳐진 만리장성을 끝없이 넘어 어업관리선을 향해 나아갔다.

호구(虎口)의 형국이었다. 어업관리선은 호구에 갇힌 흰 돌이었다. 뒤로 물러서면 바둑판 밖으로 떨어지고, 앞으로 나아가자니 검은 돌이 사면초가를 부른다. 완전한 포위상태에서 왜소한 어업관리선 한 척이 외로운 태극기를 휘날리고 있었다.

함장은 물대포를 쏠 것을 지시했고, 나는 동료들과 고속 단정에 올라탔다.

“어이, 이 경사, 조심해라. 간밤에 꿈자리 뒤숭숭하더라.”

“함장님 꿈은 만날 개꿈 아닙니까.”

“장난 아니다, 인마.”

조타실에서 함장이 엉뚱한 무전을 쳤다. 함장의 꿈은 늘 적중하지 않았다. 똥 꿈을 꾸고 로또를 사러 가면 되돌아오는 길에 똥을 밟는 게 함장이었다. 돼지꿈을 꿔다고 연금복권을 사면 삼겹살 먹고 배탈이 나는 것도 함장이었다. 하지만 그날은 그의 충고가 웬지 불길했다. 물대포가 그리는 무지개를 쫓아 내가 탄 고속 단정은 중국 선단을 향해 치달았다.

공무원들은 서로에게 등을 맞대며 갑판 위에 작은 원을 그리고 있었다. 성난 중국 선원들이 다가올수록 원은 점점 더 작아졌다. 마침내 더 이상 원을 좁힐 수 없을 때 중국인 선원 하나가 파이프를 휘두르기 시작했다.

“안 되겠다. 쏘자.”

내가 박 경장에게 고함을 쳤다. 핏대를 세우지 않고서는 바로 옆 사람에게도 육성이 전달되지 않았다.

“파도가 심해서 조준이 안 됩니다.”

고속 단정은 물수제비를 그리는 조약돌처럼 수면 위에 붕 뜨다시피 했다.

“파도가 너무 높습니다. 이러다 뒤집히는 거 아닙니까?”

고무탄 발사기를 조준하던 박 경장이 나를 돌아보며 소리쳤다.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사실 뭐라고 대답해야 좋을지 몰랐다. 파도가 심하니 함정으로 돌아가자고 해야 하나, 아니면 저들을 구해야 하니 우리가 죽더라도 나아가자고 해야 하나. 대답을 머뭇거리는 사이에 고속 단정은 어업관리선 가까이 바싹 다가갔다.

“줘 보라. 내가 쏘지.”

나는 파도에 어쩔 줄 몰라 하는 박 경장에게서 고무탄 발사기를 건네받았다. 우리가 다가오는 걸 본 중국 선원들은 더 흥분해서 날뛰었다. 그들은 ‘니즈팔러마(你吃饭了吗?)’, ‘니즈팔러마(你吃饭了吗?)’라며 조롱하듯 우리에게 고함쳤다. 그건 식사했느냐는 중국어 인사였지만, 한국말로로는 욕설 비슷하게 들리기도 한다. 그중 누군가는 한국 건설현장에서 쌍욕부터 배웠을 것이다. 그걸 통쾌하게 우리한테 돌려주는 셈이었다. 겁에 질린 어업감독공무원들은 부르르 떠는 오른팔로 머리를 감싸며 매질을 견뎌내고 있었다.

사타구니 사이로 굵은 뱀 서너 마리가 꾸물꾸물 기어가는 게 느껴진다. 박 경장의 허벅지에서 빠져나온 붉은 실뱀은 아니다. 옹골찬 기운이 은빛을 발하며 나를 탐색한다. 갈치다. 니즈팔러마? 갈치는 서로에게 그렇게 인사를 나누며 내 주위를 맴돈다. 내가 사람이 아니라 시신이 될 때, 시신은 다시 갈치가 될 것이다.

어쩌면 그도 갈치가 됐을지 모른다. 결국 아무도 그를 찾아내지 못했다. 한국 영해에서 불법조원을 하던 중국인 선원의 실종은 뉴스에서 지나가듯 단신으로 처리됐다. 3미터 파도를 헤치며 두어 번 찾아보다가 실종 처리. 그는 갈치가 됐을 것이다. 박 경장에게서 고무탄 발사기를 뺏은 나는 중국 어선 조타실을 향해 몇 발 발사했다. 그러나 파도가 고속 단정을 후려했기에 고무탄은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갔다. 파도가 뱃전을 처박는 소리, 선측이 서로 맞닿을 때마다 뿜어져 나오는 물줄기의 비명, 선원들의 고함치는 소리……. 그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었다. 그 소란과 소음의 한가운데에서 나이 든 중국인 선원 한 명이 가슴을 움켜잡은 채 바다로 고꾸라졌다. 앓던 선원에게 다가가지 말라며 양팔을 벌려 만류할 때 그의 심장은 무방비상태였다. 풍덩 소리를 들은 그의 동료들은 선측으로, 고물로 몰려들

었다. 그 틈을 타 어업감독공무원들은 중국 어선에서 탈출했다. 중국인들 중 누군가는 알 수 없는 육지거리를 나에게 해냈고, 누군가는 두 손을 번쩍 들고 행복의사를 표시했다. 나를 사납게 노려보는 어린 선원의 손에는 고무탄이 들려 있었다. 그는 추락한 선원이 파도에 휩쓸려 가는 절망을 망연히 바라보며 주저앉았다. ‘빠바(爸爸)’, ‘빠바(爸爸)’……. 어린 선원의 입에서 ‘아버지’라는 낱말이 흘러나오자마자 바닷바람에 휩쓸렸다.

누군가와 통화를 끝낸 서장은 어쩔 줄 몰라 했다. 한숨을 몰아쉬던 그는 쥐고 있던 수화기를 한참 동안 놓지 못했다. 그러나 그것은 정당한 법집행이었고, 모든 절차는 규정대로 이루어졌다.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행위였으니 정당방위였으며, 명백히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였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는 단단히 화가 났거나 혹은 분격한 척을 했다. 우리 정부는 달래주어야 할 입장이 되었다.

“너무 걱정하지 말게. 자네 잘못이 아니야.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네.”

서장은 깊이 파인 이마 주름살을 움찔거리며 나를 위로했다. 그러나 장차관이 오고가는 판국에 서장인들 무얼 할 수 있었을까. 함장은 내게 자기 지시대로 했을 뿐이라고 진술하라며 토닥거렸다. 그러나 사람 하나가 죽었다. 아버가 아들 앞에서 죽었다. 그는 뻗뻗한 막대기처럼 굳은 채 돌아갈 수 없는 고향을 그리며 영원히 바다를 부유할 것이다. 바다. 한 번 들어서면 미로처럼 빠져나갈 수 없는 마력의 공간. 그래, 그는 아직도 이 바다를 떠다니고 있을 것이다.

할아버지는 등대지기라는 직업을 소중히 여겼다. 어머니에게서 들었다. 할아버지 얘기를 하기 싫어하는 아버지는 당신의 아버지에 대해 말을 아끼셨다. 뭔가 단단히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라 짐작했다. 할아버지 제삿날에 촛불을 켜지 않는 것도 그 때문이라 생각했다.

“등대에서 일하시다가 돌아가신 양반 아이가. 무슨 세상을 그리도 등지고 싶으셨던지 니 할매가 느그 아버지 낳고 얼마 안 있어가 등대지기 일 시작했다 카더라.”

왜 제사상에 촛불을 켜지 않는냐고 어머니에게 묻자 어머니가 저렇게 입을 떼었다.

“등대에서 우짜다가 돌아가셨는교?”

“나도 잘은 모르지. 느그 아버지가 통 말을 안 하니까. 뭐라 카더라. 고장 나서 표류하던 배가 밤에 등대 불빛 보고 찾아오다가 그만 육지를 코앞에 두고 난파당했는데, 느그 할매가 우짤 용기를 냈는지 그 밤에 사람 건지러 드가셨다 안 카나.”

“그래가요?”

“그래가는 뭐가 그래가고. 밤에 우째 사람이 바다에 드가노. 마, 일이 그래 된 거지.”

그때 아버지가 세 살인가 그랬단다.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얼굴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고, 집 대신 등대를, 가족 대신 선원을 더 챙긴 할아버지를 내내 원망하셨다고 한다. 그 모진 마음은 할머니의 고생을 볼 때마다 커져이 쌓이다 못해 등대보다 더 높아졌다.

할아버지가 빛을 쏘며 지켜보던 바다. 그리고 나에게 죽은 남자가 아직도 떠도는 바다. 그 바다를 이제 내가 유영한다. 그가 내뿜는 귀기(鬼氣)의 서늘한 한숨이 물안개가 되어 나를 잠식해 온다. 나는 이미 죽은 것인가. 감각은 없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 지금 생각하는 나는 누구인가. 산 것과 죽은 것이 뒤엉켜 넘실대는 파도 위에서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그 무엇이 지난날을 하릴없이 생각한다.

그 일이 있고부터 죽음은 이미 내 심장 속에 들어와 있었는지도 모른다. 박동할 때마다 죽음의 냄새는 함께 뛰었고, 뜨거운 피가 동맥을 타고 뿔어져 나올 때마다 서늘한 기운은 정맥을 타고 되돌아왔다. 버티는 게 두려웠지만 버티지 않고서는 달리 수가 없었다. 중국 어선만 봐도 그의 얼굴이 떠올랐다. 시커멓게 그을린 중국인 선원들은 모두 닮았기에 모조리 그의 분신 같았다.

오늘이 고속 단정을 타는 마지막 날이었다. 서장은 곧 한가한 출장소로 나를 발령내주겠다고 했고, 함장은 다시는 고속 단정을 타지 말라고 만류했다. 그러나 항상 부족하다는 예산만큼이나 인력도 턱없이 부족했다.

“니끼미, 이러다가 깡물로 배 채워야 할 판인 기라.”

아버지는 풍어제가 끊기고부터 바다가 켄켄하게만 군다고 자주 불평했다. 하늘이 노하면 비가 오지 않고, 바다가 노하면 소출이 줄어든다. 그러나 중국 선원들



은 바다가 노하기도 전에 바다 자체를 없앨 기세였다. 저인망 쌍끌이 어선으로 바다 밑바닥까지 그물로 훑어 물고기 씨가 마를 지경이었다. 중국인들의 수산물 소비량이 세 배 증가하는 동안 동중국해의 오염도는 두 배 늘어났다. 산샤(三峽)댐 건설로 동중국해 영양분은 감소했지만, 늘어나는 건 폐그물과 오염물질이었다. 논 밭에 먹을 게 없으면 농민은 산적이 된다. 바다가 사막으로 변하면 어민은 해적이 된다. 지켜야 할 곳은 넓고, 지켜야 할 것은 많았다. 앓고자 하는 자는 더 많았다. 그러나 지키는 자는 너무나 적었다.

“오늘밤엔 쥐떼가 7,000마리랍니다.”

고속 단정에 먼저 올라탄 박 경장은 오늘밤 불법조업어선이 무려 7,000척이라고 했다. 금어기가 막 끝난 서해는 곡식 익은 평야처럼 노리는 자들이 많다. 그들은 EEZ 바깥에 머물러 있다가 밤이 되면 은근슬쩍 넘어온다. 한 척 당 열 명만 타도 칠만 명이다. 어부라기보다는 차라리 해군이다.

“사람 몇이서 너른 평야 지키는 꼴이다.”

내가 방검복을 착용하며 말했다.

“이 경사님, 오늘이 마지막이지요?”

그의 말대로 다음 주부터는 한적한 어촌의 출장소장으로 발령이 나게 돼 있었다.

“어, 뭐 그렇게 됐지.”

“예…….”

나와 동향인 박 경사의 부산 사투리는 들을 때마다 정감이 갔다. 그러나 그의 대답은 어정쩡했다. 편한 곳으로 가서 축하한다는 것인지, 죄책감에 시달릴 테니 안됐다는 것인지……. 옆에 탑승한, 아직은 얼굴이 희멀건 순경은 연신 토를 하며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다.

“토 백 번쯤 하면 니도 곧 적응될 끼라.”

박 경장은 순경의 등을 쳐주며 입에서 바닷물을 뱉어내고 있었다.

“긴장하자. 배가 많아 보인다.”

사위가 어두웠지만 동물적인 감각으로 알 수 있었다. 어둠은 더 큰 어둠을 품

고 있다가 일순간 우리에게 뱉어낸다는 것을.

우리가 다가가자 중국 선원들은 으레 욕지거리를 내뿜었다. 모두 갈고리와 쇠파이프와 망치를 두고 일전을 불사하고 있었다. 선측에는 날카로운 금속으로 방어막이 쳐져 어선이 그 자체로 철옹성 같아 보였다. 그걸 올라가서 선원들을 제압해야 했다.

“내 먼저 올라갈게.”

막 몸을 일으키려는 나를 박 경장이 잡았다.

“찬물도 위아래가 있지만 바닷물은 거꾸로 아잉교. 내부터 올라갈게요.”

박 경장은 기어코 우현의 쇠창살을 뚫고자 안간힘을 썼다. 위에서는 무기로 변한 어구들이 그를 노리고 있었다. 우리는 밑에서 공포탄을 쏘며 박 경장을 엄호했다. 가까스로 올라간 그는 갑판에 두 발을 딛자마자 포위당했다. 순경이 뒤를 따라 급히 어선에 올랐고, 뒤이어 내가 승선했다.

양측은 욕과 주먹질과 몽둥이질을 주고받았다. 아무래도 내 동작이 가장 느렸다. 중국 선원들은 노련하게도 내가 가장 상급자임을 알아채고 나에게 몰려들었다. 내 얼굴을 스치는 바닷바람 한 줄기가 더운 땀을 식혀 주었다. 그들과 나는 마치 그대로 얼어붙은 듯 대치하여 노려보고 있었다. 모두 사이렌의 노래에 혹한 것처럼 움직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시간이 멈추고 공간이 좁혀진 사이로 틈입하는 몇 방울의 땀만이 동선을 그리고 있었다. 나는 고무탄 발사기를 만지작거리며 망설였다. 나로 인해 죽은 선원과 그의 아들이 허허로운 하늘에 그려졌다. 그때 한 사내가 눈에 들어왔다. 검게 탄 얼굴은 쭈글쭈글하여 땀방울이 수로를 찾은 듯 주름살을 따라 흐르던 그 초로의 사내. 거친 굳은살과 여기저기 계획성 없이 스케치된 상처 자국, 야수처럼 험뎠는 거친 숨소리에서 나는 아버지를 보았다. 뱃놈은 절대 되지 말라던 나의 아버지를. 늙은 선원도 고향의 물으로 돌아갈 때마다 어린 아들을 나무라고 으박지를 것이다. 절대 뱃놈은 되지 말라며.

“이 경사님!”

박 경장이 고함을 치며 내 쪽으로 돌아봤다. 그 소리에 나는 정신이 번뜩 들었다. 그 순간 박 경장을 상대하던 중국인 선원이 누리끼리한 눈을 희번덕거리며 그

에게 다가갔다. 다가가는가 싶더니 박 경장이 앞으로 폭 쓰러졌다. 선원은 오른팔로 힘껏 박 경장을 밀어 바닷물에 빠트렸다.

“야! 박경식!”

이번엔 내가 그를 불렀고, 외침이 채 끝나기도 전에 둔중한 타격이 내 헬멧에 가해졌다. 곧 푹당 하는 소리와 함께 내 몸은 해수처럼 차가워졌다.

3020함에서 물대포가 날아들었고, 순경은 삼으로 두들겨 맞고 있었다. 나는 점점 얼어붙어 조각난 유빙처럼 바다를 표류했다. 함장이 나의 실종을 알게 됐을 때, 나는 어디까지 밀려나 있을까……. 이게 내가 의식이 있을 때 했던 마지막 생각이었다.

다시 의식이 들었을 때 주변은 조용해져 있었다. 중국 어선은 온 데 간 데 없고, 함정도 보이지 않는다. 내가 그들을 볼 수 없으니 그들도 나를 볼 수 없으리라. 오로지 열기 없는 달빛만이 나를 비춰주고 있을 뿐이다.

다 잠기고 가까스로 조타실만 수면 위에 떠 있는 침몰선처럼 지금 나에겐 의식만 남아 있다. 이 의식이란 것이 영원히 깨어날 수 없는 잠처럼 느껴진다. 이것이 꿈인지, 실재인지, 삶인지, 죽음인지 그 무엇도 분명한 것은 없다. 수온은 여전히 차겠지만 이제 냉기마저 느껴지지 않는다. 얼어붙어가는 창자는 더 이상 환영 같은 입김도 뿜어내지 않는다. 의식의 반경은 송곳처럼 뚫촉하게 날카로워졌다. 이제는 그 협소한 여력으로 그 무엇도 기억할 수도, 생각할 수조차도 없다.

들리지 않는 귓전에서 문득 파도소리가 들린다. 나는 자장가를 듣듯 바다를 베고 누워 스르르 잠을 청한다. 한여름 시원한 마루에 팔베개를 하고 누워 있을 때 어머니는 아버지가 잡아온 생선으로 횡감 손질을 했다. 빨랫줄에는 펼친 오징어가 널려 있었고, 그 아래에는 삶은 멸치가 더위를 식히고 있었다. 아버지는 감나무가 그늘을 드리운 평상에 걸터앉아 담배를 피웠다. 나는 마루에 깔린 널빤지 틈으로 나무 냄새를 맡았다. 나무에는 지워지지 않는 비린내가 언제나 비릿하게 풍겨왔다. 항상 비린내 나는 것을 먹었다. 그것은 어린 내장 속에서 소화됐고, 피톨처럼 내 혈관을 향해했고, 그러다가 어딘가에 머물러 나를 살찌웠다. 나는 본디 바다였다.

베트남전에서도 살아남은 아버지는 바다가 되었다. 어머니는 사이렌처럼 춤추는 미역을 따다가 바다가 되었다. 해장(海葬)을 두 번 치른 나는 지금 대양과 함께 얼어붙는다. 방한복을 입어두지 않았더라면 번거로운 냉각의 과정조차 없었을 것이다.

“이 경사님!”

“이 경사님!”

포기하지 않은 동료들이 다시 빛의 창을 휘두르며 나를 찾고 있다. 조명탄은 하늘의 등대처럼 서해를 밝혔고, 해군 헬기와 해경 초계기가 밤을 새워 날아다니고 있다. 수십 개의 등대가, 할아버지가 분주하게 켜놓은 것 같은 수많은 등댓불이 나를 애타게 찾고 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오물거렸지만 그것은 구조 요청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경련에 지나지 않았다. 박 경장을 찾지 않는 걸 보니 그는 살았나 보군. 순간 피식 웃음이 나왔다.

성기게 저만치 떠 있는 별들 사이는 언제나 서먹해 보였다. 끝없는 하늘에 범박하게 펼쳐졌음에도 스스로 빛을 발하는 별들 속에서 아버지는 길을 찾아 귀환했다. 그 옛적 뱃사람들의 거친 유전자는 바다에 잠겼다. 아버지는 그것을 취함으로 써 뱃놈이 됐다. 나는 이제 바다가 되어 간다. 함장은 해풍 맞은 뱃사람은 죽어도 썩지 않을 것이라 했다. 진득하게 묻은 소금기는 물이 소화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그러니 뱃사람은 바다에서 죽는다.

지금도 바다엔 별처럼 듬성듬성 함정이 떠 있다. 별들 사이에서 더 크고 밝은 붉은 별들이 쏘아졌다가 떨어진다. 느리게 낙하하는 유성은 수면 아래로 잠긴다.

“이 경사님!”

“이 경사님!”

이제는 지쳐버린 외침이 떨리는 입술처럼 기계적으로 되풀이된다. 붉은 경광등이 바다를 더 짙은 핏빛으로 물들이고 있다. 그 붉은 일렁임 위로 눈부신 등댓불이 덮쳐온다.

“이 경사님!”

등대의 노래는 점차 더 가까에서 들린다. 사람을 살리는 빛이 더 환하고 커진다.



제2회 등대문학상  
우수상



김 형 옥

울산광역시

프로필

에세이 울산 회원  
경동도시가스 재직

당선소감

시도 때도 없이 마음에 바람이 인다.  
번뇌가 많은 까닭이다.  
가슴이 시리고 마음이 아려서 밤을 지새운 날이  
수두룩했다.

너덜거리는 상처를 안고 살 수가 없었다.  
고통에 몸부림 칠 때 수필을 만났다.  
수필은 시린 가슴을 안아주고 아리는 마음을 쓸어준다.  
상처가 아물어 간다. 번뇌도 시나브로 사그라진다.  
이제, 내면을 들여다 볼 차례다.

수필은 바닷길을 밝혀주는 등대처럼  
삶을 밝혀 주리라 믿는다.  
중년이 되어서 펜을 들은 까닭에 글이 짧다.  
부족한 글을 빛나게 해주신 심사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남은 인생, 제대로 된 글을 쓰라는 소명으로 생각한다.

수필을 가르쳐 주신 홍억선 스승님과  
글방의 율타리가 되어준 '에세이 울산' 문우님께  
감사를 드린다.

어머니와 등대

\*제2회 등대문학상 우수상 / 수필  
김 형 옥



슬도 등대가 허허롭게 서있다. 등대는 이따금, 백색 섬광을 쏟아낼 뿐이다.  
전망대에 오르자 촛불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이 불을 밝힌다. 촛불을 바닥에 세우고 두 손을 모은다. 나도 손을 모으고 허리를 굽힌다. 이제 자식과 이별을 앞두고 있다.

가슴이 먹먹해지고 목이 메어 온다. '품속에 있을 때 자식'이라고 위로를 해보지만 잘해 주지 못했던 일만 생각한다. 모질게 했던 일도 떠오른다. 어머니도 같은 마음이었을까. 예전, 등대 앞에서 촛불을 밝혔던 어머니가 아른거린다.

태어나서 가장 추웠던 밤이었다. 고등학교에 떨어진 형이 밤늦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방문 틈으로 칼날 같은 바람이 들어왔다. 물독이 터져서 짹짹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다. 처마 끝에 달린 고드름 떨어지는 소리와 대문이 빠져터덕 거릴 때마다 어머니는 문턱을 넘으며 형의 이름을 불렀다.

어머니는 끼니를 끓였다. 수저에 손도 대지 않고 밥상을 물렸다. 죽을 끓였지만 매번 식은 채 부엌으로 나갔다. 생사를 알지 못하는 자식을 둔 어미의 심정은 밥 한 알, 죽 한 술도 목으로 넘길 수가 없는 모양이었다.

어머니는 형을 키우면서 가슴에 맺혀있던 일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었다. 삶바느질을 위해 부엌살림 시켰던 일, 삼 년 내내 차비 없이 학교에 보낸 일, 말을 다 할 수 없는 응어리진 사연이 눈물과 함께 쏟아졌다.

형이 집을 나간 지 삼일이 지났다. 땅거미가 질 무렵 시름시름 앓던 어머니가



일어났다.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비틀 거리면서 외투를 입었다. 문고리를 잡는 어머니를 가족 모두가 막았다. 하지만 어머니는 어디 가서 기도라도 해야겠다며 기어코 집을 나섰다.

어머니가 향한 곳은 마을 뒤 언덕배기 등대였다. 칼끝 같은 바람이 옷 속으로 파고들었다. 몸이 오그라들고 이가 떨렸다. 살을 에는 추위에도 등대는 바다바라기를 하고 있었다. 등탑의 불빛이 아니라면 하늘과 바다의 경계를 알 수가 없었다. 검은 하늘에 날아가는 백색 빛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어선들이 불빛을 따라 먼 바다, 가까운 바다를 가리지 않고 물살을 헤쳤다.

어머니는 촛불을 밝혔다. 나는 촛불을 손으로 감싸고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메마른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젖은 눈 속에 촛불이 춤을 추었다. 눈물이 흘러내린 얼굴에 얼룩이 졌다. 모은 두 손이 갈고리 같았다. 어머니는 뺨속을 파고드는 한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허리를 굽혔다. 어머니의 기도는 양초가 다 타들어 갈 때까지 이어졌다.

밤이 깊어 하늘이 검게 변했다. 촛불이 시간을 녹여 양초가 십지만 남았다. 어머니의 눈물처럼 바닥에 고여 있던 촛농이 낮은 데로 흘렀다. 촛불이 연기를 피우며 꺼지자 어머니는 형의 이름을 불렀다. 목소리가 연기처럼 날아갔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간절했다. 집으로 돌아와도 어머니의 목소리는 꺼진 촛불처럼 여운이 남았다.

동짓달 한파가 며칠째 이어졌다. 어머니의 등대 앞 기도는 멈추지 않았다. 형을 위한 어머니의 애절한 눈과 간절하게 모은 두 손은 변하지 않았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형의 앞길을 밝히는 등대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동장군의 기세가 누그러진 날이었다. 먼 친척집에 머물고 있다는 형의 소식이 왔다. 형의 소식을 듣자 어머니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다. 얼굴에 드리워진 그늘이 사라지고 눈물이 흘렀다.

형의 무탈한 소식이 있어도 어머니의 등대길 나들이는 계속 되었다. 자식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마다 어머니는 등대 앞에서 촛불을 밝혔다. 자식이 세상에서 격어야 할 고비 때마다 어머니는 등대에서 두 손을 모았다. 삼형제가 군대에 갈 때

도, 누나가 수술대에 누웠을 때도, 내가 배를 타고 거친 바다에 있을 때도 어머니는 등대를 찾아 자식의 안녕을 빌며 허리를 굽혔다.

살아오면서 어머니의 등대 앞 기도는 나에게 길이 되었다. 학창시절, 방황을 할 때에 등대 앞에서 손을 모았던 어머니를 생각하고 책을 잡았다. 직장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어 했을 때에도 어머니와 섰던 등대를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해군 생활동안, 지친 항해를 마치고 항구로 돌아올 때면 깜빡이는 등대를 보면서 힘을 얻었다.

무수한 세월동안에 어머니가 등대를 찾았듯이 지금은 내가 등대 앞에 서있다. 평생, 자식을 위하여 바람 앞에 촛불처럼 살았던 어머니처럼 나도 두 손을 모으고 있다. 아들과 딸을 위해서 촛불을 밝혀야 한다. 군대에 갈 아들을 위해서 손을 모아야 한다. 이국의 땅에 공부 하러갈 딸을 위해서도 허리를 굽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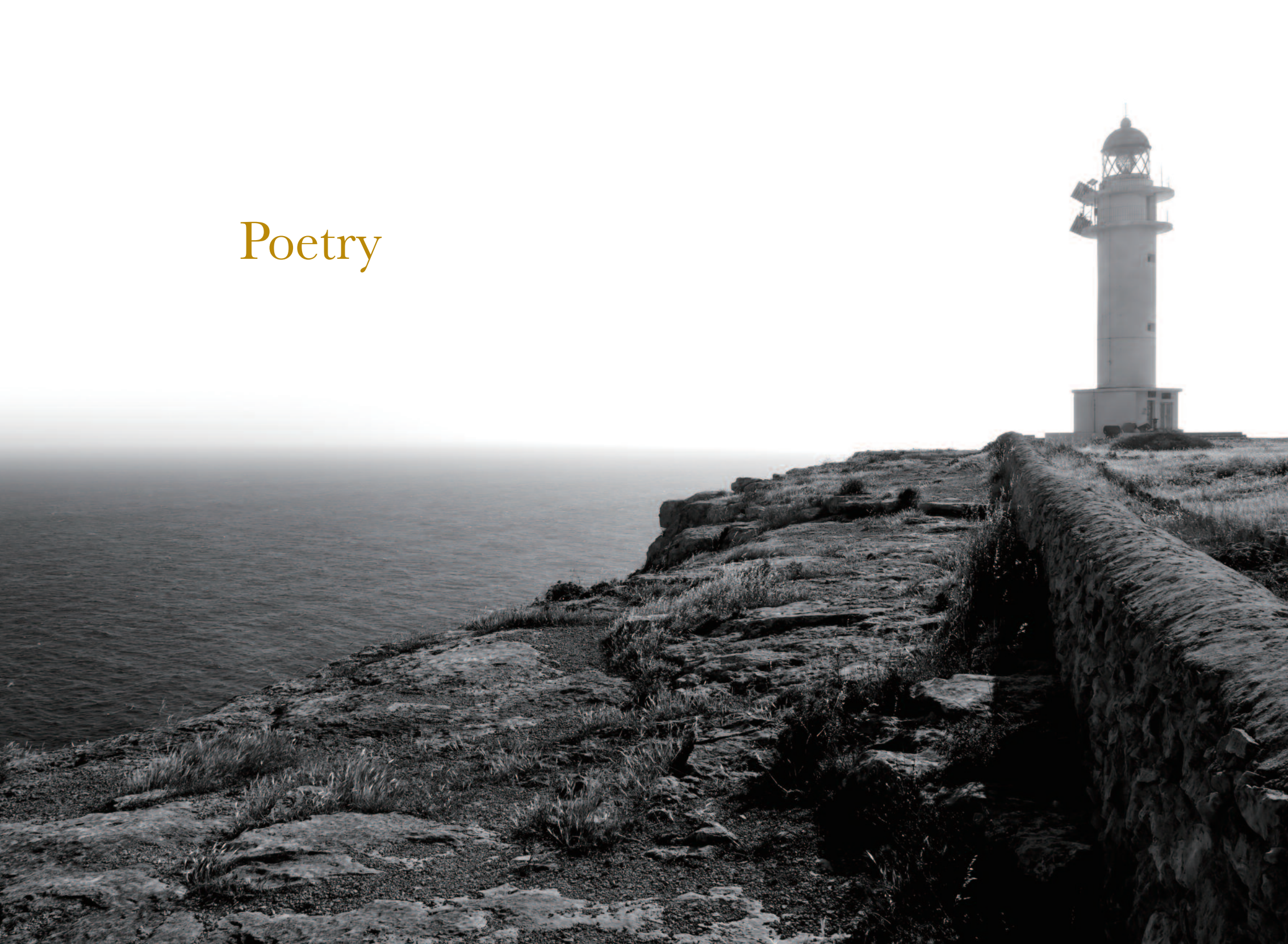
바다를 향해 손을 모았던 사람들이 촛불을 끈다. 등대는 여전히 바닷길을 위해 불을 밝힌다. 거친 비바람이 불어도, 사나운 파도가 들이닥쳐도, 살을 에는 추위에도 등대는 불빛을 멈추지 않는다.

검은 바다를 비추는 등대의 백색광이 눈이 부시도록 아름답다. 형의 소식을 듣고 등탑의 불빛처럼 환해지던 어머니의 얼굴이 무척이나 그립다.





# Poetry





## 등탑에 오르면

\* 제2회 등대문학상 가작 / 시  
김 완 수 (전북 전주시)



속초 동명항<sup>1)</sup>에 가면  
등탑도 바다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등대인 걸 알 수 있다  
바다의 푸르른 표정이 눈부셔  
대(臺)로 난 철 계단을 오르듯  
정신이 휘청거릴 것 같으면  
뒤돌아 속초의 이목구비 한 번 보고  
잠시 여정(旅程)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곳  
그러다 또 일상이 해무처럼 아른거리면  
숫기 없는 설악산의 행방을 찾으며  
떠나온 이유를 깨달을 수 있는 곳

돌산의 뜰기는 울음을 딛고  
민충정공<sup>2)</sup>의 혈죽같이 자라다가  
기어이 탑으로 선 걸까  
화를 든 대에 오르면  
옛 산의 살점 같은 갯바위들 보이고  
바위 등을 두드리는 파도 소리 들린다  
저 멀리 떨어져 나간 영금정은  
바다 위에 틀어 앉은 기억의 암자겠지

방파제도 등탑과 바다를 가르지 못하는 밤  
달빛을 등에 업고  
축항의 비린 면을 가리키는 등대전망대  
속초 동명항에 가면  
등탑도 바다의 얼굴을 살피는  
등대인 걸 알 수 있다



1) 동명항 : 강원도 속초시 동북쪽에 위치한 항구  
2) 민충정공 : 민영환, 한말의 문신·순국 지사.

## 등대의 염원

\* 제2회 등대문학상 가작 / 시  
김 창 석 (광주광역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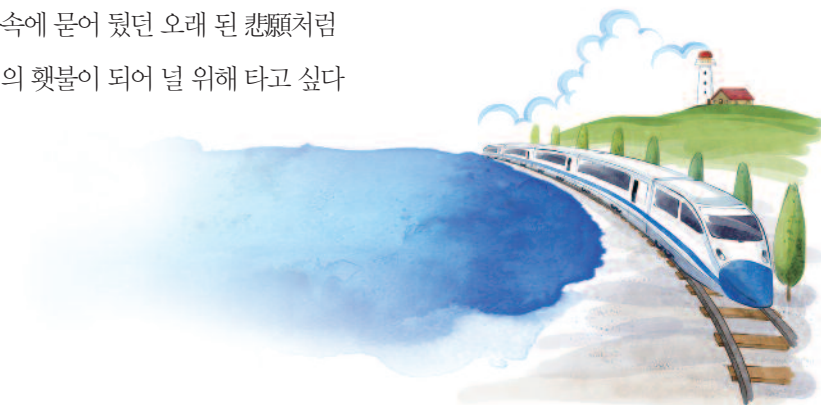


물으로 오르려다 추락하며 스러진다  
파도의 손 사레에 차갑게 눈을 뜨면  
해조음 환청에 떨며 수평선에 기대서고

네 안부 침잠하다 부표로 다시 뜨고  
흔들리며 서 있었을 오랜 목마름조차  
먼 바다 물결너머로 되돌리며 서 있다

수천 년 지켜온 섬 파도에 멎어도  
어둠 속 어깨 짊고 올라온 꽃대처럼  
여러 날 요통 참으며 조바심 잡고 앉아

경계병의 눈처럼 떠 발아래 굽어보며  
가슴속에 묻어 뒀던 오래 된 悲願처럼  
익명의 햇불이 되어 널 위해 타고 싶다





## 청사포의 쌍둥이 등대

\* 제2회 등대문학상 가작 / 시  
서 상 규 (경기도 시흥시)



청사포를 밝힌 청사초롱인가  
좌심실 우심방으로 나란히 서 있는  
빨강 등대와 하얀 등대가  
심장 박동으로 불빛을 퍼트린다  
동백꽃 피듯 부풀어 오른 동맥을  
새봄게 번진 윤슬로 뿜쳐  
아름다운 언약의 향로를 연다  
두근거리는 가슴에서 공명하는  
생명의 벽찬 선율이  
실고추와 실과 같은 음계를 일궈  
거친 파랑을 잔물결로 잠재운다  
심장을 연주하는 깊은 울림이  
질은 안개로 덮인 심해에  
은빛 파장으로 물길을 띄운다  
어둠을 혈청의 반짝임으로 깨우며  
두 몸을 한 쌍으로 엮은 불빛이  
전생의 물고기인 양 유명한다  
수평선에 경계로 맞닿은 허공 속  
쌍둥이 별자리가 떠오른다  
심장의 동력이 뿜어나간 소실점에  
푸른 별을 켜든 청사초롱으로  
좌심실 우심방이 나란히 빛난다  
청사포에서 첫사랑을 이룬  
빨강 등대와 하얀 등대가  
새날로 둥근 해를 띄워 올린다



## 내 오랜 습관, 야행(夜行)

\* 제2회 등대문학상 가작 / 시  
심 금 섭 (경북 경주시)



외눈박이에 야행인 나는  
오늘밤도 깜빡깜빡  
점멸의 눈빛을 보낸다.

여기가 바로  
안전한 대피소라고,  
지금 내가 비상구라고  
끊임없이 눈짓을 한다.

낮이면 물결한 아픔에 젖어  
턱 괴고 잠을 자고  
밤이면 들메꾼 고쳐 메는  
내 오랜 야행의 습성.

나를 믿고 칠혹 속을 오가는  
시선들 담보로 잡고  
언어가 미치지 못하는  
저 수평선으로 달려 나간다.  
갈 듯 나앉는  
수평선 너머로 이것을 내 할일이라 믿는 게  
내 오랜 야행의 버릇이다.  
속 깊이 접어둔 말들  
바다에 환하게 꽃아보는 게  
단 하나의 기쁨이다.



## 등대의 사랑 법

\* 제2회 등대문학상 가작 / 시  
우 동 식 (전남 여수시)

선돌처럼, 빈 배 한척 묶어두고  
바람에 통기는 벽수로 섰다  
빙하기 이후 팔천년을  
음색고운 공명을 울리는 가문비나무여서  
느리게 자랐으나 거칠어진 껍질속에  
질 부드럽고 결 충충한 사랑은  
눈멀고 귀 닳았으나  
바다를 향해 서  
뒤척이는 바람을 잠재운다  
님의 바다는 푸르고 잔잔해서  
더 넓고 깊은 곳으로 출항을 하지만,  
곳은 날 파도 일고 해무 잔뜩 끼어  
온몸 칭칭 동여 매어 질 때 느끼는  
이놈의 사랑법은  
느슨해지거나 조이거나 흔들리면서  
매듭을 짓기도 하고 풀기도하면서  
두 심장을 직조하는 질긴 끈,  
매어있지 않은 사랑이 없듯  
풀어두지 않는 사랑도 없다  
쉬이 마음 풀어 비운  
그 자리에 등대로 서는 것이다

## 아버지의 등대

\* 제2회 등대문학상 가작 / 시  
이 동 우 (서울특별시)

마당 백열등을 갈아 끼우자, 번쩍  
500와트의 등명기 빛이 내게로 쏟아진다  
마당 깊은 집으로 이사 온 후,  
줄곧 아버지가 갈던 등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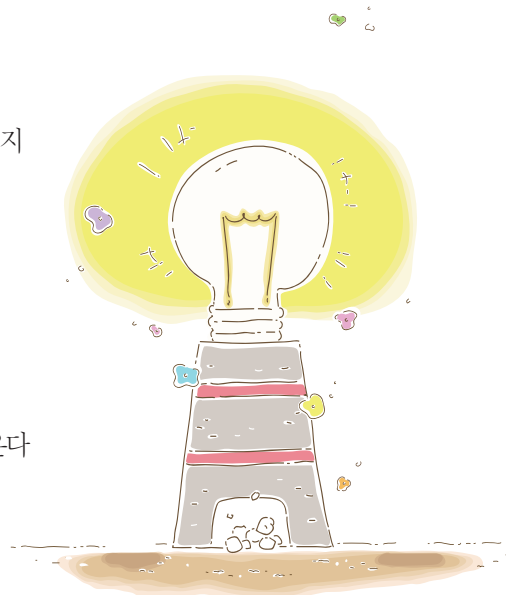
스친 바람에 바지랑대가 힘없이 쓰러지던 밤  
젊어서부터 등대지기로  
섬 끝자락에서 파도를 모으던 아버지는  
속이 좋지 않다며 병원에 간 뒤  
날이 밝고 백열등이 꺼질 때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수술대를 집어삼킬 듯 덤비는 너울과  
수술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안개 속에서  
마취에서 제때 깨지 못한 아버지는  
깜박이는 등갓불을 찾아 한참을  
선미도 앞바다를 헤맸다  
수술실 무영등이 산란한 빛은 바다 위에서 잠시  
은비늘처럼 반짝였을 뿐 이내 심해로 사라지고

병실 오후를 조금씩 갇아 먹는 투병과 간병  
만조가 되고 폭우가 흐르면

하늘에서 바다로 물길이 이어져  
수평선은 무의미해지고  
병상마다 사연들은 가득해도  
모두가 침묵하는 중환자실  
아픔을 숨기기 위해 신음을 삼키는 자정께  
팽팽한 긴장감은 누군가의 비명에 깨지고  
그제야 눈치 보던 다른 아픈들이  
전염된 듯 제 소리를 낸다  
병을 달래듯 병명을 되뇌며 수발드는 가족들

생일 때면 한 번씩 전화하던 아버지 목소리에선  
갯내음이 묻어났고 등롱 주위로 모여든 갈매기들은  
끼룩끼룩 축하 노래를 불러 주었다  
등대는 빛도 어둡도 배도 파도도  
모두가 어우러지는 곳이지,  
햇빛은 바위 위의 삭막한 탑<sup>1)</sup>이 아니라던 아버지

아버지의 암 그림자를 업고 돌아온 저녁  
대문을 열자 마당 백열등이 나를 안내한다  
비 내려 질척이는 앞뜰에 다문다문 놓인 돌들  
아버지의 등대가 비춘 길을 따라 걸어온 날들  
통통배 한 척이 등댓불에 의지해 집으로 돌아온다



1) 버지니아 울프의 소설 '등대로'에서 인용.

## 구엄도대불<sup>1)</sup>

포구의 밤 길이 나로 하여  
열리던 때가 있었지  
오래 서 있어 등줄기가 당기는 동안은  
새의 날개가 돋는 듯도 했었어  
밤사이 시나브로 물너울에 기대어  
애월 앞바다를 지키는 동안  
물밑에선 거대한 오페라의 그림자처럼  
바리톤과 베이스 음이 들려오곤 했었지  
빛 한줄기 입술을 내어 파도를 따르면  
긴 밤 내내 기울던 빛이 느리게 식어가고  
최초의 빛은 여전히 나의 뿌리에서  
춤춤히 울고 있었으므로 비로소  
물의 길을 찾아낼 수 있었어  
새별오름의 공양을 바라보는 날은  
복사뼈까지 차오르는 물의 부레 안쪽을  
잘 절여진 거품으로 덧대며  
구엄리 포구의 소금빌레가 조명등 안으로  
간히는 시간을 기다리기도 했었지  
간절한 이의 기도 같은 수평선이  
고이 접힌 태양을 한 뼘씩 밀어 올리면  
바다와 하늘이 둘이 아니란 걸 이젠 알아  
멀리 데칼코마니처럼 어선 한 척이  
갯바위의 후렴처럼 일렁이는 새벽  
가슴의 행간마다 아스라이  
길을 내는 물길을 따라 무장 해제된 나는  
이제부터 마법에 잠기는 시간이야



1) 도대불:전기로 켜는 등대가 들어오기 전에  
포구를 밝혀 주었던 등대의 원형



## 등대의 시원(始原)

\* 제2회 등대문학상 가작 / 시  
장인수 (경기도 성남시)



바다는 늘 갓 태어난 간난아이처럼 온몸이 주름 투성이었다.  
벧길따라 또 다른 주름이 접히고 퍼졌다.  
파도의 썩레질.  
뒤파도가 앞파도를 가르고 접고 펼쳐진다.  
경계 너머의 탈영토, 아장스망(Agencement), 다중체, 리좀(Rhizome).  
출렁임은 주름이다.  
전율, 출렁임, 감동, 흐느낌. 주름은 무늬. 무늬는 결.  
바위도, 해변도, 절벽도 무늬와 결로 가득 차 있다.  
곡률이다, 연속체의 미로다.  
파도는 60억년을 쉬지 않고 출렁이고 있다.  
지구의 생성과 함께 했다.  
그리하여 시간은 파도처럼 흐르는 것인지도 모른다.  
시간은 아직도 수평선 너머에서 밀려오고 있는 중이다.  
등대가 파도의 얼룩을 덧칠하고 지우고 또 덧칠한다.  
극한의 소진 상태로 밀고 나아가기 위한 몸짓일까?  
그리하여 파도보다 더 큰 이유는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인간의 잣대로는 그 이유를 알기 어려운 파도의 몸짓.  
부표의 몸살보다 더 아픈 몸짓이 어디 있으랴.  
바닷가 모래사장은 잠시 쓰러져 있기에 아주 좋은 곳.  
사람들과 소주병이 나란히 누워 있는 곳.  
이곳이 등대가 있어야 할 시원(始原)이구나.

## 하얀 등대섬

\* 제2회 등대문학상 가작 / 시  
정연희 (경기도 용인시)



저구에서 소매물도로 가는  
벧길을 따라가다 보면  
모양대로 지어진 이름들,  
긴 뱀처럼 생겼다는 장사도  
말의 형상을 지닌 마미도  
편하게 누워있는 소 모양의 어우도

‘멀고 먼 바다의 섬’ 소매물도로 가는 길에  
종이배처럼 떠있는 섬들은  
뿌리 없이 둥둥 떠 있지만  
섬마다 하얀 등대를 하나씩 안고 살아간다

섬 이름만큼이나 생업이 소박한  
어부의 조상의 조상을 지켜낸 하얀 등대,  
아들은 춤춘한 그물로 멸치를 잡고  
어머니는 빛나는 가을햇살에 등줄기 푸른 멸치를 말리고 있다  
그물을 감고 있는 아버지의 등이  
오늘따라 더 둥글다

하얀 등대가 살리는 가족이다  
찬 바위를 밟고 시퍼런 바다를 지키는  
단 하나의 의지  
밤이면 품었던 해를 쏘아 내고  
살신성인으로 홀로 서서도  
정작 외로운 등대라는 이름만 지닌  
멸치가족을 살리는 빛기둥이다

## 바다우체국

\* 제2회 등대문학상 가작 / 시  
최 선 옥 (서울특별시)



갯메꽃 속으로  
뭉게뭉게 해무를 전송하는 바다  
마음 설레는 출어는 서터를 내리고  
입 걸쭉한 경매와 짹짹한 웃음이 지워졌다고  
포구는 답신을 보낸다  
파도 편에 속달로 부쳐온 파고 높은 사연들을 뒤져도  
행방이 묘연한 행간  
먼 항로를 따라간 그는 언제쯤 반가운 소식을 보내올까  
안부 궁금한 마음에 닿은  
갈매기우편은 소인이 흐릿하다

서성이는 오후 뒤로  
쓸쓸함을 들쳐 멘 뭍은 어둠이 걸어온다  
삼십 축 달을 켜도 표정이 어두워  
포장마차가 서둘러 불을 밝힌다  
모락모락 일몰 한 솔이 끓고  
익숙한 무료함이 장마를 읽는다  
도마에 기록하는 바다체에 툭툭 잘리는 다족류의 하루  
오래된 만선이 잔술로 비워진다

파랑주의보에서 매번 맞춤법이 틀리는 바다  
어두운 저녁을 썼다가 지우고 다시 쓴다  
나선형계단을 올라간 밤이 축수를 올리면  
등대우체국에서 야광의 추신이 건너온다

파도 그을린 묵은 우표 같은 얼굴을 붙여  
넋두리를 동봉한 밤은  
저마다의 섬으로 꽃히고  
불면을 밝혀 낡은 주소를 다시 분류하는 우체국  
수취인불명의 소식이 반송되듯  
새벽녘이 되어서야 빛은 멀리 흘러나간 등대를 거두어들인다







# Short Story



## 밤배의 고향

\* 제2회 등대문학상 작 / 소설  
김 경 순 (경남 양산시)



어슴푸레 창으로 들어오는 새벽빛에 더듬더듬 리모컨을 찾아 TV를 켜는 덕칠의 손길에 환하게 빛이 쏟아졌다.

TV가 보기 싫다는 듯 ‘꽝’하며 덕칠 처가 돌아누웠다.

일어나 앉아 담배를 한가치를 입에 물고 이불 속에서 뒤척이는 마누라를 물끄러미 내려다보던 덕칠이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내려섰다.

라이터를 켜 길게 연기를 뿜어낸 덕칠의 발길은 자연스레 바닥에서 생선 썩는 냄새가 고약하게 풍겨오는 어판장 쪽을 향했다.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울려 나오고 있었다.

‘항구는 잠들어도 등대는 켜있어요. 파도가 잔잔해도 등대는 켜있어요. 밤배가 떠났어도 밤새껏 깜빡여요. 등대불이 왜 켜있는지 그대는 아시나요…….’

“놀고 자빠졌네! 해 뜬지 언제데 등대는 무슨…….”

투덜대던 덕칠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나 없나 살펴본 후 다시 담배를 하나 꺼내 물었다.

‘젠장, 이래 살아도 되나 몰라…….’

안방에서 위세 좋게 담배를 꼬나물던 시절이 었그제 같은데 이젠 오줌방울이 튄다고 변기에 앉아 싸야하는 신세까지 몰락한 자신이 영 못미더워진 덕칠은 선술집에서 다모토리를 한입에 털어 넣고 왕소금 두어 알을 손가락 끝에 찍어 입에 넣고 어금니로 우적거렸다.

‘딱 삼 년, 삼 년뿐이었어. 내가 등대의 불빛을 떠난 건.’

어판장을 지나 자신의 배가 놓여있는 부두까지의 아침 순례를 끝낸 덕칠이 집으로 돌아오자 벌써 아침상이 차려져있었다.

말없이 숟가락질만 하던 명기가 불쑥 입을 열었다.

“아버지! 우리도 양식장하면 안돼요?”

덕칠이 멀뚱거리며 둘째아들을 쳐다봤다.

“아랫마을 준홍이는 벌써 아파트 샀다던데…….”

“보상금 받은 게 꽤 되나 보지!”

덕칠가 시큰둥하게 대꾸하자 묵묵히 김치를 찢어 덕칠의 밥숟갈 위에 올려놓아주던 덕칠 처가 손을 멈추고 혀를 찼다.

“이 양반은 무슨 허깨비만 보고 다니나…… 아, 동네 사람 다 하는 걸 왜 못하게 해?”

덕칠가 생뚱맞은 표정을 하자 명기가 바짝 다가들었다.

“아버지, 진짜 모르시는 겁니까?”

“왜, 등대불이 꺼졌나?”

덕칠은 김치나 찢어 올리라고 숟갈을 들이밀며 건성으로 명기를 바라봤다.

“참나, 아버지도…… 시방 등대가 왜 나옵니까?”

“등대가 아니면, 그놈이 아파트 산 것하고 내가 뱃일 하는 게 무슨 상관인데?”

“준홍이가 양식장 하면서 지 형제들 끌어들여서 떼돈 번다는 건 세상이 다 알아요, 아버지만 아니면 저도 양식장 하면 되는데…….”

“양식장? 그거 얼마나 번다고 좋은 직장 놔두고 그걸 해? 밤새도록 쓰레기 썩는 냄새에 코 들이밀고 백만 원 남짓 받는 감시원 해먹자고 대책위 간부들끼리 뽕살잡이하는 걸 보고 기도 안 차드만 니가 그걸 한다고?”

덕칠은 양식장이 늘 못마땅했다.

가두리 양식장 만해도 그냥 두면 자연에서 건강하게 크는 물고기를 그물에 가둬 놓고 배합사료다 뭐다 마구 뿌려대고, 그것도 모자라 성장촉진제니 항생제를 투여해대는 꼬락서니를 보며 바다가 망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한탄해오던 터였다.

거기다가 값싸고 성장도 빠른 멸치나 꽁치, 고등어 같은 생사료를 먹이로 뿌려 대는데다 배불리 먹어야 빨리 큰다는 생각에 너도나도 사료를 물고기들이 먹고도 남을 만큼 주다보니 항상 먹다 남은 생사료가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다.

이 생사료들이 물고기의 배설물과 합쳐서 바닥에서 오랜 시간 퇴적되어 부영양화가 진행되다보니 가까운 바다는 성한 곳이 없었다.

그런데 물에다 띄하니 수족관을 만들어놓고 바닷고기를 키워?

명기의 양식장 타령에 덕칠은 늘 콧방귀만 끼어댔다.

명기는 이런 덕칠이 영 못마땅했다.

준홍이네 양식장은 탱크 식으로 된 사각 수조가 60개정도 되는데도 5개 정도의 수조에만 고기가 있었다. 그런데 추석 전 태풍이 오자 비닐하우스처럼 생긴 육상양식장이 폐허처럼 변했는데 한눈에도 고의로 파손한 것이 확연하게 드러났다.

철골로 된 지지대야 와이어에 묶어서 포클레인으로 당겨버리면 군데군데 바람에 테러당한 것처럼 보이기 마련이었다.

전기차단기를 부셔버리자 고기는 전원 폐사했다.

몽땅 포대에 담아서 냉동실로 옮기고는 옆 동네의 다른 양식장에서 이미 한탕해먹은 고기를 싣고 와 냉동실마다 꾸역꾸역 채워놓은 걸 보험사에서 사진을 찍어달 때는 어이가 없었다.

보험사가 영국이라고 했나? 좌우간 국내처럼 꼼꼼한 조사는 없었다.

그리고 나자 냉동실의 고기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작업이 시작됐다. 물론 명기도 거들 수밖에 없었다. 무려 트럭으로 15대분이나 엄청난 물량이었다.

이렇게 보험금 수십억씩 돌려가면서 받아 챙기는 거라고 했다.

“아버지는 지금 쿼터제에 걸려 겨우 잡는 몇 폰에 만족하시는 겁니까?”

“이놈아, 그게 어디여? 바닷가 땅값까지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아 니들 밑구멍에 다 들어가고 몇 폐기 안 남아 있는 것도 시방 억이다, 억!”

“그거야 우리 집안 재산이지만 날아다니는 돈들은 먼저 본 놈이 임자라고 너도 나도 난린데 우리만 이게 뭐야…….”

“송충이는 술있을 먹어야지.”

“그러니까 바닷가 옆에선 고기밥을 먹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쓸데없는 소리…… 내 죽은 담에 땅 팔고 배 팔아 니 맘대로 하더라도 회사 그 만두면 한발자국도 못 들어 놓을 줄 알아!”

치미는 역정에 덕칠은 밥숟갈을 내려놓고 일어섰다.

바늘에 걸려 버둥대며 먹물을 내뿜어대는 오징어의 지느러미가 녀석의 귀와 닮았다는 생각에 쓴웃음을 지은 덕칠이 반대쪽 갑판을 쳐다봤다.

비바람을 뚫고 갑판까지 비쳐주는 등댓불이 세상을 평온하게 했다.

‘등대만 있으면 되지, 무서울 게 무어야?’

등댓불이 비치든가 검은 밤바다처럼 안개가 깔린 날에 울리는 소리혼(나팔)과 무등(종)이 있을 때면 하늘높이 솟구치는 파도도 무섭지 않던 덕칠이었다.

등댓불이 보이는 한 덕칠의 바다는 물보다 평온했다.

세차게 몰아치는 비바람에 제 한 몸 지탱하기도 힘든 듯 난간을 붙잡고 용을 쓰는 신참은 아예 작업을 포기했는지 건성으로 한 손을 낚싯줄에 대고 있었다.

이따금 내리치는 번개가 폭풍우 속에서 낚싯줄을 걷어 올리는 덕칠의 짝 다른 입술과 빗물에 번들거리는 광대뼈가 푸르스름한 광택으로 번쩍이게 했다.

“이렇…… 게 비…… 가…… 와도 작…… 업…… 해요?”

배 뒷전을 덮칠 듯 거의 직각으로 올라서 벼랑처럼 보이는 밤바다의 거센 파도를 보며 겁에 질린 신참이 더듬대며 울부짚었다. 그런 신참의 고함 따위는 들리지 않는 듯 연신 손을 놀리던 덕칠이 한 손을 비옷 속으로 집어넣었다.

빗물에 젖지 않도록 동그랗게 말아 쥔 손 안에다 담배 한 개비를 움켜쥔 덕칠이 걷어 올리던 낚싯줄을 짹짹 장화발로 밟고 다른 손으로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였다.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편안한 표정으로 담배 한 모금을 길게 빨아올려 천천히 내뿜었다. 집어들고 비치는 쏟아지는 빗줄기 사이로 퍼져 나가는 푸르스름한 담배 연기를 바라보던 신참이 다시 외쳐댔다.

“얼마나…… 더…… 와야 끝나…… 나고요! 죽은…… 다음에?”

담배를 입에 물고 낚싯줄을 걷어 올리던 덕칠이 빗물에 젖어 꺼져버린 담배를

몇 번 뽀뽀 빨아대다가 포기하고는 밤바다에 가래침과 함께 내뱉고 나서 신참을 바라봤다.

“보합제 아녀, 보합제! 비 온다고 쉬면 누가 돈 줘? 어장 갖고 안 싸워 편하구먼.”

넘실대며 뱃전을 넘어서는 집채만 한 파도에 미끄러진 신참이 엉덩방아를 찧은 김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힘들…… 어요, 혁혁…….”

힘들어하는 신참을 잔한 표정으로 바라보던 덕칠이 낚싯줄을 묶어놓고 다가왔다.

때마침 데친 오징어를 야식으로 들고 오는 선장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들어가죠? 빗속에 무슨 때돈 번다고…….”

선장의 말이 안 들린다는 듯 쏟아지는 빗속에 도마를 펼치고 데친 오징어를 뭉뚱뚱 썰어 빗물에 섞인 초고추장에 찍어 우물거린 덕칠이 뒷병 뚜껑을 따 대접에 하나 가득 막소주를 따라 단숨에 들이켜고 신참에게 잔을 내밀었다.

“마셔. 밤바람도 차고, 비에 젖었을 때는 속이라도 따뜻해야지.”

고개를 꾸벅한 신참이 덕칠이 따라주는 막소주를 한 모금 마셔보고 얼굴을 찡그렸다.

“맛을 보고 먹는 게 아녀. 그냥 약이다 하고 마시는 거여. 그래야 뱃놈질에 탈이 없응게.”

술대접을 밀어놓고 데친 오징어만 꾸역꾸역 입속으로 밀어 넣는 신참을 바라보며 다시 담배 한 개비를 붙여 문 덕칠이 집어등 불빛이 미치는 못하는 먼 밤바다로 눈길을 돌렸다.

“참 대단하시네요, 이 빗속에 무슨 뱃일 교육을 시킨다고…… 지 몸도 못 가누는 외국인 하나 때문에 선원들 고생이라니.”

덕칠도 미안하긴 했지만, 선주와 친구인 자신에게 콕콕 꼬집어 밀어붙이는 선장이 알미워 입을 꼭 봉한 채 다시 술대접을 집어 들었다. 혈관을 타고 흐르는 짜릿함에 가볍게 몸을 댄 덕칠이 오징어를 통째 쥐고 물어뜯었다.

신참은 이번 향차가 처음이라고 했다.

무작정 어판장 한구석에 위치한 선주협회 사무실로 찾아와 오징어 배를 태워 달라는 신참을 본 선주협회장이 웬 떡이나 싶어 얼른 꺾치고 나와 덕칠에게 떠맡겼다. 조금 더듬거리는 어눌한 말투를 보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했지만, 어부질이야 뭐 힘으로 하는 건데 건장한 몸이 무어 장애가 될까 싶어 선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성어기에 하늘이 내려준 복덩이라며 너무 힘들게 뱃일 시키지 말고 살살 구슬려 오래 붙어있게 잘 가르치라는 신신당부를 잊지 않은 터였다.

비싼 기름값 때문에 무작정 조업도 못 나가고 오징어 어군의 회유 소식만 기다리고 있던 며칠 동안 선주는 신참을 자신의 집에다 묵이며 신줏단지 모시듯 했다. 선주의 바람대로라면 이 빗속에서의 작업은 무모했지만, 밀수나 마약처럼 큰돈은 항상 위험이 따르는 거로 생각하는 뱃사람 근성답게 모처럼의 출어에 선장과 덕칠은 비바람 정도는 어린아이 칭얼대는 소리로 여기며 한 톨이라도 더 벌려고 바동댔다. 덕분에 신참은 호된 시어머니를 만난 꼴이 됐다.

“이제 멀미는 안 하지?”

오징어를 질근 거리다 얼음물을 들이켠 선장의 물음에 신참이 멍쩍은 웃음을 지어 보였다.

기본급 250만 원에 3개월 계약 만료 시 보너스로 250만 원, 그러니까 3개월 일하면 천만 원이 생기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보험도 가입했다고 싱글거리며 배에 오른 신참은 하루가 지나자 똥물까지 토해내며 제발 육지에 데려다 달라고 애원했었다.

입만 열면 욕이고 눈길만 마주치면 까칠한 뱃사람들이지만, 마음만은 순수해 목돈을 만들겠다고 무작정 들이댄 신참에게 마음속으로 동정을 보내며 너도나도 자신이 낚아 올린 오징어를 서슴없이 신참의 물광에 쏟아 부었다.

마른오징어와 절인 생강을 먹으면 괜찮아질 거라고 건네 봐도 눈물만 글썽이며 도리질 치던 신참은 만 하루를 갑판에서 뒹군 후에 언제 그랬냐는 등 펄펄 날아 올랐다.



원래는 아홉 명이 타던 배지만 선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다 보니 선장과 둘이 출어하는 날이 많았는데 이번 항차는 신참을 포함해 다섯 명이나 되어 은근히 작업량에 신경이 쓰였다. 더구나 선주의 각별한 부탁까지 있어 원래 신참이 해야 하는 화장일까지 선장과 덕칠이 번갈아 맡아야 할 지경이 돼 이래저래 작업시간에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 선상에서 신참은 오나가나 발부리에 걸려 얻어 차이는 돌맹이 신세가 되기 일쑤였다.

배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대다수 선원들은 죽은 사람이 딱 들어갈 정도인 관크기의 비좁고 냄새나는 지하실에서 선원 모두가 엉겨 붙다시피 하다 보니 서로 땀 냄새, 발 냄새, 담배 냄새를 맡아가며 잠을 청하곤 하는데 신참은 도저히 적응이 안 된다며 갑판 위에서 깔판을 깔고 잔다고 우겨댔다. 그러다가 추위 죽겠다며 껌껌함을 무릅쓰고 내려왔다가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는 쥐꼬리에 놀라 결국은 앉아서 꾸벅거리기 시작했다.

세 시간 정도 눈 붙였다 아홉 시간 정도 일하고, 다시 세 시간 눈 붙였다 아홉 시간 일하는 중노동의 연속인데다 씻는 장소도 없고 씻을 시간도 없는 조그만 선상에서 아침마다 바닷물로라도 얼굴을 씻어 바르고 머리를 빗어 넘기는 신참을 흘기며 놀려대던 선원들도 뱃사람들이 흔히 쓰는 대화를 못 알아듣고 더듬대자 이내 시들해졌다.

세차게 내리쬐는 빗속에서 벌어진 오징어 파티는 평소와 달리 길어졌다.

누적된 피로에다 세찬 비바람에 파김치가 된 선원들이 몇 대접씩 들이켠 막소주 탓이었다.

평소 같으면 막소주 한 대접에 왕소금 몇 알 입에 털어 넣고 부리나케 낚싯줄을 잡아 올리던 덕칠도 괜히 몽그적거리며 엉덩이를 들었다 놓았다 해댔다.

모처럼 내리는 비에 생각났다는 듯 머리에 샴푸를 칠해대는 신참을 보며 덕칠이 피식 웃었다.

“아예 피 벗고 때도 벗기그라 마. 빗물이사 간물이 아닌 게 개운할 것이구먼.”

안 그래도 그러고 싶었다는 듯 돌아선 신참이 서둘러 옷을 벗어 팬티차림으로

비눗물을 맞으며 손바닥으로 얼굴부터 마구 문질러대자 금세 땀국물이 흘러내려 온몸이 얼룩무늬로 변해버렸다.

답답하다는 듯 팬티까지 벗어 던지고 하얀 엉덩이에 비누칠을 해대는 신참을 바라보던 덕칠이 목덜미를 긁적이다 손바닥에 문어난 때를 비비적거리며 멍치며 기둥에다 등을 비벼댔다.

수시로 땀에 절었다가 찬바람에 얼어 하얗게 소금 꽃이 피었다 졌다 하던 살껍질은 빗물에 툭툭 붙어 마치 질긴 종이공책에 문지르는 질 좋은 지우개처럼 한 없이 벗겨져 나갔다.

“아씨, 미치겠네. 쌀쌀할 땐 괜찮았는데 더우니 온몸이 가렵고…….”

평소에도 뱃사람답지 않게 다모토리를 싫어해 작은 잔으로 막소주를 마시던 선장이 투덜대며 머리를 긁어댔다.

누군가 하품을 하면 옆 사람에게 전염된다더니 덕칠도 괜스레 며칠 동안 감지 않은 채 덕지덕지 땀과 먼지가 앉은 머리가 갑자기 가려워져 왔다.

손가락 끝에 힘을 준 덕칠이 피가 나도록 긁어댔지만, 두피의 가려움증은 쉬 갈아 앉지 않았다.

신참은 그동안 잊고 있었던 피부에 대해 보상이라도 하려는 듯 벗어놓은 윗도리를 샤워수건 삼아 온몸을 문질러대며 빗물에 땀국물을 흘러보냈다.

대접째 들이켠 막소주가 꼬리 창자까지 도달했는지 은근한 열기가 올라오자 덕칠도 샴푸로 머리를 긁어대다 알몸이 됐다.

“아따 시원하구먼. 뭐해?”

덕칠의 손짓에 선장도 이내 알몸이 됐다.

지금이야 아래위가 바뀐 처지지만 선장은 덕칠이 키워낸 뱃사람이었다.

가난을 운명으로, 어부를 천직으로 알고 그냥 살던 시절엔 희망이 없으니 절망 따윈 더구나 없었다.

어느 집이든 그냥 가족들 건강하게 자라주는 게 행복이었고 가량이 찢어질까 봐 그냥 뱃새로 살아가는 것만으로 감지덕지하던 그 어려웠던 시절에는 미래를 위한 교육 같은 건 배부른 이들의 사치였다.

너무도 살기 힘들었던 서민들은 자식만이라도 부잣집으로 입양 가 실컷 배불리 먹고 살라며 보육원, 고아원으로 보내 시설은 늘 아이들로 넘쳐 났다.

입 하나를 덜기 위해 계집애들은 남의 집 애보기로, 식모로, 사내애들은 양자를 빙자한 머슴이나 고깃배에서 밥을 짓고 허드렛일을 하는 화장으로 보내지던 시절에 어부의 아들인 덕철의 운명은 자명했다.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6년을 월사금 독촉에 시달리며 다니는 등 마는 등 보내고 나자 밥이라도 실컷 먹을 수 있는 고깃배를 탈 수 있다는 것만도 행복이었다.

그러던 덕철의 운명을 월남전이 바뀌어 놓았다.

덕철이 순전히 월남전에 자원한 건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친구네 아버지가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한 달에 한 번씩 면사무소에 가서 쌀이며 밀가루를 가져오는지 친구에게 물어보자 돌아가신 아버지 때문이라고 했다.

에라, 월남 가서 내가 죽으면 내 부모형제는 살겠구나 싶은 마음에 수단방법 안 가리고 기를 쓰고 지원했는데, 막상 도착해보니 전장이라야 뱃일은 반도 안 되게 편했다.

매달 받는 수당 전액을 보내주며 그래도 쌀 세 가마니 값은 더 되니까 식구들 배끓지는 않겠지 하는 뿌듯함으로 전장을 누비다 1년 연장복무를 신청해 휴가를 가는 대신 받은 휴가비 100달러도 고스란히 보냈다.

월남에서 송금한 돈으로 이미 몇 마지기 논과 밭패기를 장만해 작으나마 삶의 기반을 마련해뒀다는 가족들의 편지에 비록 목숨을 건 사투였지만, 장남으로 해야 할 역할을 하고 있다는 뿌듯함으로 마지막 귀국 1년 전까지 버틴 덕철이었다.

고국에 돌아오자 제일 먼저 덕철은 배부터 구입했다.

어려서부터 이골이 난 뱃일을 결국 떨쳐버리지 못하고 다시 매달린 덕철은 선장을 고용해 자신이 선주이면서도 선원을 자청했다.

선주의 몫과 자신이 일해 보합제로 벌어들인 돈을 보태가며 꾸준히 배를 늘려간 덕철은 십 년이 채 안 돼 세 척의 배를 거느리는 조그마한 어촌의 유지로 등극했다.

비록 지금은 남의 배를 타는 선원 신세지만, 지금 이 배의 선장도 그 당시 덕철의 배를 도맡아 관리하던 선장 중의 우두머리였다.

알몸으로 빗속에서 비누칠을 해대는 세 사람을 본 나머지 선원들도 질세라 끼어들자 갑판은 마치 야외 목욕탕을 방불케 했다.

“아따, 신참 덕분에 침으로 배에서 때 빼부려야. 근디 너 몇 살이냐?”

선수에서 작업하던 선원이 보는 이마다 지령이라고 놀려대는데도 용 문신이라고 우겨대는 팔뚝을 들어 신참의 등짝을 갈겨대며 이죽댔다.

“삼십 이세.”

서른두 살을 삼십 이세라고 표현하는 신참을 바라보는 덕철의 눈에 사기와 횡령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죄목으로 복역 중인 큰아들 해수의 얼굴이 겹쳐졌다. 해수도 서른둘 동갑이었다.

세월이 좋아진 건지 어쨌는지 몰라도 시골구석까지 대학이 들어서자 밑바닥을 헤매던 성적이면서도 돈으로 때워 남들은 구경도 못하는 대학원이라는 곳까지 졸업하고 나자 대학물 먹은 티를 내기 위해 그럴듯한 간판이 필요해진 해수는 덕철을 졸라 오징어 배 한 척을 물려받은 다음, 수산회사라는 거창한 간판을 내걸고 학창시절 꼬봉이었던 친구들을 동원해 공갈과 협박으로 선주협회장 자리를 차지했다.

물론 그 과정엔 가장 많은 배를 보유한 덕철의 위세가 병풍 역할을 한 셈이었다.

별것 아닌 선주협회장이지만, 조그마한 권력이 생기자 자연스레 브레인들이 모여들어 갖가지 아이템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에게 권한을 쥐 그 권한을 이용한 직원들이 수협 직원과 짜고 중고선박을 일본으로부터 매입하게 되자 슬슬 권력과 돈맛을 알아가게 된 해수는 실질적인 원양회사운명을 꿈꾸게 됐다.

휘하의 모사꾼들이 굴린 머리로 선박구매자금은 자기 돈 한 톨 들이지 않고 정부정책을 이용한 합법적인 사기로 만들어지는 것이었다.

정부에서 80%까지 융자해주는 지원을 악용해 선박구매자금 10만 불을 배로 올려 20만 불로 보고하고 오히려 선박구입자금을 초과한 6만 불을 챙기는 식이었다.

자신과 달리 이재에 능한 장남의 회사경영에 덕칠은 늘 술발에 앉았다 술 바늘에 엉덩이를 찔린 것처럼 불편하고 불안해했다.

사람은 자기 그릇만큼 살아야 하는데, 가진 것만큼의 소유와 온 것만큼의 거리에서 만족해야 하는데 분수를 뛰어넘으려다 하늘이 벌을 내린 것이라 믿으며 해수의 구속 이후 덕칠은 더더욱 변화를 두려워하고 현실에 안주하려 했다.

덕칠의 상식으로는 도덕이나 정직함 따위가 세상살이에 걸림돌이란 건 절대 인정할 수 없었다.

악한 끝은 있어도 선한 끝은 없다고 하지 않았는가?

해수가 잡혀가자 마지막 남은 수저 하나까지 피해자들에게 다 내준 덕칠은 그냥 평소대로 열심히 바다를 폈다.

흙과 물은 절대로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는 어르신들의 가르침을 되새기면서.

“삼십 이세가 뭐시라? 니 한국놈 아이제?”

용 문신이 되문자 신참이 머리를 긁적였다.

“따, 파이한…….”

파이한이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덕칠의 머리에 번개가 쳤다.

‘파이한? 아, 그래서 우리말이 서툴렀구나.’

떨쩍한 몸에 더듬대며 못 알아듣는 걸 으레 지능이 모자라거나 선천적인 장애야로 지레짐작하고 대했던 게 미안해진 덕칠이 처음으로 다정한 목소리를 내어 또박또박 알아듣기 쉽게 물었다.

“베트남에서 왔구먼?”

신참이 머리를 끄덕였다.

자신이 용병으로 누볐던 베트남.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을 굴복시킨 자신감으로 똘똘 뭉쳐있는 베트남에는 전쟁 당시 한국인이 뿌린 씨앗들이 펌박 속에서 바닷인생으로 헤매고 있다는 소식은 덕칠에게 주기적으로 날아오는 전우회 소식지에서 여러 번 들은 터였다.

“그럼, 부모님은?”

덕칠의 물음에 신참이 머리를 내저었다.

“배는 왜 탔는데?”

덕칠이 다시 문자 신참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한국말이 답답하다는 듯 어눌한 입을 떼었다.

“아……아……빠를 찾……아……야……한다.”

“아니, 아빠를 찾는데 왜 배를 탔는데?”

대화가 겹돌자 덕칠이 얼굴을 찌푸리며 되물었다.

“아……빠……가 배……탄……다. 아니 배…… 주인……이다.”

배 주인이라면 선주를 말할 터였다.

평생을 이 항구에서 살아온 덕칠이라 웬만한 선주들은 다 알고 있었다.

“아빠 이름은?”

신참이 다시 머리를 내저었다.

“이름을 몰라? 아빠이름을?”

신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서 어떻게 찾는다고?”

덕칠을 바라보는 신참의 눈에 힘이 실렸다.

“아……빠…… 발…… 없……다. 손……도…… 하나……없다.”

두 손으로 양다리가 잘라진 모션을 취한 신참이 왼손으로 오른손 팔뚝을 잘라 보이는 시늉을 했다.

덕칠은 숨이 턱 막혀왔다.

양발에 의족을 하고 오른손에 갈고리를 매달면 영락없는 처남이었다.

통합병원에서 제대 특명을 기다리던 처남은 하루에도 몇 번씩 위병근무자의 총을 빼앗아 총구를 입에 물고 방아쇠를 당기는 상상에 빠져든다고 했다.

처남이 월남전에 자원한 것도 덕칠과 별반 다를 리 없었다.

가족들을 살리겠다고 월남을 지원한 오빠가 상이군인이 됐다는 소식에 지금의 아내는 망연자실해했다.

자신이 죽더라도 부모형제는 살 수 있을 거라며 수단방법 안 가리고 기를 쓰고



지원한 전쟁터에서 영영 불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내는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었다고 했다.

‘님은 먼 곳에’가 아닌 ‘월남에서 돌아온 김 상사’가 됐지만, 고향에 돌아온 처남은 착잡했다.

살아온 것만도 어디냐며 반기는 가족과 이웃들이었지만, 전쟁으로 팔다리 날아간 불구가 되고 보니 전쟁터에서 요리조리 빠져나갔던 비겁한 인간들이 평평대며 잘사는 꼴이 여간 역겹지 않았다.

온종일 야외전축에 LP판을 올려놓고 동생들을 시켜 구관장에서 막소주를 받아 마시는 게 일과인데다 밤낮없이 올려대는 벤처스 악단의 기타 맨 트위스트(Dance with the guitar man)와 상하이 트위스트(Shanghied)소리에 아내의 속은 새카맣게 타들어 갔다고 했다.

몇 달간 두문불출하며 술로 세월을 죽이던 처남이 마당에서 한 손으로 목발을 잡고 검술 연습을 시작했다. 불구의 몸으로 세상과 싸우자면 목발이라도 제대로 다룰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서라고 했다. 유일한 옷인 빨간 명찰과 상사 계급장이 달린 얼룩무늬 해병대 복장으로 시장통에 모습을 드러내는 처남은 사실 상사가 아니라 하사로 부상당해 중사로 의병 제대한 상이용사였지만, 김추자의 ‘월남에서 돌아온 김 상사’ 때문에 상사 계급장을 달고 다녔다.

불구가 된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목발을 짚고 시장통을 돌아다니며 위협적인 갈고리 팔로 잡화를 강매하고, 동냥을 가장한 협박으로 빵 뜯는 일이 고작이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술을 사 마음을 달래다 보니 어느새 술독이 빠져 사는 전형적인 전쟁폐인이 되고 말았다.

당시 밤 열두 시 땡 하면 단속을 하는 통행금지도 비켜가는 권세가가가 있었으니 월남전의 용사 처남이었다. 처남은 일부러 통금 시간이면 술에 취한 채 나타나 단속경찰들을 겁아댔다. 그러던 처남에게 난리가 났다!

월남패망 당시 메콩 강에서 우리 해군함정에 승선한 베트남 난민 중에서 처남을 찾은 모녀가 있다며 부산이고 자리에 임시로 만든 난민보호소로 오라는 대한적십자사의 통보가 온 것이었다.

잔뜩 부른 배를 안고 머나먼 타국을 찾아온 여인을 자신의 한 몸 가누기도 어려운 처남은 애써 외면했다.

잠시였지만 불같은 사랑을 준 처남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자 베트남 여인은 미쳐버리는 줄 알았다고 했다. 그렇게 말없이 사라질 사람이 아닌데, 죽었다면 누구를 통해서라도 연락이 왔을 텐데…….

결국 베트남 여인은 불러오는 배를 안고 직접 찾아 나섰다고 했다.

만삭의 배를 안고 매일같이 처남이 근무했던 한국군 부대를 쫓아다니자 감동했는지 한 다리, 두 다리 건너 연결돼 처남의 수술을 도왔던 간호장교의 흔적을 쫓았다고 했다. 베트남 여인은 처남의 수술을 도왔다면 그녀가 이유 없이 자신을 성심성의껏 돕는 것이 석연찮았지만, 착한 한국인도 있다는 생각에 의심 없이 사이공 대공세를 피해 배를 타고 찾아왔다고 했다. 여기저기서 핏줄만 한국인인 아이들이 태어나 차별받는 것을 보고 있자니 자신의 아이만큼은 손가락질 받게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런데 인조인간인가?

꿈에도 못 잊던 처남에게는 두 다리와 팔 한쪽이 없었다.

베트남여인은 그제야 그 간호장교가 왜 그토록 미안한 표정으로, 안타까운 눈빛으로 자신을 도왔던 건지 이해가 됐다.

분하고 억울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저러면 어쩌나!

어쨌거나 우리 가족이 드디어 하나가 되지 않았나 하는 다짐으로 위대한 엄마와 대단한 마누라의 역할을 동시에 훌륭하게 해내려는 순간 처남이 사라져버렸다. 이웃과 아내의 도움으로 아이를 낳고 이태를 기다리던 베트남여인은 쓸쓸히 고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커서 다시 아빠를 찾아온 것이었다.

사실 처남은 베트남여인에게서 도망친 것이 아니었다.

마누라와 자식을 건사해야 한다는 조바심에 일자리를 찾아 헤매던 처남은 선주들을 상대로 벌이는 도박판에 끼여 다찌(기사들이 탄 돈을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해 끌고 다니는 주먹들)로 입문했다.

꼬장(기사들에게 판돈을 대주고 이익을 챙기는 하우스장)은 단속경관들이 손도 못 대는 처남의 위력에 힘입어 한탕을 노린 사기도박을 계획하고 성공하자 잠적해버렸다.

줄지에 일터를 잃고 사기도박꾼의 누명까지 쓰고 2년간의 옥살이까지 하고 나온 처남은 도박으로 복수하겠다는 한 손으로 화투 돌리는 연습을 했다.

드디어 한 손으로도 화투 돌리기에 자신감이 붙은 처남이 꿈쳐놓은 비상금 전부를 싸들고 도박판에 끼어들었다.

무르익은 도리짓고땡 판에서 수북하게 지폐를 쌓아놓고 흐뭇한 표정으로 뽐뽐한 긴장 속에 돌아가는 화투판을 쳐다본 처남이 손에 든 3땡 패를 확인 후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앞에 있는 돈뭉치를 들자 누군가 발로 궁둥이를 툭툭 찼다.

처남이 슬그머니 패를 내려놓자 앞자리의 사내가 8땡 패를 내팽개치며 판돈을 건어갔다. 뒤로 고개를 돌린 처남이 자신에게 신호를 준 낯선 인물에게 눈을 찡긐했다.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돌리는 사내를 보고 용기백배해진 처남이 9땡을 잡자 뒤를 슬쩍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이는 사내를 보고 앞에 놓인 돈 전부를 걸었다.

망설이며 따라오는 앞자리의 노름꾼에게 화투패를 내려놓으며 미소를 건네는 처남에게 안도하는 표정으로 자신의 패를 내려놓는 노름꾼의 손에는 장땡이 잡혀 있었다. 뭔가 이상하다 싶어 처남이 뒤를 돌아보자 사내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한패였다.

분노한 처남이 목발을 거꾸로 잡고 휘둘러 댔지만, 짹짜게 돈을 챙겨 들고튀는 패거리를 당하기는 어려웠다.

눈앞에서 자신이 사기를 당한 걸 인정하기 힘든 처남은 아침부터 술에 취한 채 노름방마다 기웃거리며 놈들을 찾아 헤맸다.

덕칠과 아내는 그런 처남을 모른 척했다.

자신의 몸에 대한 자기 비하와 세상을 향한 분노를 그런 식으로 표출하는 거로 생각하며 안타까운 마음에 그저 모르는 척해 주는 것이 처남을 위하는 일이라 생각한 덕칠과 아내는 어떡해서든 베트남으로 되돌아간 모녀를 불러오려고 했지만,

아비 노릇 못할 바에는 그쪽에서 살게 하는 게 낫다는 처남의 반대를 꺾을 순 없었다.

도박판에서 사기를 당해 가진 걸 홀랑 다 뺏기고만 처남이 낙심해 집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술로 근근이 버티며 사기 친 놈들을 찾아다니느라 혈안이 됐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덕칠이 선원들을 앞세워 처남 몰래 사기꾼들을 찾아냈다.

하지만 막상 사기꾼들을 잡아도 이미 잃은 돈을 찾을 수 없음을 안 덕칠은 그들을 벌하지도 용서하지도 못하고 마음고생만 더 하게 됐다.

이를 알게 된 처남이 불편한 몸 때문에 애써 마음마저 불편하게 살 필요가 뭐 있겠냐고 고마움을 표시하며 덕칠의 권유대로 어판장의 경비자리를 차고앉았다.

풍어기 때마다 한 척씩 늘어난 덕칠의 어선이 네 척째가 되던 해에 처남도 선주가 됐다. 경비원 월급을 꼬박꼬박 모아들었던 적금이며 계를 털고 수협 대출을 받아 덕칠에게서 혈값으로 한 척을 사는 형식이었지만, 사실은 처남의 안정을 바라는 덕칠의 선물이었다.

다단계에 발을 먼저 들여놓은 건 처남이었다.

공유 마케팅에 의한 매출로 자신이 매출한 금액 이상으로 수당이 들어온다는 사탕발림에 속아 넘어가는 척 찢끔거리며 버려도 되는 돈이라며 이백만 원을 투자해 본 게 낚싯밥에 걸린 거였다. 투자만 하면 원금의 250%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유혹 따위는 처남에게 먹혀들지 않았지만, 사기꾼들이 그리 녹록하던가?

버린 셈 치리라던 이백만 원에 포인트가 쌓여 실제로 3개월간 꼬박꼬박 후원수당이 통장으로 들어오고 처음엔 거짓말 같았지만, 화상교육을 받고 마케팅 시스템에 대해 설명을 듣다 보니 '이거다!' 싶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이 회사는 꽤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었고, 다른 다단계와 달리 사람을 억지로 끌어들이 필요 없다는 점을 확인하자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과감하게 결단을 내렸고 평생 모은 돈을 투자했다.

다시 포인트가 쌓이자 실제로 3개월간 꼬박꼬박 후원수당이 통장으로 들어왔다. 세상이 손에 잡히는 것만 같았다. 약속한 250%가 들어오면 뭘 할까 하는 생

각으로 행복한 고민에 쌓인 처남은 그 과실을 평소의 은인인 매형과 나누고 싶어졌다.

그렇게 덕칠도 다단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석 달 간격으로 나오던 수당이 뚝 끊겼다.

‘사기당한 것은 아닐까?’

두렵고 의심스러웠지만 서로 입도 벅긔 못하고 눈치만 살피는 와중에 다시 회장이란 사람이 화상교육을 통해 ‘소비생활마케팅 2’를 내세우며 ‘이것이 소비생활마케팅의 완성’이라며 확실한 이익을 약속했다.

회사는 새로운 투자를 요구했다.

두 사람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다시 친인척들의 돈을 끌어들었다. 이번에는 제법 길게 들어오던 다시 후원수당이 끊어졌다.

약속한 250%에 해당하는 고수익은 고사하고 투자원금마저 깡통이 되자 두 사람은 곧바로 가출해 찜질방 등에서 숙식을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절룩거리는 의족 때문에 인력시장에서조차 외면받는 처남은 덕칠의 일이 끝나는 시간까지 다방 구석에서 소일했다.

이때까지도 두 사람은 빚 독촉에 시달리면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이 밝은 세상에서 누군가는 나서서 해결해주리라 믿으며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 피해자 모임에 가입하느라 괴발개발 컴퓨터까지 익혔다.

혹시나 언젠가 회사가 정상화되면 원금은 물론 후원수당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며.

그러나 희망은 이내 절망으로 바뀌었고 덕칠은 결국 처남을 저세상으로 보내는 뒷에 걸리고만 자신을 채근하며 마음을 다잡고 다시 오징어 배에 올랐다.

그러나 쉬이 잊어질리 없는 크나큰 굴레였다. 결국 그 근처를 배회하던 덕칠은 또 다른 뒷에 걸린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웬지 모르게 낮이 익다 싶었던 신참의 얼굴에 처남의 얼굴이 겹쳐지자 덕칠의 가슴이 울컥해졌다.

“엄마는?”

신참이 한국말을 기억해내려 안간힘을 썼다.

“엄마……는…… 나…… 남자…… 다른…… 아빠…… 있다.”

그랬으리라고 생각하면서도 덕칠은 가슴이 아려왔다.

“아빠 만나면 뭐 할 건데?”

“그…… 그냥…… 아빠……가…… 있는……지 보고……싶다…… 엄마가…… 아빠…… 있……다……고…… 했다.”

‘걱’ 하며 숨이 막힌 덕칠이 잠시 후 큰 숨을 몰아쉬었다.

베트남여인이 만삭의 몸으로 나타났을 당시 덕칠의 아내도 산달이 가까워져 오고 있었다.

신참보다 두 달 늦게 태어난 해수는 이 년여 정도 한집에서 함께 자랐었다.

한 녀석은 지금 교도소에서 젓값을 치르고 있고 한 녀석은 가족을 버린 후회 속에 만신창이가 되어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찾겠다고 나타난 것이었다.

덕칠은 정신이 몽롱해져 왔다.

‘그때의 조카애가 신참이라니…….’

빗속에서 물에 젖은 옷을 대충 걸친 덕칠이 신참의 손을 잡아끌었다.

“일단 내려가자.”

뒷병을 손에 들고 선실로 내려가는 덕칠을 본 선장과 선원들이 고개를 가웃했다.

단 한 번도 없던 일이었다.

배 뒤 난간을 붙들고 통을 누면서도 낚싯줄을 감아올리던 덕칠이었다.

한창 일할 작업시간에 선실로 내려가다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뒷병을 열어 병나발을 불어대던 덕칠이 신참의 얼굴에서 해수를 떠올렸다.

돈이 쌓이면 파리가 꼬이는 법.

원양회사가 궤도에 오르자 충성을 다하겠다는 똥파리들이 모여들어 기왕이면 갈고 닦은 인맥으로 정계진출을 해보라고 해수를 꼬드겨댔다.



학생부군을 면하려면 금배지도 괜찮지?

슬슬 맘이 동한 해수는 사업을 하려면 여당 줄을 타야 한다는 속설을 비웃거나 하듯 야당 쪽을 기웃거렸다. 하지만 정치판의 속성을 모르는 우직한 해수는 금배지는커녕 피바가지를 옴짝 뒤뚱어 썼다.

아니 자기 스스로 무엇 하나 결단하고 실행할 능력 자체가 해수에게는 결여되어 있었다. 모든 것을 누가 해주길 바라고 또 남의 머리를 빌려 그나마 숨통을 틔워가던 회사도 슬슬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다.

난파선이 빨리 좌초하는 건 제각기 살길을 찾아 마구 날뛰기 때문이다.

그동안 사탕발림으로 해수에게 충성하던 무리들은 제 살길을 찾아 회삿돈을 야금야금 빼돌리자 비자금 따위의 비축을 알지 못했던 해수는 조직운영에 들어가는 막대한 자금을 대기 버거워하기 시작했다.

기다렸다는 듯 해수의 정적인 여당후보는 전무를 매수했다.

매수된 전무가 낡고 노후한 선박의 처리하고 용자를 받아 새 선박의 건조를 건의하자 안 그래도 고심하던 차라 해수는 전권을 위임했다.

전무는 자기 쪽 사람들을 모아 고철쓰레기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망망대해에서 배를 가라앉히고 보험금을 타기로 음모를 꾸몄다.

하지만 선원 전부가 살아남으면 일단 의심을 받아 보험사의 정밀조사를 받아야 하고 전문요원들이 몰려들면 위장 조난은 대부분 발견된다는 것이 문제였다.

그러나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고의가 아닌 것으로 판단해 정밀조사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다면 이제 해수 몰래 희생자를 고르는 일만 남았다.

꿈에 그리던 새 선박의 주인이 되려는 해수의 눈에는 보이는 게 없었다.

돈이 들어오는 대로 그깟 잔돈푼은 먼저 집어넣어 주면 된다는 생각에 금배지에 눈이 먼 해수는 원로들을 찾아다니며 사과 상자를 건네기 바빴다.

돈으로 바르고, 향응으로 녹이고 계획대로 착착 일이 진행돼 선박도 도착하고 이제 닻만 올리고 금배지만 가슴에 붙이면 되는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보험사기를 위한 위계에 의한 살인교사.

더구나 선박 잔금을 치러야 하는 정부 용자금 수백억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선박대금을 주려면 사기꾼들을 잡아야 하는데 다리에 맥이 풀린 해수는 더 이상 움치고 뛸 수 없었다.

애초부터 해수가 스스로 감당해낼 만한 일이 아니었다.

“니 배 타 보니 어떻드노?”

무슨 말이나는 듯 신참이 눈을 크게 떴다.

“뱃일이 할 만하더냐 이 말이다.”

신참이 고개를 내저었다.

“히…… 힘……들……다. 아……주…… 많……이.”

“등뎃불은 안 보이드나?”

“등, 등……대? 내……가 죽……겠……는……데 무슨”

덕철의 입가에 미소가 맴돌았다.

“살면서 가장 아름다운 일은 빛나는 것의 배경이 되어주는 일이다. 배경이 되어주는 일은 밤 항해를 밝혀주는 ‘등대’도 마찬가지다. 등대를 모르면 바다를 못 이긴다.”

무슨 말인지 고개를 갸웃하는 신참의 손을 덕철이 꼭 모아 쥐었다.

“내가 니 고모부구면.”

“고……모……부?”

“그러니까 니 아빠의 누나의 남편……이구면.”

“누……나, 안……다. 남편…… 안……다.”

덕철은 마음이 다급해졌다.

“내 말은 배 타 보니 어떻더노 묻는 기다.”

“히…… 힘……들……다. 정……말…… 많……이.”

“잘 들어라. 뱃일이 힘들어도 돈은 되구면, 선장도 싫냐?”

“선……장?”

잠시 신참을 바라보던 덕철이 침을 꿀꺽 삼켰다.

“그라문 선주는 어떻노?”

“선……주?”

“배의 주인 말이다. 니 아빠처럼 배 주인.”

배 주인이라는 말에 신참의 눈이 반짝하고 빛났다.

“배주인……은 아빠……다.”

“그래 아빠가 되라!”

다시 갑판으로 올라온 덕칠이 선장을 찾았다.

“일단 돌아가더라고, 내려야 쓰겠네. 그리고 누가 내놓은 배 좀 알아봐주게.”

선장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배 사시려고요?”

덕칠 밑에서 뱃일로 잔뼈가 굵은 선장은 배를 알아봐달라는 말에 환호를 보냈다.

고기가 안 잡혀도 절대로 자신은 손해를 보지 않는 다른 선주들과 달리 조금이라도 자신의 것을 나눠 선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던 덕칠은 보험제도 항상 선원이 유리하도록 운영했다.

그러다 보니 선주들의 공공의 적이 된 덕칠이지만, 후한 인심 덕분에 덕칠의 배를 타지 못한 선원들도 이제나저제나 하며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다.

이제 다시 덕칠이 배를 산다면 자신이 키를 잡을 것이고 구름떼처럼 선원들이 몰려들 것이라는 생각에 물으로 향하는 선장의 입에서 뱃사람들이 제일 싫어한다는 새벽 휘파람이 새어나왔다.

신참을 앞세운 덕칠이 집으로 들어서자 아내의 눈이 화등잔만 해졌다.

역시 피는 못 속이는 것일까?

덕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음에도 아내는 신참의 손을 부여잡고 통곡부터 내뱉었다.

“니 영재 맞제? 나 알겠나? 니 고모다, 고모!”

두 살 때의 기억을 떠올리기보다는 신참의 얼굴에서 처남의 얼굴이 떠오른 아

내는 다짜고짜 신참의 얼굴에 자신의 볼을 비벼댔다.

“조금만 일찍 오지, 조금만!”

안타까움에 말을 잊지 못하는 아내를 본 신참이 조그맣게 따라 했다.

“고…… 모?”

조금도 어색하지 않게 계속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통곡에 신참도 콧등도 시큰해졌다.

“뭐 하나? 산에부터 갔다 와야지. 대충 챙기그라.”

처남의 산소는 집 뒤 언덕 뱃사람들의 공동묘지에 있었다.

빛속에서 서둘러 성묘를 마친 세 사람은 그 길로 택시를 잡아타고 해수가 간혀 있는 교도소로 향했다.

평생 의지해 온 등대처럼 곧게 뻗은 교도소 담벼락 위의 감시대를 올려다보는 덕칠의 눈에 분노가 서렸다.

“오셨습니까? 별일 없지요?”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세 사람을 보자 고개부터 꾸벅 숙여 보인 해수가 신참을 바라봤다.

“인사하그라. 나이는 같아도 니 형이다. 외사촌 알제? 베트남 있다는.”

평소 귀가 닳도록 들었던지라 반가움이 앞선 해수가 유리벽을 잇고 손을 내밀려다 주뻑거리며 웃었다.

“반가워, 형!”

악수 대신 유리벽을 사이로 손을 마주 댄 두 형제가 반가움을 표시하자 덕칠의 얼굴에 미소가 피어났다.

“너한테 이종사촌 동생이야.”

“이…… 종…… 사…… 촌…… 동…… 생?”

또박또박 따라 하며 한국말을 배우려고 애쓰는 신참에게 아내가 기특하다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아무래도 니 형과 같이 베트남으로 들어가야 할까 싶구먼.”

무슨 말이라는 듯 아내와 해수의 눈이 커졌다.

“애 아빠가 남겨놓은 유산으로 배를 살 작정이구먼. 타고난 뱃놈이 뭘 하겠냐?  
그냥 바다가 주는 혜택으로 살아온 것처럼 살아갈밖에…….”

평생을 허튼소리 한 번 없이 살아온 덕질을 아는 아내와 해수는 묵묵히 들을 수밖에 없었다.

처남에게 선물했던 어선과 국가에서 나온 보상금을 퐁퐁 뭉쳐 숨겨두었던 덕  
칠도 비로소 마음이 놓였다.

이젠 언제고 마음 놓고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고 먼저 간 처남을 만나더라도  
면목이 섰다는 안도의 숨을 내쉬 덕칠이 유리벽 앞으로 다가갔다.

“내가 먼저 가야겠구먼. 네가 나오는 대로 엄마하고 베트남으로 오거라. 사람  
과 환경은 인간을 배신해도 자연과 바다는 순종하는 이들은 순풍에 태운다고 안  
하던가? 나라는 없어도 살고 돈은 없어도 죽진 않지만 바다가 없으면 나는 죽어.  
그래서 가야 하구먼. 여기는 명기한테 맡기자.”

해수를 바라보며 내뱉은 덕칠의 말은 유리벽에 부딪혀 다시 가슴속으로 파고  
들었다. 그 마음을 안다는 듯 웅웅거리는 스피커 소리에 이장의 목소리가 섞여 나  
오더니 노래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바람이 잠들어도 등대는 켜있어요  
물새가 잠들어도 등대는 켜있어요  
내 님이 떠났어도 밤새껏 깜빡여요  
등대불이 왜 켜 있는지 그대는 아시나요  
그대는 아시나요 그대는 아시나요’



## 비늘

\* 제2회 등대문학상 가작 / 소설  
김은혜 (인천광역시)



나선형의 철제 계단을 올라갔다. 붉게 녹이 슬은 오래된 철제 계단은 발을 디  
딜 때마다 쇠소리를 냈다. 경사진 계단을 타고 천장을 보고 위로 올라갈 때면, 그  
는 늘 어둠을 떠올렸다. 빠져들 것 같은 깊고 진한 어둠. 둥그런 내부 벽을 나선형  
으로 도는 계단은 깊은 어둠 속에 잠긴 구멍 같이 느껴지기도 했다. 그는 손잡이를  
잡은 양손에 힘을 주고 천천히 한발씩 계단을 올랐다. 한 바퀴씩 계단의 외곽을 돌  
때마다 조금씩 미묘하게 공기가 달라졌다. 비릿한 바다 냄새가 천장 여닫이문으로  
새어들어 왔다. 다섯 바퀴 정도 나선을 돌고 나니 온몸에 더욱 힘이 들어갔다. 천  
장 문을 열었다. 축축하고 비린 냄새가 확 얼굴을 덮었다.

등탑 안의 공기는 조금 탁했다. 수십 개의 전구로 둘러진 등명기. 그는 프리즘  
렌즈 안의 전구들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빛이 없는 등명기는 아래를 내려다보는  
동공처럼 서늘했다. 꺼진 등명기는 꼭 잠을 자는 사나운 들짐승 같았다. 그래서 등  
명기를 점검하는 그의 손길은 언제나 조심스러웠다. 배전판 모서리에 나사가 헐거  
워져 있다. 그는 나사를 조이고 배전판을 단단히 고정시켰다. 이마에 축축하게 땀  
이 배어 나왔다. 툭툭하고 비린 공기가 등롱 안을 가득 매웠다. 등롱 유리벽 밖으  
로 멀리 노을이 번지는 흐린 하늘이 보였다. 등명기가 바라보고 선 방향. 그는 노  
을이 스며드는 물길을 따라 바다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곳에 자리를 잡은 것은 오년 전이었다. 정확히는 수가 죽은 지 이년 쯤 되는



해였다. 인적이 드문 섬에 들어가는 것이었지만, 두렵지는 않았다. 어쩌면 바라던 바였는지도 몰랐다. 육지에서 배로 한 시간을 넘게 들어가야 하는 외진 섬. 주민들도 몇 없고 아주 오래전에 지어진 빈집들이 중간 중간 눈이 띄는 작은 섬이었다. 그는 그 곳에서 매일 등대에 올랐다. 등명기를 만지며 오년을 보냈다. 등대는 하루도 빠짐없이 바다에 불빛을 쏘아냈다. 등대에서 쏘아올린 불빛이 바다에 산란하듯 번지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알 수 없게도 가슴 한켠이 싸해졌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어두운 밤, 그리고 칠흑 같은 검은 물결을 출렁이는 바다 한가운데 눈을 깜박이고 있을 등대의 불빛. 그는 자신의 등대에서 쏘아내진 불빛이 수십 킬로미터 검은 바다 위에 닿을 것을 생각했다. 그러면 웬지 바람이 들은 것처럼 온몸이 조금 추웠다.

\*

수는 바다를 보면 온몸이 간지럽다고 했다. 어디서부터 인지 모르게 끝없이 밀려오는 바닷물과 그 물결의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보면, 갑자기 온몸이 찌릿하고 따끔거린다고, 수는 말하곤 했다. 수는 바다를 좋아했다. 아니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좋아했다. 함께 바다를 보러 가면, 축축하고 비린 바다 냄새를 콧속으로 들이마시며 그를 향해 한껏 웃어 보이기도 했다. 그런 수의 모습을 바라보면 그의 마음도 웬지 모르게 들뜨고 두근거렸다. 수를 따라서 그의 몸도 찌릿 거렸다. 두 사람은 방파제에 앉아서 해가 지는 바다를 오랫동안 바라보곤 했다. 많은 이야기를 했다. 그에 관한 것이기도 했고, 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했다. 그렇게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오래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면, 어느새 주위는 어둑어둑 해졌다. 태양은 바다 속에 모두 잠기고 바닷물이 방파제 벽 아래 철썩이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이윽고, 멀리서 희미하게 불빛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등대의 불빛이 바다 위에서 흔들리듯이 간헐적으로 움직였다.

“저기, 등대 말이예요. 꼭 바다 한가운데 있는 섬 같아요.”

그의 어깨에 기대어 있던 수가 어둠 속에 보이는 등대의 불빛을 보며 낮게 웅

얼거렸다. 그녀의 말에 그도 고개를 들어 그 불빛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방향을 알려주는 항로 표시등. 검은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움직이는 빛.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혼자 온몸을 발산하며 움직이는 그 불빛이 바다 위에 번뜩거렸다.

그는 사람들 속에서 늘 배회하고 떠다니는 섬 같은 존재였다. 가까이 섞이지도, 멀리 떨어지지도 못한 채로. 물살을 따라서 그 방향으로 표류하는 무게 없는 가벼운 섬. 뱃사람이던 아버지는 오랫동안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다. 하지만 엄마가 없는 그를 맡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어려서부터 가까운 친척부터 먼 친척까지, 여러 집들을 떠돌며 자랐다. 한 가족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사는 것은 생각보다 녹록치 않았다. 그가 방 한 귀퉁이에서 웅크려 자고 있을 때면, 친척 어른들은 그의 뒤통수를 바라보며 ‘제 엄마 잡아먹고 태어난 자식’이라고 끌끌 혀를 차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의 눈빛은 동정을 표현하려 했지만, 언제나 냉대와 멸시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자는 동안 그는 그들의 ‘소리’가 전부 생생하게 들렸지만 애써 이불 속으로 정수리를 파묻었다. 그들의 가족 속에 흡수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혼자 텅겨져서 분리되고 싶지 않았다.

고모 집에서 삼촌 집으로 움직였고, 일가친척 집들을 전부 돌아다니다가 나중에는 육촌 당숙 집에서도 얼마를 살았다. 아버지는 이년에 한번 정도 그를 찾아왔다. 아버지의 낡은 갈색 점퍼에서 쿼퀴한 생선 냄새가 진동을 했다. 아버지는 언제나 그를 제대로 쳐다보지 않았다. 멀리서 어린 그의 얼굴을 슬쩍 확인하고는, 대문 밖에서 힐끔거리며 담배를 태웠다. 그리고 주뻔주뻔 집안 안쪽을 들여다보며 조심스럽게 들어와서, 지폐 몇 장을 넣은 노란 봉투를 마루 한구석에 툭 올려두었다. 그럴 때면 그를 사이에 두고 친척 어른들과 아버지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고모는 더는 못 거두겠다고 데려가라고 소리를 쳤고, 아버지는 좀 봐달라며 더 크게 소리 쳤다. 그는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안절부절 못하고 아버지 뒤에 숨었다. 그러면 아버지는 친척들 눈치를 보며, 잠깐 담배를 태운다고 하고는 주머니 속 빈 담배갑을 들었다. 그리고 소매를 붙잡는 그를 억지로 떼어놓고 대문 밖으로 도망치

듯 뛰어가곤 했다. 무언가에 쫓기듯 달려 나가는 아버지의 낡은 점퍼 등쪽에는, 정 체모를 생선비늘 몇 개가 붙어서 반짝거렸다. 그는 원망도 질타도 아닌 눈으로 멍 하니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아버지가 사실은 ‘어류’가 아닐까 진지하게 생각했다. 물에서는 발 디디고 살 수 없는 납작한 어류. 아버지가 다녀간 밤이면 그는 밤새도록 악몽에 시달렸다. 수백 개의 비늘을 달고 있는 아버지가 깊고 어두운 심해 속으로 들어가는 꿈이었다. 그는 아버지를 따라서 바다로 뛰어들었고 오랫동안 허우적거렸다. 바닷물은 너무 차가웠고 살이 에이는 고통 속에서 그는 점점 물 속으로 잠겼다.

어렸을 때부터 자주 여러 집을 옮겨 다닌 탓에, 그는 그 어떤 자리에 가도 눈에 띄지 않게 ‘있는 듯 없는 듯’ 존재하는 법을 알았다. 누군가의 신경에 거슬리지 않게,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게, 조용히 자리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친척 집을 전전하며 자라는 동안 그는 민달팽이처럼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움직였다. 누군가와 눈이 마주칠 때면, 얼른 자리를 피하고 어디서든 말수가 없이 조용했다. 이 년에 한 번씩이라도 찾아오던 아버지는 점차 횡수가 줄더니 더는 얼굴을 내비치지 않았다. 삼촌은 니 애비는 죽었을꺼라고, 중얼거리며 술에 취해 꼬꾸라진 채 그에게 술심부름을 시켰다. 그는 소주병 몇 개가 든 검은 봉지를 들고 비탈진 언덕길을 걸어오며, 멀리 바다를 바라보았다. 오징어 배들이 불을 밝힌 채 떠를 이루고 있었다. 그는 그 모습이 아버지 일지도 모르겠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서울에서 울산으로, 울산에서 대구로, 대구에서 전주로. 누군가의 집에서 그들의 밥을 얻어먹으면서 자랐다. 사람의 ‘집밥’은 모두 맛이 다르다는 것도, 그는 자라면서 깨달았다. 아무리 따뜻하게 갇 지은 밥이라도, 가끔씩은 목구멍으로 삼킬 때마다 목이 메어왔다. 그리고 스무 살이 가까워오던 어느 해,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그는 집을 뛰쳐나왔다. 등에 ‘비늘’은 없었지만, 그래서 조금은 두려웠지만 그는 애써 입술을 깨물고 내달렸다. 아가미를 활짝 열고 유영하듯, 온힘을 다해서 달렸다.

그는 오랫동안 어디에도 발을 붙이지 못하고 떠돌았다. 중국집 배달원을 하다가, 대리운전을 하기도 했고, 택배를 운송하기도 했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처음 맛보는 그 지역의 ‘공기’ 같은 것을 들이켰다. 누구도 환영하는 이가 없었지만 그렇다고 천대하는 이도 없었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지만, 그는 알았다. 어차피 세상 어디를 가도 그가 소속될 곳은 없다는 것을. 어쩌면 아버지는 자신과 같은 숙명을 그에게 이어 맡게 하려고 일부러 그토록 많은 집을 떠돌게 했을지도 몰랐다.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수백 개의 비늘을 달고 심해로 빠져들게 만 들려는지도 모르겠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는 일부러 바다를 멀리했다. 바다를 보면 아버지가 떠올랐고,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물살을 보고 있으면 깊은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온몸이 서늘했다. 그는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낯선 땅에서 일 용직을 하고, 자주 직업을 옮기고, 몇 년을 살았다. 그렇게 낯선 지역에서, 밥알이 설긴 낯선 밥을 먹으면서 오랫동안 전국을 돌아다녔다. 밤새도록 고속도로를 달리 다, 아무 휴게실에서 끼니를 때우고 몸을 움직였다. 그가 수를 만난 것은, 아마 그 무렵이었다.

\*

주위가 어두워졌다. 순식간에, 어둠 속에서 전구들이 빛을 쏟아냈다. 그는 등 명기가 회전하는 속도를 체크했다. 등명기는 직선의 불빛을 쏘아올린 채, 자전거 하듯 돌레를 그리며 일정하게 회전했다. 굴절되지 않은 깨끗한 직선의 불빛. 이따금씩 빛은 간헐적으로, 12초에 한 번씩 백색으로 강렬하게 섬광 했다. 마치 온몸에 남은 불빛들을 모두 토해내려는 듯, 프리즘 렌즈 밖으로 불빛을 허공으로 높이 쏘아 올렸다. 그는 등탑에 올라서 섬광이 움직이는 방향을 바라보았다. 빛은 밤공기 속에서 발화하다 이내 사라졌다.

기상 상황이 안 좋은 날에는 그는 늘 약간 예민해졌다. 섬에 있는 등대를 포함 해서, 주변에 있는 무인등대의 작동 여부도 수시로 확인해야 했다. 특히 안개가 끼

는 날이면, 불빛의 움직임만으로는 항로 표시가 어려워서 무신호기를 함께 사용했다. 그는 틈틈이 밖으로 나가서 등명기가 일정한 속도로 불빛을 쏘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다.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 밤새 불빛으로 원을 그리며 회전하는 등명기를 보고 있으면, 알 수 없게도 마음 한편이 서늘해졌다.

등대의 불빛은 최대 42km까지 닿을 수 있었다. 항로를 표시하는 등표가 되어, 움직이는 허공의 불빛. 만져지지 않지만, 가장 강렬하게 눈에 보이는 그 것. 그는 등대 외벽에 기대어 저 멀리 어느 바다 수면 위에 닿아있을 그 불빛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 '거리'에 대해서 생각에 잠기곤 했다. 섬에서 바다와의 거리, 이쪽과 저쪽의 간격, 그와 수와의 간격에 대해서도.

길과 길 그 사이, 톨게이트 통로에서 그는 수를 만났다. 그는 그 때 낡은 그의 일톤 트럭에 몇 안 되는 짐을 실은 채, 어딘가로 떠나기 위해 달리고 있었다. 이정표도 보지 않고, 끌리는 방향으로 그대로 핸들을 움직였다. 여러 번의 휴게소를 지나고, 몇 개의 나들목을 지나왔다. 어디로 가야할지 알 수 없어서 그는 멈출 수 없었다. 움직이는 대로 달리다 보니, 어느새 사방은 어둑어둑해졌다. 그나마 밤이 오면, 그는 웬지 모르게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다. 어둠이 온몸을 감싸는 기분은 축축하지만 포근했다. 그렇게 달리다 멀리 산 속 어느 집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에 가슴이 찢어졌다. 누군가 살고 있는 집, 그 불빛. 마치 방향을 알려주는 등표 같이 느껴지기도 했다. 마음이 가는 대로, 그 희미한 불빛들을 따라서 그는 어둠 속으로 계속 달렸다.

매연이 날리는 요금소 안에서, 작은 창문으로 얼굴을 내밀며 수가 인사했다. 이마가 동그란 여자였다. 얼굴 곳곳에 오랜 피로가 묻어있는 아주 젊지도, 늙지도 않은 여자. 금방이라도 출렁일 것 같은 눈빛을 가진 여자였다.

“이사 가시나 봐요.”

거스름돈을 주면서 수가 그를 향해 미소를 지어보였다. 그는 갑작스러운 타인의 관심에 약간 놀라 얼른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그리고 보니 누군가 웃으면서 그에게 대해 무언가 물어온 것은 처음이었다. 그 것이 설사 모든 고객에게 똑같이 대하

는 친절의 일부였을지라도, 수가 말을 걸어준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수를 만나기 위해서 자주 톨게이트를 지나다녔다. 수가 있을 때도 있었고, 다른 사람이 있을 때도 있었다. 그는 늘 요금을 내고 아무 말 없이 수가 있던 요금소를 빠져나왔다. 단지 수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는 가슴이 벅찼다. 수에게 뭔가 말을 걸고 싶었지만, 여자에게 말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는 요금소 앞을 지날 때마다 진땀을 뻘뻘 흘렸다. 그렇게 여러 날을 지나오고, 수가 자리에 있었던 어느 날, 거스름돈을 받고 그가 잠시 머뭇거렸다. 그의 트럭이 움직이지 않자, 뒤에서 경적을 울리는 소리가 거세게 들렸다. 수가 의아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땀이 축축이 젖은 손으로 핸들을 더욱 꽉 부여잡으며, 결심한 듯 수를 올려다보았다.

“저기……. 안녕하세요.”

긴장했던 탓인지, '안녕하세요'를 발음할 때 그의 목소리에서 새된 소리가 났다. 순식간에 그의 얼굴이 잘 익은 부사처럼 빨개졌다. 수는 그를 멍하니 바라보더니 푹, 하고 웃음을 터트렸다. 그는 수가 목젢을 보이며 웃는 모습을 보며, 어떤 표정을 지어야할지 몰라 쑥스럽게 따라서 웃었다. 뒤에서 경적 소리가 귀청을 찢을 듯이 점점 더 크게 들려오고 있었다.

그는 낡은 트럭을 타고 수와 함께 전국의 휴게소를 찾아다녔다. 함께 우동을 먹고, 호두과자를 나눠먹으며 밤새도록 어딘가를 향해 달렸다. 어두운 밤, 그는 혼자 아니라는 사실에, 그 느낌이 생경하면서도 따뜻했다. 새로운 지역에 가서 잠시 이사 용달차 일을 하다가, 다시 다른 지역으로 움직였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동했고, 저쪽에서 다른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어디론가 떠난다는 사실 만으로도 수는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했다. 수는 자신도 어딘가로 '입장하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좋다고 했다. 어딘가로 들어서고 속할 수 있어서, 그 사실이 좋다고 했다.



\*

등대는 3교대로 움직였다. 24시간 내내 등대를 중심으로 해상 상황을 지켜보아야 했다. 그는 주간보다 야간 업무가 더 기다려졌다. 등명기의 불빛을 가장 가까이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는 심장이 뜨거워졌다. 혼자 밤샘 업무를 하면서 등대의 불빛이 쏟아지는 것을 바라보면, 잠깐씩이라도 웃을 수 있었다. 나머지 등대원들은 모두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한 달에 일주일 정도 한꺼번에 받는 휴일에 가족들을 보러 물으로 가곤 했다. 그는 휴일이 되면 주로 숙소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잠을 잤다. 창문 너머로 섬광을 뿌리는 등대를 이따금 확인하면서.

등대 불빛이 수십 킬로미터 밖까지 닿는다는 것을 알려준 것은 수였다. 수는 등대를 보면 무언가를 이야기 하고 싶어진다고 했다. 하고 싶은 말들을 조용히 되내이다 보면, 웬지 섬광의 깜박이는 그 불빛이 고개를 끄덕여주는 것 같다고, 수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수와 함께 일 년을 사는 동안, 그는 전국의 수많은 등대 불빛을 보았다. 특히 유인등대의 불빛을 볼 때면, 어둠 속에서 누군가 그를 향해 손을 흔드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누군가 '거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래서 그도 모르게 나는 여기 있다고, 그 쪽을 향해 소리치고 싶기도 했다. 등대 불빛은 마치 '환영'처럼 그를 향해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깜박였다.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바다. 아버지를 떠오르게 했던 바다는, 여전히 비릿하고 축축한 냄새를 풍겼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의 '말줄임표'처럼……. 등대들은 수평선 위에서 불빛을 빔내며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수와 사는 동안, 그는 처음으로 사람이 먹는 '집밥'을 맛보았다. 달짝지근하고 고소했다. 다 먹고 나면 금방이라도 잠이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맛이였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한 곳에 자리 잡는 법을 배웠다. 울산 당사동에 작은 월세 집을 마련했다. 바다가 멀지 않은 곳이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무엇인지 수와 함

께하며 그는 몸으로 깨달았다. 사는 게 나름대로 재밌다는 것도 그 때 처음 알게 되었다. 무언가 기대할 수 있는 '미래'가 있다는 것은, 그를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어주었다. 그러자 남들처럼 살고 싶다는 욕심도 생겼다. '가족'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가진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 부드러운 기분. '가족'이라는 그 물렁물렁한 이름이 그를 자꾸만 두근거리게 했다.

그는 등대가 가장 잘 보이는 언덕 단칸방에서, 수와 함께 밥을 먹고 몸을 부비며 살았다. 수의 비좁은 통로 안으로 들어설 때면, 그는 심해에 갇힌 가물치처럼 방향을 헤매었다. 수의 몸은 어두웠고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수위가 깊었다. 그는 짙은 어둠 속에서 어딘가에 있을 불빛을 발견하려고 허우적거렸다. 하지만 그럴수록 몸은 어떤 소용돌이 같은 것에 점점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 들었다. 불빛은 보이지 않았다. 야맹증처럼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그는 어둠 속에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 것은 마치 어떤 결말을 예견하는 것처럼 그를 자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렸다.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었다. 태풍이 올지도 모른다고, 뉴스에서 연일 보도를 했던 어느 날. 수는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방파제 앞에서 높은 파도에 휩쓸렸다. 사람들은 수가 일부러 태풍이 오는 날 방파제 앞으로 나갔다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고 수군거리기도 했다. 그는 멀리 보이는 흐린 등대의 불빛을 향해, 한발자국 나아가는 수를 상상했다. 하지만 그는 어렵듯이 알았다. 수는 어쩌면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고. 안개로 제대로 보이지 않는 등대를 향해, 아무것도 모른 채 고개를 내미는 수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 때 그는 알지 못했지만, 수는 아이를 가지고 있었다.

\*

그는 이따금씩 수백 개의 비늘을 매달고 달려가는 아버지를 떠올려보았다. 자

신에게 비늘이 붙어있는 지도 모른 채, 물살을 거스르지 못하고 쓸려가는 아버지. 어딘가에서 아가미를 빠끔거리며 두리번거리고 있을 모습을 상상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혼자 몇 달을 살았다. 수와 함께 했던 기억들이 낡은 세간과 함께 방 안에서 뒹굴었다. 죽은 것처럼 살았다. 살아있지 않은 것처럼, 숨죽여 살았다. 어디서 불어올지 모르는 돌풍처럼 삶은 언제나 그의 예상 밖에서 움직였다. '비늘'이 없는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언제나 그대로 쓸려갈 수밖에 없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싶었다. 그 곳에서 내려다보면, 어쩌면 바람의 방향도 눈에 들어올지도 몰랐다. 만져질 수 없는 것들이 그 곳에서는 불빛처럼 선명하게 보일 수도 있을 거라고, 그는 생각했다. '항로표지관리원', 그가 처음으로 가진 제대로 된 직업이었다. 그는 수가 다가가고 싶었던 불빛들에 더 가까이 가고 싶었다. 어두운 바다 위에 부서지는 빛들을 바라보고 있다 보면, 수가 그랬던 것처럼 온몸이 소금기가 묻은 것처럼 조금 따끔거렸다. 쏟아지는 불빛들을 그는 밤새도록 지켜보았다.

등대에 있는 동안 그는 수많은 밤을 발화하며 보냈다. 등대의 불빛을 켜며 하루를 시작했고 소등하며 하루를 마무리 했다. 등롱 안의 배전판과 전구를 살펴보는 일이 그에게는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그는 매일 아침 소등을 할 때마다 등롱을 둘러보고 파리판을 닦았다. 그리고 밤새도록 불빛을 향해 뛰어들었던 날벌레들을 닦아냈다. 6층 높이의 등탑에 올라와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을 때면, 그는 등대가 '목울대' 같다는 생각을 했다. 섬의 가장 높은 언덕 위로 보잘 것 없이 길게 솟은 목(目). 그는 매일 밤마다 그 목을 바라보며 침침한 눈을 건디며 밤을 새웠다. 목은 언제나 목뼈를 일자로 세운 채로 그 꼭대기에 세상에서 가장 밝은 '목젓'을 빛냈다. 어떤 소리도 내지 않고 단지 빛으로 말하는 법을 등대는 알고 있었다. 수가 듣고 싶어 했던 그 이야기.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혼자 등대를 바라보고 있을 때면, 그는 등대가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보곤 했다. 그 깜박임과 불빛을 보면 팔팔하게 움직이는 심장이 온몸으로 느껴졌다. 등명기가 바다 위 수십 킬로미터 바깥까지 불빛을 뿌릴 때면, 그는 그 곳에 수가 있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밤새 바다 멀리까지 불빛이 제대로 전달되는지 더욱 꼼꼼히 들여다보았다. 등명기는 모든 불빛들을 산란하며 프리즘 렌즈 밖으로 빛을 쏟아냈다. 야간 업무를 마치고 등명기를 소등하는 아침이면, 그는 조용히 등대의 외벽을 쓰다듬었다. 손바닥에 희미하게 목울대의 떨림이 전해졌다.

아버지의 소식은 예상치 않은 곳에서 들려왔다. 복지센터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어떻게 알고 그에게 연락을 한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복지사는 아버지가 그를 지금 많이 찾고 있다는 말을 늘어놓았다. 한동안 잊고 있었던 '아버지'라는 존재를 떠올리자 그는 온몸에 비늘처럼 소름이 돋았다. 한번도 제대로 얼굴 한번 바라봐준 적 없던 사람이 그를 찾는다니, 믿어지지 않았다. 비늘에 둘러친 채로 심해에서 돌아온 것일까. 깊은 바다 속을 탐험하다가 이제야 지느러미로나마 물으로 발을 디딜 생각인 걸까. 전화를 끊고 나서 그는 오랫동안 잠을 뒤척였다. 그리고 어린 시절 그랬던 것처럼, 또 다시 꿈속에서 심해 속으로 들어가는 아버지를 보았다. 다만 비늘을 달고 아가미를 빠끔거리는 아버지는 다소 젊어보였다. 서른다섯, 지금 그의 나이 정도로, 아니 그보다도 더 젊은 모습이었다. 그는 이번에는 아버지를 따라 물속에 들어가지 않았다. 아버지가 뒤를 돌아보며 지느러미를 흔들었다. 아버지의 눈이 섬광처럼 한번 반짝였다.

복지사가 안내한 곳은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이었다. 그리고 그를 병실 앞까지 안내해주었다. 그는 하얀색 병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크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다. 6인실의 병실 안에 몇 명의 사람들이 보였다. 복지사는 그를 어떤 노인 앞에 데리고 갔다. 그리고 그 노인이, 그의 아버지라고 했다. 흰머리로 뒤덮인 술없는 머리카락과 굵은 주름들로 늘어진 얼굴. 아버지는 미동도 없이 누워서 눈을 깜빡였다. 초점 없는 동공이 그를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입술은 잠깐 오므려졌다 이내 움직이지 않았다. 복지사는 아버지가 루게릭 중기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굳은 나무토막처럼 껍질이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았다. 무언가 말을 하려고 입을 오물거리다 다시 멈추었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다. 그리고 이따금 눈꺼풀을 깜박이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내 천장을 올려다보고 이리저리 흐린 초점으로 눈동자를 움직였다. 복지사가 나가고 나서도, 그는 계속 그 자리에 서서 아버지를 오랫동안 내려다보았다. 아버지는 상상했던 모습보다 훨씬 늙고 병들어보였다. 수백 개의 비늘을 달고 심해를 돌아다니고 있을 아버지는, 어디에도 없었다. 이제 아버지의 등의 비늘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가 더 이상 움직일 수 있는 근육들이 얼마 남지 않아보였다. 그에게서 뛰어가던 두 다리와, 팔과, 차가운 표정도 이제 점점 굳어갈 것이다. 아버지는 검은 동공만을 이따금 굴리며 눈을 깜박였다.

“저, 그럼 가볼게요.”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순간 갑자기 아버지가 어으, 하는 소리를 냈다. 갑작스런 소리에 그는 고개를 돌렸다. 아버지가 그를 향해 눈동자를 힐끔거리며 입술을 잔뜩 오므렸다. 그리고는 아으, 하는 소리를 한 번 내고 입을 크게 벌렸다. 어떤 '음절' 같은 것을 건져 올리려고 하듯, 아버지는 허공에 대고 입술을 오물거렸다. 그는 천천히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아버지의 눈꺼풀이 갑자기 빠르게 깜박였다. 고장 난 등명기처럼 흔들리는 눈빛으로, 아버지는 탁한 눈동자로 그를 바라보며 점점 더 빠르게 깜박였다. 주름이 길게 늘어진 아버지의 눈꼬리에서 '비늘' 같은 게 반짝였다. 그는 아버지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이렇게 정면에서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올려 눈꼬리에 붙은 진물인지, 눈곱인지 모를 그 물기를 닦아냈다. 아버지가 다시 한 번 아으, 하는 소리를 냈다. 그리고 아버지는 눈꺼풀을 파르르 떨며 입술을 다문 채 눈을 짝 감았다. 그는 아버지의 '물기'가 묻은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

등탑 난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비릿한 바다 냄새가 콧속으로 들어왔다.

축축한 바람이 그의 이마를 쓸어 넘겼다. 어느새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밤새 어둠 속에 잠겨있던 바다가 이따금씩 짙은 푸른빛을 띠며 출렁였다. 멀리, 해가 천천히 오르고 있는 것이 보였다. 밤에서 아침으로 가는 시간, 등명기의 불빛이 일제히 소등되었다. 그는 바다를 향해 크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다. 온몸으로 바다가 쏟아질 듯 들어왔다.

그는 등롱 유리 표면을 닦아냈다. 밤새도록 불빛을 보며 뛰어들었던 나방들이 아래로 떨어졌다. 유리 바깥으로 얼핏 그의 얼굴이 반사되어 보였다. 그는 아주 잠깐 동안, 그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햇별이 등롱 안으로 점점 번져 들어가고 있었다. 바다가 물결을 한번 출렁일 때마다 수천 개의 물비늘이 출렁이듯 움직였다. 부드럽게 유영하듯, 바다가 다시 한 번 출렁였다. 멀리서, 아침이 오고 있었다.





## 하얀 등대의 꿈

\* 제2회 등대문학상 가작 / 소설  
김 학 규 (경기도 용인시)



검푸른 바다를 밀어내고 장엄하게 치솟아 오르는 황홀한 태양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예술작품이다. 그저 ‘아-’ 하고 심층 깊은 바닥에서 흘러나오는 탄성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찬란한 불덩이다. 밤을 잠재우고 새로운 아침을 여는 일출의 광경은 언제 봐도 놀랍고 신기하며 가슴을 뛰게 만든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해가 뜬다고 알려진 간절곶에는 하얀 등대가 우뚝 서 있다. 밤바다를 향해하는 선박들에게 빛을 보내고 소리를 들려주며 안내 등 역할을 을 줄기차게 해내는 하얀 등대다. 때론 밤을 밝히는 바다의 천사와 같은 존재이기도 하다. 하얀 등대 근처에는 소망의 우체통 하나가 놓여있다. 빨간 머리에 초록색 옷을 입은 거인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보통 사람의 키보다 무려 세 배나 되는 5미터의 높이를 가진 거대한 우체통이다. 무게도 자그마치 7톤이나 되는 엄청난 크기의 우체통을 보고 있노라면 사람들이 인형처럼 작게만 느껴진다. 그 우체통의 뒤편에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과 연결된 문 하나가 있다. 그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보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엽서를 써서 보낼 수 있는 또 하나의 소형 우체통이 그 안에 놓여있는 걸 볼 수 있다. 그곳에 엽서를 넣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전해진다고 믿는다. 그래서인지 혹은 그곳을 찾는 젊은이들은 깨알 같은 글씨로 빼곡하게 채워진 엽서를 헤어인 연인에게 보내곤 한다. 가늘게 떨리

는 손으로 자신의 마음이 전해지기를 빌면서 그들은 그 엽서를 빨간 우체통 안에 집어넣는다.

나성대가 그곳을 찾는 이유도 그들과 동일했다. 그녀가 살고 있는 주소도 모르고 휴대폰 번호도 모르지만, 그냥 막연한 심정으로 그의 마음속에 새겨져있는 그녀를 상상하며 그리움이 물씬 담긴 가을엽서를 띄운다.

그가 애뜻한 마음으로 가슴에 품고 있는 그녀의 이름은 ‘유빛나’이다. 주소를 받지 못한 탓에 그가 보내는 엽서는 수취인도 없이 어딘가에 수북이 쌓여져있을 테지만 그래도 그는 꾸준히 엽서를 보내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 그는 주말이 되면 엽서를 어루만지며 어김없이 그녀의 모습을 떠올린다. 자신의 마음이 그녀에게 전달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그는 숨을 죽여 가며 한 자씩 감동적인 시를 써 내려가듯 글을 쓴다. 밤새도록 다듬었던 글들을 다시금 엽서 위에 깨알처럼 쏟아놓는다.

그가 유빛나를 만나게 된 건 일 년 전 가을이었다. 철썩거리는 파도소리가 들리고, 눈부시게 파란 하늘이 가을을 어루만지는 주말오후였다. 그는 늘 그랬듯이 자전거를 타고 하얀 등대를 찾아갔다. 답답하고 뭉개에 눌린 것처럼 무거운 가슴을 바닷바람으로 말끔하게 씻어내기 위해서였다.

그가 대학을 졸업하고 십여 군데가 넘는 회사에 이력서를 냈지만, 말짱 도루묵이었다. 면접까지는 통과가 되어서 좋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였다. 보기 좋게 불합격 딱지가 붙은 인생이 되는 바람에 그는 절망어린 쓴 고통을 맛봐야만 했다. 그래서인지 취업을 포기하고 아예 원양어선을 타고 먼 바다로 나가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물론 파도가 출렁이는 드넓은 바다에서 흠냄새도 못 맡고 억척스럽게 일을 해야 하는 뱃사람의 삶이 그리 쉽지 많은 않을 것 같았다. 그래도 귀신 잡는 해병대에 지원하여 온갖 힘든 훈련을 마치고 병장으로 제대를 한 걸 되새김질 하면서, 세상에서 못할 일은 하나도 없다는 말을 당차게 내뱉곤 했었다. 하지만 막상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뼈저리게 상기시켜주었다.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들이 허다하다는 걸, 제대로 아는 순간부터 절망이란 놈이 흐느적거리는 심해의 괴생물체처럼 나타나 영혼을 움켜쥐고 야금야금 빨아먹고 자근자근 뇌를 씹는다. 실패의 웅덩이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되면, 그 때부터 무기력하고 심기가 불편한 날들이 줄기차게 펼쳐지게 마련이다.

그래서였을까. 그는 귀신 잡는 해병대 정신으로 벌떡 일어나 험난한 세상을 향해 도전장을 던졌다. 무작정 이력서만 회사에 내고 마냥 기다리며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황금 같은 시간들을 마구 낭비하는 것 자체가 소비적인 삶이라고 여겼다.

삽 한 자루로 우물을 파는 심정으로, 그는 영어와 중국어 공부에 심혈을 기울였다. 여러 회사에서 요구하는 자격증이나 경력을 쌓기 위하여 이른 아침부터 바쁘게 뛰어다니다보면 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가고 만다. 그나마 그가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은 토요일 오후였다. 자전거를 타고 동네에서 그리 멀지 않은 간절곶 하얀 등대가 있는 곳까지 가서 푸른 바다에 시선을 던져놓고 마음의 힐링을 받을 때야말로 평화로운 시간이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아서였다.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갈매기들의 울음소리와 끊임없이 들려오는 파도의 낮두리를 듣고 있노라면 절로 마음이 포근하고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자연자체가 갖고 있는 치유력 때문이었을까. 그는 그곳으로 가서 서있기만 해도 신경세포를 잡고 있던 까칠한 덩어리들이 쭈욱 빠져나가는 것만 같았다.

“올 해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밤바다에 수십 킬로미터까지 불빛을 보내는 간절곶 등대처럼, 내 인생을 눈부시도록 빛나게 해줄 놀라운 행운이 찾아올지도 몰라. 아니, 꼭 그렇게 될 거라고 난 믿어.”

그가 바다를 바라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죄송하지만, 하얀 등대 커피숍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귀엽고 호감이 가는 목소리가 그의 등 쪽에서 들려왔다.

“하얀 등대 커피숍이라고 하셨나요?”

그가 천천히 돌아서더니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며 되물었다.

“네. 하얀 등대 커피숍을 찾고 있걸랑요. 하얀 등대는 찾았는데, 커피숍이 안 보여서.”

“그건 하얀 등대에 있는 게 아니라, 저쪽 길로 가다보면 오른쪽에 있을 겁니다. 길가에 있는 작은 커피숍예요.”

그가 손가락으로 커피숍이 있는 쪽을 가리키며 친절하게 말했다.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잠깐만요! 제가 그곳까지 안내해 드릴 게요.”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는 데.”

“괜찮습니다. 그리고 보니 저도 그곳에서 누굴 만나기로 약속이 잡혀있습니다.”

“그럼, 함께 가도 되겠네요. 전 이곳이 처음이라 지리도 잘 모르고 해서.”

“가시죠. 제가 안내해 드릴 게요.”

그는 자전거를 끌고 그녀와 더불어 하얀 등대 커피숍으로 발길을 돌렸다. 사실 그는 하얀 등대 커피숍에서 누굴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있었던 건 아니다. 어쩐지 한 눈에 끌리는 아가씨와 잠시라도 호흡을 같이하고 싶어서 그렇게 거짓말을 했던 것이다. 결혼질로 살펴보니, 피부는 희고 짙은 눈썹에 커다란 눈동자가 오뎅 선 곳 날과 조화를 이룬 탓인지 영화배우를 해도 손색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알맞은 키에 수영선수처럼 균형이 딱 잡힌 몸매와 탐스러운 가슴의 윤곽이 그의 마음을 유혹하고 있었다. 말의 억양이나 몸짓이 세련된 걸로 미루어볼 때 부산이나 울산 사람은 아니고, 서울에서 내려온 아가씨일 거라고 추측했다. 아마도 남자 친구를 만나러 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혹시라도 그녀가 여자 친구 혹은 친척을 만나려고 하얀 등대까지 온 거라면 그녀를 포기해선 절대로 안 될 것만 같았다. 뭔가 새로운 접촉점을 찾아서 그녀의 주소나 전화번호를 얻어내야만 한다는 각오를 하며 어금니를 힘주어 다물었다. 그는 그녀를 보는 순간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냥 첫 눈에 반해버린 자신을 나무라지 않았다. 그건 피할 수 없는 운명 같은 거라고 믿고 싶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잡다한 얘기를 나누면서도 그는 두근거리는 심장의 박동소리를 머릿속에서 들을 수 있었다. 별로 우습지 않은 말에도 깔깔거리며 웃음보를 터뜨리는 그녀를 보면서 묘한 호기심과 여성스러운 매력이 그를

혼란케 했다. 다른 건 몰라도 인연의 줄이 닿은 거라면 이름이라도 알아야 내야할 필요가 있다고 여겼다. 만약 그녀가 이름을 알려주지 않고 가버린다면 그건 운명이 아니라 착각일거라고 하면서 그는 내심 긴장한 얼굴로 그녀를 주시했다. 속으론 제발 그녀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이름을 선물해주기만을 바랐다.

“초면에 실례가 되겠지만, 제가 알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그가 말을 끝까지 하지 못하고 얼굴을 붉혔다.

“내 이름은 유빛나예요. 부모님이 등대처럼 빛나라고 그런 이름을 지어 주셨대요.”

그녀가 그의 눈동자를 뻔히 들여다보곤, 후딱 자신의 이름을 그에게 알려줬다.

“아! 멋진 이름이네요. 전 나성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간절곶 등대엔 자주 오실 건가요?”

“글쎄요. 자주오긴 어렵고, 내년 이맘 때 다시 한 번 올 것 같습니다.”

“그럼, 누군가를 만나러 이곳까지 오셨나보다. 맞죠?”

“네.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예요.”

“남자요?”

“예.”

그녀가 웃는다.

“실망이다. 자꾸만 마음이 아파오네요.”

“왜요?”

“그냥, 그러네요.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허전하고 맥이 빠져서.”

“어디 아프신 곳이 있나보죠?”

“…….”

그는 멍쩍게 실실 웃다가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다 알면서 모르는 체 하는 건지, 진짜 자신의 속마음을 모르고 그러는 건지 도무지 헷갈려서 알 수가 없었다. 그는 그녀를 이해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우연히 그녀를 만나게 된 지 채 오 분도 안 된 처지인데, 운명이니 뭐니 운운하며, 감수성이 예민한 십대의 소년처럼 행동하고 있는 자신이 한심스럽게만 여겨졌다. 아름답고 매력적인 암컷을 소유하려는

수컷동물의 본능을, 운명이란 철학에 용해시켜 합리화하려는 인간의 알팍한 속임수가 가증스럽게만 여겨졌다. ‘난 지금 이 아가씨를 미치도록 좋아하고 있어.’라고 솔직하게 고백하지 못하는 자신이 조금은 비겁하게 보였다.

그가 그녀를 데리고 하얀 등대 커피숍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실내에는 서너 사람이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잔잔한 올드 팝송이 실내를 이국적인 분위기로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수염이 성성한 태국사람을 발견하곤 양손을 살랑살랑 흔들었다. 외국인이라 나이를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젊은이는 아니고 중년의 남자일 것 같았다. ‘뭐야! 원조교제이잖아. 게다가 한 술 더 떠서 외국인 남자랑 사귀다는 건가?’ 하고 그는 속으로 분노를 금치 못했다. 그녀가 태국 말로 그를 중년의 남자에게 소개했다. 아마도 친절하게 길안내를 해준 젊은이라고 칭찬을 한 모양이었다. 그는 고개를 가볍게 숙이곤 느린 영어로 인사를 했다. 태국남자는 환한 웃음을 드러내며 길안내를 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유창한 영어로 표현했다. 그는 미소를 머금은 얼굴을 하고 다른 테이블 쪽으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

“하필이면 유럽인도 아니고 태국인과 만나냐? 차라리 한국 사람인 나를 만나지. 진짜 아깝다. 아까워. 쫓쫓쫓.”

그는 혀를 차면서 그녀의 뒷모습을 관심어린 눈빛으로 주시했다. 그들은 태국어로 이야기를 하면서 수시로 통쾌한 웃음소리를 거침없이 토해냈다. 뭐가 그리도 즐거운지 알 수는 없었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녀가 그와 대화를 나누면서 상당히 기뻐하고 있다는 거였다.

꽤 긴 시간이었지만 그들의 대화는 멈추질 않았다. 뒤쪽에서 그들을 지켜보던 그는 모카커피 한 잔을 시켰다. 스마트폰을 꺼내어 메일과 카톡을 꼼꼼하게 훑어보던 그는 별 흥미가 없는지 의자에 기대어 두 눈을 감았다. 귤전을 맴도는 팝송에 푹 젖어 감상을 하다가 발바닥으로 바닥을 가볍게 두드리며 리듬을 타기도 했다.

시간이 좀 지난 후에 그는 궁금한 마음이 들어 눈을 번쩍 뜨고 그녀를 찾아봤지만, 어디로 사라진 건지 그녀의 모습은 도무지 보이질 않았다. 그는 후다닥 일



어나 커피숍 밖으로 뛰어나갔다. 그녀가 근처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예상은 빗나가고 말았다. 여기저기 관광객들이 끌고 온 승용차들이 구터기의 행렬마냥 길가에 줄지어 있을 뿐이었다. ‘주소는 고사하고 핸드폰 번호라도 물어볼 걸 그랬나? 아냐. 내가 미쳤어. 내가 왜 남의 여자에게 집착하고 있는 거지?’ 하고 중얼거리면서도 그는 여전히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어디선가 불쑥 나타나 그녀가 배시시 웃을 것만 같았다.

그는 커피숍 앞에 세워두었던 자전거를 타고 주변을 돌아다니며 그녀의 행방을 찾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았다.

그날 밤 그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짙은 안개 속에서 그녀의 뒷모습을 보고 미친 듯이 따라가는 꿈이었다. 잡힐 듯 앞서가지만, 끝까지 잡을 수 없었던 그녀를 떠올리면서 그는 머리맡에 두었던 물주전자를 한손으로 들고 꿀꺽꿀꺽 찬물을 마셨다. 어느 정도 갈증은 해소되었지만 금방이라도 툭 나타날 것만 같은 그녀를 온몸의 신경세포로 느끼며 그는 탁 하는 소리가 크게 들릴 만큼 물주전자를 방바닥에 거칠게 내려놓았다. 잠을 깨지 말고 더 달렸더라면, 그녀를 틀림없이 만날 수 있었을 거라는 아쉬움이 생기기도 했다. 그녀를 다시 만나보려고 잠을 청했지만, 머릿속이 맑아지면서 잠은 달아나고 말았다. 아쉬운 아침이었다.

아침식사를 하지 못하고 멍하니 밥상 앞에 앉아있는 아들을 한 참 지켜보고 있던 모친이 혀를 찼다.

“쫄쫄쫄! 너 무슨 고민꺼리가 있는 모양이구나. 그렇지?”

“아네요. 고민은 무슨.”

“누구나? 하나 밖에 없는 내 아들을 힘들게 하는 아가씨가?”

“예? 어머니가 그걸 어떻게 아세요?”

“지질이라도 못한 놈! 내가 그걸 왜 모르겠니? 니 애비도 너처럼 밥도 먹지 못하고 멍하니 바다만 바라보다가 황천길을 가셨단다.”

“정말 아버지도 그런 일을 겪으셨나요?”

“말도 마라. 그 뭐냐? 다방에서 커피 배달하는 젊은 아가씨에게 홀라당 빠져서

살더니, 나중엔 그 모양 그 꼴이 된 걸 어찌하겠냐? 니 애비는 밤낮 술만 죽어라 마셔대더니만 알코올 중독에 걸렸단다.”

“그럼, 아버님은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신 건가요?”

“그래! 니 애비는 그렇게 돌아올 수 없는 먼 길을 떠나가셨다. 그 당시 난 동네 사람들을 만나는 게 그렇게도 싫고 창피했단다. 그래서 얼굴도 들지 못하고 한 동안 해떨어진 밤에만 돌아다니곤 했었지.”

그의 모친이 스스럼없이 그에게 털어놓는 뉘두리였다.

“그래도 부부의 인연이 뭔지, 뱃고동 소리가 들려올 즈음이면 니 애비의 얼굴이 아련하게 떠오르곤 한단다.”

그의 모친은 겉으로 웃음을 보였지만, 속으로 눈물이 뺨 눈동자로 슬픔을 이기질 못하고 먼 하늘로 시선을 돌렸다. 낡은 어선이지만 그물을 끌어올리면 어마어마한 숫자의 고기들이 쉽게 잡힐 것만 같다고 하면서 고깃배를 탔던 사람이 부친이었다. 하지만 그런 부친이 마을에 생긴 다방을 번질나게 드나들면서부터 인생은 파배기마냥 배배꼬이게 되었다. 나이 어린 아가씨에게 마음을 빼앗긴 탓에 그의 부친은 몸이 달았다. 다방아가씨가 좋아하는 물건들을 사주려고 집안에 있는 현금들을 닥당 긁어서 상납하곤 했었다. 게다가 온 종일 술에 취해서 사는 날이 많았다. 그러다가 다방 아가씨는 큰돈을 여러 지인들에게 빌려서 채권 후에 흔적도 없이 어디론가 종적을 감추고 말았다. 그게 화근이 되어 그의 부친은 힘들게 살다가 알코올 중독에 걸리고 말았다. 돈도 날리고 애인이 잃었으니 그 공허함이 결국은 그 인생을 술독에 가두고 만 셈이었다. 그래서였는지 얼마 못가서 그의 부친은 간경화로 배에 복수가 차서 사형선고를 받은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세상을 하직하고 말았다.

그런 말을 모친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된 나성대는 적잖은 정신적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다. 부친의 과거에 그런 사연이 숨겨져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던 터라, 더욱 마음이 아팠다. 그는 너무 일찍 고인이 된 부친이 어쩐지 불쌍하게만 여겨졌다. 늦바람이 무섭다는 말이 있듯이, 뒤늦게 사랑앓이를 경험하고 방황을 하게 된 부친의 얼굴이 어렴풋하게 떠올랐다. 광대뼈가 드러날 만큼 마르고 고통으

로 심하게 일그러진 얼굴이었다.

어쨌거나 교미를 끝낸 수컷 사마귀가 암컷의 먹이가 되어 죽듯이 그렇게 인생의 막을 내리게 된 부친이 가슴이 아플 만큼 안타깝게만 여겨졌다.

“바다에서 물고기나 잡으셔야 할 분이 너무 늦은 나이에 사랑의 뒷에 걸리셨으니,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숨이 끊어지신 겁니다. 그래도 후회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원 없이 마음껏 사랑을 해보셨을 테니까요.”

그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창문 밖으로 보이는 먼 하늘을 바라봤다.

그 날 오후였다. 그는 간절곶 등대 근처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유빛나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 그녀는 태국남자의 손을 꼭 잡고 바다 위에 시선을 두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이 너무 슬프고 외로워보여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잠시 그 뒤에 서 있었다. 그녀는 한 참 후에야 그를 알아보고는 반갑다고 하면서 미소를 지어냈다. 그녀가 손을 꼭 잡고 있는 태국사내에게 뭐라고 말을 하자, 그 사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더니 일부러 자리를 비켜주었다.

“저 분과는 어떤 관계인지 제가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그가 그녀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 분은 제 아빠예요. 돌아가신 엄마는 한국 사람이었고요.”

“아! 그러셨구나! 부모님이 국제결혼을 하셨군요. 난 그것도 모르고, 저분이 유빛나 씨의 남자친구인줄 알았는데.”

“예예? 나이 차이가 꽤 나는데, 어떻게 우리 아빠가 제 남자친구로 보이세요? 말도 안 돼. 제가 그렇게 나이가 들어보이나요?”

“미안합니다. 그건 아니고, 하도 사이가 좋게 보여서 착각을 한 것 같네요.”

“그럼, 제가 지금 원조교제 하는 여자처럼 보였다는 거잖아요.”

“기분 나쁘셨다면, 용서하세요.”

“상관없어요. 그만큼 연인마냥 아빠와 제 모습이 다정하게 보였다는 뜻이니까요.”

그녀가 일부러 환한 웃음을 드러냈다.

그는 붉어진 얼굴을 안 보이려고 자꾸만 시선을 옆으로 돌렸지만, 그런 안 좋은 편견을 갖고 그녀를 바라본 자신이 부끄럽게만 여겨졌다.

그녀의 부친이 먼저 서울로 올라가는 바람에, 그는 그녀와 데이트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예기치 못한 행운이 그에게 찾아온 거나 다름이 없었다. 그녀는 어둠이 깔릴 무렵에 간절곶 등대를 떠났다. 그는 그녀에게 휴대폰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다가 얼굴에 검은색 수성 펜을 꺼내어 항상 갖고 다니던 메모지 위에 집주소와 이름을 후딱 적어서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서울로 올라가면 어떻게 지내는지 엽서라도 한 장 보내달라고 그녀에게 간곡한 눈빛으로 주문을 했다. 그녀는 그 메모지를 들여다보곤 묘한 미소를 짓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기회가 되면 엽서라도 보내주겠다는 의미가 담긴 미소였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 후에 그녀로부터 소식이 뚝 끊어졌다. 그러곤 일 년이 다 되도록 엽서는커녕 아무런 소식도 그에게 전해지질 않았다.

그는 달력을 보면서 가슴이 떨렸다. 11월 8일은 간절곶 등대에서 그녀를 만났던 날이다. 예상이 빗나가지 않는다면 그녀가 오후에 간절곶 등대 앞에 나타날 확률은 거의 백퍼센트에 가깝다고 여겼다.

샤워를 하고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면서 그는 콧노래를 불렀다. 건우와 직녀마냥 일 년에 한 번 그녀를 만날 수 있는 날이라, 그의 마음은 더욱 들뜨고 설렘으로 가득 채워졌다.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변했는지 보고 싶었다. 그가 머리를 말리고 조심스럽게 빗질을 하는 걸 지켜보던 그의 모친이 미간에 찡그리곤 못마땅한 얼굴로 입을 열었다.

“너 여자들을 조심해야 한다. 니 애비처럼 여자 때문에 인생을 망친 사내들이 하나 둘이 아니야. 여자를 만날 때는 늘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 법이다.”

그의 모친이 그에게 툭 던지는 말처럼 들렸지만 뼈가 있는 충고였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머님.”

“니 애비도 불여우 같은 다방 아가씨에게 당한 거다. 나중에 들리는 소문을 통해서 알게 됐지만, 그 여자가 외국사내와 눈이 맞아 살다가 딸까지 낳았단다. 그걸

니 애비는 몰랐던 거야. 네가 다섯 살 때의 일이니까, 그 여자의 딸도 살아있다면 너랑 나이가 거의 비슷할 게다.”

“아주 질적으로 나쁜 사기꾼 같은 여자네요. 그 여잔.”

“그러니까 간도 쓸개도 가리지 않고 몽땅 내어준 니 애비만 불쌍하지. 니 애비가 전답을 팔아서 만든 돈까지, 그 여자가 닥닥 긁어서 가로채갔으니 말이다. 얼굴만 반반하지, 그 여잔 사람이 아니고 순진한 사내들의 심장을 빼먹는 악귀나 다름이 없다. 너도 그런 여잔 조심해야 한다.”

그의 모친이 화기어린 창백한 얼굴로 그에게 타일렀다. 그녀는 지난날들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 얼굴에 잔주름들을 잔뜩 그려내면서 뿔마루에 주저앉아 길게 한숨을 토해냈다. 남편이 코흘리개 어린 시절에 소꿉친구를 했던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불여우가 그 소꿉친구와 그렇게도 닮았다고 하면서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던 일들이 새록새록 떠올랐다. 불여우가 그 소꿉친구였는지 혹은 아닌지 그건 확실하지 않았지만, 남편은 시간만 나면 다방 아가씨를 칭찬하느라고 입에 침이 마를 정도였다. 그게 싫어서 남편이 입을 열기만 하면 귀를 막고 돌아앉곤 했던 일들이 하나 둘씩 생각이 나자 고개를 내저었다. 늦바람이 난 남편과 불여우를 쫓쫓 묶어서 바다에 던져도 시원치 않을 것만 같은 분노가 활화산의 용암처럼 치솟았지만, 그래도 입을 꼭 다물고 땅이 꺼져라 탄식만 했던 자신이 후회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모든 일들이 지난 과거 속에 묻혔으니, 아무리 후회를 한들 소용이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여자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행방을 전혀 모르나보죠?”

“그 불여우가 무슨 재주를 피우려고 그랬는지는 몰라도, 아무튼 재작년 가을에 간절곶 등대근처에 나타났었다. 돈을 뜯긴 마을사람들한테 잡혀서 이리저리 끌려 다니며 웃도 다 찢겨진 상태로 개망신을 당했다는구나. 그러다 그만 바다로 뛰어 들어가 자살을 하고 말았단다. 지가 죽으려고 환장을 한 거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다시 찾아와 고개를 내민 건지 도무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야. 아무튼 그 불여우가 무슨 물귀신이 씌운 사람마냥, 순식간에 바닷물 속으로 텀벙 뛰어들었다는 게야.”

“그래도 마음이 여린 여자네요. 그까짓 걸 못 참고 자살을 하다니.”

“이놈아! 그 여잔 사람이 아니고, 사내 마음을 파먹는 악귀야. 악귀!”

그의 모친이 그의 면전을 향해 버럭 소리를 질러댔다.

그는 피식 웃으면서 그럴 일은 전혀 없을 테니까, 안심하라고 하면서 외출준비를 했다. 청바지에 검은색 티셔츠를 입고는 거울을 보고 머리손질을 하다가 마당 한 구석에 세워둔 자전거 쪽으로 걸어갔다.

그는 늘 그랬듯이 흰색 자전거를 타고 반쯤 열린 초록색 대문을 나섰다. 그 자전거를 타고 달리기 시작하자 늦가을의 냄새를 담은 바닷바람이 얼굴과 가슴을 어루만지며 살갑게 지나갔다. 가슴속에 앙금처럼 남겨져있던 고뇌의 찌꺼기들을 말끔하게 씻어주는 시원한 바람이었다. 멀리보이는 하얀 등대를 향하여 그는 힘차게 페달을 밟았다. 발에 힘이 들어갈 적마다 알 수 없는 기쁨이 목안에서 밀려나왔다. 자신도 모르게 의미 없는 웃음소리를 내다가 먼 하늘에 시선을 두었다. 구름 한 점 없는 새파란 하늘이 그의 눈을 시리게 했다. 그 하늘은 그의 눈동자를 온통 파랗게 물들여놓고야 말았다.

얼마나 달렸을까. 눈동자 속으로 흡입되는 하얀 등대가 보였다. 그것만 보면 이상하게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입안이 바짝 마른다. 그건 그의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유빛나 때문인지도 모른다. 비누로 거품을 내어 뿅뿅 문지를수록 더욱더 선명해지는 푸른 문신들처럼, 그녀를 마음 판에서 삭제시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그녀는 순간이동을 하는 외계인이 되고 만다. 그가 누워있는 방안이나 그가 걷고 있는 길거리 모퉁이나 혹은 등대근처에서도 긴 머릿결을 찰랑이며 나타나 미소가 묻은 손을 살며시 흔들어주곤 한다. 물론 그건 마음속에서 그려지는 환영이다. 하지만 그 환영이 실체처럼 느껴져 그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화들짝 놀랄 때도 있다. 졸지에 정신병이 생긴 건 아닌지 사뭇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그건 그녀를 만나게 되면 해결이 될 것 같았다. 실상 앞에서 허상은 기능을 상실하게 마련이다. 그녀가 너무도 보고 싶어서 괴로워하는 그를 위하여 대뇌가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걸 그자신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런 까닭에 그제 고칠 수 없는 정신병이 되진 않을 거라고 그는 매번 마음속으로 암시를 걸었다.



그는 일 년 전 그녀를 만났던 자리에 우뚝 서서, 먼 바다를 바라봤다. 그 때도 아무런 생각 없이 남들처럼 살아있는 바다의 수평선을 강렬한 시선으로 더듬으며 그렇게 움직임 없는 딱딱한 동상마냥 그곳에 서있었다. 그런데 마치 무슨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그의 뒤로 가만히 다가와 조용하지만 잔잔한 울림이 있는 은방울 같은 음성으로 그녀가 하얀 등대 커피숍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던 것을 생생하게 기억해냈다. 사실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보는 순간 그는 전기쇼크를 받은 사람마냥 머리 꼭대기에서 발끝까지 경련이 일어나는 짜릿한 느낌을 받았었다. 그녀의 모습이 너무도 아름답고 신비롭게 그의 마음속에 삽입된 탓이었다.

돌이켜 보면 정말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많았는데, 하필이면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와 말을 걸었던 그녀가 거부할 수 없는 운명처럼 여겨졌던 것이다. 눈부시게 아름다웠던 그녀의 자태가 허락도 없이 그의 뇌리 속을 헤집고 들어와 또렷하게 자리를 잡게 된 날이기도 했다.

그녀의 모친이 세상을 떠난 기일이 되면 부녀는 어김없이 간절곶 등대를 찾아온다. 그러곤 간단하게 제사를 마치고, 다시 서울로 돌아가는 그녀가 어쩐지 가엾게만 여겨졌다. 그녀는 모친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성장을 했지만 유달리 웃음이 많은 별난 성격을 갖고 있었다. 발바닥을 살살 긁어주면 깔깔거리며 웃는 아이처럼, 그녀는 작은 유머를 슬쩍 던져도 웃음폭탄을 터트리곤야만다. 그런 그녀의 모습을 접하는 사람들은 금방 정감을 느끼게 된다. 아마도 치아의 잇몸이 보일 만큼 웃기를 잘하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 모양이었다. 찬찬히 뜯어보면 그녀의 부친은 태국인 치고 피부도 흰 편이었고, 얼굴의 생김새도 얼핏 보면 세계적인 영화배우인 톰 크루즈를 닮은 미남이었다. 아마도 그녀가 이국적인 미모를 갖고 태어나게 된 것도 모친보다 부친을 더욱 빼닮은 탓이라고 여겼다. 그래서인지 그녀는 가만히 서 있으면 유럽의 마네킹처럼 보일만큼 완벽한 미모가 고스란히 드러나곤 했다. 가지런한 치열을 하얗게 드러내고 큰 웃음소리를 내는 그녀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어느새 귀여운 천사로 바뀐 그녀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하필이면 그녀의 모친이 간절곶 등대가 있는 바다에 투신자살을 했는데, 아직 까지도 그 시신을 찾아내질 못한 모양이었다. 그 시신을 바다가 널름 삼킨 것인지 아니면 갈치처럼 이빨이 날카로운 물고기들의 밥으로 시신이 해체가 된 건지 도무지 알 길이 막막할 뿐이었다.

어느 날 그녀의 집으로 날아온 하얀 등대엽서에 새겨진 날짜를 기일로 삼고, 그 부녀는 늦가을 11월 8일이 되면 오후 3시에 간절곶 등대 앞이나 혹은 하얀 등대 커피숍에 자리를 잡는다. 그곳은 그들이 만나기로 약속을 한 장소다. 그들은 등대 앞이나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미리 약속을 한 모양이다. 그들이 만나게 되면 미리 준비해온 제수용품들을 확인해보고, 인적이 드문 곳에는 배와 사과와 떡과 고기를 올려놓은 작은 제사상을 차려놓는다. 그러곤 고인의 명복을 빌며 그곳에서 약식으로 제사를 지낸다.

나중에 그녀가 보내준 엽서 한 장을 받고, 그런 구구절절한 사연들을 그도 알게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한과 슬픔이 마음으로 느껴져서인지, 그는 그 엽서를 받고나서 며칠 동안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만했다. 잠이 오질 않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녀의 얼굴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던 탓이다. 그 후로 거의 일 년 동안이나 그녀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오질 않았다. 어쩌면 수없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의 진액이 그 엽서 한 장에 녹녹히 녹아 있는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올 해 가을에는 그녀를 만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보게 될 거라고 중언거렸다. 침묵 속에서 슬픔에 잠겨있는 그녀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따뜻한 위로의 말이라도 전해주면 좋을 거라고 여겼다. 아니, 그냥 가까운 곳에서 그녀를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어도 희열이 느껴지고 행복할 것만 같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를 꼭 만나 봐야 한다는 불변의 의지가 담긴 소원이 그의 마음속을 뜨겁게 달구었다.

짙은 어둠이 깔린 검푸른 바다 위로 푸른 희망의 빛을 멀리 보내주는 하얀 등대가 간절곶에 있어서 좋다. 등대가 있는 곳에는 햇살 같은 빛과 따뜻한 기운이 가

숨으로 느껴진다. 혹은 마음이 무너지고 캄캄한 절망과 고통이 휘몰아쳐도, 한구석 밝은 빛이 떠오르면 그 자리엔 삶의 희망이 뭉게뭉게 피어오른다. 곳곳하게 세워진 하얀 등대가 마음속에 세워져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오늘이 반갑고 또 내일과 모레가 은근히 기다려진다. 기다림은 소망이고 행복이다.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기다림이 있다는 건 삶의 축복이다. 가슴 설레는 기다림이 있다는 건 꿈이 담긴 미래가 있다는 얘기가 아닌가.

그는 수취인이 없는 엽서를 정성껏 써내려가며, 가슴 설레는 미래의 꿈을 상상해본다. 마치 등대지기가 긴 밤을 지키며 기쁜 마음으로 울산항으로 들어오는 선박들에게 반짝이는 빛의 신호를 지속적으로 쏘아주듯이, 그는 마음의 등대에 환한 불을 켜놓는다. 어둠과 불안과 슬픔의 바다 위를 항해하는 기억의 배들을 희망과 기쁨의 항구로 가만히 인도해준다. 과거의 기억이라는 배안에 희망을 담으면, 그 배는 기쁨과 설렘의 추억선이 되어 다가온다고 믿으며, 그는 하얀 등대가 있는 엽서 위에 자신의 꿈을 고스란히 담아본다.

간절곳 등대가 보이는 바다. 수평선 너머에서 밀려오는 출렁이는 파도는 길게 숨을 내쉬며 춤을 춘다. 철썹거리는 소리를 내며 거친 바위의 전면에 흰 포말의 안개꽃들을 만들어 덮어주는 일들을 반복한다. 과거나 현재나 동일한 파도소리가 먹먹한 귓전을 자극하며 부서진다. 그는 변함없이 까만 수성 펜으로 어디선가 홀연히 나타나게 될 그녀를 상상하며 미소 짓는 얼굴로 한자 씩 글자를 엽서 위에 새겨 넣는다. 그러곤 마지막 한 장 남은 엽서 위에 자신의 이름을 쓰지 않고 '하얀 등대지기'라는 닉네임을 사인처럼 멋진 글씨체로 남긴다. 드디어 수취인 없는 엽서 한 장이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저기……. 실례지만 하얀 등대엽서는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그의 등 뒤에서 귀여운 아가씨의 목소리가 딸랑거리는 은방울소리처럼 머릿속에서 공명되고 있었다. 그는 너무 놀라서인지 쿵쿵거리는 심장의 고동소리가 머릿

속에서 확대되어 들려오는 것만 같았다. 얼른 고개를 뒤로 돌려 그녀를 쳐다볼 용기가 나질 않았다. 그것이 그녀의 환영이거나 아니면 그녀가 아닌 다른 아가씨이면 어쩌나 하는 내적인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



## 물마루 위에서

\* 제2회 등대문학상 가작 / 소설  
문 호 성 (부산광역시)



4월 16일 10시 50분에 부산 김해공항을 출발한 대한항공 877편은 현지시간 11시 50분에 중국 난징공항에 도착했다.

“어이, 그 에어컨 좀 높이지?”

차가 공항을 빠져나갈 무렵 조수석에 앉아 있던 최 사장이 핸들을 잡은 조선훈 직원에게 짜증스레 말했다. 직원은 급히 오른손을 에어컨 버튼으로 가져가더니 풍량을 올렸다. 최 사장과 직원을 빼면 SUV 차량 뒷좌석에 겨우 네 명만 앉은 셈이었지만 웬일인지 차 안은 그다지 넓게 느껴지지 않았다.

“저 일을 이제 어찌지?”

창밖을 내다보던 한 이사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다. 오랜만에 드림팀이 모였으며 연신 우스갯소리를 해대던 박 대표도 팔짱을 낀 채 말이 없었다. 그의 옆자리에서 고 상무는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계속 혀를 차고 있었고, 한 이사와 나란히 앉아 있던 석 전무는 아예 눈을 감고 꼼짝도 하지 않았다.

해운업과 선박수리, 선박설계용역 등 모두 배와 연관된 직업을 가진 오십대 중 후반 사내들의 모임인데다가 오랜만에 함께 하는 해외출장이다 보니 출국하러 김해공항에 모였을 때만 해도 농담과 신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다섯 명의 성을 모으면 ‘최고 박식한’ 모임이 되니 이거야말로 드림팀이라고 주장하는 박 대표에게 자기는 점 하나가 더 있으니 빼 달라고 석 전무가 어깃장을 놓자 듣고 있던 최 사장이

짐짓 소리를 질렀다.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남’이 되지만 거기서 모음이 뽕뽕하게 자빠지면 바로‘놈’이 돼요. 그러니 막말 듣기 싫으면 가만있으라고.”

최 사장이 중국 조선소에서 짓고 있는 자기 예인선의 진수식에 모두를 초청해서 떠나는 길이라 말이 출장이지 이박삼일의 가벼운 해외여행인 셈이었다. 게다가 원래 나이 든 사내들의 수다가 더 무서운 법이라서 공항에서 만나자마자 서로 안부와 근황을 묻고 답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이런 분위기가 묘하게 바뀐 건 화장실에 다녀오던 한 이사가 던진 말 한 마디 때문이었다.

“지금 뉴스 속보가 나오는데, 진도 앞바다에서 여객선이 좌초중이래는데요.”

일행의 시선이 가까운 곳에 있는 텔레비전 화면으로 향했다. 과연 거기에는 한 이사가 말한 내용이 하단에 큼지막한 자막으로 떠 있었다. 누군가 여전히 웃음기가 남아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좌초면 좌초고 아니면 아닌 거지‘좌초중’은 또 뭐야?‘사망중’이나 똑같은 표현이잖아? 좌우튼 우리나라에서는 언론이 제일 무식해.”

그러자 다른 사람이 그 말을 받아 이죽거렸다.

“아냐, 저거 일본식이야. 내가 일본에 갔을 때 자판기에‘고장중’이라고 쓴 종이가 붙어 있어서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엘리베이터에도 똑같이‘고장중’이라고 붙여 놓았더라고. 방송에서는 일본 드라마를 하도 베끼다 보니까 저런 것까지 베끼는 모양이야.”

아무도 심각하게 걱정하는 사람은 없었다. 겨울철도 아닌 봄날 아침에, 먼 바다도 아닌 육지가 코앞인 잔잔한 바다에서, 게다가 화재나 충돌이 아니라‘좌초중’이라고 느긋하게 말하는 걸 보니 별일이야 있겠냐는 표정이었다. 한 이사가 그래도 옛날 서해페리 사고처럼, 하고 말을 꺼내려 하자 이번에도 최 사장이 가로막았다.

“서해페리야 승객을 정원보다 오십 프로나 더 싣고 기항도 나쁜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항을 하다 뒤집힌 거고, 이건 좌초라잖아? 바로 구조되겠지.”

말을 끝낸 그는 시계를 보더니 가방을 끌고 출국장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일행이 우르르 그의 뒤를 따라가는 통에 누군가 중얼거리는 소리는 아무도 듣지 못



했다.

“그렇지만 좀 이상하네요. 내가 알기로 저기가 물살은 세지만 여객선이 좌초할 만한 암초는 없는 곳인데……”

출국수속과 보안검색을 마치고 보세구역에 들어가서도 제각기 면세점에서 선물을 사거나 커피로 목을 축이느라 모두들 조금 전에 들었던 일은 까맣게 잊고 있었다. 분위기가 확 바뀐 것은 난징공항에 도착한 일행이 현지 직원의 안내를 받아 주차장으로 걸어가던 중 또 다시 한 이사가 내지른 고함 때문이었다.

“어! 이런!”

중국 출장이 워낙 잦다 보니 아예 중국 국내용 휴대폰을 별도로 갖고 다니던 그가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큰 소리를 질렀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에게 쏠리자 그가 기가 막힌다는 듯 멍한 얼굴로 중얼거렸다,

“아까 그 배가, 들어갔네요…… 세월호라는 배……”

“뭐라고!”

최 사장이 한 이사의 손에서 낚아채듯 휴대폰을 받아들었다. 모두 머리를 가까이 대며 들여다본 화면에는 물에 잠긴 채 간신히 바닥만 드러낸 배의 모습이 떠 있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좌초라더니? 그럼, 사람들은?”

제일 뒤쪽에서 어깨 너머로 화면을 보던 고 상무가 마치 한 이사 잘못이라는 듯 그에게 소리를 질렀다.

“460명가량 탔다는데, 구조자가 160명이고 나머지 300명 정도가 실종, 그런데……”

한 이사가 잠시 한숨을 푹 내쉬더니 더듬더듬 말을 이어갔다.

“총 승선인원 중에,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325명이라네요.”

“…….”

순간 무거운 침묵이 일행을 에워쌌다. 배가 침몰했다는 표현 대신 배가 들어갔다라고 완곡하게 돌려 말하는 게 업계 안에서의 어법이었지만 이런 경우에는 그조차 아무런 위안이 되지 못했다. 그때부터 시작된 침묵은 차가 공항을 빠져나갈 때

까지 계속되었다. 하는 일이야 제각기 달라도 나름대로 선박에 일가견이 있는 그들로서는 바닥을 드러낸 배의 모습을 보는 순간 어떤 사실을 똑같이 직감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런 직감을 입 밖으로 내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는데, 총 승선인원에서 구조자를 뺀 나머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잔인한 계산을 굳이 하고 싶지가 않아서였다.

마치 가쁜 숨을 내쉬듯 씹씩대는 에어컨 바람 소리가 차 안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 오랜 침묵을 깨고 누군가 아주 조심스럽게 중얼거렸다.

“그러면, 저 생때같은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아무도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수확여행 가는 길이었다며? 이 좋은 봄날에…….”

그러자 또 다른 사람이 긴 한숨을 내쉬더니 마치 스스로를 달래듯 말했다.

“머나먼 이곳에서 뭘 어찌겠어. 앞으로 세 시간은 더 가야 되니…… 하기야 중국에서 세 시간 거리야 아주 가까운 거지. 내가 처음 중국에 왔을 때 어딜 가려고 현지 직원한테 물어보니 바로 옆이라 잠깐이면 된대. 그래서 가벼운 기분으로 출발했는데 막상 차에 타고 보니 한 시간이 지나서야 도착을 하는 거야. 기가 막혀서 좀 딱딱거리니까 그 친구가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란 듯 나를 쳐다보더라고요, 허어. 어쨌든 앞으로 세 시간은 더 가야 하니 자, 누가 아무 얘기라도 좀 해 봐요……”

……글쎄, 말재주가 없어서 별로 재미가 없겠지만 작은 등대에서 시작된 얘기가 한 토막 할게요. 옛날에 제가 선박검사원으로 일할 때 있었던 얘기인데요. 거의 15년 전인가? 그리스 선주가 일본 가고시마(鹿兒島)에서 카페리를 인수해서 가져간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선주 쪽의 일정이 상당히 급해서 배가 가고시마에서 나가사키까지 마지막 항해를 하고 그 다음에 항내에 정박한 상태에서 바로 인도 서명을 한다는 겁니다. 사정이 그러니 제게 가고시마에서 승선해서 나가사키까지 오면서 미리 배를 좀 확인해서 검사시간을 줄여 달라고 했어요. 자기네 선장은 벌써 배에 승선해 있고 일본 선주도 양해를 했다는 바람에 바로 가고시마로 갔지요.

저녁에 도착해서 선착장 부근 호텔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다음 아침 일찍 바로

배로 갔습니다. '마린 익스프레스'라는 이름을 가진 그 배는 일본 연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카페리였어요. 국제선수로 해도 2만 톤이 안 되는 규모에다 하얀 색으로 칠한 선체의 앞뒤에는 차량용 램프가 하나씩 있고 따로 여객 전용 현문이 있는 전형적인 카페리 구조였죠. 크루저 선처럼 호화스런 내부 설비는 없었지만 여객실은 일본식 다다미 바닥을 가진 것과 서양식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휴게실, 식당과 매점, 작은 게임 룸에다 선미쪽 갑판 위로는 널찍한 조망공간까지 갖춰져 있었어요.

혹시 크루저선의 내부 구조를 아시나요? 예, 고급호텔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 옆에 나 있는 현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면 리셉션 데스크가 있는 큰 로비가 먼저 나오는데 그 안에는 객실 층으로 통하는 나선형 중앙계단과 엘리베이터가 있죠. 여러 층의 갑판에는 등급별로 나뉜 여객실이 있고 배 중앙부에는 식당, 바, 게임 룸, 영화관, 헬스장, 도서관 등이 있고 뒤편 유보(遊步)갑판에는 보통 노천수영장과 일광욕 의자들이 놓여 있고요. 그리고 맨 위쪽 갑판에 조타실과 함께 선원실이 별도로 있죠.

이런 크루저 선들은 대개 이축선(二軸船)인 데다가 엔진도 네 대씩 갖고 있습니다. 기관실에는 큰 엔진이 두 대, 작은 엔진이 두 대씩 있고 이 네 대를 각각 연결해 주는 클러치 설비가 있어요. 그래서 입출항 때면 두 개의 프로펠러가 서로 다른 속도로 돌아가고 여기다 보조추진기인 스러스터들이 더해져서 배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가 있지요. 혹시 배가 제자리에서 360도 회전하는 광경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크루저 선은 그게 가능하답니다. 새하얀 곡선의 선체가 푸른 바다 위에서 사뿐히 제자리를 맴도는 모습은 정말 아름답기까지 하죠.

이런 얘기를 장황하게 하는 건 다름 아니라 규모가 작고 차량갑판이 따로 있다 뿐이지 카페리도 객실구조는 크루저선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이랍니다. 여러 층으로 되어서 전방에는 스위트룸, 그리고 복도를 따라 양쪽으로 보통 2인실인 일, 이 등 객실이 있고 여러 명이 함께 있는 일반실 등이 각 층별로 나뉘어져 있죠. 사고난 저 배, 세월호도 분명히 그런 구조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배 안에 처음 들어가면 솔직히 우리처럼 배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잘못하면 방향 감각을 잃기 십상이랍니다. 컴컴한 차량갑판을 지나

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중에 내려서 계단을 올라가다 방향을 틀어 통로로 들어서면 어디가 앞쪽이고 어디가 좌현인지도 헷갈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저 배처럼 완전히 뒤집혀 버리면 설령 물에 가라앉지 않았다 해도 그 안에서 제대로 길을 찾기는 극히 어렵겠지요. 하물며 지금처럼 콧잔등만 내놓고 물에 가라앉은 판국에서…… 설령 잠수부가 선내에 들어간들 얼마나 빨리 수색을 할 수 있을지…… 이거, 얘기가 엉뚱한 곳으로 흘렀네요. 어쨌든 저는 먼저 배에 와 있던 그리스 선장을 휴게실에서 만나 얘기를 들었습니다.

“캡틴, 당신 혼자 왔습니까?”

“아니요. 우리 공무감독하고 선원들은 아마 지금쯤 나가사키에 도착해서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인도가 끝나면 최대한 빨리 출항해야 되니까요.”

“이 배를 인수해서 그리스에 도착하면 바로 운항할 겁니까?”

“아니, 먼저 개조공사부터 할 겁니다. 일본식 여객실은 전부 웨스턴 스타일로 바꾸고, 여객정원을 줄이는 대신에 차량적재수는 좀 늘릴 예정이죠. 그런데 지금 그리스에 있는 조선소들이 전부 바쁘다 보니 우리가 늦다고 기다려 주질 못한답니다. 그러니 가능한 서둘러 출항을 해야 하지요.”

“지금 이 배의 선명이 '마린 익스프레스'인데 인도 후에도 이 이름을 그대로 쓸 건가요?”

“물론 아니죠. 회사에서 벌써 결정했다는데, 새 선명은 '파이드라'입니다.”

‘파이드라?’

저는 속으로 그 이름을 다시 되씹으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분명히 많이 들었던 이름인데 어디서 들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질 않았어요. 그렇다고 배 이름을 시시콜콜 따지며 시간을 보낼 만큼 한가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리스 선장과 대강 얘기를 마친 후에 저는 다시 일본인 선장을 찾아갔지요. 어쨌든 배가 인도될 때까지는 그가 법적인 모든 권한이 있으니 일을 시작하려면 미리 말하고 허락을 받아야 했거든요.

키가 작달막하고 깡마른 체격을 한 일본인 선장은 회사로부터 이미 연락을 받았으니 허락하긴 하겠지만 몇 가지 사항들만은 꼭 지켜달라고 하더군요. 폐쇄된

곳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일본인 선원들에게 알리고 그들 중 책임 있는 사람과 동행해야 한다. 지금 선내사무실에서는 바이어 측에 인계할 도면과 기록들을 정리하고 있는 중이니 그곳에는 출입을 삼가하고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자기에게 직접 요청하기 바란다. 인도 서명이 끝날 때까지는 바이어 측에 어떠한 기술적 코멘트도 하지 말기 바라는데 왜냐하면 계약조건에 따르면 이 배는 현재 상태 그대로 인도될 예정이므로 혹시 그 전에 불필요한 논란이 생기면 곤란하며 자기로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일본 국내운항선 선장으로서서는 드물게 유창한 영어로 자기 의사를 밝히는 그에게 저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캡틴, 당신 말씀은 대단히 타당하고 저는 그걸 분명히 지키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는 제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선박매매에 있어서는 잔금 입금과 동시에 인도 서명이 이루어지며, 또 선박 상태에 대한 논란이나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도가 완료될 때까지는 아무도 승선시키지 않는 것이 관례죠. 그러니 미리 검사를 시작하도록 허용한 것은 일반적인 관례로 보면 대단한 친절이었던 셈입니다.

그렇지만 달리 생각하면 그만큼 일본 선주가 거래를 성사시키려고 서둘렀다는 뜻도 되겠지요. 아시아시피 일본에서는 여객선 운항선령을 보통 20년 정도로 간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년이 가까워지면 대개 외국에 팔아치우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마린 익스프레스, 아니 이제는 파이드라호라고 불려야 할 그 배도 선령이 18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20년 가깝게 쓰고 난 여객선은 한국이나 유럽 번두리로 팔리고, 한국에서는 쓸 만큼 쓰고 난 후 다시 동남아시아 쪽으로 넘기고…… 그건 당시만 해도 업계에서 관례였는데 지금 사고 난 저 배를 보니 아직도 여전한 것 같네요.

사실 솔직한 말로 조선강국이면 뭘 합니까. 여객선 설계나 시공은 아직도 유럽이나 일본을 따라가지 못하는데 국내여객선 선주로서도 큰 돈 들어 신조를 할 수가 없으니 중고선을 도입할 수밖에 없겠죠. 아까 보니 사고 난 저 배도 일본에서 한 20년 된 걸 도입해 왔다고 하더군요. 분명히 이제 곧 노후선을 도입했네 어쩌네 하면서 시끄러워질 겁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던 중이었죠? 아, 죄송합니다. 어쨌든 일본인 선장과 얘기가 잘 끝나고 협조적인 분위기 속에서 일이 시작되자 그리스 선장도 매우 흡족한 눈치였습니다. 그는 제게 엄지손가락까지 주켜세우면서 되풀이해서 말하더군요.

“제가 대강 둘러봤는데 배의 전반적인 상태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특히 도면이나 기록들은 아주 완벽하게 보관되어 있고요. 내가 배를 여러 척 인수해 봤지만 재패니즈 스타일은 볼 때마다 이런 면에서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윽고 기적이 두어 번 올리더니 배가 나가사키로 향해 출항했습니다. 마지막 항해라서 그랬던지 지금 생각해 봐도 참 쓸쓸한 풍경이었어요. 그 넓은 배 안에 승객이라곤 고작 20여 명, 차량갑판에 실린 승용차 열 몇 대가 전부였죠. 휴게실 테이블 위에 서류를 늘어놓고 들여다보던 저는 잠깐 바람이라도 쐬고 싶어 유보갑판으로 나와 바깥을 둘러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우뚝 솟은 사쿠라지마 화산이 보이더군요. 눈이 부시게 내리쬐는 여름 햇빛 아래로 넓은 바다가 푸른 용단처럼 펼쳐져 있고 멀리 수평선 위로 새하얀 뭉게구름이 떠 있는, 정말 그림 같이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전형적인 방추형 화산인 사쿠라지마는 늘씬하게 흘러내린 허리를 바다에 잠그고 파란 하늘을 머리에 인 채 제가 탄 배를 내려다보고 있더군요. 활화산이라 언제 불꽃과 용암을 뿜어 낼지 모른다는 사실이 오히려 기묘한 매력을 더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고시마만을 빠져나와 연안으로 나온 배는 천천히 방향을 돌려 나가사키 쪽을 향해 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햇빛이 화창하던 바다 위로 조금씩 안개가 끼더군요. 휴게실로 되돌아오는 제 옆으로 일본인 항해사가 지나가며 뭐라고 중얼대는데 서툰 일본어 실력으로 풀어 보니, 오늘 이렇게 안개가 낄 거란 일기예보는 없었는데 좀 이상하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단 조타실의 항해 장비부터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에서 연안항해만 하다가 유럽으로 팔려 가는 여객선에서 제일 큰 문제는 국제항해에 요구되는 설비나 장치들이 없다는 것이었죠. 둘러보니 레이더 수량과 성능은 문제가 없었고 자이로컴퍼스, 선속거리계나 측심장치도 쓸 만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연안 항해를 하던 선박이다 보니 국제항해를 하려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선박자동식별



장치가 없더군요. 또 스크린에 띄워 사용하는 전자해도도 성능은 우수했지만 국제 기준에 맞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국제항해를 하는 차량여객선에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항해기록장치도 없었고요. 어쨌든 저는 수첩을 꺼내 지금까지 확인된 사항들을 적어가며 확인을 계속했습니다. 프로펠러 회전계, 타각지시기, 항해등 표시반, 텔레그래프, 기적, 화재제어반, 수밀문 표시반……

조타실 뒤쪽으로 가서 무선설비를 확인하다 보니 인공위성을 통한 조난구조용 무선설비인 인마사트(INMARSAT) 장비가 국제항해선박에 필요한 수량보다 한 세트가 모자라더군요. 이걸 좀 다른 얘기지만, 오늘 사고 난 저 배에도 분명히 이게 있었을 겁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육상기지국은 물론 인근 선박, 심지어는 항공기까지 구조요청신호가 곧바로 날아가는 설비거든요. 아니, 이런 건 놔두더라도 VHF 무선전화 16번 채널로 구조요청만 했어도 저 지경은 안 되었을 텐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얘기가 또 엉뚱하게 흐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설비가 부족했지만 큰 걱정은 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도착지까지 항해를 위해서는 이제껏 선주들이 그랬듯이 기국(旗國) 정부에 임시항해 요청을 할 게 분명했으니까요.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 배를 인수해서 목적지까지 이동시키는 항해에 대해서는 보통 기국 정부에서도 화물이나 여객을 싣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국제협약에서 요구되는 설비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었거든요.

항해장비 점검을 대강 마치고 조타실을 나와 갑판에 내려오니 제법 짙어진 안개가 눈앞을 가로막더군요. 어느새 하늘에는 구름이 잔뜩 끼었고 바람도 조금씩 부는 수면 위로 진한 입김처럼 안개가 폴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배의 앞길을 꼭 가로막겠다는 게 아니라 그저 나아가는 방향을 어지럽혀서 길을 잃게 만들려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잠시 안개를 쳐다보던 제가 구멍뗂목을 확인하려고 갑판 우현으로 가려는데 문득 멀리서 그리스 선장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를 본 그는 싱글거리며 다가오더니 혹시 무슨 문제가 있냐고 묻더군요.

“몇 가지 설비가 부족하지만…… 어쨌든 국내항해를 하던 배니까요.”

“오, 그건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가사키에 도착하는 대로 우리 공무감독

이 알아서 설치작업을 할 겁니다. 우리는 벌써 이런 경험을 해봐서 잘 알아요. 몇 년 전에 이 배와 똑같은 동형선을 인수한 적이 있으니까요. 이제 이 배가 가면 그건 폐선시킬 겁니다만.”

“이 배와 동형선이라고요? 그 배는 이름이 뭐죠?”

“그 배 이름은 ‘아리아드네’라고 한답니다.”

눈을 찡긋하는 그리스 선장의 말을 듣는 순간 제게는 왠지 그 이름도 아주 귀에 익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어디서 들었을까 생각하며 갑판 우현 쪽으로 걸음을 떼려는데 별안간 그리스 선장이 바다 위 한곳을 가리키며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 저것 보세요! 등대가 있는 저 바위! 마치 아주 큰 황소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을 보니 안개 사이로 멀리 검은색 등대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 아래로 보이는 바위섬의 윤곽은 정말 바다 위에 웅크린 거대한 황소 같더군요. 흡사 물결을 헤치며 우리가 탄 배를 뒤쫓아 오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해서 저는 그리스 선장에게 웃으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이렇게 안개 속에서 보니 마치 멀리서 큰 외뿔 황소 괴물이 쫓아오는 듯하네요, 하하. 혹시 안개가 많이 끼는 지역이라 등대를 세운 걸까요?”

“안개 때문에 세웠다면 소리를 내는 안개신호소가 같이 있을 텐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암초 위에 세워진 등주(燈柱)로 보이네요.”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리스 선장은 갑자기 자기 지식을 과시하려는 듯 뽀내는 말투로 뜬금없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는 팔로스 섬의 등대가 있죠. BC 280년에 지중해 알렉산드리아 항의 입구에 있었는데요. 높이가 110미터나 되는 탑 모양이었지요.”

“오, 굉장히 높았네요. 그럼 분명히 불빛도 무척 밝았겠군요.”

짐짓 맛장구를 치긴 했지만 뻔히 아는 상식을 자기만 아는 것처럼 내뱉는 말투가 좀 거슬리더군요. 이런 내 마음을 알 리 없는 그는 여전히 잘난 체하며 대답을 했습니다.

“나무나 송진을 태워서 불을 밝혔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나무나 송진도 엄청나게 들어갔을 텐데 110미터나 되는 높은 곳까지 그 많은 걸 어떻게 운반했을까요?”

뜻하지 않은 내 질문에 그리스 선장은 약간 당황한 듯 입을 다물더군요. 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가 모르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옛날 코리아에서는 정기적으로‘통신사’라는 외교사절을 일본으로 보냈는데요. 사신들이 남긴 기록을 보면 일본 포구 바깥에는 배가 밤길에 암초를 피하도록 붉은 등 세 개를 나란히 세워 놓았다고 하니 그게 바로 아까 봤던 그런 등주였던 것 같아요.”

“.....”

“또 사신들 배가 지나가는 항로에서는 암초가 있는 곳에 표시목을 세우고 밤에는 사람들에게 화톳불을 피우거나 횃불을 계속 흔들게 했답니다. 그 때문에 파도가 심할 때면 사고로 죽은 일본인들도 많았지요.”

“흐음...”

흥미를 느끼면서도 약간 주눅 든 것 같은 그리스 선장의 표정이 재미있어서 나는 계속 얘기를 이어갔습니다.

“또 사신들이 탄 배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일들도 일체 금지되어 있었답니다. 예를 들자면 바닷가에서는 불을 피우거나 화재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들불을 놓아서도 안 된다, 허락 없이 함부로 철폐를 쏘지 말라, 집에서 연기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또 배에 달라붙은 선저(船底)해초를 불로 태우는 작업을 해서도 안 된다.....”

말문이 막힌 듯한 그리스 선장은 멧쩍은 웃음을 띠며 이만 내려가야겠다며 계단을 따라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갑판 우현으로 발걸음을 옮기던 내 눈에 문득 떨어지는 바위섬의 등대가 보이는 순간 희한하게도 머릿속으로 몇 개의 단어들이 잇달아 떠올랐습니다. 황소 괴물, 미노타우로스, 미궁, 아리아드네... 그건 아주 오래 전에 읽었던 그리스 신화 속에 등장한 이름들이었지요.

제우스와 에우로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미노스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에게 자기가 배다른 형제들을 물리치고 크레타의 왕위에 오르도록 도와준다면 황소를

바치겠다는 맹세를 합니다. 그러나 왕위에 오른 그는 이 맹세를 지키지 않았고 이에 격분한 포세이돈의 저주 때문에 미노스의 아내 파시파에는 황소와 교접하여 반인반수의 괴물 미노타우로스를 낳게 되지요. 그러자 미노스 왕은 다이달로스에게 미궁을 만들게 한 다음 황소 괴물 미노타우로스를 그곳에 가둡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 적국이던 아테네에서 테세우스라는 영웅이 찾아와 이 괴물을 없애려 하자 미노스의 딸인 아리아드네 공주는 그에게 반해서 삼실이 감긴 실꾸리를 건네줍니다. 미궁 속으로 들어간 테세우스는 괴물을 죽이고 미리 풀어 둔 삼실을 따라서 무사히 밖으로 나오게 되지요.

‘미궁 안에서 삼실이 마치 안개 속의 등대 불빛 같은 역할을 한 거지.....’

잠시 그런 생각을 하며 주위를 둘러보니 오른쪽으로는 멀리 거무스름한 해안선이 보였고 왼쪽에는 바다 외에는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우현 갑판에 놓인 구멍 뚫목들을 한참 동안 확인해 나가던 저는 발아래에서 느껴지는 흔들림이 조금씩 커진다는 사실을 얼핏 깨닫고 허리를 뻗지요. 그러자 뿌연 안개 속에서 어느새 군데 군데 허연 물결이 부서지기 시작하는 검푸른 바다가 시야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

천천히 일렁이며 다가오는 너울을 보니 갑자기 배가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 눈앞에서 바다는 부두나 해안에서 보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자욱한 연기처럼 깔린 안개 아래로 시퍼런 수면이 서서히 올라가다가 또 다른 기울기로 가라앉고 있었지요. 그 모습은 마치 허연 장막으로 뒤덮인 방향을 알 수 없는 미궁처럼 보였고 제가 탄 배는 그 속을 힘겹게 엮으려 기어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뱃머리에서 파도가 부서지며 날리는 물보라가 점점 세지면서 선체가 흡사 거대한 손에 떠밀리는 듯이 크고 완만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더군요. 불규칙하면서도 은밀한 호흡 같은 그런 움직임 탓인지 멀미를 하지 않던 제게도 기묘한 어지럼증이 찾아왔습니다. 조금 쉬려고 선실에 돌아와 소파에 드러누워 눈을 감았지만 이상하게도 머릿속에 떠오른 미궁 생각은 잦아들지를 았더라고요.

사실 제게는 황소 괴물이 죽고 난 후의 얘기가 훨씬 더 흥미로웠거든요. 미궁을 빠져나온 테세우스는 아리아드네와 함께 크레타를 떠나지만 도중에 들른 낙소

스 섬에다 그녀를 버리고 아마존으로 가서 그곳 여왕과의 사이에서 아들 히폴리토스를 낳고 그를 트로이젠으로 보냅니다. 한편 미노스의 아들 테우칼리온은 크레타 섬의 왕위에 오른 뒤 테세우스가 다스리는 아테네와 동맹을 맺고 아리아드네의 동생인 파이드라를 테세우스와 결혼시키죠. 그 후 테세우스는 자신을 몰아내려고 공격한 숙부와 그 아들 오십 명을 죽인 죄로 일 년 동안 아테네를 떠나 있으라는 벌을 받고 파이드라와 함께 트로이젠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 이미 아름다운 청년으로 성장한 히폴리토스는 총독이 되어 트로이젠을 다스리고 있었죠. 파이드라는 그에게 첫눈에 반했지만 히폴리토스는 그녀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았고, 절망한 파이드라는 테세우스에게 그의 아들인 히폴리토스가 자신을 유혹했다고 모함하고는 자살해버립니다. 테세우스에게 심한 질책을 받은 히폴리토스는 아무 변명도 하지 않고 전차를 몰고 해변을 달리다가 바닷속에서 튀어나온 괴물에게 놀란 말이 뛰는 바람에 절벽에서 떨어져 죽지요. 이는 테세우스가 포세이돈에게 아들을 죽여 달라고 빌었기 때문이라 합니다.

불륜과 배신, 음모와 증오, 복수와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간 세상의 어두운 단면을 압축시켜 보여주는 얘기 같아서 좀 길기는 하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죽어도 좋아'라는 제목으로 상영되었다던 영화 '페드라'가 바로 이 신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거랍니다. 저도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흑백영화로 본 적이 있어요. 짧은 게모 페드라와의 이루지 못할 사랑에 몸부림치다가 자동차를 몰고 절벽 아래로 추락하는 알렉시스 역을 맡았던 앤서니 퍼킨스의 연기가 무척 인상 깊었던 영화였죠.

소파에 드러누워 이런 얘기를 떠올리고 있으려니 문득 이 모든 비극의 뿌리에 도사리고 있는 건 욕망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권력욕, 애욕과 물욕에다 심지어는 종교적인 욕망까지 구별하기 어려울 만큼 서로 뒤엉켜 있었는데, 왜냐하면 히폴리토스는 순결한 처녀신 아르테미스를 사랑했기 때문에 파이드라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다고 하니까요. 음, 글썄요…… 제게는 오늘 저 배, 세월호를 뒤흔 사고의 밑바닥에도 분명히 이처럼 복잡하게 뒤엉킨 욕망이 파리를 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나저나 지금이라도 해상크레인 불러다가 체인이라도 걸어 두어야 저 배가 완전히 가라앉지는 않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예…… 그 말씀도 맞네요. 보나마나 지금쯤 술한 전문가들이 방송에 나와서 떠들어댈 테니 여기서 우리가 하는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평소에는 안 보이던 전문가들이 무슨 이슈거리만 생기면 이렇게 한꺼번에 몰려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삼풍백화점 사고 때 어땠는지 기억하세요? 건물이 통째로 내려앉아 정신이 없는데 현장인터뷰에서는 희한한 사람들만 나와서 황설수설하고…… 아까 공항에서 언론이 제일 무식하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보니 무슨 사고 터지면 제일 먼저 패닉 상태에 빠지는 것도 언론 같아요. 자들이 더 흥분해서 어쩔 줄 모르는 것 같더라니까요.

지금 배가 가라앉았으니 그 안에 있던 애들과 승객이 어떻게 됐을까 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있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카페리의 내부와 객실 정도는 보여줘야죠. 엉성한 그래픽 화면으로 대충 상황만 설명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선주인 해운사에 똑같은 동형선도 있다고 하고 설령 그게 아니더라도 카페리 구조란 게 다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듣자니 승객들을 놔두고 선장과 선원들만 먼저 빠져나왔다고요?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옵니다. 여객선이라면 제일 먼저 승객들부터 승정장소에 집결시켜야죠. 그리고는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퇴선준비를 하도록 승무원들이 도와주어야 하고요. 구명동의를 입고 선실 안에서 대기하라고 했다면 서요? 아니, 그걸 입으면 동작이 불편해지는데 가뜰이나 기울어진 선실에다 물까지 들어오면 어떻게 움직이라고요?

휴우…… 파이드라 얘기뿐만 아니라 어쨌든 세상의 모든 비극 아래에 도사리고 있는 건 욕망일지도 모르죠. 그런데 말이죠. 욕망의 밑바닥에는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해양파에서 파고는 깊이에 따라 지수적으로 감소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지간히 큰 파도가 치는 날도 깊은 물속은 의외로 조용하다고 하죠. 욕망의 바닥도 그럴까요? 아니면 어지러운 조류가 흐를까요? 지금 세월호가 들어간 곳도 조류 속도가 6노트가 넘는다면서요. 저도 그 위력을 실감한 적이 있는데, 시속 6노트 조류에서는 그물 표시를 위해 띄워둔 부표가 완전히 물속으로 휩쓸려 들어가더군요.



요. 나중에 물살이 잦아들어 떠오를 때 보니까 두꺼운 플라스틱 부표가 수압 때문에 강통처럼 찌그러져 있더라고요. 지금부터 그런 곳에 잠수부가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마 제대로 서 있기조차 어려울 텐데요…….

얘기가 쓸데없이 길어진 것 같아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날 오후 늦게 파이드라호가 나가사키에 닿을 때까지 안개는 걷히지 않았습시다. 양쪽에 붉은색과 흰색 등대가 각각 서 있는 외항 방파제를 지나자 메가미오하시(女神大橋)란 이름의 높다란 현수교가 나타나더니 그 아래로 군데군데 안개로 지워진 나가사키 항구 풍경이 드러나더군요. 배가 여객터미널에 닿자 얼마 안 되는 승객과 승용차는 채 10분도 안 되어 전부 내렸습니다. 제가 선미 램프를 통해 내려가니 그리스 선장과 얘기를 나누던 40대 초반의 사내가 공무감독 콘스탄티노스라고 자기소개를 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는 3년 전에 이 배와 동형선을 도입한 적이 있어서 이번에도 똑같은 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설치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장비들에 대해서는 이미 기국 정부에 면제 신청을 해두었습니다. 인마사트 설비에 대해서는 우리와 함께 온 엔지니어가 인도절차가 끝나는 대로 바로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안테나를 추가하고 조타실 천정에 배선만 다시 하면 되니까요.”

함께 부두 근처의 호텔로 들어가면서 계획을 설명하던 그는 피곤하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덧붙였다.

“이 배도 상태가 좋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연안에서만 항해를 하던 배이다 보니 우리가 미리 확인하고 조치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각종 계기반이나 기기 명판들이 전부 일본어로 쓰여 있으니 우리가 전부 영어로 번역해서 적어 넣어야 합니다. 게다가 먼 항로를 가는 동안 안전을 위해 선수 램프는 전부 선체에 용접을 해버릴 예정이구요.”

그리고 보니 지금 저 배, 세월호의 항로가 인천에서 제주까지라고 했죠? 어쨌든 중국이나 일본 쪽 국제항해보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항로도 더 길다고 볼 수 있겠네요. 어휴, 차라리 국제항해라면 저런 사고까지는 없었을 겁니다. 최소한 양국 항만청에서 정기적인 점검은 받았을 테니까요. 이제까지 들리는 소식 보니까 대충

감이 오네요. 차량이나 컨테이너 화물들을 규정대로 고박하려면 두어 시간은 족히 걸리니 출항시간 맞추려고 보나마나 화물고박 제대로 안 했을 거고요. 화물차 운전사나 자주 오가는 사람 중에 직원들이 표 안 끊고 태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 승선인원도 아마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겠지요. 지금이야 정신없으니까 그렇지만 조금 있으면 난리 날 겁니다….

안개는 다음날이 되어도 말끔히 걷히지는 않았습시다. 아침 일찍 전화를 건 콘스탄티노스는 어젯밤 자정에 인도 서명이 끝났다고 지금 파이드라호는 부두를 떠나 항내에 닿을 내리고 정박했으니 통선으로만 오갈 수 있다고 하더군요. 하기가 배의 국적이 바뀌어 이제는 외항선이 되었으니 국내선 부두에 대 놓을 수는 없었겠죠.

“무선설비 추가설치는 오늘 새벽에 시작해서 지금 거의 다 마쳤습시다. 램프 용접작업은 오후까지는 끝낼 것 같고요. 그러면 저녁이라도 확인하시고 증서를 발급해 주시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 테니 램프 용접이 끝나면 연락해주십시오.”

통화를 마치고 창가로 다가가니 눈 아래로 희뿌연 입김 같은 안개에 갇힌 항구가 보였습니다. 안개는 바다로 향한 제 시선을 완전히 가리지는 않으면서도 여전히 사물과 풍경들을 비현실적인 모습으로 지워 가고 있더군요. 그건 마치 눈앞에서 길을 보여주면서도 절대로 목적지에 도착하지는 못하게 하는 미궁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멀리서 외항 방파제 등대가 어렴풋이 보이는 순간 문득 저는 배의 항등처럼 항구의 등대 역시 왼쪽이 붉은색이라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그러자 지금 내가 딛고 선 이 땅덩이도 마치 배처럼 어딘가로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때때로 바람에 밀리거나 혹은 예상치 못한 파도에 방향을 잃고 맴돌기도 할 것 같은 기묘한 느낌이었습니다.

혼란스러운 머릿속으로 파이드라의 언니였던 아리아드네에 대한 얘기가 떠오른 건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버지를 배신하면서까지 자기가 사랑하는 적국 남자인 테세우스를 도와주지만 아리아드네는 결국 그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낯선 섬에서 버림받은 그녀는 나중에 술의 신 디오니소스를 만나 그의 아내가 되었다고 하지

요. 그런데 아리아드네가 디오니소스의 아내가 되었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혹시 사랑하던 남자에게 배신당한 아픔 때문에 늘 술에 취한 채 남은 세월을 보냈다는 것은 아닐까요. 자기를 배신한 남자, 그 남자를 가로챈 동생에 대한 그녀의 저주가 파이드라의 비극을 불렀다고 한다면 너무 지나친 상상일까요. 그런 상념에 빠져 시간이 흐르는 사이에 어느덧 오후가 지나갔고 다시 제 방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조금 전에 램프 용접이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 출항을 위해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으니 이제라도 오셔서 확인만 하시면 되겠네요.”

무슨 까닭에서인지 수화기 속에서 들려오는 콘스탄티노스의 음성이 착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쁜 소식은 뭘니까?”

“용접을 마치고 뒷정리를 하러 선미 램프 바깥으로 나갔던 젊은 선원이…… 그만 발을 헛디더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병원으로 호송하기는 했는데 아직 혼수상태입니다. 떨어질 때 신체에 부딪쳐 척추를 심하게 다친 모양인데요. 불쌍한 히폴리토스……”

“예? 그 사람 이름이 히폴리토스라고요?”

통화를 마치고도 나는 수화기를 든 채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새 안개가 걷혔던지 넓은 나가사키 항구 위로 서서히 드리워지는 어둠이 내 시야를 채우고 있었죠. 활짝 트인 바다 위로 은은히 붉은 노을빛이 번져 가는데 멀리 외항 방파제 등대에 때마침 불빛이 깜박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도 저는 한 번씩 그 배, 파이드라라는 이름을 가졌던 카페리를 생각합니다. 과연 그 배는 아무 사고 없이 일생을 마쳤을까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파이드라의 얘기도 모두 포세이돈의 저주, 아니 바다의 저주에서 비롯되었을지도 모르겠군요. 그러니 하찮은 인간의 욕망을 가지고 함부로 바다를 대할 일이 아니라는, 바다 앞에서가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의 욕망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많은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겠지요. 아이들의 웃음을 빼앗고 대한해협으로 흘러든 바닷물은 차가운 쿠릴 열도와 캄차카 반도를 지나 머나먼 태평양 연안을 떠돌다 언젠가 진도 앞바다로 되돌아올지도 모르죠. 그래서 바람이 세계 부는 날이면 하얗게 물결이 부서지는 수면 위로 오래 전에 머금고 떠났던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뱉어낼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그때는 더 이상 이 일을 기억 못하는 사람들만 남아있을 겁니다. 풍경이 기억 속에서만 그 의미를 가진다는 건 그래서 참 슬픈 일입니다. 오래 전 낯선 바다를 지나면서 보았던 작은 등대가 제게 떠올리는 기억이 그러하듯 말이죠.

산에는 산마루, 고개에는 고갯마루가 있듯이 바다에도 물마루가 있습니다. 글썄요, 저는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대한해협의 어느 물마루 위에서 환한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그런 꿈이라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휴우, 그나저나 이제 다 온 건가요? 그럼 모두 내리시죠.

## 등 대 (남자의 이야기)

\* 제2회 등대문학상 가작 / 소설  
박 슬 기 (부산광역시)



요 며칠 하늘이 잿빛으로 계속 흐렸다. 갑자기 비가 쏟아질 하늘은 아니었다. 다만 오늘 밤도 지독히도 짙은 해무가 끼겠구나, 라고 남자는 생각을 했다. 바다에 살다보면 그리고 특히 어떤 식으로든 바다와 살을 부대끼는 일을 하다보면 날씨에 민감해질 수 밖에 없다. 그것은 살고자 하는 동물적 본능 같은 거였다. 요 며칠 사이에 해가 나지 않고 계속해서 흐린 하늘이, 그보다도 습기를 머금고 눅눅한 공기와 질게 내려앉은 해무가 남자의 신경을 예민하게 했다. 이제 홀로 일을 한 지도 몇 해를 넘기었고, 사실 어린 시절부터 집처럼 등대 위의 숙소에서 배를 깔고 생활을 했는데도 그는 여전히 등대를 지키는 일이 버거웠다. 어쩌면 그것은 일에 대한 중압이기 보다는 아버지의 무게인지도 몰랐다. 등대는 아버지의 메타포 같은 거였다. 남자에게 등대와 아버지는 언제나 겹쳐 떠오르는 이미지였다.

\*

아버지는 등대지기였다. 요즘 말로 정확히 말하자면 등대원이었다. 아버지는 끝이 보이지 않는 수평선에서 외로이 선 성에서 보이지 않는 배들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었다. 10초에 한 번씩, 20초에 한 번씩 점멸하는 백색광으로, 때때로는 황색광이나 적색광으로. 안개라도 많이 끼는 날에는 날카롭게 울리는 소리를 내질러서.

그는 여태까지도 아버지만큼 애절하게 일하는 이를 본 적이 없었다. 열정이라거나, 성실 같은 단어와는 달랐다. 무언가 숨겨둔 팔자식이라도 대하는 마냥, 그렇게 살뜰히 보살피고 정성스레 일을 할 수 없었다. 그의 아버지는 등대를 조작하는 스위치를 닦는 손길에마져 어떤 경의 같은 것을 담고 있었다. 바다를 바라보며 일을 하는 아버지의 옆얼굴 보고, 소년이었던 남자는 어렴풋이 바다에 질투를 느꼈다. 그것은 아직 세상의 생태라거나 삶의 언저리를 잘 파악하지 못한 풋내기가 느낄 정도로 아버지의 바다와 등대에 대한 애정은 강렬했다. 아버지의 그 환영이 지금도 홀로 바다를 지키는 남자를 날카롭게 했다.

\*

날씨 탓을 하며 등대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었다. 동시에 남자의 마음 한 구석이 돌이 박힌 듯 불편해져 갔다. 그것은 어머니에 대한 책임감이었다. 홀로 버려두면 외로워질 어머니에 대한 책임감 같은 것. 남자는 해가 떠 있는 시간이면 며칠에 한 번씩, 어머니의 집에 머무르곤 했다. 어머니의 집, 이라고 발음하는 남자의 가슴에 서늘했다. 어머니는 홀로 자신의 집에서 늙어가고 있었다. 며칠, 날씨를 핑계로 등대의 숙소에서만 머물던 남자는 더 이상 불편함을 이기지 못하고 집으로 향했다.

어머니의 집, 으로 돌아온 남자는 자신의 방에서 잠을 청했다. 책임감 같은 것 갖고 있는 남자였지만 그렇다고 살가운 아들도 아니었다. 아니, 그렇게 될 수 없었다. 까무룩 잠이 들었을까, 꿈에서조차 잿빛 바다와 하늘을 보았던 것 같다. 그럴 때 비일상적인 목소리가 공기를 흔들었다.

“실례합니다. 계세요..?”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다. 남자는 꿈결인가 싶었지만 그 목소리는 그의 귀전에



쟁쟁하게 올랐기 때문에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어딘가 지친 기색의 젊은 여자가 서있었다. 사람들이 여행으로 오지 않는 이 마을에, 무슨 일로 온 것일까. 그런 의문이 일었다.

“무슨 일이시지요?”

“아, 여기서 며칠 좀 묵을 수 있을까 해서요”

민박이라 오래도록 잊고 있었던, 애써 잊고 있었던 단어가 현실에 나타나자 남자는 다시금 불쾌해졌다.

“..아.. 민박을 안 친지 오래되서 마땅한 방이 없을텐데...”

거짓말은 아니었다. 하지만 집에 손님을 들이기 싫었던 그는 여자가 어서 나가 주었으면, 했다. 그를 곧게 바라보는 여자가, 남자의 속내를 꿰뚫어보는 듯한 기분이 들어 남자는 얼른 변명 같은 말을 덧붙였다.

“여기는 사람들이 여행 오는 곳이 아니라서..”

“하이고, 무슨 손님인지요.”

남자의 어머니가 마실을 다녀와 문간으로 들어서며, 반가운 기색으로 여자를 맞았다. 어머니는 또 홀로 외로웠을까. 더 이상 남자가 할 일은 없었다. 남자는 그만 문을 닫았다. 집 안의 공기가 활기를 띄는 것이 싫었다. 머무르는 사람이 누군가와는 상관없이 타인들이 머무르면 집 안의 공기는 금새 바뀌었다. 가족이 아닌 사람이 머물게 되면 바뀌는 집 안의 공기가, 자꾸만 그 옛날 일들을 떠올리게 했다. 남자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고, 그리워하지 않고 어머니와 둘이서만 삶을 견디고 싶었다.

오랜만의 손님에 어머니는 잠시 반가웠는지는 몰라도 사실 곧 옛날 일을 떠올렸는지도 몰랐다. 그에게 밥상을 차려주는 그의 어머니가 유난히 그의 눈치를 살피는 것 같았다. 그리고 등대를 보러 간다는 여자에게 어머니는 자랑 아닌 자랑을 늘어놓았다. 보통의 어머니보다 훨씬 들뜨고,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몸짓이었다. 아마도 그도 그의 어머니도 묵인하고 있는 그 날의 일을 떠올린 탓이었을 것이다.

해가 점점 기울고 있었다. 오늘 밤도 짙은 해무가 내릴 작정이었다. 등대로 다시금 돌아가던 남자는 등대를 망부석처럼 쳐다보고 있는 여자의 등을 보았다. 묘한 느낌의 여자였다. 어떤 이유로 등대를 보러 온 것일까. 호기심이 생기기도 하는 그였지만, 고요하던 그의 일상을 조금씩 뒤틀어 놓은 여자에게 원망이 드는 남자였다.

\*

해무 속의 바다는 고요했다. 그러나 곧, 무엇이든 집어삼킬 수 있으리라.

저 바다를 보면서 아버지는 무엇을 기다렸던 걸까. 정말로, 여기서 배를 타고 어딘가로 사라졌던 아버지의 여인을 기다렸을까. 혹여나 그 여인을 실은 새까만 어둠 속에서 좌표를 잃고 돌아오지 못할까봐 그토록 열심히 먼 바다로 신호를 했던 걸까.

아버지는 지독하게도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다고 했다. 타지에서 흘러들어와 작은 마을에 파문을 일으켰던 여자. 거친 바닷 일을 하는 남자들이었지만 사실 이성이나 연애를 거는 일에는 순진하다 못해 무지했던 바다 사내들의 마음을 한꺼번에 얻었다 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녀의 마음을 얻은 승리자였다. 불장난 같은 연애도 잠시, 그러나 여인은 어느 순간 홀연히 사라졌다. 아버지에게 남기는 아무런 편지도 없이, 지나고 나서는 '아 그랬구나..' 싶은 그런 암호같은 언질도 없이. 여인

은 없었던 것처럼 사라졌다. 그리고 그 여인이 홀연히 사라진 그 어느 날의 새벽 누군가 그 여인이 배를 타고 가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눈에 익지 않은 배였다고, 아마도 밀항이 아니었을까 그런 말이 나돌았다. 사실은 여자가 살아온 삶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이 마을에 온 것이 아니었겠느냐고.

아버지의 뒤로 사람들은 그런 소문들을 수군댔다. 그런 일이 빈번하던 시절이었다. 옆집에는 앞집에 오늘 아침 밥상머리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조차 속속이 알던 시절, 무언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을 견디던 이들이 야반도주며 밀항이며 그렇게 사라지던 일이 빈번했다. 그 후로부터 아버지는 말수가 점차 줄어들었다고 했다.

그리고 아버지는 등대지기가 되었다.

\*

그 날은 유난히 더 안개가 짙은 밤이었다. 남자는 신경이 잔뜩 날카로워져 안개 신호를 내보냈다. 더 강렬한 빛이 점멸하도록 조정하며 그저 어둡뿐인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특히 이런 날이면 아버지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는 기분이었다. 마치 남자의 옆에 서서 남자가 얼마나 성스럽게 일을 하는 지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가만히 바다를 보고 있으면 남자는 고독해졌다. 고독이라는 말이 심연에 진득하게 고이는 기분이었다. 그토록 바다를 지키는 일을 하면서도 바다를 그리워하는 것 같았던 아버지를 알 것도 같았다. 하지만 아버지를 이해해서는 안된다, 그런 마음이 강렬하게 남자의 생각을 저지했다.

그리고 갑자기 그 여자가 나타났다. 갑자기 그 여자가 나타났다, 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었다. 이 등대에 찾아온 타인은 그 여자가 처음이었다. 이 등대는 남자의 아버지와 남자의 성이었다. 그러더니 민망한 얼굴로

“아... 등대를 보다보니, 안이 궁금해서요.. 죄송해요..”

그렇게 말을 붙였다.

“오늘 날씨가 이래서, 바닷일 하는 사람들은 워낙 날에 민감해서요.”

남자는 여자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엉뚱한 말을 내뱉었다. 어쩌면 여자에게 느꼈던 자신의 반감이나 원망 따위를 변명하고 싶었던 것인지도 몰랐다. 이상하게, 남자의 성인 등대로까지 들어온 여자를 보자, 고해의 충동이 일었다. 어쩌면 늘, 이 여자를 기다렸는지도 모르겠다고 남자는 생각했다.

\*

등대와는 아니 바다와도 전혀 인연이 없이 살았다는 여자는, 이상하게도 그리운 얼굴을 하고 조정실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창 밖의 바다로도 하염없이 애뜻하고 그리운 눈빛으로 시선을 던졌다.

아버지를 닮았다.

그 시선을 바라보던 남자는 그런 생각을 했다. 바다를 바라보던 그 눈빛을 닮았다고, 바다를 그리워하던 눈빛, 그 애뜻한 눈빛 같은 것.

\*

아버지는 그 여인을 잃고 나서, 중신을 해 어머니와 결혼했다. 어머니는 그 마을에 살던 순박하고 밝은 여자였다. 사랑하는 여자를 품고도 다른 여자에게 눈길 이 돌아가는 것이 숫컷의 본능이라고 떠들던 시절이었다. 남자는 그래도 돼, 그러던 시절에 아버지만은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었다. 그 여인에게 마음을 다 주고 난 아버지에게 더 이상 여자를 사랑할 마음이 남아있지 않았다. 아마도 첫 날밤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안은 날 일거라고 했다. 그럼에도 운 좋게 나는 그 처음이나 마지막의 합방에 어머니의 뱃 속에 들어앉은 것이다. 아버지는 등대에서만 살았다. 아버지만의 성에서 홀로 생활했다. 차마 어머니와 함께 부대끼며 살 수 없

있던 아버지는 ‘민박’ 그 간판을 핑계로 어머니를 마을에 홀로 두었다. 생계를 위해서, 민박을 치노라고 그렇게 뭇 모르는 사람들에게 변명을 했지만 사실은 알 만한 사람은 다들 그게 핑계라는 걸 알았다. 그렇게 아버지는 아버지의 성에서 홀로, 어머니는 어머니의 성에서 홀로 시간을 흘려 보냈다.

아버지가 남자를 처음 등대로 데리고 간 것은 아홉 살 적 일이었다. 그 이후로는 꽤 자주, 남자를 등대로 데리고 가 함께 지냈다. 그렇다 해서 살갑게 챙겨주거나 대화를 하거나 하는 일이 없었다, 다만 함께 생활을 했을 따름이었다. 남자는 어머니가 악다구니 치듯이 마을사람들과 부러 즐겁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야, 아버지와 묵묵히 생활하는 편이 좋았다. 그리고 등대에서 내려다보는 바다가 좋았다.

때때로 먼 바다를 떠돌아 다니는 큰 배들이 잠시 항구에 머무를 때면 뱃사람이 잠시 민박집에 쉬다 가곤 했다. 그 이외엔 타지인들이 흘러들어와 묵을 일이 없는 마을이었다. 아버지의 등대에서 며칠을 뭇게던 남자는 책을 가지러 갔었던 건지, 심부름을 갔던 것인지 기억 나지 않는다. 한적한 오후였다. 여름, 거리 위의 모든 것들이 강렬한 태양의 기세에 한껏 풀죽어 있었다. 열 살이었던 남자는 온 몸으로 그 햇볕을 받으며 송골송골 땀을 달고 집으로 향했다. 집에 들어서자 늘 마당에 나와있던 어머니가 보이지 않았다. 또 순이네 집에 갔나, 그렇게 생각하던 찰나에, 퐁퐁 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묘하고 거친 숨소리였다.

남자는 아주 살짝 열린 문틈사이로 방을 훑쳐보았다.

그리고 보던 그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그리고 소년은 막무가내로 등대로 내달렸다. 무것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어린 나이였지만, 감 만큼은 예민한 것이 어린아이들이었다. 소년은 직감적으로 그 광경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어머니에게도 입 밖에 내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남자는 그 날 이후로 너무도 일찍, 성장했다.

아마도 어머니도 소년의 달음질치는 소리를 듣고 알았으리라. 그러나, 그 후로도 누구도 그 날 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 다만, 어머니는 남자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고, 말 수가 더 줄었을 뿐이었다. 그것은 어머니와 소년 사이의 암묵적 약속 같은 거였다. 들리지 말아야 할 내밀한 것을 공유한 사이란, 함께 오래 있으면 피로해지는 법이다. 남자는 그 날 이후로, 거의 아버지의 등대에 적을 두고 생활을 했다. 어머니도 별 말 없이, 며칠에 한 번 반찬거리들을 가져다 주었을 뿐이다.

그렇게 어머니는 어머니의 성에서 아버지와 남자는 아버지의 성에서 나이가 들어갔다. 남자가 어머니를 연민하게 된 것은 남자가 이성에 눈을 뜨면서부터였다. 자신의 본능적인 욕망을 견디며 남자는 생각했다. 아버지 때문이다. 한 여자를 평생 마을의 집에, 섬처럼 외롭게 처박아둔 아버지 탓이다. 어머니이기 전에 여인이었기에 그 외로움도 공허도, 욕망도 견디기 어려웠으리라. 그럼에도, 그 여름의 방에서 옷가지들도 걸친 채로 흑여나 소리가 새어나갈까 끔찍거리던 어머니. 그리고 아들에게 그것을 들켜버린 여인네의 심정이란.

참혹하다. 그리고 남자는 어머니에 대한 책임 같은 것을 느꼈다. 아버지를 대신해 외로운 어머니에 대한 책임 같은 것. 그리고 나서는 남자는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와 생활했다. 함께 밥을 먹고, 티비를 보았다. 어머니는 그런 남자의 손을 이따금씩 쓸고는 했다.

※

여자는 숨을 죽이고 남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의 이야기에 눈살을 찌푸리거나 연민어린 눈빛을 하지 않았다. 다만, 곧은 눈빛으로 남자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찬찬히 들었다. 남자는 안심이 되었다. 어쩌면 그 여자의 눈빛 때문에 이런 고해를 하게 되었는데도 모를다는 생각이 들었다.



\*

이상하리만치, 맑은 날이었다. 그림 엽서에나 나올법한 하늘이었다. 파랗고 높은 하늘에 구름은 예술작품처럼 널려 있었다. 햇살도 하얀 눈처럼 그 풍경 위로 살갑게 내리고 있었다. 어느 때처럼 어머니와 밥을 먹고 마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 보고 있던 참이었다.

사색이 된 마을의 이장 어른이, 문간으로 뛰어 들어왔다.

그리고 나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어머니가 오열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담담하게 그 어른 따라 현장으로 따라 갔던 것 같기도 하다.

아버지는 그토록 욕망하던 바다에 삼켜졌다. 강박일정도로 등대의 일에 성실하던, 그리고 성스럽게 임했던 그의 아버지가 이상하게 그 날따라 해가지지 않았는데도 뱃사람들과 술을 마셨다고 했다. 세월이 좋아져서 이제 무인 등대가 늘어나는 시기였다. 사실 등대에서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이 점차로 줄어들고 있었다. 불빛이 켜지고, 점멸하는 것은 이미 자동으로 바뀐 지 오래였다. 남자의 아버지는 이제 날씨에 따라 가끔 다른 경보등을 켜거나 신호음을 켜는 일을 하거나, 렌즈를 닦고 살피는 일밖에는 하는 일이 없었다. 그래도 유난히 고집스럽게 편안히 있지 않던 아버였다. 수시로 점검을 하고, 렌즈를 청소하고 수리를 했다. 그런 아버지가 그 날은 이상했다고 한다. 그렇게 술을 마신 아버지는, 방파제 근처에 앉아 하염없이 바다를 바라보다가 걷다가 그러다가 휘청, 해서 그만 바다에 삼켜졌다고.

그로부터 며칠 뒤에 물에 툭툭 붙어, 사실 형체를 잘 알아볼 수 없게 아버지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그 이후는 어느 집의 죽음과 비슷하게 다루어졌다. 장례를 치르고, 화장을 했다. 물에 삼켜졌던 아버지가 이번에는 불에 삼켜진 것이다. 그리고 다시, 하얀 백골가루가 되어 바다로 돌아갔다. 아버지를 바다 위에 흩뿌리며 “잘 가슈, 그 여자 곁으로”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사랑했던 여자, 모두가

알았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함구했던 그여자에 대해 어머니가 말을 꺼낸 것이었다.

원래 어머니는 홀로 살고 있었으므로 달라질 것은 없었다. 그래서였을까. 어머니는 어떤 슬픈 기색도 아픈 시늉도 하지 않았다. 다만 그 아버지의 죽음 뒤로 남자를 불러, 니가 아버지의 등대를 지키거라, 그렇게 말을 했을 뿐이었다.

사실은 나도 등대를 좋아했다. 등대에 앉아서 바다를 지키는 일도 저 먼 바다로 나가 아직 돌아오지 않는 배들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 없는 백색 외침도 말이다. 하지만 어머니가 끔찍거려야만 했던 그 날을 이해하게 된 후로, 나는 아버지가 사랑했던 것들을 사랑할 수 없었다. 다만,

어머니에 대한 책임감이 일었다. 어머니를 더 이상 외롭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 그것은 아버지를 대신해 내가 갖는 일종의 죄책감, 그리고 책임감 같은 거였다. 그리고 나는 어머니를 외롭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등대원 임용을 보고 등대 지기가 되었다.

\*

내 이야기를 들은 여자는 곧이어 화답을 하듯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덧붙이지 않았다. 그저 아마도 그녀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늘어놓았다. 작가인 그녀의 병중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정말 등대에 대한 이야기를 쓰기 위해서, 등대를 찾아 찾아 이 곳으로 흘러들어왔다는 이야기도.

그 날 밤의 등대는 열기로 가득 찼다는 생각이 든다. 농밀한 열기.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입 밖으로 내어져 갖는 그 무게감과 농밀함. 그리고 서로에게 남은 말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내뱉은 그 성실. 그것들이 기쁘게 그리고

숨 가쁘게 그 방안에 차있었다고 생각한다.

\*

여자는 그리고 며칠 후 다시 떠났다. 집으로 돌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등대가 있는 곳을 찾아가는 지 알 수 없었다. 그 밤 이후로, 단 한 번도 그녀와 말을 섞은 적도 부딪힌 적도 없었다. 만나려면 만날 수야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웬지 그 편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뜬금없이 걸려온 어머니의 전화에서 그 처자가 간다, 그렇게 말을 하고 끊었다. 그는 아주 멀리서 잠시 여자의 등을 바라보았을 뿐이다. 어쩐지 그녀가 더 왜소해보이는 까닭은, 그럼에도 생기가 느껴지는 것은 다만 남자의 착각일까.

곧, 이 등대는 사라질 작정이었다. 등대의 꺾테기는 남겠지만 등대는 곧 제 기능을 잃게 될 작정이었다. 이제 쇠퇴해가는 항구 도시에서 불러들일 배는 많이 남지 않았고, 세상은 너무 좋아져 사람이 만지지 않아도 알아서 등은 점멸하고 안개 신호음을 내뿜었다. 무인 등대가 많아지고 있었다. 얼마 남지 않은 유인 등대도 무인 등대로, 혹은 전자항해보조기구 파위로 대체되어 가고 있었다. 아버지의 성이었던 그리고 남자의 성인 이 등대가 이번에는 차례인 모양이었다.

여자가 떠나던 그 때에 남자가 바라본 바다를 잊을 수가 없다. 그제야, 다시 제대로 바다를 바라볼 수 있었다. 그 바다는,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웠다. 그리고 남자는 그제야 비로소 등대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곧 이 성을 떠나리라. 아버지의 성을.

## 그 애

\* 제2회 등대문학상佳作 / 소설  
서혜린 (경남 창원시)



등대지기 딸애의 몸에서는 먹물냄새가 났다. 동네에 있는 다른 억척스런 계집애들이 제 또래 사내애들과 복잡한 골목 여기저기를 쏘다니며 걸걸한 목소리로 욕지기를 외쳐대는 것과 달리 그 애는 매번 말없이 그늘 가에 앉아 책을 읽곤 했다. 꺼먼색 머리에 모조 진주알이 매달린 핀을 달고 있는 모양이 꽤 조용조용한 인상을 풍기던 그 애는 까무잡잡한 피부를 가지고 있는 다른 동네 애들 가운데 유일하게 희멀건한 피부를 가져 눈에 더 튀었다.

그 애가 다른 또래 애들과 놀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했다. 게딱지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는 우리 동네 골목길은 튼튼한 두 다리가 없어서야 제대로 뛰어 놀 수 없는 모양새를 하고 있었다. 그 애는 다리를 절었다. 날 때부터 절름발이라고 했다. 수술도 몇 번인가 했는데 결국 고치지 못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애가 우리와 함께 놀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가끔 어른들이 그 애의 다리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다. 생선 대가리를 토막 내고, 내장을 뽑아내는 작업장은 동네를 떠도는 소문을 듣기에는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나이 지긋한 여자들은 그곳에 삼삼오오 모여 별스런 이야기를 다 해댔다. 나는 그곳에서 우연찮게 그 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 애가 선천적으로 다리를 저는 이유는 등대지기의 병을 낫 때부터 움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 애는 어머니가 없었다. 다리를 저는 등대지기과 똑같이 다리를 저는 딸애의 모습을 보고 그 애의 어머니는 어느 야밤에 짐을 싸들고

도망쳤다고 했다. 등대지기 아버지와 단 둘이서 사는 그 애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눈에 띄는 존재였다.

철없는 애들끼리는 땃국물 줄줄 흐르는 피죤죄한 모습은 홍보지 않아도 태어나길 불편하게 태어난 그 애의 모습은 흥이라고 여겼다. 그리고 그 애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도 침묵했다. 하지만 그 애는 다른 아이들이 그렇게 수군거리든 말든,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는 모양으로 달리 입을 열어 남들과 말을 섞는 일이 없었고, 늘 가녀린 팔로 들고 다니기에는 무거워 보임직한, 고루한 제목의 두꺼운 책을 옆구리에 끼고 다녔다. 간혹 바람이 세계 불기라도 하는 날이면 그 애는 금방 책을 덮고 집 안으로 돌아갔다. 눅눅한 소금기와 생선 비린내가 잔뜩 배어있는 아이들 사이에서 그 애, 등대지기네 집 딸애의 몸에서는 알싸한 먹 내와 차분한 종이 내가 났다. 나는 종종 그 애를 바라보곤 했다. 괜한 호기심과 은근한 동정, 그리고 미약한 관심은 종종 내 시선을 그 애에게로 잡아끌었다.

우리는 그렇게 자랐다. 점차 나이를 먹으며 뚱뚱거리던 계집애들은 눈에 띄게 성숙해졌다. 동그렇게 떨어지는 여인 특유의 곡선을 우연찮게 바라볼 때면, 사내애들은 잠깐 숨을 삼키고 걸음을 멈췄다. 계집애들이 그렇게 변해갈 무렵에 철모르던 사내애들은 어른들을 따라 바다에 나갈 수 있을 만큼 자랐다. 나 역시 그랬다. 부쩍 팔과 다리를 뒤덮는 털들이 시꺼멓고 무성해졌다. 미미했던 팔에는 단단하게 근육이 잡히기 시작했고, 애티 나는 목소리를 벗고 변성기를 맞이했다.

그 애는 더 조용해졌다. 제법 예쁘장한 얼굴도 조용하게 눌린듯한 분위기 앞에서는 그저 음울해 보이기만 할 뿐이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이를 먹고 한 단계 위의 학교로 진학해 나가며 그 애는 우리들과 점점 더 멀어졌다. 그 애에게는 범접할 수 없는 분위기라는 것이 있었다. 나이를 열아홉이나 먹어 놓고도 바깥에서 뛰노는 것을 좋아하는 다른 애들과 그 애는 느낌부터가 달랐다.

여름이 되면 동네에는 자주 비가 내렸다. 장마철이 되면 그 빈도는 더욱 심해졌다. 고기를 잡아 생계를 이어나가는 우리 동네에서는 사실, 며칠 정도 고기를 잡으러 나가지 않아도 살 만큼 충분한 여윌돈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들

은 바다에 나가지 못하면 당장 내일 굶어죽을 지도 모른다는 듯이 굴었다. 그리고 그 중에도 제일 성미가 불같았던 것이 우리 아버지였다. 다른 어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다로 나간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어머니의 성화에 혈레벌떡 등대 앞으로 달려간 내가 조심스럽게 등대 문을 열었다.

등대 안에는 등대지기과 그 애가 있었다. 예의상인지 무엇인지 그 애는 나에게 까딱 고갯짓을 하며 인사했고, 얼굴에 인사를 받아 친 내가 멍청한 표정을 지으며 그 애를 바라보고 있었다.

“노이 친구냐?”

무언가 목적이 있어 온 것이 틀림없을 텐데, 입을 딱 다물고 있는 나를 바라보고 있던 등대지기가 한참만에 입을 열어 물었다. 이번에도 나는 얼굴에 고개를 끄덕였다. 친구. 그 애와 내가 친구라니. 그 애는 동네에서 친구가 없기로 유명한 앤데. 그 애가 내 얼굴을 뻔히 바라보는 것이 느껴졌다. 괜히 얼굴이 화끈거렸다. 우리 아버지가 안 돌아오고 있어요….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말하는 도중에도 내 시선이 자꾸만 그 애가 던지는 시선에 얹혀들었다. 등대지기는 내 말에 알겠노라 하고 이내 이리저리 등대 불빛을 비쳤다.

그 애는 숫제 읽고 있던 책까지 내려다 놓고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내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 언젠가 부모님이 팔 수 없게 되어 구석에 던져둔 생선을 주워다 몰래 구워 먹은 적이 있었다. 내 얼굴빛은 그 날의 불꽃처럼 빨갛게 익었고, 잘 구워진 생선만큼이나 뜨거웠다. 생경한 느낌에 내 발바닥이 안절부절 못하고 움직였다. 그런 내 움직임을 읽은 모양인지 뒤를 한 번 힐끔 돌아본 등대지기가 입을 열었다.

“계속 비쳐 볼 테니 그만 돌아가도 좋단다.”

“네에…”

“우리 딸애랑 앞으로도 사이 좋게 지내 주랴?”

“아, 네…”

내가 대충 고개를 수그리고 몸을 돌렸다. 그대로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내내 뒤통수가 뜨끔거렸다. 그 애가 계속해서 날 주시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등대를 벗어나 항구까지 쉬지 않고 달렸다. 거센 바람에 우산이 뒤집어진 지도 오래였다. 내 몸에서 바다냄새가 났다. 소금기 어린 끈덕진 빗물이 옷자락을 적셨다. 후끈하게 달아오른 얼굴의 열기가 빗물에 조금씩 쓸려 내려갔다. 내가 다시 뒤를 돌아 봤을 때, 그 애는 더 이상 내 시야 안에 없었다. 멀뚱히 자리에 서서 빛을 뿌리는 등대를 한 번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던 그 애의 얼굴을 떠올렸다.

“애.”

“!”

“이것 좀 도와주라.”

비가 많이 내리는 날보다 오히려 해가 짙게 내리비치는 날에 동네는 오히려 더 조용해졌다. 남자 어른들이 바다로 나간 사이, 남은 애들은 집 안에서 축 처져 빈 등대기 일쑤였다. 오히려 어머니들의 수다소리만 더 높아지는 그런 날. 나는 재수가 없게도 동네 구멍가게에 심부름을 가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었다. 어머니의 잔 소리가 내 등을 따끔따끔하게 찔렀다. 슬리퍼를 짚짚 끌며 구멍가게로 걸어가는 길, 더위는 내 등 뒤로 2차 공격을 가했다.

땀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목덜미를 타고 흐르는 땀방울을 짜증스럽게 닦아 낸 내가 쫓, 하고 혀를 한 번 차올렸다.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되면 좋을 텐데, 에어컨을 틀어주는 대형마트도 있을 테고, 학교도 더 다니기 편할 테니 말이다. 이 동네 애들은 모두 옆의 시내로 이사 가는 것을 원했다. 한창 멋 부리고 싶은 열아홉 아이들에게 이 동네는 너무나도 따분한 곳이었다. 구비된 물건도 몇 없는 좁아터진 구멍가게에서 간장이며 참기름 따위를 올려두고 계산을 기다리던 내가 심통이 난 얼굴로 내가 먹을 감자칩 한 봉지를 열른 집어 들며 이것도 같아요, 하고 통명스런 목소리로 말하고 냉큼 가게를 벗어났다. 그렇게 다시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열른 집으로 돌아가 쉬어야지 하고 생각하고 골목을 돌아서던 그 때였다.

골목의 초입에 그 애가 있었다. 그 애가 쭈그리고 앉아 있는 주변에는 책 몇 권이 어질러져 있었다. 땀을 뻘뻘 흘리며 그것들을 줍고 있던 그 애가 나를 불러 세웠다. 그 애가 애, 하는 소리에 내 발길이 뚝 멈췄다. 그 애의 목소리를 처음 듣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목소리가 고왔다. 웬지 가슴이 찌르르 울렸다. 그 애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괜히 울렁거리는 속을 가라앉히려 애쓰던 내가 결국 손을 움직여 흠어진 책들을 주워 모았다. 내 품에 안긴 책에서는 만날 그 애의 몸에서 나던 종이 냄새와 먹물 냄새가 났다. 한참 이곳에 앉아 있었던 모양인지 불어온 바람에 실린 그 애의 머리칼에서는 눅진한 소금내가 났다. 종이 냄새, 먹물 냄새, 소금 냄새. 온갖 냄새에 둘러싸여 머리가 지끈거릴 지경이었다.

“여기.”

다 모은 책을 그 애한테 넘겨주고 난 뒤 내가 벌떡 일어났다. 열른 집으로 돌아가리라 생각하며 심부름 본 비닐봉지를 더 세게 붙잡을 때였다.

“애.”

그 애가 나를 불렀다. 그와 동시에 내 걸음이 다시 뚝 멈췄다.

“우리 동네에서 젤루 시원한 데가 어딘지 알아?”

“.....”

내가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너 얼굴 빨갛다. 저기 등대만큼 빨개. 더위라도 먹었니? 그 애가 나를 보며 픽 웃었다. 아아니. 그냥 조금 더워서 그런다. 내가 고개를 저으며 답했다. 그런 내 대답에 그 애가 다시 픽 웃었다.

“바쁘지 않으면 나랑 같이 가자. 시원한 데.”

이것도 좀 들어주구. 또 넘어질 까봐 그런다. 그 애는 내가 제 잠을 들고 저를 따라 올 것이라는 걸 확신하는 눈치였다. 마른 입술을 달싹이던 내가 이내 그 애의 손에서 책 꾸러미를 받아 들었다.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걸었다. 어디에 가는 줄도 모르고 그 애의 뒤만 졸졸 따라가던 내 코끝으로 여름 바다 특유의 끈적하고 짠 바람 냄새가 느껴졌다. 살갗에 닿는 공기가 진득했다. 묵직하고 끈끈한 공기를 덧입은 느낌이 들 정도로 후텁지근한 날씨였다. 내가 손을 들어 다시 흘러내리기 시작한 땀방울을 닦았다. 문득 그 애의 절뚝이는 걸음걸이가 내 눈에 들어왔다. 더위가 느껴져 땀을 닦고 있으면서도 나는 이번에는 혀를 차지 않았다.

“다 왔어.”

그 애가 걸음을 멈췄다. 등대 앞에서 비척비척 움직이던 걸음이 뚝 멈췄다. 집

에서 몰래 가지고 나온 건지 주머니를 뒤져 열쇠를 꺼내 든 그 애가 등대 문을 잠그고 있던 자물쇠를 풀었다. 들어 와. 몸을 반쯤 안으로 들이며 그 애가 나를 향해 손짓했다. 부자연스럽게 절고 있던 걸음이 등대 안으로 쑥 미끄러져 들었다. 안쪽에서부터 서늘한 공기가 흘러 나왔다. 발목 위까지 올라와 찰랑이는 서늘한 공기의 느낌에 나는 그 애를 따라 홀린 듯 등대 안으로 몸을 들었다.

“어때, 시원하지?”

그 애가 뿌듯한 표정으로 물었다.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등대 안에는 서늘한 바람이 돌고 있었다. 바깥에서 진동하던 생선 비린내와 바닷물의 소금기 어린 짠내가 등대 안에서는 하나도 나지 않았다. 여기는 달랐다. 여기만 달랐다. 바깥과 단절된 차분한 분위기의 등대 안에서는 먹 내와 종이 내가 났다. 바깥에서는 얼굴을 굳히고 있던 그 애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이곳은 그 애의 놀이터였다. 등대 구석까지 절뚝이며 걸어진 그 애가 구석 자리, 담요가 쌓여 있는 곳에 털썩 주저앉아 나를 향해 손짓했다. 내가 홀린 듯 그 가까이 다가갔다. 앉아. 그 애가 제 옆을 손바닥으로 치며 말했다.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다, 여기.”

“.....”

“자주 놀러 와도 돼.”

“어...”

“먹을래?”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내며 그 애가 말했다. 한 봉지에 서너 개인가 들어있는 치즈 크래커를 내밀며 그 애가 물었다. 아빠 몰래 숨겨 놓은 거야. 들키면 엄청 혼날 걸. 그 애가 말하며 민망한 웃음을 흘렸다. 아빤 내가 여기 들어오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 암전히 앉아 있지 않으면 다리가 더 나빠질 거라고 하면서 말이야. 그런데 집은 답답하니까, 몰래 나오는 거야. 올 아빤 낮에는 항상 자고 있거든.

“별로 안 좋아해, 이거?”

묻지도 않은 것을 줄줄 설명한 그 애가 다시 나를 보며 재차 물었다. 그 애의 목소리에 내가 크래커 하나를 집어 들었다. 그리고 비닐봉지에 들어있던, 어머니께

서 꼭 사오너라 당부해 마지않던 우유팩을 가운데로 내밀었다. 덧붙여 충동적으로 함께 샀던 감자칩 봉지도 함께.

“먹어도 되는 거야?”

“응.”

“심부름 가던 길 아니었어?”

“이건 내가 먹고 싶어서 산거라서 상관없어.”

엄밀하게 따져 우유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였지만. 내가 고개를 저었다. 그냥 먹어도 돼. 내 대답에 그 애가 조금 소리 내어 웃었다. 우리는 그 날 처음으로 시덥잖은 이야기들을 해댔다. 수업이 얼마나 지루한지, 요즘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우리는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나누었고, 다음에 또 보자 따위의 한 마디를 남겼다. 등대 밖으로 나오는 순간 무더운 공기가 나를 덮쳤다. 갑자기 목이 콧 메는 느낌이었다. 내 걸음이 자꾸자꾸 멈추며 고개가 뒤로 돌아갔다. 빨간 등대가 자꾸만 내 시선에 잡혔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간 나는 우유를 사오랬더니 빈 팩만 사왔냐는 어머니의 노성에 한참동안 시달려야만 했다.

더위가 점점 더 기승을 부렸다. 반 아이들은 다들 낮 나간 사람 같은 표정을 지으며 돌아다녔다. 사람 없는 골목에 나다니는 사람은 그 애와 나, 우리 둘 밖에 없었다.

“요새는 다른 애들이랑 안 놀아? 평소엔 축구도 하고 그러더니.”

“덥잖아. 이런 날은 아무도 안 나가.”

이러 날에 바깥에서 조금만 뛰어 놀았다간 땀과 진득하게 소금기 땀 바람 탓에 티셔츠가 허영게 말라비틀어지곤 했다. 먼 티셔츠에 엉겨 붙은 소금기를 반가워하는 어머니란 세상 천지에 존재하지 않았다. 사실, 이런 날씨에 아이들이 나가 노는 것을 제일 달가워하지 않는 것은 어머니들이었다.

그 애와 나는 거의 매일 같이 등대 안에 숨어들었다. 어스름해질 무렵, 그 애의 아버지, 등대지기가 등대를 찾아올 시간이 다 되어서야 우리는 등대 밖을 나섰다. 우리는 딱히 별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 애는 책을 읽었고, 나는 등

대 안의 설비를 구경하다 심심해지면 그 애가 읽고 있던 책을 슬며시 내 쪽으로 끌어당겨 함께 읽을 뿐이었다. 우리는 가끔 읽고 있던 책 이야기도 했다. 이 책에 나온 주인공처럼 되고 싶다는가, 이 이야기의 악당은 꽤 멋지더라 하는 이야기를 우린 지치지 않고 해댔다. 마치 어제 봤던 만화 영화의 내용을 신나게 이야기 하는 어린 아이처럼 우리는 별 것도 아닌 그저 그런 이야기를 신나게 했다.

등대는 멋진 요새였다. 우리 이야기 속에서 등대는 책 속에 등장하는 전쟁터가 되었고, 구름 위가 되었으며, 때로는 고급 레스토랑이 되었다.

“나는 커서 작가가 될 거다.”

갑자기 그 애가 입을 열어 말했다. 매일 책만 읽고 살면서 무얼. 내가 답했다. 내 편잔에도 아랑곳 하지 않은 그 애가 턱을 치켜들며 말했다.

“나는 아주 멋진 작가가 될 거야. 내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법한 그런 작가. 그 때 내가 책에 사인해서 줄 테니까 팔지 말고 보관이나 해 뒀.”

“상식적으로 선물 받은 걸 팔겠냐...”

“내가 사인해 준 책은 값이 더 뿔 테니까 팔수도 있단 말이야.”

“자신감이 무슨 백두산 급이네.”

내가 킬킬 거렸고, 그 애가 결국 읽고 있던 책을 내 쪽으로 집어 던졌다. 그 날 그 애가 읽고 있던 책이 어린 왕자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애가 자주 읽곤 하는 바랍과 함께 사라지다 같은 책이 그 손에 있었더라면 아마 나는 오늘 죽었을 지도 모른다.

등대에서 매번 시간을 보내던 즈음, 날은 더욱 무더워지고 있었다. 날이 최고로 더워 질 즈음이면, 동네에서는 배를 타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멈추고 등대 불빛을 이용해 쇼를 벌이곤 했다. 볼 것 없는 동네에서는 그 볼품없는, 그저 빛을 높이 위로 쏘 올리는 쇼와 얼마 되지 않는 규모의 불꽃놀이가 그나마 제대로 된 즐길 거리로 통했다. 무엇보다 그 쇼가 끝날 즈음이 되면 학교 방학이 성큼 다가오곤 했으니, 내 또래 아이들이라면 너나 할 것 없이 그 등대 불빛이 깜빡일 날만을 기다렸다.

“야.”

그 애는 이상하리만치 학교에서는 내게 아는 체를 해오지 않았다. 나를 생각해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해서 그런 건지, 그것도 아니라면 내가 먼저 말을 걸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애는 학교에 있을 때만큼은 등대에서 내게 보여주곤 했던 생기 있는 모습과 수다스러운 모습을 모두 감춘 채, 여전히 말수 적고 책만 달고 사는 선생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야야. 내가 다시 한 번 그 애를 불렀다. 우리가 학교에서 아는 척 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 애가 나를 올려다보는 시선이 당황스러웠다. 주변에서 우리를 힐끔거리는 시선 역시 느껴졌다.

“이거 재미있더라.”

거의 충동적으로 내가 그 애를 향해 책 한 권을 내밀었다. 사실 읽어보지도 않았다. 그냥 집에 굴러다니던 낡은 책 하나를 그 애에게 밀어주었을 뿐이었다. 그 애가 얼떨떨한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힐끔거리던 주변 시선들이 대놓고 이곳을 향했다. 이상하게도 전혀 신경이 쓰이지가 않았다. 기묘하리만치 조용해진 사이에 우리를 두고 수군거리는 목소리들이 들렸다.

“...고맙다.”

그 애는 당황스런 얼굴로 겨우 말을 끄집어내며 내가 내민 책 한 권을 받아 들었다. 재네 원래 친했던가? 따위의 말들이 공기 중을 폴폴 날아다녔다. 정작 우리는 아무 말이 없었다. 책을 건넨 나는 다시 자리로 돌아갔고, 내 등 뒤에서는 그 애가 책장을 팔랑이며 넘기는 소리가 들렸다.

그 날 나는 다른 아이들에게서 그 애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다. 너희 언제부터 그렇게 친했냐. 재는 어떤 애냐. 성격이 이상하지는 않느냐. 혹시 둘이 사귀는 거냐. 실 새 없이 쏟아지는 질문 가운데 제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사실 그 애도 마찬가지였다. 아이들에게 둘러싸인 그 애의 표정이 얼떨떨했다. 생전 처음 쏟아지는 질문에 관심들이 조금은 부담스럽고 조금은 흥미롭다는 얼굴로 그 애는 꽃꽃하게 긴장하고 앉아 묻는 말에 하나씩 진지하게 대답을 해주고 있었다. 날아드는 질문들에 대충 답을 해주던 내가 주변이 한산해졌을 때에야 휴, 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찰나에 킁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렸다. 뒤를 돌아보니 그 애가 웃고 있었



다. 별 짓을 다 한다. 입모양을 빙긋 거리며 말하던 그 애는 활짝 웃고 있었다.

그 날은 짝을 바꾸는 날이었다. 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성화에 선생님은 마지못해 자리를 바꾸는 것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이 만든 조악한 쪽지를 뽑아 번호를 불렀다. 커다란 흑판 위에 내 이름이 쓰였다. 그리고 내 이름 옆에 있는 번호에는 나란히 그 애의 이름이 쓰였다. 내가 슬쩍 고개를 돌려 그 애를 바라봤다. 그 애도 나를 보고 있었다. 우리 시선을 타고 서늘한 바람이 불었다. 등대 안에서 불어오는 그 차분한 기류가 우리 사이에 흘렀다.

“등대, 그거 오늘이다.”

“알아.”

“같이 보러 갈래?”

내가 물었다. 그 애가 대충 고개를 끄덕였다. 애, 묵묵하게 입을 다물고 있던 그 애가 갑자기 나를 불렀다. 응? 내가 답했다. 그와 동시에 그 애가 내 쪽으로 낡은 노트 한 권을 내밀었다.

“이것 좀 읽어 볼래?”

“이게 뭔데?”

“내가 쓴 소설이다.”

너한테 처음으로 보여주는 거야. 그 애가 내민 노트의 모서리는 이미 닳아 뭉툰하게 되어 있었고, 안 쪽 종이 끝부분은 누렇게 바래 있었다. 내가 말없이 그것을 건네받았다. 수업 시간 내내 나는 그 애가 쓴 소설을 읽었다. 매일 빅토르 위고니, 마거릿 미첼이니 하는 외국, 고루한 작품의 작가들을 줄줄 읊고 다니곤 하던 그 애의 첫 소설은 생각보다 재미있었고, 예상대로 평범했으며, 아주 약간은 지루한 느낌이 들었다.

“어때?”

“나쁘지 않네.”

“그게 끝이야?”

“작가 되려거든 연습을 더 해야 되겠다.”

내 마지막 한 마디에 그 애가 흥, 하고 콧방귀를 끼었다. 내 글이 너한테 너무 어려웠나보다. 그 애는 제 글이 재미없는 것을 내 취향이 고상하지 못해 그런 것이라고 매도했다. 내가 저번에 빌려줬던 책도 재미가 없었어. 그 정도면 네 취향을 알만 하지. 그 애의 말에 내가 어이없다는 듯 조금 웃었다. 그 애는 여전히 찌푸린 낮이었다. 불만스런 얼굴로 노트를 내려다보던 그 애가 갑자기 제 노트의 뒷장을 북 찢어냈다. 그 하는 양을 바라보고 있던 내가 헉 하고 숨을 들이마셨다. 내가 말을 너무 심하게 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그런 내 모습을 힐끔 바라보던 그 애가 픽 웃었다. 왜 그런 표정야? 그 애가 물었다.

“나는 네가 나 때문에 화가 나서 그거 다 찢는 줄 알고...”

“내가 미쳤나? 너 때문에 이걸 다 찢게.”

이건 따로 쓸 테가 있어서 찢어 낸 거야. 말하면서 그 애가 손에 쥐고 있던 노트 조각 중 하나를 내 코앞으로 불쑥 내밀었다. 이게 뭔가, 하며 멀뚱히 그것을 내려다보는 앞에서 그 애가 또 웃었다.

“할 거 없으면 편지나 써라.”

“편지?”

“작가가 된 미래의 너한테 쓰는 거야.”

“넌?”

“난 그냥 너한테 쓰지 뭐.”

“뭐야, 그럼 너는 대단한 경찰이 된 너한테 써라.”

“픽이나.”

그 애가 비웃음을 흘렸다. 이게 진짜. 내가 주먹을 들어 보이는 시늉을 해보였다. 이거 써서 뭐하게. 막 내 앞으로 굴려준 연필을 하나 집어 들며 내가 물었다. 대단한 작가가 된 그 애의 얼굴은 왜인지 조금 상상하기가 어려웠다. 작가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선생님 같은 얼굴이려나. 빈 종이를 내려다보며 골똘히 있는 나를 보며 그 애가 이내 입을 열었다.

“이거 다 써서 등대 안에 넣어두고, 우리 둘 다 커서 작가랑 경찰이 된 다음에 그 때 찾아와서 이거 읽어보기로 하자.”

그 애가 꽤나 멋진 생각을 했다는 양, 만족스런 얼굴로 고개를 끄덕거렸다. 내가 어깨를 으쓱하며 연필 꼭지를 입으로 물었다. 지금쯤 너는 작가가 되었겠지. 나도 오늘 네 책을 사 돌아오는 길이다. 어렸을 때 우리 등대에서 놀았던 거 기억하니? 허연 종잇장 위에 내 글씨들이 새카맣게 번지기 시작했다. 할끔, 반절 정도 종이를 채웠을 무렵 내 시선이 슬그머니 그 애에게 가 닿았다. 무어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인상까지 찌푸리며 그 애는 종이에 빨려 들어갈 것 같은 기세로 편지를 쓰고 있었다.

“이따 보자.”

다 쓴 편지를 꼬깃꼬깃하게 접어 넣으며 그 애가 말했다. 말하면서 그 애가 웃었다.

그 애가 웃었다.

도마 위에서 생선 대가리가 툭 굴러 떨어졌다. 그 하는 양을 옆에서 멍청하게 바라보고 있자니 어머니께서 나가 보라고 했다. 오늘은 축제에 가지 말고 집안일을 도우라는 것에 무언의 투정을 부렸더니 하는 말이다. 죄송스런 마음은 찼나였다. 화색이 도는 얼굴을 감출 생각도 없이 내가 몸을 돌려 열린 밖으로 뛰쳐 나갔다.

등대 앞은 벌써부터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볼 것 없는 동네에 이만한 볼거리가 또 없으니 당연하다면 당연한 일이다. 멀리서 그 애의 모습이 보였다. 아! 내가 그 애를 불렀고, 그 애가 뒤를 돌아 나를 바라봤다.

“왜 이렇게 늦게 와?”

“엄마가 오늘 나가지 말라는 걸, 땀에서 나온 거야.”

“불효자네.”

“약속해서 나온 거잖아.”

“그깟 약속 좀 어기면 어떻다구.”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그 애의 얼굴이 환하다. 키들거리던 우리 앞에 강렬한 빛줄기가 올라갔다. 그 애의 아버지, 등대지기는 저 등대 안에서 한참 빛을 쏘아 올리고 있을 테다. 우리는 말없이 그 빛의 향연을 지켜봤다. 애, 그 애가 나를 불렀

다. 내가 그 애를 바라봤다.

“아까 쓴 편지 가지고 왔지?”

“응.”

“그저 좀 줘 봐.”

그 애가 손을 내밀었다. 내가 주머니를 뒤져 이리저리 구겨진 쪽지를 꺼내 그 위에 올렸다. 이따 이거 끝나구 등대에서 좀 보자. 그 애가 말했다. 나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빛이 참 밝았다. 불꽃은 강렬하게 타오른 뒤에 사그러든다는데, 등대 빛은 그렇지 않아서 좋다. 꺼져 버릴 빛이 아니라, 쭉 뻗어져 누군가의 길이 되어주는 빛이라는 것이 참 좋다.

우리는 한참 아무 말이 없었다. 별 것도 없는 등대 불빛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동네에서 오늘을 위해 설치해둔 불꽃이 쏘아 올려 진다. 그래봤자 다른 시내의 축제와는 비교도 안 되는 자그마한 불꽃놀이 일 뿐이다. 평평, 화약 터지는 소리가 귓가를 찼하니 울렸다. 시끄러운 소리와 함께 가슴이 쿵, 쿵, 뛰었다. 그 애의 얼굴 옆 테가 빨갛고 노란 불빛에 물들어지며 번쩍 빛났다. 불꽃 때문에 자꾸 가슴이 뛰었다. 그 애를 보면서 가슴이 뛰는 착각이 일 만큼, 불꽃이 세게 터졌다.

“여기에 넣어둘 거야.”

불꽃은 어느새 한줄 잿가루가 되어 날렸다. 캄캄해진 하늘 위에는 거대한 꽃이 피어있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라도 한 마냥 껌껌한 모양을 하고 있었다. 작은 해변 앞에 모여 있던 사람들은 전부 집으로 돌아가 버린 지 오래였다. 우리는 늘 그렇듯 등대 안으로 몰래 숨어들었다. 등대 안, 구석끼로 걸어간 그 애가 설비 사이의 틈새를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에 넣어두고 나중에 읽어보러 오자.”

“그래.”

그 애가 말을 했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틈새로 몸을 구겨 넣은 쪽지 두 개가 나란하게 이쪽을 바라봤다. 십 년이라, 잘 가늠이 되지 않는 시간이었다. 십 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던데, 우리는 얼마나 변해 있을까.

재개발이라는 단어가 온 동네를 뒤덮었다. 숨 쉴 틈 없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집들을 밀어버리고 높은 아파트며 공원 따위를 짓겠다고 하는 소식이었다. 동네가 술렁였다. 재개발을 하고 나면 꽤나 으리으리한 집에서 살 수 있겠노라는 희망 때문이었다. 텅달아 올라갈 땅값 같은 것들에도 어른들의 마음은 넘실거리는 것 같았다. 우리 동네는 허름해 보이는 것 치고는 은근하게 알부자들이 많았다. 시내로 이사 가기에는 지금까지 짊어졌던 생업을 버리고 갈 수가 없어, 그저 눌러 앉아 한 푼, 두 푼 모으던 것이 재개발 같은 단어에도 두 눈 꿈쩍 않게 만드는 기반이 됐단다. 우리 집도 그와 비슷한 부류였다. 어머니는 벌써부터 밍크코트를 걸친 사모님이 된 양 어깨에 힘을 잔뜩 주고 다녔다.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 이번 재개발이란 신분 상승의 기회였을 거다. 낡고 냄새나는 어촌이 럭셔리라는 단어를 붙여도 이상하지 않을 동네로 탈바꿈 한다니 말이다. 다 기울어져가는 구멍가게 대신에 횡집이며 대형마트 같은 것들이 줄줄 늘어선 동네를 떠올려보자니 나도 괜히 가슴이 두근거려왔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집 같은 데서 살 수 있다는 말은 열아홉 먹은 사내의 가슴 속도 울렁이게 만들 만큼의 파급력이 있었다.

“우리 동네에 아파트 생긴대.”

“응.”

“알고 있었어?”

“그 얘기로 동네가 다 시끄러운데 못 들었을 리가 있겠니?”

“진짜 죽인다. 우리 동네도 텔레비전에 나오는 데처럼 되는 거 아냐.”

내가 흥분을 감추지 못한 소리를 내질렀다. 그 애의 얼굴은 어딘지 모르게 탐탁지 않아 보였다.

“너도 이제 학교 좀 더 편하게 다닐 수 있겠네. 원래 우리 동네 길이 좀 험했잖아.”

“나는 이사 갈 것 같다.”

한참을 신이 나 나불거리는 내 말을 끊고서 그 애가 입을 열었다. 순간, 이어져 나오려던 말이 목구멍에 턱 걸렸다. 켱켱, 사례가 든 가슴을 두드리던 내가 잔기침을 멈추지 않은 채로 그 애를 바라보았다. 그 애는 그런 내 쪽을 쳐다보지도 않았

다. 아래로 슬쩍 눈을 내리 칸 그 애의 얼굴이 어딘지 모르게 우울해 보였다. 왜? 기침이 잦아들고서 내가 말을 툭 던졌다. 그제야 그 애가 고개를 들고서 나를 돌아봤다.

“집에 돈이 없으니까.”

“.....”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고장 난 내 다리를 고쳐 보겠다고 날뛰던 통에 그렇게 됐다.”

“.....”

“곧 등대는 필요 없어 질 거야. 철거는 하지 않겠지만, 그냥 장식품으로만 남겨 두겠지. 바닷가는 해수욕장으로 만들어 버리고, 사람들은 지금처럼 죽어라 고기를 잡는 대신에 횡집 매상에 더 열을 올릴 거다.”

“.....”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게 될 거다.”

그 애가 말했다. 순간 서늘해진 등대 안의 공기가 낯설게 느껴졌다. 어업을 주로 삼던 우리 동네는 펜션이며 횡집이 늘어선 피서지로 변하게 될 거다. 그 와중에 그 애의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모아둔 돈이 없으니 그럴 듯한 가게를 하나 차려 운영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리라. 등대지기가 가장 잘 어울리고, 그 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던 등대지기는 이제 없는 존재가 되어 버릴 것이다.

“조금 아쉽다.”

그 애가 씩 웃었다. 입 밖으로 끄집어내어 툭 던진 그 애의 목소리에 나는 무릎을 조금 감싸 안았다.

“우리 십년 뒤에 저거 까볼 수 있으려나?”

“그렇게 해야지.”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할 거래두.”

내가 목소리를 낮추며 중얼거렸다. 이사 가면 어디로 가는데? 나도 몰라. 그냥 또 사람 많이 없는 데로 들어 갈 것 같아. 그 애가 무뚝뚝하게 중얼거렸다. 이리다



나 화전민 되는 거 아닌가 몰라. 말을 뱉던 그 애가 나랑 똑같이 무릎을 끌어안고 그 위에 이마를 댔다. 나 없어두 등대에는 자주 놀러 와라. 여기 떠나기 전에 열쇠 몰래 훑쳐다 너 주마. 내가 여기 찾아 올 때까지 관리나 잘 해주렴. 슬쩍 고개를 돌려 무릎 사이에 제 뺨을 가져다 댔 그 애가 방긋 웃었다. 모조 진주가 박혀 있는 우윳빛 핀이 반짝이며 내 눈을 찔러댔다. 갑자기 후끈해진 얼굴을 옆으로 돌리며 내가 가만히 눈을 감았다. 진주알에 반사된 빛 때문에 눈이 아팠다.

“가기 전에 인사는 꼭 하고 가라.”

내가 말했다. 내 말을 들은 그 애는 그저 가만히 웃었다. 입 밖으로 떨어지는 대답은 끝끝내 없었다.

아침부터 온 동네가 시끄러웠다. 공기 중으로 동둥 떠다니던 소문이 내 귓가를 노려 날아들었다. 그 애와 등대지기는 야밤에 도망치듯 잠을 싸들고 동네를 떠나 버렸단다. 제 어머니가 이 동네를 떠난 것처럼 소리 소문 없이. 등대지기는 동네 사람들에게 빌린 돈이 꽤나 많았다. 마을 어른들은 재개밭이 가까워지며 빌려준 돈을 등대지기에게서 받을 생각을 하고 있던 모양이었다. 그 결과가 이거였다. 등대지기는 야반도주를 했다. 열아홉, 어리고 몸이 불편한 딸애를 데리고서 어두운 거리를 달려 동네를 빠져나가 버렸다.

어머니는 툄툄대며 우리 집에서도 빌려준 돈이 얼마쯤 되는데 못 받게 되었다. 하고 말문을 열었고, 나는 그 길로 곧장 그 애의 집을 향해 내달렸다. 뒤에서 어머니의 당황스런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대신에 두 다리를 조금 더 빠르게 움직였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다 못해 속안이 다 터져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도 나는 발을 멈추지 않았다. 멈추면 안 될 것 같았다. 쉬지 않고 달려 내가 그 애의 집 앞에 도착했다. 복잡한 골목길에서 몇 번 미끄러지느라 셔츠에는 흙물이 들어있었고, 발에 꿰어 신고 있던 슬리퍼 한 짝은 어디로 날아간 건지 맨발 한 쪽이 시커멓게 물들어 버린 상태였다. 하지만 그런 것은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다. 문을 열기 직전, 들어 올린 손이 바르르 떨렸다. 거친 호흡을 터뜨리며 내가 문을 열었다. 비틀비틀 절름발이처럼 힘없이 열린 문 안에는 아무것도 남아있

지 않았다. 행뎡그렁한 바닥에는 그 애가 항상 머리에 하고 다니던 모조 진주로 된 머리핀과 등대 문을 여는 열쇠가 아무렇게나 떨어져 있었다.

발바닥이 뜨끔거렸다. 맨발이 돌조각 같은 것에 찔려 상처가 난 모양이었다. 피가 줄줄 흐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약간 핏물이 배어 나온 것뿐인 상처가 갑자기 쓰라렸다. 맨발에 난 상처를 멀거니 내려 보고 있는데 서러움이 밀려올라왔다. 갑자기 목구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솟아올랐다. 뜨거운 불덩이를 삼킨 마냥 눈과 목에서 열 기운이 터졌다. 이상한 노릇이었다. 발이 다친 정도로 이토록 서럽게 울음이 터지다니. 상처가 참 아팠다. 발에 난 통증이 스멀스멀 위로 올라갔다. 뱃속 내장 하나하나를 타고 올라간 통증이 가슴과 머리맡을 약 올리듯 미끄러져 다녔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 몰골이 흉했다. 방학이랍시고 후줄근한 차림을 하고 골목을 쏘다니던 아이들은 내 꼴을 마주치는 순간 걸음을 멈췄다. 어머니도 그랬다. 갑작스럽게 뛰쳐나가더니 지저분한 꼴을 하고 돌아온 나를 보고도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평소 같으면 꼴이 이게 뭐냐고 벼락같은 잔소리를 들었을 텐데도 나를 바라보던 사람들은 침묵을 고수했다. 침묵은 차라리 고마울 따름이었다.

내 방으로 들어갔을 때에야, 나는 짝 쥐고 있던 손바닥을 펼칠 수 있었다. 머리핀과 열쇠를 주워다 오는 길, 조금이라도 힘을 빼면 손에 있는 것들이 모조리 땅바닥으로 떨어져 사라질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랬다. 모조 진주가 달린 머리핀과 열쇠 자국이 선명하게 남은 손바닥은 뜨끔뜨끔한 느낌을 잔상처럼 남겼다. 다시 눈물이 터질 것 같았다. 끝사나운 일이었다.

그 애와 이렇게 헤어질 줄 알았더라면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것일 그랬다. 아니면 동네 여기저기를 돌아다녀 보던가, 무리를 해서 버스를 타고 시내에 나가라도 보던가. 그 애의 세상은 등대가 전부였다. 다리가 그 모양이어서야, 다른 곳에 가본 적도 없었을 거였다. 그 애의 기분 전환 장소는 오로지 등대였다. 힘든 일이 있건, 좋은 일이 있건, 그 애는 항상 등대를 찾았다. 그 애의 세상은 참 좁았다. 그리고 동시에 넓었다. 등대는 좁지만 아주 넓은 곳이었으니까. 다만 아쉬웠던

점은 그 애에게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지 못함이고, 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함에 있었다.

나는 저녁이 될 때까지 자리에 누워 멍청한 얼굴로 머리핀과 열쇠를 바라보고 있었다. 열린 창밖으로 파도 소리가 울렸다. 어둔 밤에 울리는 파도 소리, 소금기 어린 비린 냄새, 기운 없이 누워 있던 내가 비틀대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식사를 하지 않은 머리가 핑 울렸다. 앓는 소리를 내며 일어난 내가 슬리퍼를 신었다. 한 짝밖에 남지 않은 내 슬리퍼를 신던 내가 반대쪽 발에 아버지의 슬리퍼를 신었다.

상대적으로 큰 아버지의 슬리퍼 탓에 내 걸음은 그 애의 것과 비슷하게 바뀌었다. 절뚝거리며 움직이던 내 걸음이 등대 앞에서 멈췄다. 천천히 등대를 올라다보던 내가 그 문에 걸려있던 자물쇠를 풀었다. 찰각, 하는 소리가 났다. 여느 때처럼, 등대 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 애와 헤어졌을 무렵과 다르지 않은 등대 내부의 정경이 나를 반겼다. 그 애가 없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처음이다. 웬지 어색한 느낌에 나는 처음 등대 안에 몸을 들었을 때처럼 조금은 주뚱거리면서 내 몸뚱이를 천천히 안으로 집어넣었다.

등대 안에는 여전히 서늘한 공기가 감돌았다. 항상 그 애가 앉아 있곤 하던 등대 안의 구석 자리를 바라보던 내가 그 옆에 있는 설비들 가까이로 다가갔다. 뭔가에 홀린 것처럼, 나는 손가락을 집어넣어 그 애와 나중엔, 나는 경찰이 되고 그 애가 작가가 되었을 때 열어보기로 했던 쪽지를 빼냈다. 바깥의 소금기가 조금 배어 있는 쪽지가 조금 눅눅하게 느껴졌다. 내가 천천히 쪽지를 펼쳤다.

그 애의 글씨를 보는 건 두 번째였다. 낡은 노트에 제 소설을 써내려 갈 때의 성급함과 사뭇 다른 분위기의 글씨가 나를 맞이했다. 차분하게 가라앉은 글씨는 그 애의 얼굴을 닮아있었다. 안녕. 활자 속에서 그 애가 말했다.

네가 처음에 나와 친구라고 말 했을 때, 나는 참 기뻐다. 그 전까지 친구가 없었던 나한테 빈 말이라도 친구라고 해준데다, 거절하고 그냥 갈 수도 있었던 부탁들을 들어주어 고마웠다. 네 덕분에 동네 애들이랑 말 붙여볼 수 있었다. 그게 참 고마웠다. 담담한 필체에서는 그 애의 목소리가 들렸다. 한 번도 제 목소리로는 들려준 적 없던 고맙다는 말을, 그 애는 편지 속에서 몇 번이나 반복해 말했다. 그 애

는 참으로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도 전부 고마워했다. 내 시선이 아래로 내려갔다. 조금 더 꼭꼭 눌러 쓴 글씨가 보였다. 종이를 파고들어 글씨 모양대로 난 홈이 그 애가 얼마나 열심히 편지를 썼는지에 대해 가늠할 수 있게 했다.

너를 알게 되어 좋았다. 내 일상에 네가 있어서 좋았다. 등대에 있었던 것이 나 혼자가 아니라, 너와 단 둘이었다는 게 좋았다. 나는 아마 그때 너를 좋아했던 모양이다. 그리고 나는 지금도 너를 좋아하고 있는 것 같다.

“.....”

좋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잘 모르겠다.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것이, 불꽃이 될 때 마음이 함께 튀고, 그 애의 얼굴에 비친 노랑고 빨간 불빛을 볼 때, 내 마음이 함께 노랑고 빨강게 바뀌며, 그 애의 얼굴을 보고 있노라면 괜히 속이 울렁이는 것이라면 나 역시 그 애를 좋아했던 것일지도 모르겠다. 편지의 끝물에서 그 애가 말했다. 좋아해. 너를 좋아해.

내 눈가가 다시 한 번 벌겍게 일었다. 왈각, 또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다. 문득 그 애가 내 옆에 앉아 열심히 편지를 쓰고 있던 모습이 떠올랐다. 개학을 하고 나면 나는 짝도 없이 혼자 빈 책상을 옆에 두고 생활해야 할 것이다. 괜히 그 애가 보고 싶어 졌다. 지금쯤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그 애를 나는 아마 하염없이 기다리게 될 것이다. 그 애와 만나게 될 10년 뒤를 기다리며 나는 혼자 몇 번이고 이 등대를 찾을 것이다. 혼자. 웬지 그것이 서러워 나는 울었다. 혼자라는 단어가 너무 쓸쓸해서 나는 울었다. 허끝을 맴돌던, 하지만 이름을 붙일 수 없어 말하지 못했던 좋아한다는 말을 끝내 전하지 못해서 나는 울었다. 그렇게 아무도 없는 등대 안에서 나는 엉엉, 소리를 내며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아마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아니 꼭 만날 거다. 속으로 중얼중얼, 들리지 않을 그 애에게 나는 들리지 않는 소리로 속삭였다. 우리는 꼭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다. 하고,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나는 쪽지에 손을 댄 적도 없는 마냥, 다시 그것을 깨끗이 접어 설비의 틈새 안으로 넣었다. 내가 쓴 것과 그 애가 쓴 것. 쪽지 두 개가 나란히 어깨를 마주대고 나를 바라봤다. 그 애가 언제쯤이나 이 쪽지를 읽으러 올까. 가만히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내가 발길을 돌려 등대 밖을 나섰다.

그 애가 언제쯤 이곳으로 다시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 저 등대는 그 자리 그대로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헤어짐이 갑작스러웠던 것과 같이 만남도 갑작스럽지나 않을까. 나는 그 애와 나의 재회를 떠올리며 걸음을 멈추고 등대를 돌아보았다. 등대가 우뚝 서있었다. 그 옆을 스쳐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참 조용하고, 또 참 소란스러운 여름 날 밤이었다.

## 나였던 그 아이는 어디에 있는가?

\*제2회 등대문학상 가작 / 소설  
신상현 (충남 보령시)



### 1.

그가 돌아온 것은 달빛에 빛바랜 까만 하늘바닥이 차디찬 바닷물과 맞닿아 출렁이는 한밤중이었다. 멀리 등대불빛만이 유일하게 달빛과 대조를 이루며 검푸른 바다를 비추고 있었다.

그에게 남겨진 것이라고는 지금 메고 있는 등산 가방하나가 전부였고 그 가방의 무게만큼이나 마음도 가볍고 흥분했다. 그러나 머릿속에서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검은 핏덩이는 뚫고 나올 구멍을 찾는 듯 구석구석을 찌르고 있었다. 배에는 선장과 낚시꾼처럼 보이는 사내하나가 더 있었지만 세 사람 모두 각자의 바다를 바라볼 뿐 말을 섞지 않았다. 이윽고 등대언덕의 오른쪽 모퉁이를 돌아선 배가 선착장에 도착했다.

그가 배에서 내려 첫발을 내딛자 섬이 시끄럽게 말을 걸어왔다. 그러나 인기척도 없었고 그 혼한 개짓는 소리조차 없었다. 그 시끄러운 소리의 정체는 아마도 인연의 끈을 놓지 못한 마음 한구석의 아우성이었을 것이다. 낚시꾼의 걸음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지만 점차 멀어져갔고 그는 '할매도슈퍼' 간판 앞에 섰다. 십오 년 동안 변한 것 없이 도도하게 서 있는 간판이 참 반갑기도 했지만, 그 오랜 세월을 생각하니 변함없이 한자리에 서 있었을 간판이 오히려 참 낯설기도 했다. 가게 안에는 불빛이 없었지만 잔기침소리가 흘러나왔다. 민박이라고 쓰여 있는 미닫이 나무



문을 두들겼다.

이른 새벽 시끄러운 소리에 잠이 깼다. 새벽 4시 어부들이 바다로 나가고 있었다. 텅달아 가게도 시끄러웠다. 이십여 분정도 그렇게 시끄럽더니 조용해졌다. 그가 방문을 나서는데 주인 할머니가 라면 한 그릇 먹고 가라면서 커다란 솥단지에서 조금은 불어터진 면발을 커다란 사발에 담아서 가져왔다. 좀 전에 시끄러웠던 상황을 생각해보니 어부들이 이 가게에서 라면을 먹고 바다에 나간 모양이었다. 물론 이 라면은 그들이 먹고 남은 라면 일 것이었다. 다행히 주인 할머니는 질문 같은 것은 하지 않았다. 그는 라면 한 사발을 정말 맛있게 먹었다. 허허함으로 위장한 배고픔이란 무엇일까? 모든 것을 포기한 그였지만 그 라면 맛에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그는 미닫이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면서 깜짝 놀랐다.

하룻밤 사이에 변해버린 섬의 실체에 놀란 것이다. 아직은 어둠의 여운이 남아 있었지만 또렷하게 보였다. 해안을 따라서 그럴듯한 민박집이 있었고, 제대로 포장된 도로가 해안을 따라서 쪽 펼쳐져 있었으며, 그 도로를 따라서 전봇대도 나란히 서 있었고, 선착장에는 어부들의 차로 보이는 파란색 트럭들이 주차장에 나란히 서있었다. 그는 뒤돌아보고는 더 깜짝 놀랐다. 그 도도했던 간판은 온데간데없었고 미닫이문은 물론 민박이라는 글자도 없었고 가게도 최신식 조립식 건물이었다. 도대체 지난밤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지난밤 분명히 보았다. 그 빛바랜 간판과 드르륵 거렸던 미닫이 나무문.

그는 밝아오는 햇살을 등에 지고 언덕을 올라 어느 허름한 집 앞에 섰다. 햇살은 공평하게도 이 허름한 집의 구석구석까지 친근하게 찾아와 있었다. 친근하게 느껴진 것은 자세히 보니 이 집은 허름했으나 잘 정리되어 있었다. 그는 당황한 모습으로 마루에 올라서서 방문을 열었다. 방 안의 모습은 십오 년 전과 같았다. 두 칸짜리 장롱하나가 놓여 있었고 앉은뱅이책상도 그래도 남아있었다. 놀라운 것은 천장에 매달린 형광등이었다. 거의 새것처럼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는 두리번거리다가 스위치를 찾아서 눌렀다. 형광등이 환하게 빛을 발사했다. 어떻게 된 것일까? 누가 살고 있는 흔적은 없었지만 집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한 그는 장롱을 열었다. 이불과 베게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누굴까? 우렁각시?

방에서 나와 마루와 연결된 부엌문을 열었다. 부엌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수돗물도 제대로 나오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 자기가 올 것을 미리알고 준비를 해둔 것처럼 집은 깔끔했다. 십오 년의 세월이 거짓말처럼 다가와 그를 괴롭혔다. 어젯밤과 너무 다른 오늘 아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는 금방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정신을 차렸다기보다는 거의 체념에 가까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와서 자신에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해서였다. 어쨌면 자기 인생을 가엽게 여긴 하늘이 우렁각시라도 보내주었나 하는 생각을 할 뿐이었다.

그만큼 그는 지쳐 있었다.

그때 해안 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해경선이 사이렌 소리를 내며 선착장에 들어서고 있었다. 그 순간 낚시꾼이 죽었다는 소리를 주고받으면서 아주머니들이 빠른 걸음으로 집 앞을 지나 언덕을 내려가고 있었다. 낚시꾼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자 어젯밤 그 말했던 낚시꾼이 생각났다. 그가 선착장에 도착했을 때 담요에 덮인 시체가 들것 위에 놓여있었다. 경찰과 마을 사람들이 그 시체의 신분을 확인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때 익숙한 이름이 그의 청각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저거 용기 아녀?”

분명히 용기라고 했다. 그는 사람들 사이를 뚫고 들어가 시체에 달려들어 얼굴을 확인했다. 뭔가 미심쩍었던 것인지 아니면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었던 것인지 팔뚝을 확인했다. 팔뚝에 선명한 상처자국이 있었다. 그 옛날 자신이 휘두른 칼에 뺨 자국이었다. 용기가 확실했다. 그는 경찰에게 밀려 뒤로 밀려났다. 그 때 또 누군가 말했다. 시체가 등대 밑에 절벽아래서 발견되었다는 이야기였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였고 누군가 대꾸했다.

“옛날에 성숙이도 거기서 죽었는데”

“성숙이에게 아들이 있었지, 이름이 특이 했어, 등대였지”

등대! 북등대는 그의 이름이었다. 엄마가 등대처럼 살라는 의미로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었다. 어려서는 놀림도 당했지만 철이 들면서는 그 이름이 싫지 않았다.

적어도 엄마와 행복하게 살 때까지만 해도 싫지 않았다. 그런데 어찌다가 그 이름이 부끄럽게 되었는지 끔찍하기만 했다. 그는 도망가듯 등대 쪽으로 달렸다. 복등대는 모자를 눌러쓰고 안경을 쓰고 있어서인지 누구도 알아보지는 못했다.

십오 년 전 성숙이는 용기와 함께 등대 절벽에서 뛰어내렸다. 성숙은 죽었고 용기의 시체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아니 십오 년이란 세월을 건너뛰어서 오늘 아침에 발견되었다. 복등대는 혼란스러웠다. 용기는 그동안 살아있었던 것이다. 그가 어젯밤 자기와 함께 이 섬에 들어왔다. 그리고 보니 용기도 어젯밤에 등대를 바라봤다. 자기와 같은 모습으로.

복등대는 등대 절벽위에 섰다. 저 아래 바닷물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출렁거렸다. 십오 년 전 저 아래 바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복등대는 어젯밤에 이곳에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스스로 모든 것을 끝냈다. 그 끝을 인정해주듯 기적처럼 오늘 아침의 세상은 분명 딴 세상이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또다시 시작이라니, 또다시.....

기가 막혔다. 두통은 또 다시 시작되었다. 머릿속을 떠돌고 있는 검은 핏덩이가 어디선가 혈관을 뚫고 터져 나와 분수처럼 솟구칠 것만 같았다. 복등대는 이 고통이 차라리 황홀했다. 꺾하고 터져버리기만 하면 이 고통은 완벽할 것이었다. 그러나 이 황홀한 고통은 터져버리기 직전에 주저하다가 복등대를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했다. 복등대는 절벽위에서 쓰러졌다.

2.

“등대가 무슨 뜻일까?”

“엄마 아들이지”

“등대는 외로운 사람들의 길잡이야, 엄마는 네가 그런 사람이기를 바라”

“길잡이?”

“그래, 길잡이, 길을 안내해 주는 거야”

성숙은 아들 복등대의 일곱 번째 생일날 등대 밑에 앉아서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등대 빛에 출렁이는 바다를 내려다보았다. 성숙은 그 출렁이는 밤바다를 좋아했다. 그 날도 달빛과 등대불빛은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듯 조화를 이루며 파도의 높낮이, 그 물비늘을 반짝이고 있었다. 그 밤에 성숙은 아들의 손을 꼭 잡고 해안가로 내려갔다.

“아들! 우리같이 수영할까?”

엄마와 아들은 해안가에 옷을 훌쩍 벗어던지고 밤바다의 파도에 온몸을 내맡겼다. 복등대는 엄마의 등에 업혀서 엄마의 움직임에 따라 물속을 헤엄쳐나갔다. 멀리 등대 앞에서 용기가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용기의 눈빛은 온화하고 인자하고 사랑스러웠다. 파도를 타고 노니는 엄마와 아들은 달빛과 등대불빛의 묘한 어울림에 반사되어 분홍빛으로 반짝였다.

등대 밑의 절벽은 또 다른 이름이 있었다. ‘할매절벽’이란 이름이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고기잡이 나간 할아버지가 길을 잃고 헤매다가 풍랑을 만나서 바닷물에 빠져 죽었는데 그 시체를 찾지 못했다. 할머니는 일 년이란 세월을 이 절벽위에 앉아서 할아버지를 기다렸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고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첫 제삿날에 절벽에서 뛰어 내렸다. 역시 시체는 찾지 못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다. 그 절벽의 중앙에 박혀 있던 커다란 바위가 하얗게 변했다. 그 후로 이 마을 어부들은 달빛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흰 바위를 보고는 길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 흰 바위를 등대바위라고 불렀다. 그러다가 언젠가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의 뜻을 기리며 절벽위에 등대를 세웠다. 복등대는 이 등대 앞에서 엄마와 함께 밤바다를 보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기억에도 아련하고 희미했던 아버지, 그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은 속절없이 언제나 파도가 되어 부서졌었다.

섬에는 복등대에게 어른 친구와 같은 아저씨가 한명 살고 있었다. 그 아저씨가 바로 용기였다. 용기는 뱃사람으로 복등대를 배에 태우고 섬을 한 바퀴씩 돌면서 낚시도 하고 수영도 하고 자맥질도 하곤 했다. 용기는 복등대에게 친구였고 아버지의 부재를 대신한 존재였고 삶의 길잡이였다. 단 한군데를 빼고는 두 사람이 가지 못할 곳은 없었다. 그 할매절벽 아래 바닷물은 회오리가 심했다. 물이 회오리치

며 휘돌았기 때문에 배는 물론 사람들도 그곳에는 가까이 가지 않았던 것이다.

성숙은 물질을 해서 가정을 꾸려나갔고 복등대는 이웃한 큰 섬에 있는 초등학교에 다녔다. 할매도에 사는 아이들은 용기의 배를 타고 학교에 다녔다. 용기는 어떤 보수나 대가성 없이 아이들을 태우고 학교가 있는 큰 섬까지 왕복하면서 아이들을 실어 날랐다.

복등대의 아버지 복진태는 원래 섬사람이 아니었다. 성숙의 아버지가 복진태의 아버지에게 빚이 있었는데 그 빚을 갚지 못하고 죽자 그 빚이 성숙과 엄마 두 모녀에게 돌아왔다. 성숙의 아버지는 본래 착하고 자상한 사람이어서 성숙에게는 등대 같은 사람이었다. 성숙은 섬사람답지 않게 총명하고 사려 깊은 면모를 갖추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 아빠의 사랑과 헌신, 자상함 때문이었다. 그러나 성숙의 아빠는 운이 없었고 돈이 없어 가난했다.

그때 쯤 복진태는 첫 결혼에 실패하고 술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는데 그가 성숙을 보고는 반했다. 그래서 성숙은 빚에 팔려가듯 복진태와 결혼했다. 성숙이 복진태와 결혼을 하기로 결심한 것은 성숙이 엄마의 자살소동이 결정적이 역할을 했다. 살아가기가 막막했던 성숙이 엄마는 할매절벽에서 뛰어내렸다. 마침 용기가 그 것을 목격하고는 그 회오리 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성숙엄마를 구해냈다. 성숙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엄마를 그렇게 죽게 나둘 수는 없었다. 진태와 혼인하고 읍내로 나온 성숙은 결혼과 동시에 임신을 했지만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 복진태는 성숙을 사랑했다. 성숙의 바람대로 성숙을 따라서 할매도로 들어온 것이었다. 섬에 들어온 성숙은 기력을 회복했고 몇 개월 후에 복등대를 낳았다.

그러나 복진태는 본래 어부가 아니라서 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허송세월로 시간을 보냈다. 간간히 배를 타고 고기도 잡고 낚시를 하기도 했지만 바다는 복진태의 적성에 맞지 않았다. 배만 타면 매번 멀미를 했고 섬이라는 한정된 공간이 돌무덤에 갇힌 것처럼 그를 답답하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진태는 또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성숙의 과거사를 알게 된 것이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다. 그 사실을 입 밖으로 토하는 순간 성숙과는 이별을 해야 하는 사실이 두려웠던 것이다. 따지고 보자면 그것은 엄연히 과

거사일 뿐이었다.

### 3.

복등대가 정신을 차린 것은 정오의 햇살이 그들 속에서 나와 얼굴에 따갑게 닿았을 때였다. 집에 돌아왔을 때 마룻바닥에는 쌀자루와 라면박스 등, 온갖 종류의 식료품들이 가득하게 쌓여있었다. 메모를 찾아봤지만 메모 같은 것은 없었다. 할매도슈퍼로 달렸다. 이 섬에서 이런 식료품을 구할 수 있는 곳은 그 곳 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가게주인 할머니는 한참을 바라보더니 묘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다. 아마도 성숙이 아들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눈치였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해야 하나, 오전에 죽은 낚시꾼 말이여.”

이렇게 말해놓고는 또다시 복등대의 표정을 살폈다. 그 살피는 눈빛은 마치 예전에 있었던 일을 다 알고 있어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 사람이 오늘 새벽에 주문했어, 그 집으로 가져다 놓으라고 말이지, 요상하지 않았겠나, 아무도 살지 않는 집에 먹을 것을 배달시키고 말이여.”

이번에는 무엇인가 실토하라는 압박의 눈빛으로 복등대를 바라보면서 천천히 말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말이지, 오늘 중으로 그 집에 누군가가 올 것이라고 했는데, 자네가 맞지?”

가게주인 할머니는 이렇게 말하고는 대답을 기다리는 눈치로 복등대를 바라봤다. 그 눈빛은 무엇인가를 꿰뚫어 본다는 듯 확신에 차 있었고 ‘네가 성숙이 아들이 맞지?’하는 것처럼 쏘아보는 것이 분명했다. 그 눈빛을 마주할 방법은 단 하나, 냉정하게 뒤돌아서서 건넌 것이었다. 복등대는 그렇게 집으로 향했다. 그 뒤통수에 대고 가게주인 할머니는 한마디 덧붙였다. 내심은 이 말을 벌써부터 하고 싶었을 것이다.

“내가 경찰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어, 괜히 마을 복잡해질까 봐서”



뒤돌아서서 바쁘게 내걸던 복등대는 멈춰 제자리에 서서 얼음기둥이 되었다. 이 말인 즉, 너는 분명 성숙이 아들이 맞을 것이고, 그 죽은 용기가 그 집에 먹을 것을 배달시킨 사실을 경찰에게 말했다면, 너는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십오 년 전에 있었던 일처럼 이 섬마을을 발각 뒤집어 놓을 것이라는 그런 뜻이 담긴 말이었던 것이다. 적어도 복등대에게는 그렇게 들려왔다. 집에 돌아온 복등대는 더욱 더 복잡해졌다.

어제만 해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었다.

그래서 이 섬마을을 찾아왔던 것이다. 며칠이 될지, 운이 좋으면 몇 주일이 될지 모를 시간을 이곳에서 아주 조용히 지내다 가면 그 뿐 이었다. 그러나 이 상황은 이 섬에 들어와서 채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결코 끝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듯이 사람이 죽어나갔고 마을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를 알아버렸던 것이다.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십오 년 전 그 일은 겉으로 들어난 일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정확히 밝혀진 것이 없는 셈이었다. 그 언덕에서 복등대는 칼을 휘둘렀고 그 칼에 용기의 팔뚝이 찢겼다. 찢긴 팔뚝을 잡고 몸부림치던 용기는 절벽으로 미끄러졌고 성숙이가 그 용기를 잡았지만 늦었다. 두 사람은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 그때 복등대의 나이는 겨우 열다섯 살이었다.

두 사람의 생사여부는 물론 몇날 며칠 그 어떤 흔적도 찾아내지 못했다. 그러다가 성숙의 시체를 찾아낸 것은 복진태였다. 복진태는 성숙이 실종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섬으로 들어왔다. 그리고는 모두가 말리는 것을 뿌리치고 절벽아래 바다 속으로 들어갔다. 그는 한나절 동안 나타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또 한사람이 실종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저녁 무렵 복진태는 성숙을 안고 해안가에서 걸어 나왔다. 복진태는 해안가를 찾아 해매다가 성숙을 찾았다고 말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미 그 해안가를 수차례 수색 했었지만 그 어떤 흔적도 찾지 못했었다. 복진태의 말이 믿기지 않았지만 복진태의 말을 믿지 않고는 달리 설명할 방법도 없었다.

거의 십여 년 만에 나타난 아버지, 복진태는 복등대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서로가 알아보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복등대는 수백 번도 더 넘게 사진 속에

서 아버지의 얼굴을 익혔다. 복진태도 아들의 얼굴을 기억조차 못할 일은 아니었고 사람들이 등대의 이름을 수도 없이 불러댔기 때문에 당연히 알아 볼 수밖에 없었다. 복등대는 당시 제 정신이 아니었다. 당연히 그런 자식을 아버지가 보듬어야만 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고 싸늘하기만 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마을 사람들은 수근 거렸다. 누군가 그날 밤 절벽위에서 싸우는 세 사람을 목격했던 것이다. 하지만 소문은 사실보다 더 과장되어 있었다.

“복등대 저 놈이 자기 엄마를 절벽에서 밀었대.”

“저 놈이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엄마를.....”

복진태도 복등대도 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참다못한 복진태가 큰 소리로 말했다.

“자 다들 여기 보시오, 그날 그 시간에 내 아들은 나와 함께 있었소, 아시겠소? 그 두 년 놈들은 남 몰래 등대에서 그 짓거리를 하고 내려오다가 그 절벽에서 발을 헛디뎈서 떨어져 죽은 것이오, 아시겠소?”

복진태는 이렇게 말하고는 다짐이라도 받듯 마을사람들 하나하나를 돌아봤다. 마을 사람들은 헛기침을 했지만 아무도 토를 달지는 않았다.

“추후로 그 누구도 복등대를 이 사건에 끼어 넣으려고 하는 사람은 내가 가만히 안둘 것이오, 알겠소?”

이 말이 끝나기 무섭게 이장이 말을 받았다.

“그러 알았구만, 그날 복등대는 아버지를 만나러 섬에서 나갔던 거여, 모두들 알았는감?” 이장이 나서서 마을 사람들의 다짐을 받았다. 안방에 차려진 빈소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던 복등대는 눈물을 흘렸다. 복진태가 자기를 두둔하고 나선 것이 고마웠기보다는 아버지를 찾았다는 안도감 때문이었다. 그렇게 장례가 끝났다. 사건은 그렇게 단순 추락사로 처리되었다.

그러나 복등대의 기대와는 달리 복진태는 장례가 끝나자마자 성급히 마을에서 빠져나가려고 했다. 복등대가 뱃머리에 서서 복진태의 앞을 막아섰다.

“나는 어떻게 해요?”

“난 모른다.”

“아버지가 모르면 누가 알아요?”

복진태는 복등대의 먹살을 잡고 분노 가득한 눈빛으로 쏘아보면서 분명히 말했다.

“난 네 아버지가 아니다. 네 아버지가 아녀”

“그게 무슨 소리여,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아까는 아들과 함께 있었다고 했잖여.”

“.....”

“내가 엄마를 죽인 게 아니란 말여, 사고였단 말여”

“.....”

복등대의 절규와도 같은 울부짖음을 뒤로하고 복진태를 태운 배는 서둘러서 섬에서 빠져나갔다. 그렇게 성숙은 죽었고, 용기는 실종 되었으며, 진태는 아들을 버리고 또다시 도망갔고, 복등대는 섬에 홀로 남았다.

4.

용기는 복등대가 중학생이 되자 가끔씩 누군가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용기는 이야기를 생생하고 흥미롭게 이끌어가는 재주가 있었는데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이야기를 끝내고 ‘다음에’라는 식으로 마무리 지었다. 그것이 더 복등대를 애달게 했다.

그러나 그 날 밤은 좀 달랐다. 진행도 빨랐지만 아주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결국 기다리던 첫 키스에 대한 이야기였다. 바다 속, 그 고요 속에서 첫 키스를....., 사춘기를 보내고 있던 복등대는 생각만으로 긴장이 되었다. 그러나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에 비하면 이 키스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두 연인이 성인이 되던 날, 등대바위가 유난히 반짝이는 달밤이었다. 두 연인

은 해안가에 옷을 훌쩍 벗어던지고 바다 속으로 잠수해 들어갔다. 그 차가운 물속은 어두웠지만 달빛만으로도 서로는 서로에게 충분히 반짝였다. 연인은 그 반짝이는 짜릿함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면서 뜨거운 입술은 사랑을 탐험했다.

두 연인이 사랑을 언약하고 있을 때 그들 앞에 분홍빛 고래가 나타났다. 그 고래는 두 연인에게 따라 오라는 몸짓을 했다. 두 연인은 돌고래를 따라 회오리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회오리 속을 통과하자 바다 속은 고요하고 평온했다. 두 연인은 고래를 뒤따라서 어떤 수중터널을 지났다. 숨이 막힐 즈음 고래가 위로 솟구쳤다. 두 연인도 솟구쳤다. 그곳은 텅 빈 동굴이었다. 동굴은 온통 흰 바위들로 가득했다. 천정과 벽과 바닥까지 모두가 흰 바위와 흰 자갈이었다. 이 흰 바위들은 분홍빛 고래의 빛을 받아서 반사시켰다. 천정에서도 흰 바위를 통과한 달빛이 내려와서 내부의 모습을 훤히 알아 볼 수 있게 했다. 그것은 마치 쇼윈도와 같은 효과를 만들고 있었다. 놀라운 것은 그 공간이 집 한 채는 넉넉히 들어갈 만큼 넓었고 동굴 벽에는 아름다운 그림이 있었다. 그리고 사람이 살았던 흔적 같은 것도 있었고 두 개의 돌무덤 같은 것도 있었다. 그 그림은 전설 속에 나오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사랑이야기를 그대로 담고 있었다. 그림 속에는 두 개의 돌무덤이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것으로 표시되어있었다.]

또다시 ‘다음에’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끝났고 끝내 그 다음 이야기를 들을 수는 없었다.

다음날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다. 노총각과 유부녀가 불장난을 하고 다닌다는 추잡한 소문이었다. 유부녀는 많았지만 노총각은 용기와 병식이 단 둘 뿐이었다. 병식은 지능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유부녀를 꼬일 만한 위인이 못되었다. 그렇다면 용기밖에 없었다. 복등대는 뭔가 불안했다. 그 불안의 요인들은 이랬다. 용기아저씨와 엄마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한동네에서 살아온 친구사이였고, 가끔씩 용기아저씨와 엄마가 단 둘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았고, 용기아저씨가 들려준 사랑이야기가 너무도 생생했기 때문이었다.

혹시 그 두 연인이.....

복등대의 상상은 여기까지 이어졌다. 불안한 예감은 숨 쉴 틈도 없이 적중했고 소문은 좀 더 구체적으로 퍼졌다. 용기와 성숙이의 이름이 사람들 입에서 옮겨 다녔다.

복등대가 용기에게 느끼는 배신감은 소문보다 앞서 달리면서 커졌다. 그 자상하고 온화한 미소가 모두 거짓이었다고 생각하니 미칠 것 같았다. 엄마가 그런 짓 거리를 하다니 믿을 수가 없었다. 모든 것이 복잡하고 화가 나고 무엇이든 걸리면 모두 죽여 버릴 것만 같았다.

그날은 정말 죽이거나 죽고 싶었다.

학교에서 돌아온 등대가 싸리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서는데 방안에서 다투는 소리가 들렸다. 그 목소리는 용기아저씨가 분명했다. 복등대는 주저 없이 방문을 열었다. 그 때 용기 아저씨가 엄마의 어깨를 잡고 있었다. 순간 복등대는 시시비비를 가릴 여지도 없이 용기에게 덤벼들어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렸고 용기는 나가 떨어졌다. 성숙이가 용기에게 달려들면서 복등대에게 말했다.

“너 이게 무슨 짓이야!”

복등대는 엄마가 용기아저씨의 얼굴을 보살피는 모양새를 보면서 더 화가 치밀어 올랐다.

“두 사람 정말 그렇고 그런 더러운 인간들이야!”

성숙이 일어나서 복등대의 뺨을 때렸다. 그리고는 이내 복등대의 손을 잡았다. 복등대는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 때 수돗가에서 다듬다가 놓아둔 배터진 생선과 시퍼런 부엌칼, 그리고 생선과 부엌칼을 연결시키고 있는 비릿한 핏물이 전등불에 반사되어 눈에 들어왔다. 복등대는 칼을 들고 등대 쪽으로 달렸다. 성숙과 용기도 복등대를 따라 달려갔다. 달밤은 깊어가고 있었고 세 사람은 다시 등대 앞 절벽위에서 마주했다.

“제발 침착하고 내 말 좀 들어라”

“집어치워, 아저씨는 거짓말쟁이, 위선자, 더러운 인간” 복등대는 칼을 든 채 울고 있었다.

“아들! 이러지 말고 엄마 말 좀 들어”

“엄마도 필요 없어, 더러워” 복등대는 칼을 들고 손에 힘을 주었다. 용기가 달려들어 칼을 빼앗으려고 하자 복등대가 칼을 휘둘렀다. 그 바람에 칼날이 용기의 팔뚝을 찢고 지나갔다. 용기가 팔뚝을 잡고 몸부림치다가 절벽으로 미끄러졌고 성숙이 미끄러지는 용기를 잡았지만 둘은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다. 세 사람이 등대 쪽으로 뛰어가는 것을 보고 마을사람 누군가가 쫓아오다가 그 사고 장면을 목격 했다. 마을 사람들이 곧 절벽 아래로 몰려들었지만 어떤 흔적도 찾지 못했다. 복등대는 엄마를 찾아다니면서 해안에서 밤을 새웠다. 그러다가 해가 뜰 무렵 기절하듯 쓰러졌다.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슈퍼집 안방이었다. 다시 해안으로 달려갔지만 엄마도 용기아저씨도 바다 속에서 나오지 않았다.

## 5.

복등대가 세상에 태어나기 십 개월 전, 성숙과 용기는 다시 한 번 분홍고래를 만나고 싶었다. 분홍고래를 따라 그 동굴로 들어가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었다. 두 사람은 거추장스러운 옷을 훌훌 벗어버리고 회오리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잠시 후 고요한 바다 속에서 분홍고래를 만나 동굴로 들어갔다. 동굴 속은 두 사람이 성인이 되던 날과 달라진 것이 없었다.

성숙이 자리를 잡고 말했다.

“내가 줄 수 있는 게 정말 나 밖에 없어, 그것도 지금 이 순간밖에”

성숙은 내일이면 진태를 따라 육지로 나가서 결혼을 하게 되어있었다. 성숙은 애절하고 단호하게 말했다.

“저 전설이 사실이라면 용기씨와 나, 우리 둘의 아기를 가질 수 있어”

사람들이 모르는 전설의 뒷부분, 그러니까 그림 속에 나오는 뒷부분의 내용은 이랬다. 할매바위가 점지해준 아이는 세상의 길잡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아이를 얻으려면 분홍고래를 만난 남녀가 합해야 가능하다고 되어있었다.

용기와 성숙은 뜨겁게 사랑을 나누었다.



그리고 이날의 사랑을 그림으로 남겨놓았다.

다음날 성숙은 진태와 결혼했고 십 개월 후 아이를 낳자 등대라고 이름 지었다.

복진태가 성숙의 과거사를 알게 된 것은 할매도슈퍼에 딸린 작은 간이 술집의 젊은 여주인 때문이었다. 복진태가 허구한 날 이집에서 술을 마시다보니 두 사람 사이는 저절로 가까워졌다. 복진태 집안이 돈깨나 굴리는 집안이었는데 이것을 모를 리 없는 여주인은 복진태를 살살 구슬려서 욕지에 술집하나 차릴 속셈으로 모두가 쉬쉬하던 말을 해버렸다. 성숙과 용기의 관계가 겉으로는 뚜렷하게 어떤 관계도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약혼을 했다든가, 공식적인 커플선언을 했다든가 하는 것은 없었지만 섬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남녀관계라고 말했다.

화가 치밀어 오른 진태는 당장 성숙에게 달려갔지만 성숙의 얼굴을 보자 그 어떤 화도 내지 못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진태는 성숙이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졌다. 진태에게 성숙은 너무도 예뻐고 사랑스러웠다. 그래서 감히 성숙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진태는 스스로 잘 알고 있었는데 그러한 자세는 마치 어떤 사이비교주를 숭배하는 것과 같았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진태를 술집 여주인은 그냥 두지 않았다. 성숙이의 아들과 용기를 하나로 엮어서 복진태를 흔들었다. 그 흔들림은 아주 단순했다. 복등대가 용기를 닮은 것 같다는 말을 넌지시 했던 것이다. 여주인이 무엇을 목격하고 한 말인지,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혹은 어떤 증거가 있는지 따위는 진태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진태에게는 맹목적으로 교주를 숭배하는 자들과는 다른 하나가 있었다.

그것은 남자의 사랑이었다. 질투였다.

진태는 질투에 불타오른 남자치고는 의외로 차분했고 단호했고 주도면밀했다. 그 주도면밀함은 일주일 안에 답을 얻어냈다. 복등대와 용기의 유전자 검사에서 99.9%가 일치한다는 결과를 얻어냈다. 진태는 끝까지 차분했고 흔들림이 없었다. 성숙에게 유전자 검사 확인서를 내밀었다. 그리고 그길로 술집 여주인을 데리고 섬에서 나갔다. 성숙은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진태는 떨리는 목소리

로 말했다.

“미안했소, 내가 당신을 돈으로 산 것이 잘못이었소, 이 마을에서 술집여자만 사라지면 이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퍼트릴 사람은 없을 거요, 술집여자는 내가 데려가겠소, 내 사랑이 진심이었다는 것만은 알아주었으면 좋겠소, 하지만 지금 이후로는 절대로 미련 같은 것은 없소, 또한 그 어떤 동정도 할 수 없소.”

이렇게 진태는 떠났다. 진태가 떠나고 마을에선 진태가 술집 년과 눈이 맞아 도망갔다고 소문이 나돌았다. 화병을 얻은 성숙엄마는 얼마 못가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 그 때 복등대 나이는 네 살 초반이었다.

## 6.

혼자 남게 된 복등대는 무서웠다. 아버지는 떠났고 엄마는 죽었고 용기아저씨는 실종되었다. 복등대는 섬에서 나와 아버지를 찾아갔다. 아버지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아버지가 버리고 간 짐 꾸러미에서 언뜻 할아버지의 이름을 보고 기억하고 있었다.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이름이었다. ‘복장군’이란 이름은 항구에서 그 이름 석 자만으로도 집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그 집안이 원래 뱃사람들과 거래를 하면서 규모가 상당한 수산업을 하고 있었고 어항에서 이런 저런 잡다한 직책을 맡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집에 없었고 손자가 왔다는데도 모두가 냉정할 뿐이었다. 다행히도 그 집에서 일하는 아주머니에게서 아버지가 있는 곳을 알아냈다. 읍내에 있는 시장 한구석에 등대라는 술집이 있는데 그곳에 가보라고 했다.

복등대는 등대술집이란 말을 들었을 때 은근한 희망이 생겼다. 아버지가 자신을 기억하고 그 이름으로 가게를 냈다고 생각한 것이었다. 복등대가 술집에 도착했을 때 가게 한구석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아버지를 볼 수 있었다. 아버지는 얼큰하게 취해 있었는데 혼자였다. 그때 주방에서 다소 양갈진 목소리가 들려왔다.

“허구한 날 마셔대면 장사해서 뭐가 남을라나 몰러”하는 소리를 가만히 듣고

보니 아버지와 함께 산다는 그 술집여자인가 싶었다. 그 여자가 주방에서 나오면서 복등대를 보고 말했다. 술집여자는 눈치가 빨랐다. 복등대가 진태를 보며 머뭇거리자 눈치를 챈 것이다.

“이게 누구여, 혹시 성숙이 아들?”

복등대는 어중간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술집여자는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복진태를 흔들면서 말했다. 조금 전과는 전혀 다른 목소리로 애교를 넣어서 말했다.

“자기야 정신 좀 차려 봐 응. 자기 아들 왔어.”

복진태가 아들이라는 말에 정신을 차리듯 고개를 들어서 복등대를 쏘아 보았다. “야 이놈아 난 네 아버지가 아니.....”

복진태는 말끝을 흘리면서 옆에 있는 술집여자의 눈치를 살폈다. 그러더니 별떡 일어나서 복등대의 손목을 잡아끌고 가까운 공원으로 갔다. 공원은 가로등이 서너 개 켜져 있었고 놀이시설이 군데군데 놓여있었다.

“난 네 아버지가 아니란 말이다, 다시는 찾아오지 말거라”

“내가 그렇게까지 싫어요? 나 무섭단 말이에요.”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이거나 가지고 가라”

진태는 여기저기 주머니에서 돈뭉치를 꺼내서 복등대의 손에 쥐어주면서 말했다. 복등대는 그 돈뭉치를 진태의 얼굴에 뿌리면서 말했다.

“난 거지가 아니고 아버지 아들이여”

화가 치민 진태는 복등대의 멱살을 잡으면서 말했다. 분명한 어조로 말했다.

“네 아버지는 죽었다 이놈아, 알겠니?”

복등대는 멱살을 잡은 진태의 손을 잡아서 뿌리치며 밀어냈다. 그 바람에 진태는 뒤로 밀리다가 시소에 걸려서 넘어졌고 머리를 시소 모퉁이에 찌었다. 퍽 하는 소리가 나면서 땅바닥에 쓰러졌다. 가로등 불빛에 머리에서 피가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 선명하게 보였다. 진태는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말하지 못했고 겁에 질린 복등대는 덜덜 떨면서 그냥 그렇게 서있었다.

다음날 신문에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었다는 제목으로 도배되었고 복등대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그 다음날엔 꽤 유명한 변호사가 복등대를 찾아

왔고 그 변호사 덕분에 복등대는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복등대는 미성년자였다. 미성년이라는 사실과 단순사고의 정황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조사와 재판은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술집여자가 조사 과정에서 소란을 피우기도 했지만 소란을 피웠던 다음날 술집여자의 태도도 복등대에게 호의적이었다. 진태 가족들도 복등대의 선처를 탄원했다. 이상하다 싶을 만큼 모든 것이 복등대의 편이었다. 변호사가 말했다.

“넌 아주 운이 좋은 아이구나. 그런 사람이 네 옆에 있다니 네가 정말 부럽구나.”

“그런 사람?”

“그래 아주 좋은 사람이지. 너도 나중에 좋은 일 하면서 살아라. 꼭 그렇게 해야 한다.”

십오 년 후 복등대는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했으며 당당히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그 기간 동안 변호사가 복등대의 철저한 보호자였다. 복등대는 이 변호사가 바로 좋은 사람이라고 확신했다. 그래서 그 좋은 사람처럼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그러나 복등대는 개업식 날 쓰러졌고 병원에 실려 갔다. 뇌종양 말기가 복등대의 병명이었고 현실이었다. 그 순간 떠오른 것은 엄마와 용기 아저씨였다. 수소문 해보았지만 용기 아저씨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고 사망자로 처리되어 있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복등대는 등대 바위를 찾아온 것이었다.

엄마를 보고 싶었고 또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 신비로운 이야기, 그 분홍빛 고래를 볼 수 있을까 해서였다. 오래전 나였던 그 아이를 찾고 싶어서였다.

## 7.

용기아저씨의 죽음으로 복등대에게는 아무것도 끝난 것이 없었고 해결된 것도

없었다. 용기가 죽고 삼 일째 되던 날 변호사가 찾아왔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다. 변호사가 용기아저씨의 유해를 들고 찾아온 것이었다. 두 사람은 안부도 묻지 않았고 복등대가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에 대해서도 묻지도 답하지도 않았다. 변호사는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소하기라도 하듯 복등대를 한동안 짊 안아주었다. 복잡했던 복등대의 머릿속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러나 터져 나올 것 같은 두통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변호사는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느 날 용기라는 사람이 찾아왔어, 이 사람은 그 자체가 놀라운 사람이었지, 사망자가 살아서 돌아온 것이었으니까, 나는 이 일로 인해서 이 세상엔 귀신 아닌 귀신들이 꽤나 많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도 했으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꽤 많은 보물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수중 동굴 속에서 발견했다고 했지. 그런데 그 사람이 자네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내가 자네를 찾아간 거야, 난 처음에는 단순히 돈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했지, 물론 호기심도 있었고.”

“그럼, 그 좋은 사람이 용기 아저씨?”

“서운하게도 그렇다네, 난 단지 심부름꾼이었지, 자네의 진정한 보호자는 그 사람이었어.”

복등대는 이제야 좀 명확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변호사는 몇 가지 이야기를 더 들려주었다. 엄마와 용기아저씨의 사랑이야기, 두 사람 사이를 복등대가 오해했던 일, 용기아저씨가 실종자에서 사망자로 살아온 이유는 오직 복등대를 위한 유일한 일이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복진태에 대한 이야기도 했다.

“그때 좋은 사람이 마련해준 돈을 가지고 술집여자를 찾아갔었지, 그 사람이 복진태 이야기를 하더라고 복진태는 자네 엄마를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하더군, 자네 엄마가 실종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미친 듯이 섬으로 갔다는 거야. 그리고는 회오리 속으로 뛰어 들어 갔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상한 동굴 속에 있었다는 것이지, 그곳에서 엄마를 찾았다고 했어.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알겠나? 그곳에서 우리의 좋은 사람을 보았던 거지, 그 사람은 살아있었어, 두 사람은 거기서 약속을 했다네, 용기는 실종자가 되기로 했고 복진태는 그 사실을 영원히 말하

지 않기로 한 것이지, 그 대신 복진태는 엄마를 얻었어, 비록 죽은 사람이었지만....., 그리고 말이야 그 술집여자가 이 서류를 주었다네, 그런데 우리의 좋은 사람이 자네에게는 보이지 말라고 하더군, 하지만 이제는 자네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변호사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복등대에게 주었다.

복등대와 용기의 유전자 검사 확인서.

“좋은 사람? 용기아저씨? 아버지?”

“그래, 그 좋은 사람은 자네의 진짜 아버지였어, 자네 아버지는 이 사실을 숨기려고 했지만 자네도 진실은 알고 있어야겠지, 자네가 수술을 포기하고 이곳으로 돌아오자 자네 아버지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닐까 싶어”

변호사는 수술을 받자고 했지만 복등대는 눈물만 쏟아낼 뿐 대답하지 못했다. 그렇게 변호사는 떠났다.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남기고 떠났다. 대부분이 복등대 이름으로 된 부동산 문서와 통장이었다. 변호사는 떠나기 직전에 정말로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자네는 그 수중동굴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지 않나?”

복등대는 고개를 저었다. 변호사가 떠나고 복등대는 모든 것이 확실해졌다. 그러나 두통은 사라지지 않았다. 복등대는 마지막으로 엄마를 찾아가 그 옆에 엄마의 연인, 아버지의 유해를 묻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찾아가서 아버지의 유산을 모두 넘겼다. 섬마을 아이들의 장학금으로 써주기를 부탁했다.

복등대는 할매절벽 위에 섰다. 이제는 머릿속에서 스멀스멀 기어 다니는 이놈을 어딘가를 터트려서 뿔어낼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운이 좋다면 분홍빛 고래를 볼 수도 있을 것이었다. 복등대는 저 아래 푸른 바다를 보면서 ‘시인 Pablo Neruda’가 고희의 나이를 넘어서 자기 자신에게 물었던 질문을 생각했다.

‘나였던 그 아이는 어디에 있는가? 아직 내속에 있을까? 아니면 사라졌을까?’

그 질문과 함께 뛰어 내렸다. 회오리는 아득해지다가 고요해졌다. 그때 분홍빛 고래가 나타나서 복등대를 동굴로 데려갔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졌다.

30년 뒤 어느 날, 학교를 마친 아이들을 태운 배가 저 멀리 등대바위를 앞에 두



고 할때도로 들어가고 있었다. 한 아이가 변호사 선장에게 물었다.

“할아버지! 왜 사람들이 변호사 선장이라고 불러요?”

“변호사를 했었으니까”

“변호사가 뭔데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지”

“그게 뭔데요?”

“배가 어둡속에서 길을 잃으면 뭍 보고 길을 찾지?”

“등대요.”

“그래, 어려운 사람에게 등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변호사야”

“할아버지 진짜 이름이 뭔데요?”

“내 이름은 말이지 저기 보이는 게 내 이름이란다.”

선장은 멀리 보이는 등대를 가리키면서 말했다.

## 머구리

\*제2회 등대문학상 가작 / 소설  
안 병 기 (울산광역시)



장롱 깊숙이 보관하고 있는 앨범 속에는 나의 젊은 청춘시절 꽃피우지 못하고 스러져간 고통스런 비밀이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

그 사진을 최근에 나의 서재 한켠에 작은 사진틀을 별도로 만들어서 끼워서 전시를 해 놓았다. 사진속의 인물은 당시 나이로는 19살의 고향 친구 정하선이다. 그는 영원히 박제가 되어 그 나이에 마치 바새도우병 환자처럼 정지된 채 내 가슴 속에 그대로 성장이 멈춰 서버렸다.

몹시 방황하던 청소년 시절 삼쌍둥이처럼 늘 붙어 다녔던 녀석과 둘이서 눈이 펄펄 내리던 날 면소재지의 단 하나뿐인 시진관에서 ‘우리의 우정의 그리며’ 라는 글을 새겨 넣은 단 한 장의 흑백사진이다. 그 사진 속에 나는 농업고등학교 재학시절 교련복에 학생 모자를 쓰고 있고 그 옆에 단짝 친구 하선은 사복 차림에 부리 부리한 눈매에 짧은 스포츠 머리를 하고 있다. 그는 입을 꼭 다물고 사진사를 노려 보듯 하였다. 그 눈매에는 세상에 대한 원만과 냉소랄까, 독기마저 서려 있다.

이 사진을 나의 서재 한켠에 놔두고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도 녀석과의 인연을 음미 하고 때론 추모 하고 있다. 벌써 녀석이 죽음으로 떠난지 40년이 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나는 녀석을 못잊어서 기일인 오늘은 혼자 집에서 술까지 마셨다. 그리고 아파트에 휘영청 달이 밝은 배란다에 오랫동안 서성이며 녀석의 그때를 다시금 회상 하였다. 어제는 늦게 까지 잠못이루다가 묘하게 녀석을 꿈에 잠깐 보이기도 하였다. 깨어나서 나는 마음이 몹시 심란 하였다. 하긴 나는 한때 고향에 갈 때

면 어김없이 녀석의 묘를 찾곤 하였고 때로는 국화꽃을 묘석에 바치기도 했다. 생전에 함께 마셨던 막걸리를 봉분의 잔디가 흥건히 젖도록 뿌리곤 하였다.

녀석과 내가 가까워진 것은 농어촌에 활기가 느껴지면서 초가지붕이 슬레이트 지붕으로 한창 개량 되면서 새마을 운동이 붐을 이루던 1975년도 쯤이었다. 그때 나는 면소재지에 있는 농업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동해안의 고만고만 하고 특별히 모양이 다를 것 없는 평범한 어촌 마을에 살던 나는 3학년때 결핵으로 학교를 잠시 휴학 하고 집에서 치료 겸 요양을 하고 있는 처지였다. 나는 늘 혼자였다. 바닷가를 하릴없이 서성거리거나 골방에서 닥치는대로 책을 읽거나 하며 무료한 시간을 소일 하고 있었다.

그 즈음 구룡포에 살던 녀석네 가족이 파산을 하고 어느 날 야밤도주 하듯이 이삿짐 실은 트럭을 하루종일 달려서 강원도 삼척 우리 동네로 이사를 왔다. 그렇게 녀석은 어느 날 신기루처럼 내 앞에 나타났었다. 나와 동갑네기로 그는 마을에서 일찍이 배를 탔다. 그 이전까지 솔직히 말해서 그의 존재는 물론 그가 있는 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잊고 살아왔었다.

그의 아버지는 구룡포에서 배를 타다가 그 유명한 사라호 태풍으로 실종 되었다고 했다. 아버지지가 유산처럼 올망졸망 남겨놓은 가족을 일찍이 그는 가장으로서 이끌어가고 있었다. 그래서 몹시 지쳐 보였고 학교 진학은 엄두를 못내 일찌감치 생존의 현장에 내동댕이쳐져 있었다. 늘 입고 다니는 옷도 흥부의 자식처럼 무릎팍이 누덕누덕 기워져 있을 정도였다.

어느 날부터 우리는 의기투합 해서 급속하게 가까워졌고 늘 실과 바늘처럼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았다. 녀석은 늘 얼룩무늬가 있는 내 교련복 상의를 뺏어 입어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가 학생이라 착각 할 정도였다. 내 건강도 차츰 좋아져 갈 즈음 녀석에게 어느 날 나에게 생똥맞은 제의를 하였다. 나로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다.

“야 너, 머구리배 한 번 안 타 볼래?”

“뭐어, 머구리배? 배 중에서도 허구많은 머구리 배는 또 뭐냐?”

나는 녀석이 지금 잠꼬대는 하는 게 아닌가 하고 냅다 종코를 주었다.

“그래도 그게 몰라서 그런데 제일 돈이 된다. 너도 용돈이 필요할 테고...”

“그야 물론이지. 집에서 타서 쓰는 용돈으로는 턱없이 부족 하지. 그런데 넌 날 기어이 뱃놈으로 만들고 싶냐?”

하긴 우리 집은 대대로 농사가 주업이었다. 아버지는 뱃사람들을 뱃놈 뱃놈, 하며 얹잡아보며 경시 하는 습성이 있었다. 녀석이 진지하게 말을 이었다.

“지금 머구리배 선원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빠져서 사람을 구하는 중인데 그게 잘 안 돼나 봐. 배를 빨리 바다에 띄워 출어를 해야만 하는데 말야. 선주가 고민이 많은 가 봐.”

녀석의 말에 의하면 그 한 사람이 타지에서 온 뜨내기인데 이곳에 오기 전에 무슨 범죄와 관련이 되어 불심 경찰의 검문에 걸려 읍내 경찰서에서 조사 때문인가 있다는 것이었다. 금방 나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게 점점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 듯 하였다. 그 빈자를 녀석은 하필이면 나를 문득 생각 한 듯 하였다.

그날 녀석의 끈질긴 설득으로 나는 팔자에도 없는 머구리배를 승선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두려워서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하였지만 동네가 뻘히 보이는 연안에서 하는 작업 이라는 것에 용기를 내기로 하였다. 그리고 그 시절 나의 유약한 나를 변화 시킬 수 있는 계기도 되지 않을까 하는 다목적으로 생각이 있었던 것 같다. 학교는 이듬 해 봄에 다시 복학 하기로 되어 있어 시간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뜻하지 않게도 전혀 상상할 수 없게 머구리배를 승선 하는 계기가 되었다. 버겁긴 하겠지만 삶을 사는 데 하나의 좋은 체험을 한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이 흥분 하였다.

녀석이 미리 운동을 좀 하라고 하였다. 호스와 연결되어 가느다란 줄로 산소를 공급 해야 하는데 그걸 수동식 기계로 두 사람이 양쪽에서 자루가 긴 손잡이를 양쪽에서 나눠 잡고 수동 펌피질로 산소를 공급 한다는 거였다. 그게 적잖이 압이 있어 힘이 든다고 했다. 뻑뻑한 공기압 때문이라고 그랬다.

평소 장작깨비이니 말라깽이니 하는 별명을 심심치 않게 듣고 살던 나는 그에 대비해서 미리 아령을 들기도 하였고 역기도 갖다놓고 체력 훈련을 나름으로 하였다. 제법 팔뚝에는 알통도 잡혔다. 까짓거, 한 번 부딪혀 보자는 배짱도 생겨 났다.

드디어 머구리배가 출어 하였다. 나는 들뜬 가운데 선원으로 참여 하였음은 물론이다.

그것도 한달쯤 지나자 나는 머구리배의 생리에 차츰 적응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건 골방과 같은 폐쇄적인 삶을 살던 내가 아프리카 같은 야생적인 초원으로 나온 굉장한 문화적 충격이었다. 그건 딱이 뭐라고 설명이 불가능 하였다. 짙은 빠이롯드 잉크색의 바다, 멀리 수평선 쪽으로 연기를 뿜으며 지나가는 큰 화물선, 가끔 바다 위를 몇 미터씩 날다가 잠수 하는 '날치' 라는 회귀 어종의 물고기, 바다 위를 비행 편대처럼 줄지어 날아가는 철새 무리들.

오늘도 배는 마을이 뻗히 보이는 앞바다에 배를 띄워놓고 작업을 하고 있다. 동네 모래사장에 쫘끄만한 아이들이 뛰노는 게 보이고 뒤를 쫓랑쫓랑 쫓아다니는 꼬리를 세운 강아지도 보였다. 마을 쪽의 울긋불긋 도색을 한 슬레이트 지붕이 보였고 그 뒤로 멀리 물러나 앉은 먼산의 보라색 실루엣이 보였다. 바다 위로 이곳저곳에 떠 있는 수많은 부표들, 그리고 머리위에서 작열 하는 뜨거운 폭양. 저편 한계 쪽 뻗어 나온 돌산 위에는 하얀색의 등대가 서 있었다. 그 위에는 군부대가 주둔해 있어 레이더 기지가 설치 되어 있고 밤이면 그 기지에서 간첩선을 잡기 위해 서치라이트가 깊은 밤에 일정시간 암흑의 모래사장을 살살이 훑곤 하였다. 그 불빛이 간혹 건너편 덕봉산 서치 라이트와 한데 어우러져 마치 화려한 레이저쇼를 방불케 할 정도로 건너편 저편의 대밭에 닿아 동시에 불거리를 제공 하며 움직이곤 하였다.

벚전에서 보니 그런 저런 살풍경이 새삼스럽게 다가왔고 빨리 조업이 끝나고 물으로 가고 싶다는 조바심이 무엇보다 강했다. 늘 흔들리는 벚전은 불안 하였고 나름대로 중심을 잡고 언제나 쫓쫓이 직립해야만 하였다. 그리고 벚전이란 한정된 좁은 공간 외에는 어디든 단 한발작도 나아갈 수 없다. 대소변도 그 공간 안에서 해결 해야만 하였다.

땀을 내리고 오전 시간을 한가하게 작업을 하고 있다. 머구리배는 모터가 아닌 노를 젓는 것으로 움직였다. 말하자면 아주 원시적인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점심을 먹고 폭양 아래 잠시 벚전에서 휴식을 갖고 머구리는 다시 바닷속으로 잠수 하였다. 머구리가 잠수 하기 전에 옷을 입히고 목직한 납띠를 두르고 쇠로 된 신발을 신겨 준다. 이런 일련의 작업은 배태량인 육속이 아재의 몫이다. 마지막으로 생명줄이라 할 수 있는 호스가 옆구리에 연결 된 청동 투구를 머리위에 쑤워졌다. 마치 번쩍이는 금관을 머리위에 두른 모양새였다. 자칫 하면 위험 하기 때문에 이 작업은 경험이 필요로 하였다. 육속이 아재는 머구리배 경력이 10년이 되어서 그 방면에는 빠쑤이었다. 하선은 그런 육속이 아재 옆에서 조수 노릇을 전담하였다. 평소 하선은 머구리가 되고 싶어 하였다. 그 만큼 머구리는 대우가 좋았기 때문이다. 그도 그걸 눈으로 누누이 봐왔을 터였다. 금전적으로는 말할 필요 없고 머구리 복을 입은 채 잠시 휴식을 취할 때면 담배에 불을 붙혀서 입에 물려주고 가끔 식사시간에는 하선이 녀석이 수저로 밥과 반찬을 떠서 먹여주었다. 머구리 옷을 벗고 다시 입는 것이 아주 번거로워서다.

머구리가 충분한 휴식을 갖고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고 한시간 쯤 지나자 접시에 담긴 물처럼 잔잔하던 바다는 갑자기 바리가 일고 북동풍이 불었다. 말하자면 높새 바람이다. 발고랑처럼 물결이 급격하게 출렁거렸고 그에 따라 배도 심하게 오르락 내리락 거렸다. 하선이 녀석과 나는 설새없이 단조로운 펌프질을 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녀석은 오늘따라 옷통을 아예 벌거벗고 있었다. 때문에 목 뒷부분부터 시작해서 살결이 검게 그을었고 피감자처럼 피부가 우툴두툴 껍질이 벗겨져 있었다. 노래도 썩 잘해서 동네 콩클대회에 나가면 녀석은 상품으로 타올이나 양은 주전자 같은 상품도 심심찮게 타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도 읍내 중앙에서 노래자랑에 나가면 입상권에서 늘 밀렸다. 그 만큼 중앙에는 노래로 한가락 하는 쟁쟁한 실력자들이 수도룩하였다. 그래서 막연히 한때 가수가 되고자 했던 꿈을 접고 말았다. 한때는 권투를 해서 챔피언을 되고자 야심을 품었었다. 천성적으로 타고난 가난 속에서 그나마 성공 할 수 있는 한가닥 희망이자 길이 유일하게 권투가 있었다. 라디오에 권투 생중계는 가장 인기 품목이었고 온 국민의 관심사였을 정도로 열기가 대단하였다. 주먹 하나로 세상을 평정 하였다는 이야기도 신문이나 방송에 심심찮게 나돌았다. 그래서 가난하고 혈기 있는 청소년들에게 그들은 곧



우상이었다.

그런데 나름으로 각오를 단단히 하고 읍내 권투 도장의 체육관장이 자신의 돈을 맡기고 운동에 열중할 즈음 자신을 본격적으로 전담해서 키워주겠다는 프로모터가 사기혐의로 관련되어 옥살이를 하는 바람에 결국 꿈은 좌절이 되고 말았다. 그건 그에게 큰 상처였다.

어느 날 둘은 마을 주막에서 진탕 술을 마시고 개목에 닳줄에 매여 있는 목선에 누워 있었다. 덕봉산에서 난데없이 부엉이가 울었다. 닳줄에 매여진 목선은 저 혼자 물위에 떠 이리저리 동동 떠 움직이고 있었다. 둘은 캄캄한 밤에 담배를 꺼내 불을 붙혀 나눠 피웠다. 바람이 한줄기 스치고 지나가자 덕봉산의 대나무들이 일제히 사삭사삭 댓잎을 쑥서거리며 몸을 떨었다. 밤이라 힘껏 빨아들인 불빛이 유난히 한 점 밝았다. 개목은 밀물과 바닷물이 교차하는 그런 지점이다. 특히 황어가 많았다. 오른쪽 건너편은 모래사장이 길게 이어져 있고 그 뒤로 푸른 방풍림이 떠를 두른 듯 이어져 있다. 초등학교 시절 단체로 그곳에 겨울철 땀감용 술방을 채취하러 종종 그 방풍림에 갔었다. 재미있었던 추억은 토끼 몰이였다. 와와 소리를 지르며 춤춤히 대열을 지어서 간격을 압축해 들어가면 토끼는 틈새를 도망가지 못하고 꼼짝없이 갇혀 우왕좌왕 하였다. 결국 포로 신세를 면할 수밖에 없었다. 멀리 읍내와 면을 이어주는 험난한 한치 고개 중턱에 차량이 지나가는 작은 불빛이 모퉁이 길에 한 점으로 움직였다. 그건 마치 밤하늘에서 생명을 다해 소멸 되는 별똥별의 유성 같았다. 모퉁이를 휘어돌 때는 숨었다가 나타났다가 오도방정을 떠는 모습을 나는 멀건히 바라보았다. 하선이 녀석은 남방셔츠만 입은 채 상체를 그대로 드러낸 채 뱃전에 큰땃자로 벌러덩 누워 있다. 두 사람 사이에 갑자기 긴 침묵이 길어지자 어색 한지 내가 물었다.

“이젠 권투 챔피언이 되겠다는 꿈은 포기 했냐?”

“그렇다. 세상에 호락호락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 어렵게 모은 목돈을 그놈에게 사기당하고 나서 절실히 배웠다. 세상의 일이란 게 노력과 열정은 물론 기본적으로 있어야겠지만 운도 함께 더불어 따라줘야만 한다는 사실을 느꼈다. 그 일을 겪은 뒤로 내 꿈은 하향 조정해서 다시 이번에 세웠다.”

“그게 뭐냐?”

대신 이번엔 녀석이 대뜸 대답을 않고 나에게 불쑥 되물었다.

“물론 너의 꿈은 시인이 되는 거겠지. 여전히 유효 하겠지.”

“배는 고프겠지만 그게 내 운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요즘 종종 하거던.”

“그게 너의 운명 이라면, 하지만 난 너와는 달라. 나는 사무친 가난을 겪었기에.”

하긴 녀석은 아버지를 강력한 사라호 태풍으로 바다에서 잃었다. 그 시체조차 어디로 떠내려 갔는지 찾을 수조차 없었던가. 그래서 묘가 없다. 아마도 모르긴 해도 물고기의 밥이 되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 할 뿐이었다. 그 가난 때문에 그의 큰 형은 광산에 탄부로 갔다가 메몰 되어 사망 하였고 둘째 형은 파월 월남에 자원 했다가 수색 중에 적의 총탄에 의해 한줌의 재로 고향으로 돌아와 뿌려졌다.

나는 녀석이 말을 이리저리 돌리며 괜히 판청을 피우는 것에 더욱 궁금하여 되물었다.

“말해봐 그 새로운 꿈이 뭐냐구? 뭘 꿈꾸느냐구?”

한참만에 침을 목 뒤로 꿀꺽 삼킨 다음 녀석이 툭 내뱉었다.

“머구리.”

나는 의외로 조금 실망스러워 하며 녀석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하필이면 그 위험 천만의 머구리 라니. 바다는 얼마나 많은 고귀한 인간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 수장 시키고 대려 갔다는 사실을 정말 알고 있거나 한건가. 자신의 아버지 또한 그렇지 않았는가.

“우리가 지금 타고 함께 바다에 늘 나가봐서 잘 알겠지만 그건 위험 할 텐데.”

“물론. 하지만 나는 머구리가 수입도 괜찮다는 걸 잘 알아. 물론 선주에게 대우도 잘 받는 건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선원들에겐 응근히 시샘과 부러움의 대상이지. 그런 의미에서 나는 머구리가 되고 싶어. 그렇게만 된다면 지금의 나의 가정 환경도 훨씬 나아질꺼라고 확신하기 때문이야. 그리고 한배를 타고 있는 최 머구리는 나의 롤모델이라구. 그는 돈도 많이 벌었고 자신의 집에다가 전자제품도 다 갖춰놓고 부인과 아들 딸 놓고 알콩달콩 잘 살고 있잖아. 그리고 최 머구리가 수심이 얇은 한계쪽에서 잠수질을 하다가 김 해녀랑 벌인 장난이 결국 로맨스가 되어

결혼 까지 해서 잘 살고 있잖아. 나도 뭔가 그런 걸 마음속에 기대 하고 있는 지 모르겠다.”

“꿈도 아무지군. 하긴 마을에서 최 머구리의 금실은 다 인정 하지. 결혼 뒤 아내는 바닷일도 못하게 하고 오로지 살림만 하는 아낙네로 변신 한 것도 그렇고.”

하였던 이야기는 그날 상황 하였고 끝이 없이 뻗어 나아갔었다. 새벽 여명이 흰히 밝아왔던가 그랬으니까 말이다.

펼쳐질을 하며 지루한 시간을 그냥 보내기가 뭣 했는 지 녀석은 그 시절 한창 유행 하던 남진의 ‘가슴아프게’란 노래를 구성지게 불러 나의 지루함을 잠시 달려 주려고 짐짓 애썼다. 그의 입에서는 이어서 메들리로 노래가 줄줄이 나왔다.

그런데 부르던 노래가 막 끝나고 다음 노래를 또 부를려고 할 때 였다.

배 후미에서 바지 앞섶을 열고 참아 왔던 오줌을 누고 담배를 피워물며 어디론가 한참 뚫어지게 보고 있던 육손이 아재가 크게 소리질렀다.

“경비선이 떴다야!”

“.....”

“어서 서둘러라 시간이 없다.”

“이 새끼들은 언제 또 냄새를 맡았군. 하여튼 개코라니까.”

“누가 아니래. 개네들은 그게 직업이 아니냐. 다 먹고 살자고 하는 노릇이고.”

육손이 아재가 다시 다그친다.

“야! 그런 농담 할 때가 아니다. 어서 서둘러라.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

육손이 아재는 호스로 심해에서 작업을 하는 머구리를 빨리 육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잠수부와 기계에 연결된 호스를 서너번 툭툭 당겼다. 그 신호는 작업에 열중하다가 머구리가 받을 터였다. 그 순간 하선이와 나는 펼쳐질을 빠르게 하였다. 텅 텅 텅 텅. 손잡이가 아래로 내려올 때 마다 쇠에 닿는 펌퍼 소리가 요란하였다. 밥을 짓거나 잡일을 하는 평수 형은 닻을 끌어올리고 있었다.

잠시 후 머구리가 부글부글 거품을 낭자하게 만들며 위로 솟아올랐다. 다급한 상황을 감지한 머구리는 작업을 한 망을 들고 곧 뱃전 옆 사닥다리 위로 달라나의

우주인처럼 엉금엉금 기어 올라왔다.

“둘 은 평수 형이 노를 짓는데 같이 붙어라.”

“예에.”

뱃전을 물으로 방향을 잡아서 젓는 노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너무 서두르자 배는 처음에는 지그재그로 가다가 어느 순간 똑바로 앞을 향해 나아갔다. 육손이 아재는 머구리 곁에서 투구와 옷을 명키스패너로 풀어 벗기고 있었다. 그 손길이 파르르 떨렸다.

그런데 경비선이 가물가물한 읍내 쪽에서 벌써 저편 바다 한가운데로 하얀 물살을 가르며 이쪽으로 달려오는 게 보였다. 따지고 보면 지금은 바다 속 수산물 채취 작업 단속 기간이었다. 작업 금지 기간에 붙잡히면 가장 비싼 청동 투구를 압수당하고 별도로 당분간 출어를 장기간 금지당하거 만다. 심지어 벌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하루를 벌여 하루를 먹고 사는 그들은 그야말로 사투를 벌일 수 밖에 없다.

재수 없어 만에 하나 경비선에 적발이 되어 그런 기간이 길어지면 뱃사람의 종말은 너무나 뻔했다. 술로 세월을 보내며 한탄을 하거나 때로는 싸움질로 파출소에 들락거리는기 예사였다. 아니면 느름판에 끼어들어 돈을 날리거나 손실을 보기 일쑤였다. 마을 작부와 바람을 피워 어느 날 마을을 떠나는 것도 그런 공백기간에 있게 마련이었다. 그러니 더욱 결사항전을 할 수밖에 없다.

“더 빨리 노를 저어라! 녀석들이 벌써 코앞에 까지 왔다! 붙들리면 우린 끝장이다.”

“육손이 아재요 방향을 어디로 갈까요?”

하선이 육손이 아재 한테 다급히 물었다.

그걸 빨리 이쯤에서 결정을 해야만 한다.

“무조건 덕봉산 밑 암초쪽으로 밀어붙여라! 개목으로 가기에는 이미 시간이 늦었다.”

“배가 바위에 부딪치지 않을까요?”

“그런 위험도 없지 않지만 그곳은 그나마 수심이 얕고 암초가 많아 경비선이

더 이상 근접하지 못할 것이다.”

하긴 그곳은 북한 간첩선이 침투 한 요새로 알려져 유명해 진 곳이기도 하다. 주변에는 크고 작은 바위가 엉켜 지형지물로서 교묘하게 형성 하고 있는 것이다.

잠시 후 경비선과 이제 불과 삼십미터 거리였다. 소리를 지르면 다 들리는 지척이었다. 하얀색 날렵한 경비선은 뱃고물을 이쪽으로 향하고 거침없이 달려오고 있었다. 하얀 물이 갈라지는게 섬찟 하기까지 하였다.

경비선에서 쫓아오면서 달아나는 삼영호를 향하여 거듭 정선 명령을 방송으로 하였다. 다분히 위협적이다. 그들도 하루에 뭔가 견수를 올려 상부에 보고를 해야만 하는 입장에 처해 있음은 모르는 바 아니다. 도망을 하는 목선에 대고 누군가 핸드 마이크로 거듭 외쳤다.

“삼영호는 즉시 정선 하라!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위협 사격을 할 수도 있음을 경고 한다.”

“시발 마음대로 하라지.”

평수 형이 자조적으로 씹어뱉는다.

그러나 위협이라곤 하지만 총질은 늘 위협을 수반 하고 있기에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쯤을 통밥을 굴려서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목선은 여전히 죽은 힘을 다해서 달아나고 있었다. 이제 든든한 응원군이 될 암초가 여기저기 곧 나타났다. 그건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었다.

그때 뒤쪽에서 타앙! 하는 총소리가 들렸다. 일종의 위협으로 공포탄을 발사하였다. 그러나 배는 이미 안전지대로 닿아 있다. 한동안 해경에서 너무 단속을 못한다는 질책이 소문으로 선원들의 귀에 까지 들려왔었다. 그래서 총탄을 발포 관해서는 나름으로 관대해진 듯 하였다. 하지만 그런 건 무기아니 만큼 항시 위협이 따를 수밖에.

“삼영호는 더 이상 달아나지 말고 정선 하라! 다시 명령한다.!”

거듭 된 경고 방송 속에서 배는 어느 새 덕봉산 밑에 몽돌밭으로 밀어붙혔다. 최후에는 청동 투구만큼은 지켜야 된다는 사명감에 육손이 아재는 청동투구를 가슴에 끼안고 사수하기 위해 무릅까지 오는 물 속으로 침병 뛰어 내렸다. 철벽철벽

바짓가랭이를 그대로 적신 채 냅다 뛰었다. 인천상륙 작전때의 병사를 연상케 하였다. 그리고 경사가 심한 덕봉산 봉우리쪽 황톳길로 내달렸다. 그의 동작은 날쌔다. 한때 군민 마라톤 대회에서 육손이 아재는 갑자기 대변이 마려워서 큰 것을 보고도 달려서 일등을 할 만큼 뽀박질에는 능했다. 그 이야기는 마을에 회자 되어 이미 전설이 되었지만.

어쨌든 이수라같은 그날 고비를 간신이 넘기고 경비정이 되돌아 간 것을 확인하고 다시 회의를 거쳐서 조업을 다시 재계 했다. 다른 때 같았으면 개목으로 가서 정리를 하고 집으로 갔겠지만 그날은 어쩔 수 없이 다시 조업을 강행 하였다. 그런 이면에는 한동안 여름의 긴 장마와 잦은 태풍 때문에 조업 일수가 적었기 때문이었다. 또 잊을만 하면 터지는 유조선의 기름 유출 사건도 있다. 그럴때면 바다는 온통 기름 덩어리로 초토화 되기 일쑤여서 어장은 한동안 황폐화 되기 마련이었다. 그것이 다시 복원 하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렸다. 당장 그날 벌어서 입에 풀칠을 하는 입장이라서 작업을 쉬면 그만큼 당장 경제적인 타격은 의외로 크다는 것이다. 때문에 웬만하면 조업을 쉬지 않으려고 자칫 무리수도 없지 않다.

북동풍이 불고 허영게 바다에 거품 같은 바리가 심란 하던 바다는 다시 먼 옛날 태고적처럼 잔잔한 바다로 다시 바뀌었다. 뗏목이 미역바리 작업을 하느라 이곳저곳에 떠 있었다. 그들은 입나풀을 하고 어이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였다. 말하자면 해물을 좀 던져 달라는 외침이 있었다. 그러나 값이 천정 부지로 솟아오르는 그걸 함부로 줄 수 없다.

바다로 노를 저어 나오자 하선이 최 고참격인 육손이 아재 한테 물었다.

“어느 쪽으로 갈까요?”

“으음 한계 쪽으로 붙어라.”

그쪽이라면 돌산에 등성등성 소나무가 어우러진 등성이에 등대가 우뚝 서 있는 그 언저리를 가르킨다. 그 풍경은 마치 한폭의 수묵화를 연상 시키리 만큼 인상적이다. 그 고개를 넘어 가면 남해포구가 나온다. 어린 시절 그곳에서 곰치(물곰)를 지게로 저서 날라주고 품삯을 벌던 초등학교 시절이 문득 떠오른다. 너무 고개가 가팔라 자주 멈췄다가 목에 걸친 수건으로 비오듯 흐르는 땀을 주체 못하던 생



각도 났다.

그곳은 병풍처럼 산으로 둘러쌓여 태풍 때도 바람을 피해 가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그쪽은 수심이 비교적 얇고 해녀들이 우글 거리는 곳인데요.”

“그래도 그긴 군 철책선이 민간인을 출입을 통제 하는 곳이라 해산물이 많다. 그기는 머구리들이 숨겨놓고 조금씩 몰래 꽃감 빼먹듯이 하는 곳이지.”

“무슨 애긴지 알았어요.”

꽤 말이 많고 따지기를 잘하는 하선이 녀석이 뱃머리를 그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나는 머구리배에서 녀석의 서열이 꽤 높아져 있다는 것을 어렵פות이 느낀다. 그만큼 차츰 경력이 쌓여가고 있음을 의미 한다고나 할까.

나는 녀석의 옆에서 같이 노를 젓는 데 붙었다. 인원이 더 추가 된 만큼 속도는 배로 빨리 움직였다.

문득 언젠가 마을 정숙이네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하선이 녀석이 들려주던 이야기가 아직 쟁쟁하다. 그건 지금 한배에 타고 있는 최 머구리가의 결혼 비화 스토리다. 한번은 한계 쪽 작업을 하리갔단다. 그때만 해도 최 머구리는 홀어머니를 봉양 하는 그냥 선원이었다. 머구리가 작업을 하고 그곳에 배를 띄워 놓았단다. 머구리는 투구를 벗고 사닥다리위에서 잠이 들어 있었다. 입에는 피우던 담배가 그대로 물린 채.

평소 머구리 일을 배우려고 하던 최 머구리는 같이 탄 동료 복출이 아저씨에게 당부해서 머구리 일을 배우게 도와 달라고 신신당부 하였다. 동료가 허락 하에 최 머구리는 동료가 씌워준 투구를 쓰고 물속으로 들어갔다. 수심이 그리 깊지 않은 곳이었다. 바다 밑이 보일 정도였다.

복출이 아저씨가 위에서 펌퍼질을 하고 최 머구리는 투구만 쓴 채 바닷속을 헤집었다. 일종의 견습훈련이었다. 그때 한때의 해녀들이 수산물 채취 작업 하기 위해 나타났다. 장난기 발동한 최 머구리는 바닷속에서 한 해녀를 잡고 놔주지 않고 장난을 쳤다. 그 김 해녀는 최머구리의 장난에 물을 먹기도 하였다. 이번에는 그 해녀가 양값음을 한다고 물속에 잠수를 해서 늘어진 호스를 쥐고 낚을 들고 배

어버리겠다고 협박을 하자 최 머구리는 이번에는 반대로 두 손으로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짹짹 비는 시늉을 하였다. 전세가 뒤바뀐 것이다. 그걸 하선이 녀석이 뱃전에서 고스란히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장난을 친 것이 계기가 되어 노총각이었던 최 머구리는 김 해녀와 사귀기 시작하여 결혼 까지 하였다. 둘은 지금 마을에서 아들 딸 둘을 낳고 남부러워 할 만큼 잘 살고 있는 것이다. 한때 동네 뿐 아니라 그 이야기는 번져나아가 읍내까지 파다하였다.

한계에서는 주로 해삼과 전복을 작업 하였다. 드문 대왕암 문어도 두 마리나 잡았다. 비교적 수심이 얇아 뱃전에서도 머구리의 작업 광경이 훤히 보였다. 군 작전 통제 지역이라는 붉은 페인트의 팻말이 얼기설기 쳐놓은 철조망과 함께 내걸려 있고 민간인이 출입 할 수 없게 철저히 통제된 군 작전 통제 지역이라서인지 모른다. 다행이 이쪽은 암벽 동굴이 은밀하게 뚫려 있어 육이오 때 마을 사람들이 피난처로 활용 되어 목숨을 보전 하기도 한 곳이다. 거기서 바다로 백미터 떨어진 곳에는 용바위가 바닷속에 우뚝 솟아 있다. 옛날에 용이 하늘로 승천 했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한 시간이 그렇게 지났을 때 머구리도 작업을 종료 하고 뱃전으로 올라왔다. 의외로 그 시간이 짧았다. 머구리와 육손이 아재가 수군거리더니 말했다.

“뱃머리를 남애포로 돌려라.”

“그긴 닻을 내리는 곳이 아니잖아요? 왜 개목으로 안가구요?”

그러자 하선이 녀석이 쌍지팡이를 짚고 나섰다. 아마 녀석은 오늘 작업이 종친 것으로 착각 한 모양이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는 뭔가 평상시와 달리 욕심을 부리고 있다는 느낌이 얼핏 들었다. 하긴 그간 공친 날을 감안 하면 이해가 가는 일 이긴 했다. 하지만 노동력에 비해 무리라는 생각은 들었다.

“오늘 작업이 다 끝난 게 아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 남애포구에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출어를 할 꺼다. 그간 많이 쉬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작업을 하라는 선주 어르신의 지시사항이라는 것만 알고 있어라.”

“알았어요.”

하긴 매 끼니를 그릴 수는 없고 보니 필요한 생필품은 사야만 하고 그러다보니  
그럭저럭 빚만 늘었다. 바다 일을 쉬고 바깥에 서 보면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사고  
싶은 것은 왜 그렇게 많은지. 그러니 오늘 같은 폭양이 이글이글 거리는 드문 날씨  
에 마냥 하세월 할 수 없는 일이다.

배는 유난히 바다 쪽으로 돌출해 나온 한계 주변을 돌아 떡시루처럼 움푹한 남  
애포로 들어갔다. 멀리 산기슭으로 뒹뒹임 있는 집들이 시야에 들어왔다. 그긴  
이북에서 피난 때 내려와 정착한 실향민 문씨네 가족이 살고 있기도 하다. 그는 낚  
시가게와 낚시꾼들을 배에 태워서 바다에 나가는 일을 하고 있다. 육이오 때 훌훌  
단신으로 월남한 그는 늘 죄책감에 시달린다고 그랬다. 혼자 월남 하였고 때문이  
다. 통일이 되면 김 씨는 이곳 남애포구에 있는 자신의 쪽배를 타고 항구로 유명한  
함경북도 청진의 자신의 어촌 마을의 고향을 가겠다고 기염을 토하였다.

배는 길게 뻗어 있는 남애포 방파제 안쪽으로 천천히 들어갔다. 포구 안쪽 풍  
경은 꿈을 꾸는 듯 나른하고 평화로워 보였다. 폭양 탓인지 모래사장에도 좀처럼  
사람의 그림자라곤 보기 드물었다. 풍경은 하나의 정진된 그림처럼 보였다. 그저  
나른한 낮잠에 빠진 듯 다소 맥이 빠져 있을 뿐이었다. 한낮이 조금 기운 시각에  
여전히 폭양이 내려 꽂히고 있었다. 닻을 내린 뱃전에는 그물 일을 하는 사람 마저  
보이지 않았다. 다들 어디로 갔는지 평소때의 바글대는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포구에 닿자 수순처럼 닻을 내렸고 먼저 최 머구리와 육손이 아재가 뱃전에서  
썰렁 뛰어 내려 맨발로 뜨끈뜨끈한 모래사장을 걸어 산기슭의 골타르가 칠해진 이  
층 일본식 나무집으로 향하였다. 그곳 마당에는 포도넝쿨이 무성 하였고 그늘 진  
아래에는 몇몇 사람들이 앉아 부채를 펄럭이며 평상위에 앉아 있는 게 보였다. 근  
처에는 술집도 있고 한 블럭 건너에는 ‘어선통제소’가 자리잡고 있다. 육손이 아재  
는 어제 초상집에 갔다가 설친 잠을 보충 할 것이고 최 머구리도 살평상에 있는 몇  
몇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잠시 휴식을 가질 것이다.

일행이 완전히 시야에서 자취를 감추자 뱃전에 남아 있던 하선이 눈빛을 빛내  
며 응근슬쩍 나에게 말을 하였다.

“중구야, 나 머구리 연습하게 좀 도와주라.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연습 해 보냐.”

“그거 맨입으론 안 된다면...”

하지만 나는 일단 귀찮기도 하고 날씨도 더워서 회피하자 녀석이 귀가 솔깃한  
말을 건넸다.

“오늘부터 동네 술밭에 밤에 가설극장이 왔어. 니도 알제. 내가 네꺼까지 입장  
권을 구해서 함께 들어가자. 어때?”

“그거 진짜지. 약속 해 임마.”

“이자식 속고만 살아나 원. 하긴 영화라면 환장 하는 널 모르지는 않지만...”

녀석의 말대로 나는 영화광이다. 읍내에 어찌다가 볼일이 있어 나갈때면 어김  
없이 극장에서 혼자 영화를 봐야만 직성이 풀린다. 특히 시골은 문화 사각지대라  
서 늘 문화에 목말라하고 심한 허기를 느낀다. 녀석의 떡밥은 금새 나의 마음을 흔  
들어 효과를 나타냈다.

나는 어느 새 녀석의 제안을 받아 들여 청동투구를 녀석의 머리에 씌우고 스페  
너로 잠금 볼트를 꼼꼼하게 채워나야간다. 다 평소 육손이 아재 한테 배운 어께너  
머로 배운거다. 녀석의 얼굴이 화안 해 진다. 사실 최 머구리나 육손이 아재가 보  
면 위험 하다고 당장에 야단 치겠지만 그들은 눈에 띄지 않는다.

점점이 끝나자 하선이 녀석이 뱃전에서 천천히 물로 띄어들었고 나는 그에 맞  
춰 펴퍼질을 요란하게 하였다. 사람키 높이보다 한 배반 깊의 수심속으로 녀석이  
거품을 부글 거리며 사라졌다.

그런데 잠시 후였다. 나는 뭔가 이상한 징조가 벌어진 것을 깨닫고 허둥거렸  
다. 으레 수면 위로 있어야할 주변의 거품 같은 부글거림이 없었다. 하늘이 노오래  
졌다. 뭔가 심상찮은 기운이 싸늘하게 등줄기를 훑어내렸다. 그런 가운데 당혹함  
을 느낀 나는 다급한 나머지 호스를 잡아채 위로 무작정 끌어올렸다. 잘 올라오지  
안아 있는 힘을 끌어모아 당겼다. 그런데 곧 나는 그만 경악 하였다. 호스를 통해  
위로 당겨져 올라온 녀석이 기절해 있었다. 물위로 떠오른 녀석이 거꾸로 머리를  
쳐박고 있고 청동투구 앞 유리 앞면에 흰 거품이 북적북적 뿜어져 나와 얼굴을 가  
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의식을 잃은채였다.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느낌이었다.

다급한 나는 어찌 할바를 몰라 산 기슭 가옥을의 향해 죽을 힘을 다해 소리쳤다.

“여기! 큰일났어요! 사람이 죽어요!”

그제서야 저전에서 뭔가 눈치를 채고 사람들이 이쪽으로 달려왔다. 여러명이었다. 거기에는 최 머구리와 육손이 아저씨도 있었다. 하선이 녀석은 투구를 쓴 채 마침 주차해 있던 파란색 1톤짜리 트럭의 짐칸에 황급히 실려 읍내 병원으로 향하였다. 그러나 읍내 병원에서 시간이 많이 지체 되어 달리 손을 쓸 수 없으니 울진에 있는 유황 온천으로 가서 담가보라고 하였다. 그렇게 하면 깨어날 확률이 있다고 하였다. 그렇게 할 수밖에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녀석은 사지를 축 늘어뜨렸고 여전히 의식이 없었다. 가로수가 양쪽으로 줄지어 늘어서 비포장길을 덜컹거리며 울진으로 털털거리면서 달리면서 육손이 아저는 산소호흡기를 달고 공기를 퍼날랐고 나는 곁에서 점점 온기를 잃어가는 녀석의 사지를 주물렀다. 그러면 마음속으로 살아만 있어달라고 간절히 기구 하였다.

그러나 한가닥 기대를 가졌던 온천물에 담갔지만 끝내 그날 하선이 녀석을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고 끝내 눈을 감고 말았다. 정하선. 이름 그대로 그는 머구리라는 꿈을 접고 영원히 뱃전에서 하선 하였다. 그런 것을 보면 그의 운명은 이름과 더불어서 기이하고 묘했다. 그 이름은 정하선이니까.

지금 나는 객지에서 고향에 몇 년 만에 별초 하러 왔다가 그의 묘에 들러 술을 불고 있다. 처음으로 나는 그와 함께 찍은 흑백 사진을 접퍼 주머니에서 꺼내 세워놓았다. 녀석은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금방이라도 나타날 듯 환하게 웃고 있다.

산아래 소나무 숲 사이로 얼핏얼핏 바다의 속살이 엿보였다. 그기는 최 머구리의 로맨스가 촉발 된 한계 그곳이었다. 어디선가 소슬 바람 한줄이 나의 머리칼을 흔들고 저쪽으로 달아났다. 언제까지고 나는 그 자리를 뜰줄 모르고 마냥 장승처럼 우두커니 서 있다. 오늘이 녀석의 기일이란 사실을 그제서야 다시금 깨달으면서.

## 등대섬

\*제2회 등대문학상佳作 / 소설  
최석규 (대전광역시)



바람에 부딪히는 깃발들이 고향 섬 붉은부리갈매기처럼 왁자글하게 떠든다. 8개 국어로 쓰여 있는 환영한다는 글자와 오류 마크가 그려진 플래카드가 골목마다 높이 세워진다. 깃발 속 상모 쓴 호랑이가 나뭇나뭇 춤을 춘다. 1988년 봄, 비는 계속 내렸다.

재인은 골목길을 따라 걸어 내려갔다. 길 담벼락에는 “길거리에 침 뱉지 않기”, “외국인과 마주치면 미소 짓기” 같은 계몽 포스터가 지저분하게 붙어 있다. 대로까지 이어지는 구불구불한 좁은 골목길을 따라 빗물이 줄줄 소리를 내며 흘러내린다. 낡은 운동화 속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조심하며 걸었다. 우산을 잡은 왼손이 몹시 시렸다. 골목 어귀 슈퍼마켓 앞에 늘씬한 전자 패널이 달린 신형 DDR 공중전화기가 새로 들어왔다는 것을 며칠 전에 처음 알았다. 파란 지붕을 이고 있는 빨간 공중전화 부스로 우산을 접으며 들어갔다. 설치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안에선 벌써 찌든 담배 냄새가 났다.

— 저예요.

— 재인이나? 오메, 얼마 만에 전할 하는 기가. 방엔 전화 났나?

— 대구 가면 신청할 거예요. 별일 없지요.

별일 없지요. 말끝을 올리지도 않고 물었다. 바짝 말라 푸석거리는 마른 명태 같은 대답이었다. 수화기 너머에서 비릿한 생선 냄새가 났다. 작년 말에 변리사 최종 합격 통보를 받고 대구의 특허 법률사무소로 취업 된 후 처음으로 집에 거는 전화

였다. 생각해보니 이곳 신림동 고시촌에서 시험공부 하느라 쪽방에 책상 하나, 이불 한 채만 놓고 지낸 지 벌써 이 년이 지났다.

재인의 고향은 통영항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섬이다. 육지도 남쪽 근방에 있는 그 섬은 웬만한 지도책에는 나타나지도 않을 정도로 작았다. 부자도라는 귀티 나는 이름이 있음에도 사람들은 그곳을 등대섬이라 더 많이 불렀다. 근처의 섬들처럼 섬에 진짜 등대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산봉우리에 있는 볼품없이 삐죽 길게 튀어나온 등대 모양의 바위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진 것뿐이다. ‘등대 바위’라 불리는 그 바위는 저물녘 해안가에서 바라보면 정말로 등대처럼 보였다. 특히 바위 끝이 햇빛에 붉게 물들면 불을 밝히는 등대의 등명기처럼 보여 더욱 그랬다. 마을 어른들은 등대 바위를 싫어했다. 쓸데없이 덩치만 큰 돌덩어리 때문에 농사지을 산비탈도 줄고 섬 뒤편으로 가려 해도 빙 돌아가야 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근처의 미끄러운 이끼 때문에 낙사 사고도 가끔 일어날 만큼 위험한 곳이기도 했다.

섬의 모든 아이들은 국민학교를 졸업한 후, 대부분 육지에 있는 상급 학교로 진학했다. 재인은 홀로 자취를 하면서도 학업 성적 만큼은 늘 상위권이었다. 그녀의 머리가 좋아서 그런 줄로만 알던 재인의 아버지는 부모가 무식해도 아까지 무식하란 법은 없데이,라며 은근히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을 늘어놓았다. 재인이 필사적으로 공부에 매달린 이유는 따로 있었다. 섬에서 도망가는 것. 그것은 그녀의 유일한 목표였다. 동네 똥개가 종일 물고 다니던 더러운 생선 대가리, 바람에 부서져 툭날처럼 변한 수많은 조개껍질, 육지에서 밀려와 아침마다 해안에 산처럼 쌓이는 산업폐기물, 풍랑이라도 오면 낡은 배가 걱정돼 뜬 눈으로 밤을 새야 하는 어머니와 매일 술에 절어 사는 아버지. 재인은 그 모든 것이 싫었다. 새벽부터 수도 없이 그물을 거친 바다에 던져도 결국 돌아오는 것은 빛과 아무 희망도 없는 미래였다. 재인은 그곳에서 벗어나 도시의 화려한 삶을 살고 싶었다. 좋은 성적은 그 희망을 현실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다. 다른 아이들처럼 마실 다니듯 학교를 오가다 보면 결국 돌아 갈 곳은 다시 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재인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다.

섬 남자아이들 몇 명도 재인처럼 대구에서 학교를 다녔다. 그중에 귀태라는 친구가 있었다. 빠드렁니가 유난히 돌출된 귀태는 재인 집에서 십여 미터 위쪽 산 중턱에 사는 귀먹 아저씨 덕 둘째 아들이었다. 국민학교 시절, 학교 갈 시각이 되면 귀태는 항상 재인 집 앞에 서 재인을 기다렸다. 재인이 좀 늦게라도 나오는 날에는 누런 코를 훌쩍거리며 재인네 닭들에게 모이도 주고 달걀도 모으고 닭똥도 치웠다. 어느 날부터는 귀태만 나타나면 재인네 닭들은 졸졸 그 뒤를 따라다녔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귀먹 아저씨는 이 문디 자식, 우리 토쟁이나 돌볼 것이제!라며 호통 쳤다. 귀태는 재인의 책가방도 자주 들어주었다. 심 세지려고 일부러 드는 기다, 가시나야. 뺏다시피 책가방을 들어주다 자기 것은 교실에 놓고 집에 간 적도 있었다. 그 꼴이 하도 우스워 재인은 귀태를 늘 바보라고 놀려먹었다.

아이들은 틈만 나면 등대 바위로 모였다. 미끄럽도 탈 수 있고 섬에서 제일 높은 나무 위에 오를 수도 있는 그곳은 더할 나위 없는 훌륭한 놀이터였다. 남녀 편을 갈라 술래잡기를 하던 중이었다. 등대 바위 아래, 수풀 우거진 움푹한 곳으로 재인이 재빨리 몸을 숨겼다. 그 옆이 바다로 곧장 떨어지는 가파른 절벽이라 위험했지만 숨기에는 제일 좋은 장소라 재인은 제일 먼저 그곳으로 달려왔다. 뒤이어 귀태가 뛰어 들어왔다. 한 사람만 들어가도 좁은 공간이었지만 술래가 근처에 있어 어쩔 수 없었다. 귀태는 싫다는 표정의 재인을 꼭 껴안고 숨을 죽였다. 후후 하는 낮은 숨소리만 둘 사이에 흘렀다. 바위 아래를 뒤지던 술래가 숨어 있던 둘을 발견하고 소리쳤다. 애들아! 재인하고 귀태, 둘이 사귀다! 그날 귀태는 얼굴이 한 밤중 등대의 등불처럼 빨개졌고 재인은 화를 내며 혼자 집으로 돌아갔다.

고등학교 3학년 때였다. 재인의 자취방에 도둑이 들었던 적이 있었다. 방안을 온통 헤집어 놓고 속옷 몇 개를 훔쳐 갔다. 다행히 재인은 학교에서 늦게까지 공부를 하느라 더 큰 일은 피했다. 귀태가 재인 숙소 근처로 방을 옮긴 것은 그로부터 며칠 후였다. 늦은 밤 골목 어귀에서 재인을 기다리다 자취방에 데려다 준 것도, 가끔 몸에 맞지도 않는 양복을 입고 근처 골목을 순찰하듯 돌아다닌 것도, 주말마다 시장에서 고로케를 사와 재인 자취방으로 가져다주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다. 재인은 답례의 뜻으로 하얀 와이셔츠를 선물했고 귀태는 한동안 그 와이셔츠



만을 입고 다녔다.

졸업 후, 재인은 변리사 시험 준비를 위해 서울 고시촌으로 올라갔고 귀태는 섬으로 돌아가 귀택 아저씨의 뱃일을 도왔다. 그는 마을 청년회를 조직해 섬을 위해 여러 가지 일도 벌였는데, 그 덕분에 다른 섬들에 비해 낙후되어 있던 그곳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도청의 지원을 받아 시멘트 도로가 깔리고, 방파제도 새로 정비했으며 태풍이 불면 늘 불안했던 집 지붕들도 보수공사를 했다. 어느 날, 귀태는 머리 식힐 때 읽으라고 책 몇 권을 보내 주었다. 소포를 개봉했을 때 그 안에서 닭똥 냄새가 물씬 났던 것을 재인은 지금도 기억한다.

\*

- 이쪽은 이번에 새로 들어오신 이재인 변리사입니다.

사장의 굵은 목소리가 나자 직원들 시선이 재인에게 한꺼번에 쏠렸다.

면접을 끝내고 돌아갈 때만 해도 재인은 틀림없이 떨어졌다고 생각했다. 사장의 질문 공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사장은 기름기가 번들거리는 대머리에 날카롭게 생긴 찌진 눈과 곰보 가득한 뚱뚱한 코를 가진 전형적인 추남이었다. 길거리에서 이런 남자를 한 번이라도 마주친다면 평생 잊지 않을 자신이 있을 정도였다. 그가 물었다.

- 갑이 헤어로선용 조성물을 87년 10월부터 생산, 판매해 오고 있었고 을은 갑의 조성물 제품을 실험 분석해 본 결과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임을 확인했다고 가정할 때…….

거미줄같이 복잡하고 촘촘한 갑, 을, 병, 정의 권리관계에 대한 가정은 끝없이 이어졌다.

- ……이 경우 갑의 헤어로선용 조성물 제품이 을 특허의 침해를 구성할 가능성이 있는지와 을이 출원 중에 행한 보정이 침해 소송에서 권리범위 해석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설명해 보세요.

재인은 떠들거리며 침해에 관한 원론적 답변만을 했다. 대답이 채 끝나기도 전

에 사장은 미친 진돗개처럼 물고 늘어졌다.

- 을이 침해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갑이 취할 대응 방안도 말씀해 주실래요?

수도 없이 읽고 외웠던 법전과 판례도 별로 도움이 되질 않았다. 이제 막 합격한 초자 변리사에게 이런 상황은 동트기 직전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섬 안개처럼 잡을 수 없는 존재였다. 방금 솟돌에 날을 세운 부엌칼 같은 질문이 연거푸 쏟아졌다. 재인은 자포자기 심정이 되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까, 라며 물었다.

- 애인은 있어요?

며칠 후, 월요일부터 출근하라는 통보가 왔다.

몇 달이 정신없이 지나갔다. 그동안 많은 것을 보고 배웠다. 고시 학원에서 배운 판례와 직접 맞닥뜨린 실무 차이가 국민학생이 그린 계몽 포스터 배경 채색처럼 뚜렷한 경계를 보인다는 것도 알았다. 침해소송을 하려는 자와 권리를 지키려는 자 간의 공방, 그것은 종종 논리를 넘어서 감정싸움으로 변하곤 했다. 그 사이에서 어떻게든 수수료를 더 받아 내려는 사무소의 동물적인 움직임에도 서서히 익숙해져 갔다. 월말이 되면 사무실은 더욱 바빠졌고 재인은 서류 뭉치 더미 속에서 종종 밤을 새워야만 했다.

그래도 사무실에 앉아 명세서를 작성하는 편이 사장 말상대가 되는 것보단 더 나았다. 사장은 주로 서울 사무소에 있었으나 한 달에 한두 번은 대구 사무소로 내려왔다. 그는 항상 믹스 커피 두 잔을 뿔아 들고 재인 자리로 왔다. 혀끝으로 일회용 컵에 묻은 커피를 핥으며 그가 말했다.

- 다음 달 사무실 야유회를 어디로 가면 좋을까? 이번 주말에 경주 보문단지로 답사 한번 가 보려는데, 이 변리사, 주말에 약속 있나? 같이 갈까?

사장은 사업체 여럿을 거느린 잘나가는 사업가이기도 했다. 본사인 대구 사무소 외에도 부산, 대전, 서울에 지사와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동료 직원으로부터 그가 얼마 전 이혼했다는 말을 들었다. 아마도 타고난 바람기 때문인 것 같다고 했다. 사무소 근처 호텔 로비에서 부인이 아닌 낯선 여자와 같이 있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도 있었다.

- 이 변리사는 내 첫사랑을 닮았던 말이야.

첫 회식 자리에서 술이 거나하게 취한 사장이 구운 오징어 냄새를 풍기며 귀에 대고 속삭였다. 뜨거운 콧김이 귓볼에 와 닿다. 다른 직원들은 가라오케 반주에 맞추어 민혜경의 “그대는 인형처럼 웃고 있지만”을 부르느라 아무도 그 짓을 눈치 채지 못했다.

늦여름이 끝나고 막바지 88올림픽 준비가 한창일 무렵, 도야지 아줌마가 그 남자와 함께 범어 네거리에 있는 호텔 일 층 커피숍에 나타났다. 호텔 커피숍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맛선 장소라는 엄마의 믿음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섬에서 유일하게 돼지를 치던 도야지 아줌마는 재인이 자취를 시작할 무렵 육지로 나갔다. 식당 일과 남의 집 식도살이로 생계를 꾸려 나가다 타고난 친화력과 말솜씨 덕분에 경북에서 꽤 유명한 중매쟁이가 되어 있었다.

재인은 아침 일찍 미장원에 다녀왔다. 동그란 네크라인과 어깨에 살짝 주름이 들어 있는 상아색 상의에 베이지와 블랙으로 배색 처리된 스커트를 입고 나왔다. 지난주에 백화점에서 산 정장이었다. 상의에 달린 네모난 큐빅 버튼이 조금 거슬리긴 했지만,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못해 어쩔 수 없었다. 맞선 상대는 남자답게 생긴 짙은 눈썹과 크고 선한 눈매, 매끈하고 잘 다듬어진 콧등선, 날렵한 턱 선과 적당히 두툼한 입술, 깨끗한 피부와 흰칠한 키의 남자였다. 잘 다려진 새하얀 와이셔츠 위로 반쳐 입은 감청색 베스트와 명품 로고가 새겨진 고급 양복은 잘생긴 그와 무척 잘 어울렸다. 그 남자가 재인을 바라보며 자상한 미소를 지을 때마다 재인의 심장은 마구 뛰었다. 맞선 첫 말문은 남자에 대한 칭찬으로 시작되었다.

- 여기 훈출한 총각은 미국에서 경영학과를 나왔고, 시방 춘부장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어. 아바씨께서는 LA에서 큰 물류업체를 경영하시고 계시는데 이번에 한국 지부를 도식 군이 맡게 된 기라. 그쪽 분야 사람들은 모르는 이가 음파. 그리고 대부인께선 경양식 집인가? 그자? 미국에서 큰 레스토랑을 하시고, 하여튼 억수로 엄청 대단한 집안인가라. 그 유명한 로버트 월슨 가처럼.

로버트 월슨이 누구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아줌마는 다른 중매 자리에서도 로버트 월슨 이야기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음이 점점 불안해졌다. 변변찮은 집안과 섬 촌년 티를 여태껏 벗겨 내지 못한 콤플렉스 때문일까? 재인은 손가락만 만지작거렸다.

- 글고 이쪽은 재인 양, 핵고 땡길 적에 공부 딴따사 잘했고 아주 똑똑한 처자야. 자네 그거 아나? 변리사라고. 남들 발명하는 것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건데, 돈도 많이 벌어. 그리고 재인이 아바씨께서는 고향 섬에서 큰 부자야. 말하자면 섬 유지지, 유지. 요즘은 심심풀이로 섬에서 고급 펜션을 운영하고 있다지. 그지? 재인아.

높은 절벽 위에서 벌거벗고 뛰어내리는 아찔함이 머리끝에서 발끝으로 전해졌다. 고주망태 아버지가 어떻게 유지가 되고 부자가 되었을까? 딸자식이 오면 그래도 아버 노릇하겠다고 얼마 전 헛간을 헐어 작은 방을 하나 만들었다는 사실이 아버지를 펜션 주인으로 바꾸어 놓았다.

- 그렇지, 재인아?

재차 확인하듯 물어보는 아줌마에게 재인은 조그맣게 대답했다.

- .....네.

재인은 양심의 가책은 거의 느끼지 못했다. 그런 작은 거짓말보다 상의의 촌스러운 큐빅 버튼이 지금은 더 거슬렸다. 남자는 하얗고 가지런한 이를 살짝 보이며 말했다.

-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김도식이라고 합니다.

목소리가 대구에서 처음 맛본 양과자점 생크림 빵처럼 부드러웠다.

\*

삼십 분마다 수화기를 들어 통화음이 들리는지 확인했다. 그와 만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새로 생긴 습관이다. 며칠 동안 도식으로부터 연락이 없으면 그 버릇은 더 심해졌다. 샤워를 마치고 화장대 앞에 앉았다. 커튼을 활짝 젖혔다. 밀려들어

오는 가을 햇살이 한쪽 뺨을 간지럽게 했다. 오늘은 도식과 보성으로 놀러 가기로 한 토요일 아침이다. 화장대에는 새로 산 화장품들이 키 순서대로 맞추어 줄을 서 있다. 수분 크림 뚜껑을 열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 ……거기 혹시, 재인 씨 댁입니까?

어설픈 표준말의 곱삭은 목소리가 들렸다. 귀태였다. 참 오랜만의 통화였다.

- 그냥, 안부 차 했다.

개불네가 영천에서 중고차 장사로 돈을 많이 벌었고 섬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 고 다시 들어 왔다. 자기네 흑염소가 올봄에 새끼를 낳았다, 슬레이트 보수를 위해 시멘트 세 포대를 썼다, 같은 소소한 말을 전했다.

재인은 가만히 듣고만 있다가 말했다.

- 미안하지만, 나 약속이 있어서 전화 끊어야 할 것 같아.

- 그래? 나도 암새이 젓 짜러 가야겠다. ……근데, 니 섬 떠나 살다 보니 인자 고향 말 아예 읊췄다. 하이고, 육지가 좋긴 한갑네. 끊는다.

전화 신청하러 전화국에 갔을 때 일이 생각났다. 한국통신 여직원은 컴퓨터가 만들어 낸 전화번호를 보여주며 맘에 드는 번호를 고르라고 했다. 국을 제외한 4 자리의 녹색 숫자 여러 개가 모니터에 보였다. 재인은 생일도, 태어난 해도, 고향 집 우편 번호도, 무엇하나 관여하지 못하는 가장 연관성 없는 번호를 골랐다.

첫 키스는 달성 공원 오솔길, 한적한 가로등 아래에서 했다. 스피커에선 낭만적인 음악이 겨우내 얼어 있다 수줍게 녹기 시작하는 개울물처럼 잔잔하게 흘렀다. 그날 밤, 작은 선물도 받았다. 상자 안에는 루비가 박힌 반지가 들어 있었다. 도식은 언제나 한결같았다. 자가용을 탈 때면 먼저 뛰어가 앞문을 열어 주었고, 시동을 걸기 전 안전벨트도 매어 주었다. 식당으로 들어갈 때면 그는 문을 잡고 기다렸고 재인이 수저를 들기 전까지 미소를 지으며 기다렸다. 그와의 데이트는 항상 잘 짜여 있었다. 아름다운 장소, 분위기 좋은 교외 식당, 멋진 드라이브 코스, 매번 바뀌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재인을 기다렸다. 사랑할 때도 그는 온 정성을 쏟았고 절정의 시간이 끝난 후 속삭이는 목소리는 새로 지은 겨울 이불처럼 포근하고 따

뜻했다. 그는 분명히 세상 모든 남자가 본받아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도식이 지갑을 열어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다. 화려한 깃털이 꽃혀 있는 쇼트 청 체크무늬 중절모를 비스듬하게 쓰고, 나비넥타이를 맨 중후한 느낌의 중년 남자와 꽃무늬가 촘촘하게 누벼진 원피스를 입고 있는 여자 사진이었다. 사람들 뒤로 “루블리어스 앤 김”이라는 레스토랑과 번쩍거리는 컴포터블 세단도 보였다. 한국에 오기 전에 부모님과 함께 찍은 것이라고 했다. 가족 이야기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표정이 침울하게 변했다. 한참을 캐묻자 마지못해 그가 입을 열었다. 요즘 아버지 사업이 잘 안 돼 자기가 맡은 한국 지사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했다. 돌아오는 만기어음만 막으면 잘 회전될 것 같긴 한데……. 말끝이 동틀 무렵 새벽 별처럼 흐리터분하게 사라졌다. 만일 사정이 더 어려워지면 어쩔 수 없이 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을 하기 시작한 것도 그즈음이었다.

재인이 두툽한 돈 봉투를 핸드백 안에서 꺼내 그의 손에 쥐여 준 것은 다음 데이트에서였다. 그의 회사를 위해, 정확히 말하자면 그를 위해,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재인은 인생에서 지금보다 더 강렬한 확신을 가슴에 품은 적은 없었다. 도식은 크게 화를 냈다.

- 누가 이런 걸 가져오라고 했어요?

- 그냥 주는 것 아니에요. 나중에 갚아요.

재인은 웃으며 대답했다.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선 이쯤은 당연한 것이다. 어떻게 해야 도식에게 도움이 될까, 돈을 어디서 더 벌리나, 오직 그런 생각만이 머릿속에서 종일 맴돌았다.

도식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기불 받은 석 달 치 월급을 송금해 준 직후였다. 지인들로부터 급전을 구하느라 당분간 대구로 오지 못할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만일 천만 원 정도 더 구하게 되면 연락하라는 말은 잊지 않았다. 혹시 방을 비웠을 때 그로부터 걸려 오는 전화를 받지 못할까 봐 얼마 전에는 녹음 기능이 있는 신형 자동 응답 전화기도 샀다. 녹음용 테이프도 넉넉히 사 한 겹에 쌓아 놓았다. 그날도 재인은 퇴근하자마자 녹음된 전화 내용을 확인했다.

- 내다. 귀태. 잘 지내노? 어째 전화가 안 된다. 집에 전화 좀 해라. 느그 엄매 걱정하신다.

- 귀태다. 우리 집 암새이가 고마 죽어 뿐졌다. 자리도 잘 봐주고 먹이도 제때 줬는데 야속하게 시리 그리 빨리 갔다.

귀태 목소리는 그 뒤로도 몇 개가 더 녹음되어 있었다. 더 듣지 않고 스톱 버튼을 눌렀다. 녹음테이프가 철커덕, 약실에 충알 장전하는 소리를 내며 멈추어 섰다. 삭제 버튼을 눌렀다.

출원인을 만나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지 벌써 이 주나 지났다. 재인은 공중전화 박스 앞에서 한참 망설였다. 도식은 회사로 전화하는 것을 싫어했다. 낮에는 중요한 손님들이 자주 오고 미국에서도 전화가 종종 걸려 와 비즈니스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였다. 공중전화 수화기를 한참 만지작거리다 재인은 결국 동전을 꺼내 투입구에 넣었다.

- 여보세요?

- 네. 네. 말씀하세요. 통명스러운 여자 목소리가 났다.

- 혹시…… 김도식 지사장님 계신가요?

- 누구요?

- ……김도식 지사장님이요.

민망한 침묵이 잠시 흘렀다. 딱딱거리는 껌 씹는 소리만이 전화기 너머 그녀가 아직 수화기를 들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잠시 후 한껏 높아진 톤의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 아, 네, 지사장님께선 출장 가셨어요. 어디라고 전해 드릴까요?

-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공중전화기의 빨간 크레딧이 매정하게 0으로 변했다.

\*

사장과의 저녁 장소는 고급 일식집이었다. 바닥에는 다다미가 깔렸고 한쪽 벽에 푸른빛이 도는 도코노마가 붙어 있다. 반쯤 벗은 일본 기생 그림이 그려진 천장의 붉은 등에선 어슬어슬한 빛을 뿜어 대며 방안을 어슴푸레 비춘다. 방금까지 살아 있었을 광어가 윤기가 번들거리고 토실토실한 살점이 되어 대나무 그릇에 담겨 들어왔다. 사무실 불 켜진 것 보고 전화했는데, 여태 일해? 저녁은? 이라는 사장의 물음에 둘은 늦은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사장은 장어 껍질이 들어가 있는 파끈한 사케를 한입에 들이켰다. 재인에게도 따라 주었다.

- 김 팀장이 재인 씨 열심히 일한다고 칭찬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참 이상하지? 재인 씨는 이렇게 예쁘고 성실한데 왜 여태 시집을 못 갔을까?

사장 눈 주위가 참치 눈알 언저리처럼 붉게 젖어 들기 시작했다. 재인은 사케를 입속에 부었다. 한잔 더 하지……. 술을 따라 주며 사장은 재인 손을 슬그머니 잡았다. 다섯 마리 뱀이 손등 위로 기어가는 느낌이 났다.

- 나랑 자고 싶어요?

재인은 무표정하게 말했다. 쿨럭쿨럭하며 사장은 마시던 술을 앞쪽으로 쏟아냈다. 그의 사레들린 기침은 한참 계속됐다.

사장과의 관계는 사무소 누구도 알지 못했다. 하지만 설립 초부터 같이 일해왔던 회계 담당 아줌마만은 어렴풋이 눈치를 챘다. 요즘 사장님, 무슨 일 있나? 부쩍 대구로 자주 온단 말이야. 서울 사무소도 바쁠 텐데. 그녀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다.

사장이 대구로 오게 되면 재인도 야근을 했다. 그날은 집이 아닌 모텔 가는 날이 되었다. 사장과의 만남은 사업과도 같았다. 그 대가는 늘 풍족했다. 넉넉한 현금, 고급 옷과 핸드백이 인센티브로 주어졌다. 그의 섹스는 지극히 권위적이었다. 거친 애무, 공격적이고 우악스러운 아랫도리의 펌프질. 절정이 지난 후엔, 별거벗



은 채로 누워 담배를 피우며 좋았어?, 라고 물었다. 재인은 가슴을 만지작거리는 사장의 손을 부드럽게 밀면서 말했다.

- 이젠 좀 새로운 일도 해보고 싶어요.

- 가령?

- 회사 운영 같은 일.

며칠 후 사장은 회계 담당 아줌마를 내보냈다. 건강 때문에 본인이 희망한 것이라 직원들에겐 말했다. 재인은 곧장 일을 물려받았다. 책상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뒤에서 수군대는 소리를 들었다. 풋내기가 사장 총애를 받는다는 이유로 사무소에서 제일 중요한 자리로 가게 된 사건은 생각보다 시끄러웠다. 출원인과 소송 대리인으로 봄비던 1층을 벗어나 제일 높은 층, 회계 부서로 올라가는 발걸음이 후들거렸다.

재인이 검은 자금의 흐름과 금고 내 숨겨 둔 현금의 실체를 알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사장은 차명 거래를 이용하거나, 여러 유령회사를 통해 부동산과 사치품 등을 사들이고 다시 되파는 수법을 애용했다. 그렇게 만들어진 자금은 차명 계좌로 분산해 관리되었다. 그중 일부는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현금으로 만들고 금고 속에 넣어 두었다가 로비 자금으로 사용했다. 재인은 각종 서류를 가짜로 만들고 자금 세탁하는 일을 담당했다. 적어도 장부상으로는 모든 것이 깨끗했다.

세탁된 돈 중 일부는 도식에게 전해졌다. 그가 돈 출처를 물었을 땐 집에서 빌려줬다고만 대답했다. 물론 그 일은 사장 모르게 처리했다. 사용처를 적당히 돌려 대고 또 다른 이중장부를 꾸미면 사장은 그대로 믿었다. 그것은 아주 빠르게 재인의 일상이 되어 갔다. 회계 업무를 맡으면서부터 도식과의 만남은 다시 빈번해졌다. 매주 주말은 예전처럼 가슴 뛰는 데이트로 채워졌다. 그를 만나러 갈 때면 항상 사장이 사준 최고급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나갔다. 그는 언제나처럼 다정했고 늘 먼저 배려하였으며 잠자리에서도 온 정성을 쏟았다.

재인은 믿었다. 그가 돌아온 이유는 사실 단순한 것이다. 오래전부터 내려온 규범, 남자라면 피할 수 없는 규칙을 그도 따랐던 것뿐이다. 둘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그는 데이트할 시간도 없이 열심히 일했고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것이

다. 그것은 분명히 돈의 힘은 아닐 것이다. 돈 따위는 우리 둘 사이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

재인은 트랜치코트에 묻은 빗물을 툭툭 털며 방으로 들어왔다. 오늘따라 일이 많아 매우 피곤했다. 불 꺼진 방에서 자동응답 전화기의 램프가 산타클로스를 기다리는 크리스마스 전날 트리의 불빛처럼 깜빡거렸다. 모르는 전화번호가 액정 화면 속에서 바르르 떨고 있다. 삼십 분 전쯤에 온 전화였다. 재생 버튼을 눌렀다.

- 내다. 아직도 퇴근 못했나? 지금 느그 집 앞 금마차에서 기다린다.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다방 안에는 손님이 가득했다. 어소세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레지 한 명이 열린 문을 향해 허짖배기소리로 말했다.

귀태는 구석 자리에 앉아 쌍화차를 마시고 있었다. 눈이 마주치자 웃으며 손짓을 했다. 오랜만에 둘은 마주 보고 앉았다. 짧은 스포츠머리, 약간 들린 뚱뚱한 코, 입술 밖으로 보이는 누런 빠드렁니, 어릴 적 물질하다가 다친 입술 아래 팔알만 한 흉터. 옛 모습 그대로였다.

- 그동안 전화 여러 번 했는데, 녹음 못 들었나?

- 바빠서…….

- 내사 니가 뭘 일 난 줄 알았제.

-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야?

그는 빠드렁니를 내보이며 순진하게 웃었다. 잠깐 얼굴이나 보고 가려던 마음이 오래된 형광등의 끄트머리처럼 새까맣게 타버렸다. 단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는 배를 타고 통영항에 왔고 다시 버스를 타고 여기까지 수백 킬로미터를 달려 온 것이다. 귀태는 여전했다. 어릴 적부터 항상 그랬다. 닭에게 모이를 줄 때도, 가방을 들어줄 때도, 속절없이 골목 어귀에서 나를 기다릴 때도, 그는 언제나 바보였다. 시선이 재인 손을 향했다. 도식이 사준 루비 반지가 약지 손가락 셋째 마디에서 찬연하게 빛나고 있다.

- 산 거가? 니한테 참 잘 어벌린다.

한참 동안 각자의 사는 이야기를 했다. 귀태는 마을 소식을 전했고, 재인은 타향 생활과 일 이야기를 했다.

삼십분 쯤 후, 둘은 함께 다방을 나왔다. 괜찮다는데도 집까지 바래다주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통에 어쩔 수가 없었다. 재인의 숙소까지 좁은 골목길을 따라 나란히 우산을 쓰고 걸었다.

- 오늘은 어디서 잘 거니?

- 친구네.

- 내일 가?

- 음.

귀태는 등대 바우에 대한 말을 꺼냈다.

- 등대 바우 때문에 요즘 난리가 아니다. 대구에서 무슨 건설 회사가 들어와 바우 옆에 등대 모양의 전망대를 만든다 카더라. 섬 전체가 보이는 전망대라던가. 아무튼 거기에 레스토랑, 커피숍 같은 것도 들어오고 연인들을 위한 무슨 조형물도 세울 계획이라꼬. 며칠 전엔 등대 바우에 얹힌 무슨 사랑 전설을 신문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하더라. 내사 평생 섬에서 살았지만 그런 이바구는 첨면이 들어봤다. 근데 그게 육지 것들에겐 먹히는 모양이더라. 벌써부터 광고 보고 관광객들이 막 몰려오던데. 어르신들은 처음엔 탐탁지 않게 보시다 별 볼 일 없던 섬에 사람도 모이고 육지 돈도 따라 오니깐 좋다 카더라. 근데 말이지, 크뎡한 전망대 옆의 초라한 등대 바우를 보니 어째 영 가심이 절리더라. 옛날에 등대 바우는 진짜 커다라 타만…… 이제 보니 알라 오줌 만기로 쪼만해졌다.

귀태는 씩쓰레했다.

- 우리가 큰 거겠지.

- …….

재인 집 앞에 다 와서 가방을 뒤적여 무언가를 꺼내 건넸다.

- 식었지만 먹을 만 할 까다.

귀태는 짧게 웃었다. 뒤돌아서서 그의 어깨가 얼음처럼 차가워 보였다. 운동화

가 디딘 자리마다 젖은 검은 발자국이 만들어졌다. 자국은 바닷물에 젖어진 미역 줄기처럼 하나의 직선이 되어 길게 이어졌다. 그 끝이 어두운 골목 끝과 맞닿았다.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고로케가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다. 상자가 좁은 탓에 반듯이 누워 있지 못하고 하나가 홀로 똑바로 세워져 있다. 세워진 고로케를 집어 입에 넣었다. 습기로 바삭함이 사라진 식감과 함께 축축한 기름기가 입안에 돌았다. 생각해보니 학교 졸업 후 한 번도 고로케를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았다.

\*

토요일, 도식과 재인은 통영항에 왔다. 바쁘다고 가기 귀찮아하는 도식을 억지로 데리고 온 여행이었다. 창문 밖으로 찌푸린 회색빛 먹구름이 잔뜩 보였다. 조금씩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정성껏 무스를 바른 머리카락이 한 올이라도 제자리에서 벗어날까 봐 대합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지던 도식은 담배 한 대 피고 올게, 하고 밖으로 나갔다.

나무 아래 모여 앉은 남녀 대학생 서넛이 기타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고 있다. 무리 중 한 여학생이 일어나 도식 곁을 지나가려 했다. 아까부터 물끄러미 그녀를 바라보던 도식은 피우던 담배를 던져 끄고는 뭐라 말을 걸었다. 귀엽게 생긴 여학생은 약간 놀란 표정을 짓다 이내 웃기 시작했다. 도식은 과장되게 손짓을 섞어 가며 계속해 말했다. 여학생은 터진 웃음보가 멈추질 않는지 아예 배를 움켜쥐고 웃기 시작했다. 대합실 창문을 통해 그 모습을 지켜보던 재인과 도식의 눈이 마주쳤다. 도식은 잠깐 당황해 하다가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대합실 안이 시끄러워졌다. 누군가 맞은편 TV 채널을 돌린 것이다. “유머 1번지”가 방영되고 있었다. 출렁거리는 웃음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다.

양복 입은 남자들이 모여 앉아 회의하는 모습이 보였다. 백발 회장으로 분한 뚱뚱한 코미디언이 말했다.

『그 사업은 반드시 우리 비룡그룹이 추진해야 합니다! 이번엔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린 멈출 수 없습니다!』

모든 이사들이 합창하듯 다 같이 외쳤다.

『우린 멈출 수 없습니다!』

회장은 주먹을 불끈 쥐고 소리 높여 외쳤다.

『멈출 수 있다면 그건 비룡그룹이 아닙니다!』

회장의 처남인 명청해 보이는 남자가 말했다.

『멈출 수 없다면, 그건 고스톱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와, 하고 웃었다. 그때였다. 회장 옆에 한마디 말도 없이 앉아 있던 삐쩍 마르고 촌티가 줄줄 흐르는 노총각이 벌떡 일어나 말했다.

『멈출 수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아이고, 귀신은 뭐하나, 재들 좀 안 잡아가고.』

더 커진 웃음소리가 대합실에 가득 찼다. 그것은 태평양을 건너온 파도가 산산이 부서질 줄 알면서도 구멍이 숭숭 뚫린 갯바위에 끊임없이 몸을 들이받는 소리와 닮았다. 웃음소리는 커졌다가 작아지기를 반복하며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만 같았다.

귀태의 소식을 들은 것은 석 달 전이었다. 우야꼬, 이를 우야꼬, 엄마의 두서없는 낫두리는 섬에서부터 대구까지 차가운 구리선을 타고 와 오래된 개펄처럼 흘러 나왔다.

귀태는 등대 바우 근처 앞바다에서 시체가 되어 떠올랐다. 몸 전체가 떠오른 것이 아니라 머리만 물 위로 올라오고 나머지 몸뚱어리는 바닷속에 잠긴 채로 나타났다.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은 해변에서 망원경으로 시신을 관찰하다가 지금 바로 건져 낼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저렇게 시신이 물에서 수직으로 떠 있는 경우, 함부로 들어가 꺼내려 하다가는 같이 익사할 수 있다고 했다. 그 이유는 시신 주변 해류가 회오리처럼 휘돌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다간 그 물살에 휘말린다는 것이었다. 한참 동안 귀태는 등대 바우를 바라보며 바닷속에서 있었다. 죽은 물고기처럼 바다 위를 이리저리 떠다니는 자식을 향해 귀먹 아저씨는 울부짖었다. 물의 움직임이 바뀌어 시신이 하늘을 보고 눕자 그제야 경찰은 수습에 들어갔다. 귀태의 몸

은 통통 불어 고무풍선처럼 변했다. 팔과 다리에는 미역 줄기가 칭칭 감겨 있었고 피부에는 바위에 부딪혀 생긴 푸르스름한 검은 멍이 여기저기 보였다. 두 눈은 이미 물고기 밥이 되었는지 오랫동안 낙숫물에 침식된 땃돌 구멍처럼 황망히 뿔 뿔러 있었다.

경찰은 전날 비가 많이 와 미끄러워진 등대 바우 주변에서 발을 헛디뎠던 떨어진 단순 실족사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그가 왜 한창 전망대 공사를 하던 그곳에 올라왔는지, 일할 때 입는 작업복이 아닌 낡은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있었는지는 설명하지 못했다.

직원이 선착장으로 향하는 출입구로 다가갔다. 배를 기다리던 사람들도 직원을 따라 우르르 일어나 줄을 서기 시작했다. 허리춤 열쇠 꾸러미에서 하나를 꺼내 입구 자물통에 끼웠다. 탕, 하는 충소리를 내면서 자물통이 풀렸다. 철문의 묵직한 몸체가 그르렁거리며 좌우로 갈라졌다. 비척지근한 바닷바람이 안으로 밀려왔다. 하늘에서는 굵은 철사 같은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다.

- 지금 비가 많이 오니 좀 기다렸다가 승선하겠습니다.

직원이 외쳤다. 떨어지는 비가 문 위 처마에 부딪혀 시끄러운 소리를 냈다. 부서지며 통겨진 빗물이 출입문 맨 앞줄 서 있는 사람들에게 분무기 물처럼 뿌려졌다. 젊은 여자 한 명이 새로 한 머리가 망가질까 봐 두 손으로 떨어지는 빗물을 막으며 구시렁댔다.

재인은 길게 줄을 선 검은 실루엣의 행렬을 뒤에 앉아 바라보았다. 사람들 손에는 육지의 과일, 야채, 육포 같은 선물 꾸러미가 들려 있다. 밖에서 안으로 불어오는 비 맞은 조풍에 바다 생물의 향이 섞여 있다. 속이 울렁거렸다. 구역질이 났다. 틀림없이 모든 것이 낯설게 변한 것일 게다. 비린내도, 바닷바람을 맞는 것도, 배를 타는 것도, 섬으로 가는 것도.

도식이 돌아왔다. 몸에 묻은 비를 털며 말했다.

- 뭘 그렇게 궁금한 게 많은지, 학생들이 붙잡고 놔주질 않네. ……재들도 우리랑 같은 섬에 간다는데? 관광 안내 팸플릿도 하나 받았어. 여기 전망 죽이지 않



아? 우리도 이곳에서 사진 좀 찍어야겠어.

팸플릿 안에는 섬에 대한 소개가 적혀 있었다. 등대 모양의 섬 전망대는 반드시 가 봐야 할 남해 9대 명소 중 하나로 올라와 있었다. 별이 모래처럼 뿌려진 밤하늘, 송곳으로 뚫은 듯 구멍 난 어둠과 청초하게 빛나는 별빛, 일몰의 태양처럼 타오르는 빨간 등대. 하얀 갈매기, 푸른 바다. 그 아래 환하게 웃고 있는 연인의 사진이 있다. 사막을 굴러다니는 회전초처럼 덩그러니 내던져진 한 줄의 광고 카피가 보였다. 전설의 등대섬에서 영원한 사랑을 확인하세요.

시간이 지나도 비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고개를 숙여 바닥을 본다. 수도 없이 마대 자루로 닦아냈을 대합실 바닥엔 지워지지 못하고 변하지도 않은 검은 발자국들이 있었다. 이곳을 스쳐 간 늘비한 발의 흔적은 출입문을 향해 간단없이 이어져 있다. 사람들은 여전히 섬으로 가는 배를 기다린다.





Essay





## 등대쪽으로

\* 제2회 등대문학상 가작 / 수필  
김 유 석 (제주시)



오형(兄)을 알게 된 뒤 바다 수영에 도전하기로 했다. 오형은 수영장에서 단연 눈에 띄었다. 마흔 다섯 살인 그는 접영으로 세 시간 넘게 안 쉬고 역영을 펼쳤다. 속도도 빨라 그의 앞에서 길을 막던 이들은 미안해서 레인을 옮겼다. 나는 그의 뒤를 따라 몇 백미터 수영하다가 뒤처지곤 했다. 수영장 사우나에서 알몸으로 그를 만났다. 그는 해녀의 아들이었고 바다 접영 10km 아시아 기록 보유자였다. 태평양의 꿈에서 열릴 국제 수영대회에 대비해 훈련 중이었다. 그는 내게 바다 수영을 하자고 제안했고 나는 수용했다.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너는 물에서 죽을 팔자니 절대 물에 들어가지 마라”고 말하곤 했다. 어린 시절 강가에서 살 때 동네형이 물에 빠져 죽었다. 나무 벌목을 위해 강을 자갈로 가로 질러 막아 길을 냈는데 비가 오면 길은 수면 아래 잠겼다. 형은 물이 발목까지 차는 길을 건너다가 떠내려 갔다. 외아들의 어머니는 아들을 잃고 미쳐 물길에서 옷이 젖는지도 모르고 앉아 있곤 했다. 어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해 나는 어머니 몰래 강가에서 수영했다. 고교 진학으로 집을 떠날 때, 어머니는 절에 가서 점을 쳤고 “열일곱 살에는 정말 위험하니 물가에 가지도 마라. 네 외삼촌도 네 나이 때 물에 빠져 죽었어”라고 당부했다. 정말 나는 그후 십여년 간 물에 가지 않았다.

오년쯤 전에 친형이 강에 놀러 갔다가 익사할 뻔한 후 어머니의 점을 핑계로 한 수영금지 당부는 또 시작되었다. 그러나 형이 산소 탱크 안에 실려가고 겨우 뇌

기능 상실을 피한 후 수영을 시작했듯이 나도 그때부터 수영 강습에 등록에 정식으로 수영을 배웠다. 일 때문에 올해 초에 제주에 왔고 주말마다 취미 삼아 수영장에 나갔다. 어머니는 이제 늙어 허리가 굽었다. 언제까지 막내 아들이 물가에 갈까 걱정하게 할 수는 없었다. 강보다 더 깊은 바다에서 마음껏 헤엄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어머니는 안심할까. 해녀의 아들이라 바다를 헤엄친다는 오형. 나의 어머니는 해녀도 아니고 온종일 담배 타고 콩밭 매는, 시퍼런 물이 무서운 내륙의 농부다.

오형의 지시에 따라 40만 여원을 주고 슈트를 샀다. 우선 수영장에서 슈트 적응 훈련을 했다. 수영장 물이 미지근해 슈트에 땀이 흠뻑 났다. 바다에서 헤엄치면 시원하겠지. 불안과 객기 섞인 기대는 커져 갔다.

그러나 막상 바다 적응 훈련을 위해 방파제에 가서 시퍼런 바닷물 앞에 서니 겁이 와락 났다. 시퍼런 바다야 배 타고 다닐 때도 보고 해안 절벽 위에서도 보아 왔지만 내가 들어갈 곳이라 여기니 느낌이 달랐다.

“물에 대한 겁을 없애야 해. 수영장은 잊어버려. 여기는 해파리 득실대고 검은 해초 무성한 바다다!”

오형이 일행 여섯에게 소리쳤다. 이미 바다 수영 경력이 있는 이들이 먼저 뛰어 들었다. 눈매 선한 동네형이 열두 살 때 죽었던 물, 외삼촌이 열일곱 살에 빠져 죽은 물, 긴장한 형이 죽을 뻔했던 시퍼런 물에 나도 따라 뛰어 들었다. 시퍼런 물이 몸을 에워쌌고 발 아래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물이 자꾸 다리를 잡아 당겼다. 유월의 물은 목 언저리에 닿아 차가웠다. 동료들이 내 옆에 바짝 붙었다. 두려움이 조금 가셨다. 방파제 주변을 돌기로 했다.

“팔 쪽쪽 앞으로! 잔물 먹었다고 당황하지 말고, 그 정도 먹어도 안 죽는다!”

오형이 바다 쪽에서 돌며 일행의 사기를 북돋았다. 물 속에 있을 때 사람의 말 소리가 위안이 되는 줄 처음 알았다. 방파제 훈련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이주 쯤 지나 통통선을 하나 빌려 원해(遠海) 적응 훈련을 하기로 했다. 해안에서 3km 정도 나갔다. 수심은 4-50미터 가량 되었다. 우리는 배에서 1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설치한 부표를 돌아 파도를 거스르며 돌아와야 했다. 혼자 바다에서 너울성 파도에 당황하지 않고 헤엄치는 것이 훈련의 최종 목적이었다. 오형이 맨

먼저 바다에 뛰어들어 자유형과 평형을 섞어 부표를 확인하며 헤엄쳐 나갔다. 부표를 돌 때 쯤에 다음 영자(泳者)가 뛰어 들었다. 나는 맨 마지막에서 두번 째에 뛰어 들었다. 수경이 비친 바닷속은 1-2미터 정도 너머까지 보였고 빛 알갱이 섞인 청색을 띠었다. 시야가 그 정도에 끝나자 겁 날 것도 없었다. 물에 대한 두려움을 정복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8월 말, 이호테우 해변에서 4km 바다물개 수영대회가 열렸다. 그동안 수영장에서 장거리 연습도 많이 했고 오형의 격려로 사기도 바짝 올랐다.

“우리 엄마가 사납매 키우려고 잠수병 걸려가며 물질 하던 거 그거 잊지 않으려고 나도 이렇게 물질한다.”

그래, 나도 어머니를 위해 수영을 하자. 일찍 남편 잃고 폭풍 치는 바다 한 가운데서 닦도 닦도 잃은 배처럼 살아온 어머니를 위해. 그 바다에 자식 빠질까봐 노심초사하던 어머니의 근심을 위해.

출발이었다.

삼백여 명의 '물개'들이 방파제 옆 해수욕장에서 바다에 뛰어 들었다. 해안에서 2km 떨어진 바다에 배 한 척이 떠 있었다. 그 배를 돌아오면 되었다. 무리의 중간에 있으려고 했지만 초보라 어쩔 수 없이 뒤처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끝간 데 없이 바다로 헤엄쳐 나가면 돌아올 때는 어찌란 말인가. 수영장에서 4km 돌 때와 전혀 다른 상황이었다. 바닷물이 유난히 검었다. 훈련 때와는 다르게 시야 확보가 십여 미터는 되는지 바닥의 검은 수초와 현무암이 끝을 알 수 없는 칠흑으로 비쳤다. 우무질 더미 같은 해파리 떼가 얼굴에 밀려왔다. 미끈한 촉감에 기분 나빴다. 뺨에 쏘이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되었다.

배를 돌 때 쯤에는 내 뒤에 아무도 없었다. 따라잡아야 한다. 무리와 함께 가야 한다. 그러나 망망대해에 혼자 남겨지고, 멀리 왔던 그 물길을 다시 돌아가야한다고 생각하니 힘이 쭉 빠지기 시작했다. 남은 2km야 평소 실력으로는 30분이면 갈 수 있었지만 조건이 달라졌다. 물 속에 20년도 전에 죽은 동네형과 얼굴도 모르는 외삼촌이 살고 있을 것 같았다. 물에서 죽은 사람은 영영 물에서 산대. 누군가 말

했었다. 저수지에 빠진 사람을 구하러 갔는데 그 사람이 나올 생각은 않고 물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웃고 있었다. 나중에 물으니 물속이 편안했다. 나도 이제 편안해지는 건가.

“힘 빠지고 당황될 때는 방파제 끝 등대만 바라봐. 그것만 보고 헤엄쳐. 아무 생각 말고.”

오형이 했던 말이 번뜩 들렸다.

빨간 등대가 저 멀리 있었다. 방파제 위에 우뚝 서 있었다. 방파제에서 낚시할 때 그저 햇볕을 피하는 원통 기둥으로 삼았던 등대가 믿음직스럽게 서 있었다. 시퍼런 물만 보았던 나는 그 빨간색에 이상하게도 마음이 진정되었다. 폭우가 내리고 거센 풍량이 일 때 검은 어둠 속에서 밝은 빛을 비춰 배를 인도하듯이 나는 등대의 마중에 기대 헤엄쳐 나갔다. 저기만 가면 살 수 있어. 등대는 사람 살리려고 서 있지. 그래 나도 사는 거야. 등대를 믿자. 물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엄마에게 전화를 해야겠다. 팔을 앞으로 쭉쭉 뻗었다.



## 엄마의 밤바다, 그리고 등대

\* 제2회 등대문학상 작 / 수필  
김 현 주 (서울특별시)



여차몽돌해변. 이름도 생소한 거제의 작은 해변이 이번 우리 가족여행의 행선지다. 기억도 나지 않는 어릴 적에야 가끔은 가족소풍이란 걸 다녔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기억하는 한에서는 이번이 세 번째에 해당하는 가족여행이다. 남들은 해마다도 모자라 철철이 다닌다는 여행을 우리 가족은 겨우 세 번 채우는 데 30년이 넘게 걸렸다. 그래서인가 모두들 대놓고 말은 안하지만 평소보다 들뜬 말투와 숨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운다. 게다가 충북에서도 북부에 가까운, 말하자면 생전 바다구경 할 일 없는 산골도시에서 온 네 식구가 거제도를 둘러싼 남쪽바다의 웅장함을 보기 시작하니 설레임은 더 이상 감출 수 없이 입으로 새어나온다. “와, 이게 진짜 바다구나!”

바다를 끼고도는 굽이굽이 산길을 돌고 돌아 드디어 여차몽돌해변에 도착했다. 마을 전망대라 할 수 있는 펜션에 쟁여온 짐을 던지듯 풀어놓고 일단 바다부터 본다. 때마침 해가 질 때라 해변을 품에 안은 마을의 풍광은 거제 초행길의 피로를 단숨에 날릴만큼 아름답고 아름답다. “삼겹살 구워야지” 노을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자 엄마는 저녁준비를 재촉한다. 엄마를 거들어 저녁거리가 담긴 짐을 푼다. “아니, 뭘 이렇게 많이 싸왔어?” 한 눈에 봐도 비싸보이는 질 좋은 삼겹살에 취향대로 맘껏 골라먹을만큼의 푸짐한 각종 쌈, 쌈장, 마늘, 파절이, 버섯, 심지어 삼겹살과 같이 구울 묵은지까지 엄마는 단단히도 준비해 오셨나보다. “멀리까지 온 여행인데 잘 먹어야지.” 집에서 먹는 거와 진배없는 저녁상을 보다보니 엄마가 이번

여행에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큰 지 새삼 느껴진다. 문득 엄마의 얼굴이 펜션 베란다까지 들어찬 노을빛에 포개져서 바알갛게 상기되어 보인다. 난 갑자기 코끝이 시린다.

생각해보면 우리 엄마는 시집을 잘못 온 경우다. 외갓집에 아직 남아있던 엄마의 젊은 시절은 너무나도 소녀스럽기 그지없었다. 서울 한복판에서 마냥 꿈이 영글던 한 아가씨의 인생은 산골 어느 남자에게 시집오면서 단숨에 바뀌기 시작한다. 소설책처럼 낭만적인 결혼을 꿈꿨던 한 여자에게 뻘뻘하게 나무만 가득한 산골에서의 시집생활은 숨조차 쉬기 어려울 정도로 갑갑했을 거다. ‘도망치려고 생각했을 때 네가 들어섰지.’ 오래된 전래동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를 이전에 엄마는 한 적이 있다. 가볍게 툭 던졌던 그 말에 나는 차가운 얼음에 손이 데인 것처럼 깜짝 놀랐다. 엄마의 갑갑한 현실의 출발이 어찌면 나왔겠구나 하는 마음에서다.

현실은 엄마의 생각보다 더 추웠던 것 같다. 30년간 가족 여행 세 번을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만 놓고봐도 살림살이의 고단함은 이미 설명되고도 남는다. 아버지는 성실했지만 가난을 쉽사리 피하기가 힘들었다. 엄마는 내가 4학년이 되면서부터는 도시 외곽에 있는 작은 부품회사에 나가기 시작했다. 엄마 역시 성실했다. 24시간 돌아가는 부품공장이었기에 나와 동생은 가끔은 엄마없이 자는 법도 익혀야 했다. 나는 돈이 더 들까 무서워 절대 무언가를 사달라고 떼쓰지 않았다. 대신 용돈을 아껴 통장에 꼬박꼬박 넣었다. 그 나이 때 아이들이 좋아하던 떡꼬치도 내게는 엄마없이 자는 밤을 늘려야 하는 사치품이었다.

다행히 난 공부를 제법 잘 하는 편에 속했다.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에 가는 것만이 갑갑한 현실을 한 순간에 벗어날 수 있는 지름길이라 생각했다. 아니, 정확하게는 나에게 그런 생각을 심어준 건 엄마였다. “공부 열심히 해야 해. 안그러면 엄마처럼 살아야 해.” 엄마는 잔소리를 하는 타입은 아니었지만 잊어먹지 않을 정도의 간격으로 공부 얘기를 꾸준히 하셨다. 철이 없었는지 아니면 너무 철이 들었던건지 나 역시 그런 엄마의 말에 고개가 끄덕여졌다. 그 시절 나는 엄마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미래를 볼 수 있는 희망이었던 셈이다.



그만큼 우리 가족의 현실엔 여유가 없었다. 엄마는 늘 대출금 잔액을 확인했다. 갚아도 갚아도 줄어들지 않는 대출금 잔액 통장을 엄마는 몇 번이나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대출금 잔액이야말로 딱 엄마의 현실이었던 것이다. 나와 내 동생이 대학을 가자 대출금 잔액은 더 늘어났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엄마의 희망 역시 부풀어갔다. 명문대 입학에 성공한 딸이 취직만 하면 현실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고 계셨다. 하지만 대학을 졸업한 나는 곧바로 취직하지 않았다. 나는 방송국 시험 준비에 한가하면서도 마음만은 바쁜 나날을 보내기 시작했다. 엄마의 부푼 희망은 거기서 딱 멈춰버렸다.

“엄마, 나도 데려가. 나도 데려가라고!” 어느 새벽이었던가. 방송국 시험을 준비한다고 집에 내려와있던 나에게 엄마의 비명이 들렸다. 엄마는 꿈을 꾸고 있었다. 감은 두 눈에는 눈물이 흘러내렸고, 비명은 멈추지 않았다. 나는 순간 숨이 막혔다. 설명할 수 없는 죄책감이 밀려왔다. 엄마를 깨울 수도 없고 지켜볼 수도 없었다. 엄마의 갑갑한 현실은 여전히 나 때문이구나 싶었다.

“이거 다 먹고 밤에는 해변에 나가서 시원하게 앉아 있자.” 냉장고에서 꺼낸 시원한 맥주 캔을 벌럭 들이마시며 아버지가 말한다. 그 말에 밖을 내다보니 자그마한 해변이 동그랗게 활처럼 휘어져있고 한 쪽 끝엔 방파제가 또 한 쪽 끝엔 산자락이 장식처럼 어우러져 있다. 시원한 바닷바람이 몰아치듯 들어온다. 시원한 바람에 취한 건지 차가운 맥주에 취한 건지 이 모든 게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우리 식구가 이렇게 아름다운 가족 여행을 올 수 있다니, 세월이 흘러도 많이 흘렀구나 하는 안도감에 마음까지도 취해버린다.

해변가의 밤은 더욱 몽환적이고 시원하다. 우리 네 식구는 바다 안쪽에서 불어오는 바다안개에 둘러싸여 그 낭만을 흠뻑 즐기고 있다. 방파제 끝자락에 등대가 서 있다. 밤이 되니 불빛이 들어온다. 교과서에서만 보던 등대를 이렇게 처음 본다. 생각하니 뭔가 감동적이다. 누군가 저 등대를 보고 오늘도 무사히 밤바다를 건너겠구나. 등대를 마냥 바라보다 내 앞에 앉아 있는 엄마 등에 머리를 풀썩 기대본다. 그리고 보니 엄마의 밤바다는 이제 사라진건가 갑자기 궁금해진다. 분명 내가

엄마에게 저 등대처럼 빛이 되던 때도 있었을텐데, 지금 엄마의 등대는 어떤 것일까. 궁금한 것들이 연달아 이어지지만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겠다. 나는 한없이 깊은 밤바다와 그를 바라보는 등대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싶다.



## 속초등대의 추억

\* 제2회 등대문학상 가작 / 수필  
박 원 중 (서울특별시)



강원도 속초에는 아버지의 사촌 여동생, 그러니까 나에게는 고모 되시는 분이 아직도 생존해 계신다. 아버지는 이미 오래 전 세상을 떠났지만, 이남에 있는 아버지의 거의 유일한 혈육이 바로 이 고모님이다.

아버지의 고향은 원래 함경도 북청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해방 이전에 고향을 떠나 홀로 서울로 유학 와 살았다. 그러다가 해방 이후 남북이 분단되고, 갑자기 6·25 전쟁이 나는 바람에 아버지는 고향에 있던 부모와 친형제들을 다시는 만날 수 없게 되었다. 안타깝게도 아버지의 부모와 친형제들은 단 한 분도 월남하지 못했던 것이다.

단지 이 고모님만이 6·25 전쟁 때 남편을 따라 월남할 수 있었는데, 고모와 고모부는 6·25 전쟁이 끝난 뒤 고향으로 돌아갈 길이 막히게 되자 할 수 없이 함경도 일대에서 피난 나온 사람들과 함께 고향과 가까운 속초시 영랑동에 집을 짓고 살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아버지는 고향과 고향의 가족이 그리울 때면 속초의 고모님을 찾곤 했다. 그러면서 고향과 가까운 속초 앞바다를 바라보며 고향과 고향의 부모, 형제들을 그리워했다. 또 고모님이 해 주는 고향의 음식들, 이를테면 명태 찌개나 명태 순대, 가자미 식혜 같은 음식들을 들며 고향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나 또한 속초와 속초에 있는 고모님 집을 자주 가게 되었는데, 바닷가에 있는 영랑동 고모님 집을 찾게 되면 고모님 집 바로 옆에 있는 하얗고 아름다운 속초 등대

가 맨 먼저 눈에 들어왔다. 그 등대가 마치 나를 반기듯 맞아 주는 것 같기도 했다.

바닷가 언덕 위에 우뚝 서 있는 이 속초 등대는 언제 보아도 아름다웠고, 신비스러우면서도 이국적인 느낌마저 갖게 해 주었다. 특히 둥그런 형태를 한 등탑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이 속초 등대의 전망대로 이르는 계단을 따라 올라가서 보면, 넓은 바다와 속초 시가지가 손에 잡힐 듯 한눈에 내려다보였다. 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설악산은 말할 것도 없고 멀리 금강산 부근까지 펼쳐진,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었다. 가슴이 확 트이는 듯했다.

계다가 바로 눈 아래로 동명항(東明港)과 고풍스러운 모습의 영금정(靈琴亭)도 보이는데, 바닷가 암반 위에 위치하고 있는 영금정에서 바라보는 바다 풍경은 너무나 멋지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일출은 실로 장관이다.

그런데 원래는 이 영금정 일대가 커다란 바위산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바위산의 날카로운 암벽 사이로 파도가 칠 때마다 신비스러운 거문고 소리가 들렸으며, 산꼭대기에는 마치 정자를 닮은 바위가 있어서 이곳을 영금정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 온다.

그러나 일제 식민지 시대 때 속초 등대와 속초항 방파제 등을 짓는 데에 필요한 골재를 얻기 위해 이 바위산은 폭파되고 말았으며, 그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속초 등대 아래 쪽 바닷가 바위 위에 다리를 연결하여 정자를 지은 것이 바로 오늘날 볼 수 있는 영금정이라고 한다.

나는 속초에 가서 등대를 바라보면서 문득 등대는 곧 희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

왜냐하면 등대야말로 어두운 바다에 떠 있는 무수한 배들과 그 배에 탄 선원들에게 아주 밝고 강렬한 빛을 통해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알려 줄 뿐만 아니라 짙은 안개나 폭풍우 같은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이를 피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물론 두려움을 없애 주고 용기와 희망을 갖게 해 주는, 꼭 필요하고도 아주 소중한 존재로 여기기 때문이다.

사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과도 같은 어둠이나 짙은 안개, 혹은 비바람이

휘몰아치는 폭풍우 속에서도 배와 선원들이 방향을 잃지 않고 안전하게 항해하여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바로 등대의 역할이다. 무섭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다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힘도 되고, 밝은 등불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곧 등대가 아니겠는가.

밤의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언제나 변함없이 의연한 자세로 빛을 잃지 않고, 오히려 어둠이 깊을수록 더욱 빛을 발하는 등대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그런 모습의 등대가 웬지 믿음직스럽게 느껴지기도 한다. 이와 함께 어머니의 애로운 품안 같은 따뜻함과 안락함도 느껴진다.

그러면서 등대의 그 밝은 불빛이 우리 사회와 우리들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어둠까지도 비추어 우리 사회를 보다 밝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을 환하게 밝히는 빛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도 해 본다.

날이 어둡거나 짙은 안개가 끼었든,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몰려오든, 혹은 더위나 혹한이 계속되든 결코 게으름을 피우거나 멈추는 법 없이 늘 밝고 강렬한 빛으로, 때로는 멀리까지 울려 퍼지는 구성진 소리를 통해 항해하는 배들과 선원들에게 더 없이 소중한 베풀어 주고 있는 저 등대들과 자신의 존재는 구태여 드러내지 않은 채 등대나 등대와 관련된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의 노고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고마움 또한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다.



## 해맞이 언덕

\* 제2회 등대문학상 작자 / 수필  
서상호 (울산광역시)



산에 잔설이 남은 3월이었다. 처가 쪽 형제들이 아내의 승진을 축하하려고 부동반으로 울산 정자를 찾아왔다. 오랜만에 가본 정자는 짹짹한 갯내음이나 무척 좋았다. 정자항 방파제 끝에는 두 개의 등대가 서 있고, 포구에는 출항을 기다리는 배가 정박해 있었다.

“동해 바다는 거칠 것 없어 좋다니까. 망망대해 좀 봐. 가슴이 탁 트인다 트여.”

처가 쪽 형제들은 호수 같은 남해를 보다가 탁 트인 동해를 보면서 좋아라 했다.

식당에서 대개 파티로 점심을 먹은 후 영덕 고래볼로 향했다. 그곳 펜션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정을 쌓은 친척들은 동해안을 따라 구경하면서 가자고 했다. 가까운 영덕 창포말 등대에 가장 먼저 들리기로 했다. 해안을 따라난 구불구불한 도로에는 운치가 있었고, 동해를 바라보며 드라이버를 하던 친척들은 시원한 풍경에 모두가 좋아라 했다.

일행은 창포말 등대에 주차했다. 그곳은 벌써 많은 사람이 동해를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창포말 등대는 게 집게발 모양과 붉은 등탑, 하얀 몸체를 한 특색 있는 등대였다. 이곳 특산물인 영덕대게를 상징하고 있었다. 우리는 등대와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좁은 실내 계단을 따라 등대 전망대를 올라가 보았다. 전망대에서 망망대해를 바라보며 시원함과 낭만적인 풍경을 즐겼다. 나는 바다를 바라보다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러다가 “아~, 그때 그곳!” 나는 놀랐다. 지근거리에 있는 해맞이 언덕은 잊고 지나간 지나간 아름다운 추억을 떠올리



게 했다.

30여 년 전, 나는 스물일곱 청년이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 야간대학을 다니며 힘든 나날을 보냈다. 불규칙한 식사로 위장병을 얻었고 치료를 위해 직장 인근 의원을 찾았다. 그곳에는 긴 생머리에 예쁘고 친절한 아가씨가 있었다. 나는 치료 차 뒷날 다시 찾아가 신분을 밝힌 후, 휴일 함께 그룹 야유회를 가자고 했다.

며칠 뒤 좋다는 전화가 왔다. 여름이 시작되는 6월 초였다. 남자 3명, 여자 3명은 인근 계곡에 야유회를 갔다. 계곡에 도착해 여장을 푼 후 각자의 소지품으로 파트너를 정했다. 나는 그녀와 짝이 되지 않자 아쉬운 마음을 계곡 물에 뛰어들어 물을 첨병이는 이상한 행동을 했고 모두가 웃었다. 그곳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울산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시외버스 정류장에 버스가 잠시 정차하는 동안 나는 가판대에서 '샘터'한 권을 사 그녀에게 주었다. 이후 둘은 가까워졌고 마음을 주고받으며 순수한 사랑을 키워갔다. 교인이었던 둘은 욕망적인 사랑은 죄악이라고 생각했고, 만나면 좋은 대화를 나누며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애뜻한 마음을 나누었다.

어느 날 그녀는 고향인 '강구'를 가자고 했다. 일요일 둘은 버스를 타고 그녀의 고향으로 향했다. 나란히 앉아 차창으로 바다를 보면 나누는 이야기는 행복했다. 처음 가본 강구는 강과 바다가 어우러진 정겹고 아름다운 곳이었다.

그녀는 나에게 등대가 있는 방파제로 가자고 했다. 방파제 끝에는 붉은 등대가 있었고 둘은 그 아래 앉았다. 그녀는 잠시 뜸을 들인 후 이곳에 온 이유를 이야기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몇 년 전 운명을 했고 화장해 이곳 바다에 뿌렸단다. 엄마가 그리우면 이곳 등대를 찾아온다면 눈시울을 붉혔다. 나 또한, 고등학교 때 어머니의 죽음을 겪었기에 그녀의 슬픔이 동감됐고 감정 이입으로 울컥해 왔다.

지나간 슬픔을 가슴에 담다가 그녀는 해맞이 언덕을 가자고 했다. 높은 언덕에서 바라본 바다는 은빛 비늘을 번득이며 보석을 뿌려 놓은 듯 아름다웠다. 둘은 수평선 끝 먼 바다를 바라보다가 언덕 아래 바다 가까이 가 보자고 했다. 비탈길을 내려오다가 바다 가까이 있는 의자에 앉았다. 파도는 갯바위에 부딪히며 물보라를 만들었고, 철썩이는 파도 소리는 정겨웠다. 흰 갈매기 한 마리가 외롭게 어디론가

날아가고... 둘은 별말이 없었지만, 가슴으로는 포근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긴 생머리에 예쁜 그녀는 볼수록 사랑스럽고 애뜻했다. 두 눈을 보고 있는 나는 그녀의 은빛 바다에 깊숙이 빠져들었다.

눈빛을 마주 보며 보내는 행복한 시간은 어느덧 해가 서산으로 기울고 울산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다. 시외버스를 타고 울산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나를 부르다가 머뭇거렸다. 뭔가 할 이야기가 있는 듯했고 미안해하는 눈빛이었다. 한참 뜸을 들인 후

“...저, 곧 있으며 서울로 가야 해요. 서울 가면 우리 만나기 어렵겠죠?”

그녀는 슬픔이 배인 낮은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무슨 일이에요. 왜 서울에 가야 해요? 안 가면 안 되나요? 울산에 같이 있어요.”

나는 놀라며 간절히 말했다. 그녀는 서울에 직장이 새롭게 정해졌다면 그곳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했다.

며칠 후 그녀는 서울로 떠났고... 나는 울산으로 돌아오라고 장문의 편지를 썼다. 며칠 뒤 그녀의 답신이 왔다. 다시 울산으로 내려가겠다고... 하지만 약속한 날 그녀는 결국 오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가자 아팠던 나의 마음도 차츰 추슬러졌다.

일 년의 시간이 흐른 뒤, 그녀는 나를 찾아와 약속을 못 지킨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결혼을 약속한 남자가 있었고 그가 서울로 떠나자 그를 따라 떠나갔다. 하지만 성격차이로 고심하던 끝에 울산으로 다시 돌아가려던 차, 운명의 장난일까, 서울을 떠나려던 밤 외동이던 남자의 어머니가 갑자기 운명했고, 그녀는 혼전 머느리로 소복을 입었다. 장례 치른 후 더는 나를 만나서는 안 된다는 양심 소리에 울산으로 내려올 수 없었다. 결국 그녀는 그 남자와 결혼했고 가정을 이루었다. 이야기를 마친 그녀는 나에게 미안해하면서 기억 속에서만 간직해 달라고 했다. 난 두 남자를 오간 그녀의 이야기에 화가 났지만, 행복하게 잘 살라고 마지막 인사를 나눈 후 그녀를 떠나보냈고 영영 헤어졌다.

나는 창포말 등대에서 해맞이 언덕을 바라보면서 30여 년 전 그녀와 나누었던

애뜻한 사랑과 지나간 추억이 가슴에 되살아나 아려왔다. 그녀는 지금 어느 하늘 아래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행복하게 잘 살고 있겠지. 그리움이란 이런 것인가...

언덕을 바라보면 생각에 잠겨 있는 나에게 친척 한 명이 "이제 내려가자, 춥다," 하면서 재촉했다. 나는 추억을 뒤로 한 채 그곳을 떠나왔다.

## 등대, 너 거기 있었니?

\* 제2회 등대문학상 가작 / 수필  
서은정 (경기도 남양주시)



올해 날씨는 참 이상하다. 한여름에 그동안 듣도 보도 못한 '마른 장마'로 건조했고, 비교적 덥지 않은 여름을 보냈다. 남쪽 지역에서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곳도 있지만 내가 살고 있는 남양주는 아주 감사하게 무사히 여름을 냈다. 그러나 때이르게 찾아온 저온 현상은 면역성이 약한 우리 아이들에게 감기라는 질병을 빨리도 가져다 주고 있다. 소리 소문 없이 가을은 깊어져서 주위를 둘러보면 그 어느 때보다 잣이며 밤이며 온갖 과실이 풍년이고, 청명한 하늘은 사람을 싱송송하게 만든다. 이 하늘 빗칼에 물들어 산에는 어김없이 곧 단풍이 들겠지? 지금쯤 제주의 하늘과 바다는 어떤 빛을 띠고 있을까? 그러고 보면 이 계절에 제주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나의 시택은 제주도다. 2001년 9월에 결혼했으니, 결혼한 지 벌써 만 13년이 되었다. 그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시택이 제주라는 소리만 듣고도 어찌나 부러워 했는지 모른다.

“시택이 제주도? 우와, 좋겠다. 부럽다!”

그럼 나는 여지없이

“시택이거든요... 시택에 가면 제주인지 부산인지 춘천인지도 모르고 있다 온다고요.”

정말 그렇다. 아니 정말 그랬다. 그나마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큰 요즘은 몇 군데 제주를 느끼고 오니 요즘은 그래도 시택이 제주라서 부러움을 받을만 한 것도 같다.

시택이 제주라고 하면 사람들은 또 묻는다.

“제주 어디가 좋아요? 어디 갈만한 데 좀 알려 줘요.”

그럼 나는 대략 난감해 하며

“2박 3일이나 3박 4일로 제주 여행 다녀온 사람한테 물어 보세요. 저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잘 알려 줄 거예요.”

대부분의 육지 사람들(제주에서는 육지라는 말이 자연스럽다.)한테 제주는 관광지다. 그러나 제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주는 그저 생활 터전일 뿐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낭만의 섬, 여행의 섬인 제주가 내게는 생활 터전에 걸쳐 있는 만큼 그저 시택일 뿐인 것이다. 그래서 정말 관광지로서 제주를 소개할 만한 꺼리가 내게는 별로 없다. 그렇다고 나의 제주에서의 시택 생활이 그렇게 삭막한 것은 아니다. 육지 사람으로 제주를 맘껏 둘러보고픈 마음이 굴뚝같기는 해도 오랜만에 만난 시어머니와 시아버님 흥도 듣고, 남편 흥도 보면서 알콩달콩 이야기 꽃을 맘껏 피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주를 방문할 때는 설날, 추석, 여름 휴가 딱 이렇게 3번이기 때문에 항상 부산스럽다. 설과 추석에는 장보고 차례 음식 만들고, 차례 지내고, 대가족이 모여서 먹고 치우고를 여러 번 반복하다보면 명절이 끝난다. 그리고 여름 휴가는 아이들에겐 바다만한 놀이터가 없는 지라 바다만 날마다 가다가 끝이 난다. 그것도 시택에서 가장 가까운 바다만.....

그런 나에게 이번 추석에 잇을 수 없는, 간직할 수 밖에 없는 선물이 있었다. 어느 평범한 날 아침, 시택에서 부엌 아침을 느끼면서도 잠의 끝자락을 잡고 있는데 남편이 조용히 나를 깨웠다. 아침 산보를 가자는 것이다. 더 자고 싶기도 했지만 아침 산책을 함께 하고 싶어 하는 남편의 마음을 알기에 잠을 쫓고 일어나 동행을 하게 되었다.

시택 근처엔 제주 올레길 코스 중의 하나인 사라봉이란 곳이 있다. 바다가 다 내려다 보여 사라봉 경치가 좋기는 하지만 새로울 것은 없기에 시큰둥하게 사라봉을 향해 걸었다. 그런데 자다가 금방 일어나 움직여 그런지 아침 산책이면서도 몸에 생기가 도는 느낌이 안 들고 매우 힘들기만 했다. 남편에게 말하고 경사가 급하지 않은 코스를 찾아 이전에 가보지 않은 코스로 가 보기로 했다. 가다 보니 생뚱

맞게 느껴질 정도의 하얀 건물이, 항상 먼 발치에서만 보았던 등대가 눈 앞에 있는 것이었다. 신기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우리는 그 곳으로 다가갔다. 사람이 편히 앉을 수 있는 곳은 아니었지만 우리는 등대 옆 커다란 스피커가 있는 곳 근처에 앉아 바다를 마주 할 수가 있었다. 시원한 바람을 온 몸으로 맞으며 온 몸에 생기가 도는 느낌이 들었다. 그 곳에 하염없이 앉아 있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등대와 바다와 바닷바람과 함께 편안함을 느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지만 하염없다고 생각한 그 시간은 약 한 시간 정도.....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가족을 생각하며 아쉬움을 뒤로 하고 등대를 떠났다.

“등대”를 떠올리면 저절로 입으로 읊조리게 되고 하얀 등대와 빨간 등대가 마주 보고 있는 모습이 떠오른다. 그 동안 제법 많이 보았던 등대의 모습은 그렇다. 그리고 그 마주보고 있는 모습이 넓고 푸른 바다와 함께여서인지 괜시리 낭만적으로 느껴지고, 사진기라도 들고 있을라 치면 나도 모르게 먼 발치에서도 셔터를 누르게 된다.

그런데 이번에 내가 발견한 등대는 낭만의 등대인 동시에 배를 위한 등대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등대였고, 먼 발치에서가 아닌 내 곁에 있는 실체였다. 넓은 바다에서 배가 길을 잃지 않고 항구에 도착할 수 있도록 빛을 뿜어주던 등대가 그저 내 곁에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등대로 온전히 있어주는 것이었다. 등대는 그대로 서 있을 뿐이었는데 나의 마음은 전과 같지 않았다. 그래서 배의 마음이 되어 등대에게 고맙기도 하고, 또 온전한 내가 되어 등대에게 고맙기도 했다. 등대가 꼭 항해를 하고 있는 배에게만 길을 알려 주는 것이 아니었다. 인생의 배를 타고 있는 내게도 잠시 쉬어 갈 수 있는 쉼터도 되어 주고, 사색의 시간을 주어 인생의 지침을 마련하는 시간도 내게 준 것 같다.

다음에 제주에 가면 나는 또 그 곳에 가보려 한다. 그리고 등대에게 말을 걸 것이다.

“등대, 너 거기 있었니?”

그리고 누군가 제주택이 된 나에게 제주에 갈 만한 곳을 물어 본다면, 내가 갔던 사라봉 주변의 그 등대를 꼭 알려 주고 싶다. 그 아침 그 등대가 얼마나 특별했



는지도 알려 주면서 말이다. 그리고 나와 같이 등대에게 말 걸어 보라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할려나?

## 꿈을 비추는 등대

※ 제2회 등대문학상 가작 / 수필  
유진선 (대구광역시)



언제부터인지 아날로그라는 말이 디지털이라는 말과 함께 쓰이기 시작했다. 빨강의 반대가 파랑이 아니듯이 세상에 정 반대의 개념의 말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두 낱말의 성분은 멀고도 달랐다. 약속시각을 정하고 그 시간에 늦는 연인을 기다리던 시절, 염려와 그리움을 섞어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던 정다움은 디지털이라는 파도에 밀려 사라져 버린 것이다. 사랑의 교류 방법조차 바꾸어 버린 디지털 세상이 새삼 싫다.

오랜만에 호미곶을 찾았다. 바람은 그대로였다. 새들이 아예 자기네 놀이터인 양 자유롭게 쉬다가는 청둥 손바닥은 여전히 물속에 몸을 감추고 손만 내어주고 있었다.

먼 바다에 조형물처럼 움직이지 않는 배 몇 척이 눈에 들어온다. 순간 근처 어디선가 불빛이 반짝임을 본 것은 환영이었을까? 눈을 돌려 먼 곳을 바라보니 그제야 등대가 눈에 들어온다. 이 시대에도 물길은 등대의 불빛이 필요하다는 것이 뜻밖의 발견인양 신선하기까지 했다. 모든 것을 작은 칩 하나에 담겨 있는 정보로 해결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최첨단 기술이 있다 해도 물길에서는 등대라는 재래식 불빛에 의존한다는 사실이 반갑고 정겹다. 마치 별을 보고 낙타를 몰아 사막을 건너는 대상이 그러했듯이.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잊지 못할 사람을 만나게 된다. 인생의 행로에서 한 기점을 돌 때마다 등대가 위치를 알려주듯 신호를 보내곤 했다. 나에겐 대학 입시가 그러했다. 많은 형제 중에서도 늦둥이로 태어난 나는 부모님보다는 여섯 명의 언니 오빠가 나의 등대 같은 존재였다. 어린 시절의 나는 제법 공부에 소질을 보였다. 이십 년 터울의 큰 오빠는 내가 교수가 되기를 바랐다.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했을 때 오빠는 다른 길을 가리켰다. 국문학을 해서 교수가 되라고. 그때만 해도 국어는 내 나라 말인데 따로 공부할 것이 무엇이나는 오만이 나를 지배했다. 다른 언니 오빠도 힘을 모아 그 길을 가길 바랐지만 나는 점점 더 어긋장을 놓았다. 심지어는 그들의 바람대로 국문과에 지망해 놓고는 느닷없는 폭탄선언을 해 버렸다. 시집을 가겠다고 했다. 나를 향해 반짝이던 불빛들은 일제히 폭탄이 되어 달려들었지만 나는 유유히 그들을 외면하고 다른 길로 들어섰다. 잠깐은 짜릿했다. 마치 행로를 벗어난 배가 미지의 바다에서 신대륙을 발견하고 흥분하듯 유쾌했다. 그러나 거기까지가 끝이었다. 나를 인도 하려던 불빛들은 안타깝게 다른 배를 찾아 반짝였고 나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되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온 상태였다. 갈팡질팡했다. 오래전 오빠가 인도하던 그 길이 내가 가고 싶던 길이었던 것을 너무 늦게야 알게 되었다. 중년이 넘은 나이가 되어 비로소 날개를 꺾고 길을 찾았다. 어둠이 가득했다. 기운차게 반짝이던 불빛도 많이 희미해져 있었다. 먼지 내려앉은 등대 불빛 하나가 가리키는 곳으로 발을 내디뎠다. 그것이 늦게 시작한 글쓰기였다. 태풍을 만난 배처럼 남루한 모습으로 원고지를 마주하니 그제야 숨이 돌기 시작했다.

이제 그간 어떤 일이 내게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기쁨을 주었던, 상처를 주었던 나에게 남아 있는 것은 역사가 되어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다. 좋은 기억은 좋은 대로 아픈 기억은 아픈 대로 나머지 인생에 등대 역할을 할 것이다. 한 쪽은 두 번, 또 한 쪽은 길게 한번. 그래서 항구 쪽 등대는 서로 양쪽에 지키고 있으면서 어서 오라고 안전하다고 인사를 건넌다지 않는가. 동네 어귀에 있는 천하대장군 같은 모습으로.

멀리 보이는 곳에 또 다른 등대가 눈에 들어온다. 다 다른 모습이다. 어떤 것은 예술작품 같고 어떤 것은 유서 깊은 고택처럼 고색창연하다. 어릴 적 보았던 그대로의 모습이다. 항로의 안전에 미학을 입혔다.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했을까? 기능만 생각하던 때에 예술은 사치였다.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하다 보니 이왕이면 아름다운 기능이 선택되었으리라. 예전의 진로가 직업을 위한 길이었다면 지금 선택하는 길의 목적은 행복한 삶인 것이다.

조심스럽게 불빛의 인도에 따라 항구 쪽으로 들어서 본다. 난파선처럼 지친 모습도 보이고 만선의 깃발이 우쭐대는 배도 보인다. 최신 장비로 항해하는 타이타닉보다 느릿느릿 나가는 고깃배를 택해본다. 최신이 최상은 아니라고 나의 등대 불빛은 깜빡이며 속삭인다.

소리 없이 스며들어 목숨을 앗아가는 연탄가스보다 위험한 것은 편리와 신속함이라는 달콤한 위장술로 내 정서를 홀어 놓는 디지털이라는 놈인 듯하다. 스마트하다는 유혹을 앞세워 문명이라는 그럴싸한 핑계를 대며 막상 누군가 길라잡이가 되어 빛을 보낼 때도 알아채지 못하기 일쑤였다.

어느 틈에 내려앉은 검은 바다 먼 곳에 등대의 불빛이 무심하다. 깜빡이는 불빛이 시골처녀의 눈짓 같다. 디지털하고는 다르게 좀처럼 중독되는 일이 없는 아날로그라는 굼뜨고 촌스런 방식이 등대에 남아 있는 듯 느껴진다. 때로는 길게 때로는 요염하게 흔들리는 불빛이 화롯불 쪼이는 그때로 데려간 듯 회상하는 것마저 가슴 언저리가 따뜻하다.



## 그대, 등대로 오라

\* 제2회 등대문학상佳作 / 수필  
이 정 혜 (서울특별시)



기이한 경험이었다. 도시에서는 한번도 겪지 못한 감정이 분명했다. 2012년 가을, 어느 항구에 있던 등대에 서 있었다. 북받쳐 오르는 온갖 감정의 웅어리가 산산조각이 나는 환희를 등대에서 느꼈다. 난생 처음이었다. 푸른 하늘과 맞닿은 파란 바다, 흰 방파제 위에 빨간 등대. 우뚝 솟아 있던 등대를 잊을 수 없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선명해졌다.

나는 서른에 유난히 큰 의미를 뒀다. 꿈꾸던 모든 이상향을 서른이란 나이에 묶어 버렸다. 남들이 우러러보는 멋진 직장에서 활개를 치며 일하는 서른, TV드라마에 나오는 능력 있는 여성처럼 화려한 옷차림을 한 서른, 우아한 결혼식의 주인공 서른, 내가 그린 서른의 허상이었다. 서른이 되면 권위와 명성이 있는 사회적 지위가 떡 하니 따라올 것이란 이상한 확신이 있었다. 동화 속 신데렐라가 왕자를 만나 하루아침에 현실을 바꿔 타 듯 서른이란 나이가 내게는 왕자나 다름없었다. 꽃내기 바람대로 세상만사를 주물럭거릴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막상 내가 헤쳐 나가야 할 진짜 세계는 판이하게 달랐다. TV드라마가 아니었다. 동화와는 거리가 멀었다. 누구나 알 만한 직장에 들어가고자 3년을 노력했으나 허사였다. 100여 통의 이력서를 내밀고 면접 준비에 열을 올렸지만 성과는 별 볼일 없었다. 서른 살의 나는 여의도에 있는 조그마한 회사에서 잡다한 일을 하는 여직원에게 불과했다. 정직원이 달랑 두 명뿐인 남들에게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구구절절 설명해야 하는 그런 곳이었다. 현실을 직시하자 뭣도 모르던 시절 올랐던 드높은 꿈의 사다리

에서 바닥으로 내팽개쳐진 심정이었다. 당시 나는 '실패자'라는 낙인을 스스로에게 찍었다. 나만의 편협한 기준이 가져온 결과였다. 수년 간 겹겹으로 쌓인 분노와 허망과 괴로움은 서른이 되던 해를 기점으로 폭발하기 시작했다. 실패자라는 비관은 불면증, 위장장애 같은 신경증으로 나타났다. 그해 친구와 떠난 바다 여행에서 등대에 홀로 남겨지지 않았다면 부정의 구렁텅이에서 아주 오랫동안 헤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때 나는 철저히 혼자였다. 일행은 회사에서 급한 호출을 받고 서울행 버스를 먼저 탔다. 어제 친구와 가자고 약속했던 숙소 근처 등대에 덩그러니 서 있었다. 그곳에는 나와 등대밖에 없었다. 등대를 향해 뻗어 있는 길을 한 발자국씩 걸을 때마다 바다가 방파제에 부딪쳐 철썩었다. 파도가 나올대는 이 순간, 적막이 등대 주변을 울렸다. 등대에 다가갈수록 조용한 성질의 기운들이 강하게 몰려왔다. 도시에 살면서 이토록 온전히 혼자인 때가 있었나? 사람들 틈에서 복작이기 바빴지 이만큼 묵직한 고요와 직면했던 적이 있었나? 등대는 말하고 있었다. 너는 지금 세상과 단절되는 특별한 땅에 들어왔다고 귀에 대고 속삭였다. 고립이 주는 성찰의 시간을 선물해 주겠노라고 선심을 쓰듯 얘기했다. 잠자는 시간 빼고는 끊임없이 해야 할 일들과 성취하고 싶은 것들을 되새기기 바빴다. 5분이라도 빈틈이 생기면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다. 내 생활은 그랬다. 등대의 통 큰 선물도 어쩐지 생소했다. 남녀가 처음 만난 자리처럼 몸 둘 바를 몰랐다. 어색한 침묵을 깨려고 휴대 전화를 꺼냈다. 당황스러웠다. 숙소에서 휴대 전화를 충전했는데도 전원이 켜지지 않았다.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오직 등대 옆에서 바다만 바라볼 뿐이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넓고 푸른 바다와 나를 괴롭히던 생각들이 하나 둘 겹쳤다. 지난날의 기억들이 무질서하게 뒹뒹 떠올랐다. 재미있는 영화를 보는 관객처럼 장면마다 집중하고 몰입했다. 내려와라…… 내려와라…… 등대에서 마주한 과거들이 하나같이 내게 말했다. 성공하려는 욕심과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에 대한 집착을 이제 내려놓으라고 외쳤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과거의 파편들이 저마다의 색으로 바다에 녹아 내렸다. 어떤 نوم은 검은빛을 띠고 어떤 نوم은 연한 하늘빛



을 갖고 바다에 섞였다. 녀석들이 깊은 바다로 존재를 감추자 상쾌한 바람이 불었다. 콧바람이 시원했다. 저절로 웃음이 나왔다. 방금까지 무거웠던 배낭이 가벼웠다. 아마 기분 탓이리라. 경쾌한 걸음걸이가 모든 걸 말해 주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에서도 등대가 쫓던 기쁨의 여운이 남아 있었다. 버스가 출발하고 차창 밖 풍경이 날아들자 그제야 의문이 들었다. 어쩌서 등대였을까? 왜 일상에서는 털어버리지 못했을까? 갑자기 휴대 전화가 울렸다. 어느 틈에 전원이 켜져 있었다. 메신저에서 잡다한 이야기를 쏟아 냈다. 채팅에 참여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수다가 끝나자 무의식적으로 인터넷 뉴스를 검색하고 업무 메일까지 확인했다. 고민과 생각의 시간은 그새 자리를 잃고 말았다. 버스가 휴게소에서 멈추자 아차 싶었다. 그래! 이거구나! 등대에서 번민이 사라진 이유가 여기 있었다. 일상은 사색의 터가 아니었다. 자신과의 대화가 힘든 삶이 우리의 일상이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에서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를 소화하랴 일하랴 쉴 새 없이 돌아갔다.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마음에서 전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여유 따위는 없었다. 등대는 우리의 삶과는 정반대였다. 다른 세상이었다. 해변에서도 산 정상에서도 이렇게까지 고립되진 않았다. 단절은 적막을 낳았다. 적막은 성찰을 불러왔다. 성찰은 깨달음을 선사했다. 고요가 만드는 마음의 울림을 탄생시키는 공간, 등대의 천성이었다. 현실과 동떨어져 외로이 서 있기에 생겨 난 등대의 성격이었다.

인생의 냉혹함에 갈 길을 잃었다면, 그대 등대로 오라.

좌절의 늪에서 허우적댄다면, 그대 등대로 오라.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등대에 와서야 비로소 케케묵은 허물을 벗어 던졌다. 등대에서 가벼워졌고 일말의 희망을 보았다. 청명한 하늘과 맞닿은 푸른 바다 그 중간에 듅적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등대. 내가 느꼈던 내면의 즐거움을 다른 사람들도 등대에서 얻었으면…… 등대의 기운이 바닷바람을 타고 훨훨 날아갔으면…… 누군가의 삶에 새 지평을 열어 주었으면……등대에 머무는 고요를 떠올리며 간절히 기도한다.

## 나의 등대

\*제2회 등대문학상 작자 / 수필  
이 서 (경북 포항시)



조약돌에 씻기는 파도의 무릎이 빛난다. 새까만 눈 동그랗게 뜨고, 텅 빈 하늘로 날아갈 자세를 취하는 물새들이 종종거린다. 해안선으로 밀려드는 물비늘에 나는 젖어간다. 희끗희끗한 봄눈이 내린다. 마른 풀도 풀벌레 소리도 없는 봄 바다의 적막을 쓸고 지나가는 바람이 나를 핏는다. 내 발자국을 지우고 있는 눈발들의 발 뒤꿈치가 드문드문 녹아내리고 있다. 나는 초병이다. 앞서 걸어간 발자국을 좇아 걷는다. 소나무와 바위, 철조망 그리고 통통해……가까운 데는 침침하고 어중간한 곳은 어슬어슬하고, 발소리가 잠기는 곳은 어둑어둑하다. 바다는 어스름으로 빛나면서 물비늘을 벗는 걸까, 초소까지의 어두운 길은 파도소리에 잠겨있다. 가장 먼저 캄캄해지는 곳부터 등대의 빛이 스미기 시작한다.

오늘도 등대의 불빛이 흐른다. 여기로 와서 저기로 흘러간다. 멀고 가까운 곳, 하늘빛과 물빛이 서로 안부를 묻고 지내는 수평선까지 흘러간다. 나는 귀를 열고 아까부터 등대의 불빛에 젖어 반짝이는 것들이 움직이는 소리를 듣는다. 몸을 낮추어 바다냄새를 맡는다. 나는 앞이 지는 쪽으로 돌아서서 파도가 떠미는 것들을 생각한다. 하얀 부표들, 그물 조각들, 작은 병들, 오리발 갈퀴, 멀리 가지 못하는 모래 발자국, 그런 것들이 떠밀려서 저녁 속에 머문다.

등대의 불빛도 파도를 신고 흘러서, 저 먼 곳으로 밀려나간다고 생각한다. 파도가 등대의 신발이다. 그 신발은 하나의 음표 같다. 음표는 피를 이루어 아주 먼 곳으로 흘러가서 하나의 음악이 되는지도 모른다.



등대 불빛이 퍼져가는 저녁이 나는 좋았다. 겁이 많고 무른 나는, 등대의 불빛이 따듯하였다. 나의 두려움을 쓸고, 어둠을 쓸고, 그리워하는 것들마저 쓸고 저무는 저녁이 마냥 좋았다. 그건 등대의 불빛이 나의 그림자가 되어준 까닭이다. 누군가를 지켜준다는 것은 큰 힘이다. 초소에서 저 포구를 바라본다. 마지막 내항선이 포구로 들어선다. 그곳에 낯선 이방인이 바다 저편 하늘을 쳐다보고 있다. 바다는 반짝이며 흐르고, 갈 곳이 없는 이방인은 바다에 대고 목 잠겨서 침묵을 부르고 있을까, 나는 그 침묵의 바다에 젖고 있다. 자갈돌 흐르는 여울 바닥이 밤인데도 환하게 보인다. 저 거울을 통해, 추억의 물결무늬를 꺼내본다.

등대의 불빛이 흐를수록 밤은 계속 깊어진다. 눈발 날리는 소리도 깊어진다. 그러나 등대와 함께라면 거울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를 꺼내보는 시간은 짧다고 생각한다. 한때 나의 등대라고 생각한 것들이 있다. 바로 아버지와 책이었다.

원래 나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책보다 낚시와 산과 바다를 좋아하였다. 그러나 인문고를 갈 것인가, 실업고를 갈 것인가를 고민했던 날부터 나는 나를 믿지 못했다. 성적도 그렇거니와, 나는 그냥 농사짓는 집이 싫었고 고집 센 황소 같은 아버지와 더 멀리 떨어질 수 있는 학교를 선택했다. 그렇게 외부지역에서 학교생활을 하였다.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나는 책보다 운동을 더 좋아하였다. 고등학교 이학년 처서(處暑)였을 것이다. 아버지가 논에 농약을 치다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버지와 함께 목욕탕을 가본 적이 없는 나는, 그때 병원에서 처음으로 아버지의 몸을 보았다. 흉측한 상처가 웃고 있었다. 옆구리 뼈를 도려낸 자리가 어떻게 문드러졌는지, 폐허 같았다. 그냥 말없이 산소 호흡기를 낀 아버지 옆에서 나는 여름밤을 달래는 풀벌레였다. 울고 싶었지만 그냥 울 수 없는 풀벌레였다. 그런 와중에 창밖에서 나 대신 울고 있는 귀뚜라미들이 있어 그날 밤엔 같이 뜬 눈으로 밤을 보낼 수 있었다.

아버지가 깨어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간 날부터 나는 집에 주말마다 들렀다. 아버지가 가꾸는 들녘에서 말없이 일손을 도우면서 일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 또 한 아버지는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땅이 한권의 책이라고, 그 책속에서 문장과 문장을 잇는 산문가(散文家)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밭고랑에 쓰여진 가장 아름다운

문장, 흙의 자식만이 엿볼 수 있는 금서라고 했다. 나의 등대가 즐겨보던 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땅, 그것이 최초의 책이었던 것이다. 나는 그때부터 자연이란 책을 읽으며, 나의 기원을 봄눈처럼 아름다운 구절로 가득 찬 시집을 만들고 싶었다. 그리하여 나는 어둡하게 들숨과 날숨을 죽이고 먹먹하게 주름살 깊어지는 아버지가 어느새 어두워지는 것을 자주 목격하였다.

이제 아버지의 몸에선 물소리가 적적해지고, 해와 달이 산모퉁이를 돌아 산그림자 내려온 마을로 돌아가는 소리를 엿듣곤 하였다. 아버지의 몸엔 숲과 골짜기가 숨어 있었고 그 속에서 내가 통째로 아주 잠겨가고 있는 게 좋았다.

하루를 살아간다는 생각이 발자국처럼 깊어진다는 거, 깊어진 사람은 저마다 자신만의 등대가 있다는 거, 등대는 진종일 몸 안으로 파도의 꿈을 쟁이며, 뺨와 살과 틈이 하얗도록 씻기고 있다는 거다. 지금은 날이 빠르게 저문다. 어스름이 내리는 저녁을 한참 지났다. 파도에 닿아 저무는 것들과 그 파도에 그림자를 적시는 것들이 유난히 빛난다. 어둠에게 몸을 내어주는 것들이 몸을 누일 자리를 찾고 있다.

저 포구 아래서 누군가 육십 축짜리 등을 켜 내건다. 등대는 날벌레들이 잔 날 갯짓으로 비벼대던 하늘마저 비칠 수 있다는 거, 귓속 감감한 저녁을, 걸어가면서 몇 번이나 더딘 발걸음으로 나의 두려움을 쓸어줬다는 거, 새벽에는 별자리가 내려와 물에 떠 흘러가고 있을 때, 등대는 고작 한두 마디로 걱정스레 두런거리는 별똥별을 염려한다는 거, 그러나 말없이 온몸이 푸르러지도록 해와 달을 꺾아놓고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내 안으로 물결쳐온다.

그때 나는 등대의 불빛이 또 멀리서 오는구나 생각한다. 거기 어디서 발뒤꿈치 꼬는 소리가 들린다. 잠깐 겨누는 자세를 멈춘다. 등대의 불빛을 응시하면, 멀리 떨어져있는 것들이 가깝게 있다고 느껴진다. 파도는 먼 길을 흘러와 잠깐 포구에 닿는다. 그리고 더 멀리 흘러가는 것들을 본다. 봄눈의 발이 젖고, 무릎이 빛나고, 나는 여러 날을 서서 봄눈 내리는 밤을 바라본다. 그때마다 멀리서 흐르는 물빛이 반짝였다. 저만치 등대가 켜는 물소리로 옷을 짓고 있는 해녀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아마 수평선 어디쯤에 그런 마을이 있을 거다.

나는 아버지란 책을 읽듯이 등대의 불빛은 어디까지 흘러가고, 왜 먼 곳을 바라보는가를 생각한다. 등대의 불빛이 조용히 흐르고 나는 느리게 먼 바다를 응시하는 밤이다. 참 멀고도 오래 걸리는 등대 켜지는 시간, 나는 물빛 사이를 흘러서 나를 적시는 등대를, 초병의 아버지라고 생각한다. 등대의 불빛에 세상의 아버지들이 비친다.

저 바다를, 간절하게 바라보는 며칠이 그렇게 지나간다. 초병생활이 지나간다. 봄눈 내리고, 눈발에 어둠도 묻고, 그리고 눈발 잠시 그친 하늘에 별들 돋고, 별들 돋는 바다에 아버지가 떠 있고, 혼자, 길게 그리고 나는 다시 총구를 겨누고, 사람이 없는, 깊은 밤을 보낸다. 오늘은 내가 가늠디가늠게 길을 가는 어느 누군가의 등대가 된다. 어둠이 풀풀 풀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 뱃길의 집

\*제2회 등대문학상 가작 / 수필  
하요아 (경북 칠곡군)



등대하면 생각나는 곳이 있다. 스코틀랜드 동부 연안 북동쪽 바다에 있는 '벨록 등대'다. 바다에 잠겨 있는 암초 위에 세워진 이 석조 등대는 가히 산업사회의 기적이라고 불릴 만하다. 밀물 때면 바다 아래로 사라지는 20시간 동안 이 암초는, 그전까지 수많은 배를 침몰시켰다.

하지만 스티븐슨의 무모한 도전이 성공하여 바다 위의 피난처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24개의 등불을 지닌 30미터 높이의 등대에서 주위를 둘러싼 망망대해를 본다면 어떤 기분일까? 일부 반사갓에 적색 유리를 대어 적색과 백색 빛을 교대로 내는 이 등불을 봤을 때 뱃사람은 어떤 기분이었을까?

바다는 따뜻한 모성을 지니기도 했지만 동시에 엄한 부성을 내보이기도 한다. 특히나 밤의 바다란 참 냉엄하다. 안개까지 끼 있다면 더 그렇다. 폭풍우까지 치는 성난 바다라면 그 어떤 신기의 발명품도 한낱 지푸라기도 되지 않을 성 싶다.

허나,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에 등을 기대고 갑판을 밟고 있는 발밑에서 넘실거리는 바닷물의 짙 내음 속에 서 있다 보면 가느다랗다가 일순 강렬해지는 광명을 볼 수 있다. 그것은 바다의 신기루다. 손짓하는 그 빛을 따라가면 어느새 육지가 나온다. 언제나 홀로 우뚝 서서 바다를 내다보고 있는 등대다.

등대는 환상을 준다. 고독을 먹고 자라는 한 송이의 들꽃 같다. 화려한 빛깔은 없으며 찬란한 향기도 뿜어내지 않는다. 하지만 날개를 잃은 꿀벌도 불러들이는 묘한 힘이 있다. 꿀벌이란 길을 헤매는 배다. 등대란 그런 꽃이다.



나는 어릴 적부터 무작정 등대지기가 되고 싶었다. 홀로 고요한 등대 안에 앉아서 나만의 공상에 빠지고 싶었다. 원체 말수가 없거니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어려워하는 천성적인 기질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새벽녘 검푸른 수평선의 고요한 적막감을 맞이하는 게 좋은 것이다.

밤도 좋다. 겨울의 등대에서 밤을 새우는 것을 한 번씩 상상해 본다. 도시의 소음도 풀벌레의 울음소리도 없는 곳에서 잔잔하거나 혹은 거친 파도 소리가 들린다. 검은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 가끔 눈도 내린다. 내리퍼붓는 빗속에서 등대 불빛이 어둠을 가로지른다. 광활한 바다를 비춘다. 평온한 공기 속에서 유독 한 번 긴장이 되는 순간, 그건 바다에 잠겨 있는 배를 발견했을 때일 것이다. 나는 그런 길잡이고 싶었다.

‘등대’라는 단어를 들을 때면 뜻 모를 메아리가 가슴 안에서 친다. 먼지 더미 속에서 우연히 발견한 오래되고 추억이 찍힌 옛 서적을 발견한 느낌이다. 영덕에서 만난 ‘창포말 등대’가 내가 태어나 처음 보는 등대였다. 지인들과 어울려 찾은 경북 영덕. 1월의 바다란 생각보다 훨씬 추웠다. 색바랜 패딩 점퍼를 끌어안으며 난생처음 마주한 등대를 올려다보았다.

‘이게 등대인가?’ 하는 별스런 생각을 하던 것도 잠시 사람들이 향하는 방향으로 발길을 옮겼다. 등대 위로 이어진 나선형 계단을 따라 올라간, 거대한 집계발로 장식되어 있는 자그마한 등대 속은 비좁았다. 등대 위에서 내려다보자 모든 게 작아 보였다. 갑자기 웃음이 나왔다. 주춤주춤 서서는 동행한 사촌 형님에게 주위를 살펴보게 했다. 여기가 바로 등대였다. 앞으로 넓게 뻗어 나가다가 결국 하늘과 하나가 되는 바다를 보고 있자니 시린 바닷바람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다.

생각보다 바다 내음은 크게 나지 않았다. 모래톱처럼 구불구불한 바닷물에는 하얀 구름이 어질러져 있었다. 그걸 보다가 순간 상상해 보았다. 등대에서 쏘아져 나간 환한 조명등이 바닷길 위를 날아가는 광경을 말이다. 평소 높은 곳을 무서워하는 나이지만, 나도 모르게 난간 가까이 가게 된다. 그러면 실제로 보이는 것 같다. 등대 불을 따라 올라오는 배들이. 마치 형광등 불빛에 이끌려온 길 잃고 지친 나방 떼들처럼 보인다.

가만 생각해 보았다. 등대지기의 삶은 어떨까. 등대에서의 고독이란 진정 어떤 맛일까. 인간의 연대에서 벗어나 저기 하늘을 배회하는 갈매기들과 등대에서 더부살이를 하면 정말 어떨까 하고, 아마 많이 외로울 것이다. 한없이 바다만을 바라보는 등대가 그러하듯이 말이다. 과연 등대는 무엇을 그리도 기다리는 것일까. 배인가?

뭐 때문에 그리 화가 났는지 연신 사납게 쳐대는 파도. 해안까지 밀려들어와서는 하얀 거품만 족적처럼 남기고 물러가는 파도를 눈으로 좇다 문득 해가 수평선 위에 걸려 있는 게 보였다. 영덕 바다의 일출은 꽤 멋있었다. 단풍잎처럼 물든 수면 위로 조금씩 조금씩 떠오르는 1월의 태양이 찬란토록 빛난다. 빙글빙글 공회전하다 딱 내 눈에 들어온 등대의 전등 같다. 태양은 분명 이글이글 타오르지만 나는 출기만 하다.

나는 저 태양처럼 수평선 위로 솟아 오른 등대를 상상해 보았다. 하늘로 올라간 해는 그 항로를 따라 점점 산 너머로 기울어진다. 그렇게 바다의 하루도 지나간다. 하늘을 꼬박 돈 해는 다시 수평선 위로 떠오른다. 먼 하늘의 별자리처럼 또다시 등대가 반짝이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 나 같은 이의 정치 없는 표류가 없도록 해 준다.

등대의 영어명은 ‘Lighthouse’다. 우리말 그대로 단순히 풀어 보면 ‘빛 가옥’이다. 빛은 우리에겐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존재다. 빛의 반사가 없었다면 우리는 앞도 보지 못한다. 손바닥 아래도 내다볼 수 없는 밤의 바다에서는 더욱 절실한 존재가 빛이다. 오래전부터 뱃사람들의 방위가 되어 주었던 소중한 별들의 모임이 이 석조 건축물 안에 들어가 있다. 하나의 따뜻한 보금자리로써.



## 무산(霧散)소리

\* 제2회 등대문학상 가작 / 수필  
황 숙 이 (경북 경산시)



깊은 바다를 뚫고 힘차게 솟아오르는 해를 보고 싶었다. 대왕암공원으로 들어 서니 엇비슷한 수목화가 끝없이 펼쳐진다. 아름드리 해송과 자옥한 안개가 오묘한 흑백의 조화다. 뻑뻑한 솔숲 사이로 희미하게 드러난 산책로를 따라 걷는다.

지병을 앓고 있는 큰 시숙과 길을 나섰다. 가족의 정성에도 불구하고 몸피는 점점 줄어들고 강했던 의지 또한 사위어 갔다. 그런 시숙을 위해 남편은 시간을 쪼개어 함께 하기를 애썼다. 하얗게 서리 내린 머리 위로 안개가 덧칠한다. 느린 걸음에도 숨을 가쁘게 몰아쉰다.

“부~웅, 부~웅.”

갑자기 높은 곳에서 귀청이 터질 듯한 경적이 울렸다. 어젯밤 마지막 고깃배를 마중하고 늦잠에 취해 있는 바다와 숲을 깨운다. 우리는 놀라서 걸음을 멈추고 귀를 막았다. 이 소리가 바로 안개로 인해 등대 불빛이 퍼져나가지 못할 때 울려 준다는 무산(霧散)소리 인가보다. 오늘같이 해무가 짙은 날, 바다를 누비는 선박들의 길라잡이 역할을 톡톡히 해 줄 터이니 생명의 소리, 구원의 소리가 아니런가.

아버지는 예비사위가 부모도 안 계시고 모아둔 재산도 없다는 이유로 결혼을 꺼렸다. 남편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상견례 하는 날이었다. 시숙은 비록 넉넉지 않

은 살림이지만 동생 부부를 자식처럼 품으며 살겠다고 약속했다. 한 달 후, 불혹을 갓 넘긴 젊은 나이에 혼주가 되었다. 그때 언뜻 보았던 시숙의 눈물 의미를 알지 못했다.

시숙이 막내아우의 신혼 방을 마련해 주었다. 조각배에 돛을 올리고 망망대해로 떠나는 동생을 위해 무시로 사이렌을 울렸다. 결혼한 이듬해 첫아들이 태어났다. 발등에 오줌 심다는 망중 무렵이다. 보리추수와 모내기로 눈코 뜰 사이 없는 친정엄마에게 산후 뒷바라지해 달라는 말이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엄마는 당연히 당신 일이라 여겼다. 퇴원하는 날, 친정으로 가려는데 시숙이 손사래를 치며 쓰던 큰방을 흔쾌히 내주었다. 손에 산모 미역까지 들고 있을 줄이야.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인생길 아니던가. 저 멀리서 누군가가 호야 등이라도 밝혀 준다면 조금은 수월하게 걸어갈 수 있으리라. 시숙은 꿈꿨던 우리 부부의 닳을 풀어 험한 바다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던 무산소리였다. 지금이야 온전치 못한 소리를 내고 있지만, 우리가 결혼할 당시에는 수평선 너머까지 뻗어 나갈 울림이었다.

해무는 쉬이 걷히지 않았다. 등대가 또 크게 울어댄다. 5초의 취명에 음달거리가 3마일이다. 보이지 않는 안개 바다에서도 질곡의 삶은 계속된다. 해녀는 숨비소리를 내며 자맥질을 하고 어부들은 만선을 꿈꾸며 그물을 던진다. 우렁찬 등대소리에 바다 위 사람이나 물사람이나 힘을 얻기는 마찬가지다.

우리 부부에게도 뿌연 안갯속에서 헤매었을 때가 있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 매달 착실히 통장을 살찌웠다. 임신 막달까지 억척스럽게 일을 하면서도 힘든 줄 몰랐다. 남편이 형제처럼 지내던 지인에게 보증을 서 준 것이 화근이었다. 전혀 모르고 있던 나로서는 둔기로 머리를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그 많은 액수에 말 한마디 없이 도장을 찍을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급기야 은행에서 마지막 독촉장이 날아왔다. 남편이 그렇게 소원할 수가 없었다. 조금만 더 모으면 그림 같은 집은 아니더라도 코딱지만 한 아파트는 장만할 수 있는데, 한순간에 꿈이 날아간 것 같아 부아가 치밀었다. 고함이 담장 밖으로 흐르는 날이 술했다. 남편과 흔들리기 시작했다.

시숙은 우리 집과 지척에 살면서 약속대로 수시로 정을 나누었다. 우리가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어떻게 읽었을까. 갑자기 집으로 오더기 자초지종을 캐물었다. 평상시에도 나를 제수씨로 생각하지 않고 여동생처럼 아끼고 챙기던 시숙이다. 남편의 실수를 꾸짖으며 해결책을 찾았다.

성난 파도 같았던 마음을 달래준 건 시숙과 동서였다. 세상살이에 무른 막내를 위해 노심초사했다.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결단력과 추진력이 강한 시숙이 나서서 어느 정도 수습해 주었다. 또한, 시숙의 경제적 도움으로 내 집 마련의 꿈도 이루었다. 갈팡질팡했던 배가 침몰하지 않고 다시 항로로 순항한다. 눈앞이 캄캄할 때는 늘 시숙의 등대가 든든하게 올려주었다.

해풍이 분다. 서서히 안개가 물러나니 하얀 등대가 우뚝 서 있다. 시숙의 젊었을 때 모습과 흡사하다. 울울창창한 송림들과 어우러지니 멋진 풍경이다. 기묘한 바위들이 줄지어 있는 해안가에 돛자리를 펴고 앉았다. 고깃배 한 척이 보인다. 늙수그레한 부부가 그물을 당긴다. 낮은 파도가 그들을 춤추게 한다.

울기 등대는 우리나라 동해안 최초의 등대이다. 일본이 1906년에 군사적 목적으로 지었다고 한다. 구 등탑이 주위 소나무의 성장으로 등대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24M의 새로운 등탑을 건설했다. 구한말 시대의 건축양식으로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는 구 등탑에 비해 신 등탑은 촛대 모양으로 조형미가 뛰어나다는 평이다.

우리 부부의 등대 소리가 멈춘 지 어느덧 4년이 흘렀다. 아직도 내 남은 손전 화기에는 시숙이 살아 계신다. 지울 수가 없다. 요즘도 힘든 일이 있을 때나 특별한 날에는 문자를 썼다가 지우곤 한다. 시숙과 마지막 여행이 되어버린 울기 등대의 무산소리가 오늘따라 더 그립다.





## 제2회 등대문학상 수상 작품집

---

발 행 일 : 2014년 12월 1일

발 행 인 :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정수철

발 행 처 : 울산지방해양항만청 해사안전시설과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84

전 화 : 052-228-5610~5615

홈페이지 : <http://ulsan.mof.go.kr>

---